



# MAXIM

KOREA

## LAUNDRY FANTASY **SPICA**

스피카 SPECIAL 나래 Ver.

### HOW TO

공부 안 하고 점수만 올리는 기술  
학교에선 당연히 안 가르쳐주지  
수능시험 필살신공 제1장

### MUSIC

욕 참 잘지게 잘하는 래퍼  
킹스윙스

희대의 살인마 7인의  
어록 분석

### MURDER AND TALK

'간호사가 되고 싶다  
바늘로 사람을 찌를 수 있느냐'

### FOR LADIES

하면서 대화하는 남자, 할 때만 명령하는 남자

### ONE NIGHT STAND

"지금까지 경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만  
결정적인 골 찬스에서 크로스바를 벗어나네요"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재, 혹시 당신 이야기인가?

2013년 11월호  
정가 5,900원

### PLAY BALL

맥심 한국판 독점  
NBA 스타 메타 월드 피스

## Go, Choo!

그를 연호하는 함성이 스타디움을  
뒤덮었다. 2014년의 추신수는  
1억 달러의 사나이가 될 것인가?

COMING UP!



### SCHOOL STYLE

고려대 VS. 연세대  
어느 쪽이 더 구리게 입나  
맥심고등학교  
옆트임(?) 가을 교복

### MISS MAXIM CONTEST

4강행 티켓을 거머쥔 2인의  
바니걸 코스프레 대결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 MAXIM

KOREA

## LAUNDRY FANTASY SPICA

스피카 SPECIAL 지원 Ver.

### HOW TO

공부 안 하고 점수만 올리는 기술  
학교에선 당연히 안 가르쳐주지  
수능시험 필살신공 제1장

### MUSIC

욕 참 잘지게 잘하는 래퍼  
킹 스윙스

### PLAY BALL

맥심 한국판 독점!  
NBA 스타 메타 월드 피스

### Go, Choo!

그를 연호하는 함성이 스타디움을  
뒤덮었다. 2014년의 추신수는  
1억 달러의 사나이가 될 것인가?

### FOR LADIES

하면서 대화하는 남자, 할 때만 명령하는 남자

### ONE NIGHT STAND

“지금까지 경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만  
결정적인 골 찬스에서 크로스바를 벗어나네요”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재, 혹시 당신 이야기인가?

2013년 11월호  
정가 5,900원

### SCHOOL STYLE

고려대 VS. 연세대  
어느 쪽이 더 구리게 입나  
맥심고등학교  
옆트임(?) 가을 교복

희대의 살인마 7인의  
어록 분석

### MURDER AND TALK

‘간호사가 되고 싶다  
바늘로 사람을  
찌를 수 있으니까’

COMING UP!

@Club eden  
2013.11.01.FRI  
**MAXIM  
Party**  
Sexy  
Halloween

### MISS MAXIM CONTEST

4강행 티켓을 거머쥔 2인의  
바니걸 코스프레 대결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 MAXIM

KOREA

## LAUNDRY FANTASY SPICA

스피카 SPECIAL 보아 Ver.



### PLAY BALL

맥심 한국판 독점  
NBA 스타 메타 월드 피스

## Go, Choo!

그를 연호하는 함성이 스타디움을  
뒤덮었다. 2014년의 추신수는  
1억 달러의 사나이가 될 것인가?

### FOR LADIES

하면서 대화하는 남자, 할 때만 명령하는 남자

### ONE NIGHT STAND

"지금까지 경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만  
결정적인 골 찬스에서 크로스바를 벗어나네요"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재, 혹시 당신 이야기인가?

### HOW TO

공부 안 하고 점수만 올리는 기출  
학교에선 당연히 안 가르쳐주지  
수능시험 팔살선공 제1장

### MISS MAXIM CONTEST

4강행 티켓을 거머쥔 2인의  
바니걸 코스프레 대결

COMING UP!

@Club eden  
2013.11.01.FRI  
**MAXIM  
Party**  
Sexy  
Halloween

희대의 살인마 7인의  
어록 분석

### MURDER AND TALK

'간혹사가 되고 싶다  
바늘로 사람을 찌를 수 있으니까'

### MUSIC

욕 참 잘지게 잘하는 래퍼  
킹 스위스

### SCHOOL STYLE

고려대 VS. 연세대  
어느 쪽이 더 구리게 입나  
맥심고등학교 옆트임(?) 가을 교복

2013년 11월호  
정가 5,900원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 MAXIM

KOREA

## LAUNDRY FANTASY **SPICA**

스피카 SPECIAL 보형 Ver.

COMING UP!

@Club eden  
2013.11.01.FRI  
**MAXIM**  
Party  
Sexy  
Halloween

### FOR LADIES

하면서 대화하는 남자, 할 때만 명령하는 남자

### ONE NIGHT STAND

"지금까지 경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만  
결정적인 골 찬스에서 크로스바를 벗어나네요"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재, 혹시 당신 이야기인가?

### SCHOOL STYLE

고려대 VS. 연세대  
어느 쪽이 더 구리게 입나  
맥심고등학교 옆트임(?) 가을 교복

2013년 11월호  
정가 5,900원

학대의 살인마 7인의  
어록 분석

### MURDER AND TALK

'간호사가 되고 싶다'  
바늘로 사랑을 짤 수 있는가?

### Go, Choo!

그를 연호하는 함성이 스타디움을  
뒤덮었다. 2014년의 추신수는  
1억 달러의 사나이로 될 것인가?

### MISS MAXIM CONTEST

4강행 티켓을 거머쥔 2인의  
바니걸 코스프레 대결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 MAXIM

KOREA

LAUNDRY FANTASY

## SPICA

스피카 SPECIAL 주현 Ver.

COMING UP!

@Club eden  
2013.11.01.FRI  
**MAXIM Party**  
Sexy Halloween

### FOR LADIES

하면서 대화하는 남자 할 때만 명령하는 남자

### ONE NIGHT STAND

"지금까지 경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만 결정적인 골 찬스에서 크로스바를 벗어나네요"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재, 혹시 당신 이야기인가?

### SCHOOL STYLE

고려대 VS. 연세대 어느 쪽이 더 구리게 입냐

맥심고등학교 옆트럼(?) 가을 교복

### Go, Choo!

그를 연호하는 함성이 스타디움을 뒤덮었다. 2014년의 추신수는 1억 달러의 사나이가 될 것인가?

### MISS MAXIM CONTEST

4강행 티켓을 거머쥔 2인의 바니걸 코스프레 대결

히대의 살인마 7인의 어록 분석

### MURDER AND TALK

간혹사가 되고 영화 반으로 사랑을 지을 수 있는가?

2013년 11월호  
정가 5,900원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eden

NOVEMBER EVENT 2013

V

LOCAL

INTERNATIONAL

NATIONALITY

USA & SEOUL, KOREA

GENRE

ELECTRONIC DANCE MUSIC

LABEL

ZIPPO / MAXIM KOREA

URL / WWW

WWW.EDEN-CLUB.CO.KR

OCCUPATION

PARTY EVENT PROMOTION TEAM

EVENT TITLE

ZIPPO NIGHT X THE MAXIM PARTY

# zippo<sup>®</sup> NIGHT

X

\*the

## MAXIM

### HALLOWEEN Party\*



# FRIDAY NOVEMBER 1ST 2013



eden

-RESIDENT DJs-  
ZIRO.AYA.E-YOU.HYLA.  
JUNCOCO.FFAN.BOOMERANG



-VIP RESERV-  
02.6447.0042 / 010.9970.1869

HOURS: WED-THU & SUN 9:30PM 수-목 & 일 9:30PM / FRI-SAT 9:30PM 금-토 9:30PM  
DRESS CODE: SEMI HALLOWEEN COSTUMES RECOMMENDED (PRIZES FOR BEST COSTUME). NO MINORS ALLOWED 미성년자 출입금지 / MUST BRING OWN ID 신분증  
필히 지참. MORE INFO: 02 6447 0042 / RESERVATIONS: 010 9970 1869  
RESIDENT DJs: ZIRO, E-YOU, AYA, HYLA, JUNCOCO, FFAN / VJs: DIZI, SONA  
WWW.EDEN-CLUB.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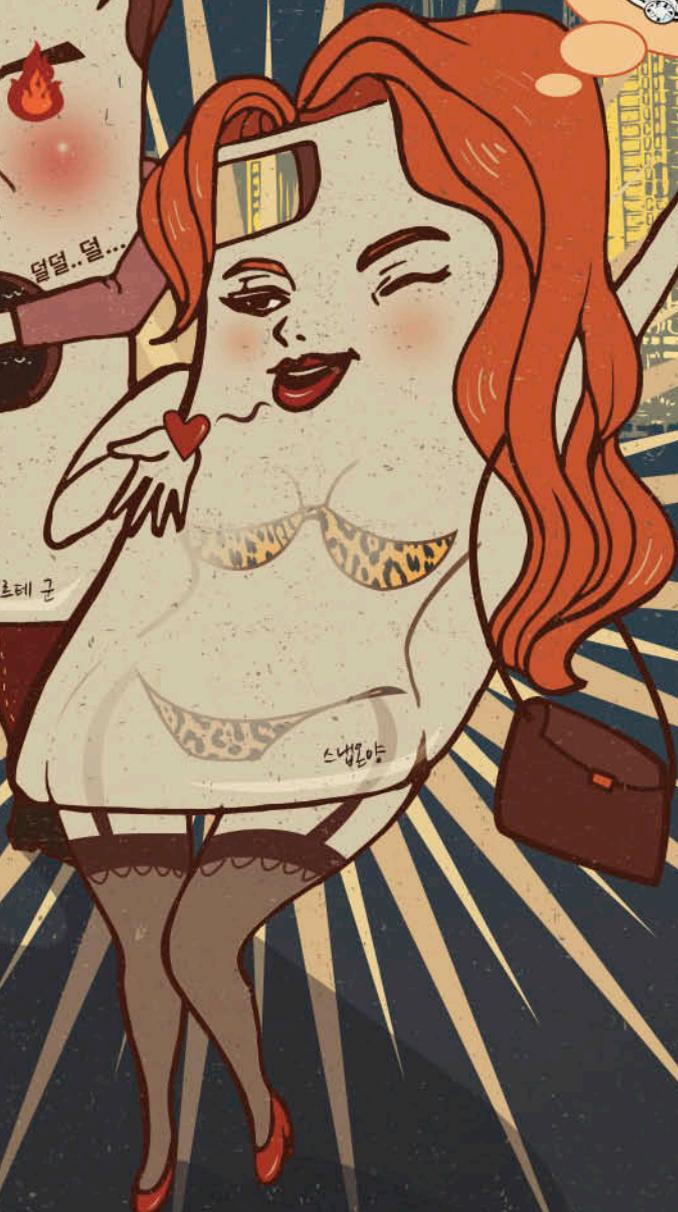
eden zippo<sup>®</sup> SMG MAXIM Party



널 위해 **2장** 짚이야!



아이딘 포르테 군



스냅온양



icover IDIN & IDIN FORTE & SNAP ON series



키스해링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된  
iPhone5C 케이스 시리즈!  
아이커버의 반투명 케이스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아이딘 포르테: 하드커버 + 스포츠실리콘, 카드2장 수납가능

www.icover.kr

Idin-forte ▶



# Contents

NOVEMBER / 2013



# 114

Cover  
스피카

실력과 그룹이라고 하기엔 너무 예쁘고  
비주얼 그룹이라고 하기엔  
가창력 최강인 아이돌 스피카  
그녀들의 발랄한 세탁실 화보가  
우리의 침침한 시야를 깨끗하게 세탁해준다.



HELL DIVER

1942 SB2C

TRIPLE TIME



HELLDIVER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 |                           |                           |                         |                               |
|---------------------------|---------------------------|-------------------------|-------------------------------|
|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09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490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 롯데센텀점(부산점) 051-730-3198       |
|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 헬로APM6F(동대문) 02-6388-2927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샤론주얼리(인왕점) 031-463-9788 | 70'CLOCK(인천점) 032-456-4280    |
|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 보석상자(인왕점) 031-466-1014  | 타임런(부평점) 070-7516-4545        |
|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 와와치(반포점) 02-537-8977      | 탐타임(안산점) 031-413-7656   | 백끼통(부천점) 032-662-0686         |
|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 TIME 21(강변점) 02-3424-7073 |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 복와치(청주점) 043-223-1333         |
|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 TIME 21(강변점) 02-3424-1210 | 티파니(일산점) 031-931-5300   | 타임봄(부산점) 070-7530-1219        |
| 이츠와치(명동점) 02-771-7033     | 테크노마트B1(신도림) 02-2111-1120 | 노블리(일산점) 031-961-6795   | 엘가시계(부산점) 070-7569-5766       |
|                           |                           |                         | 덕천시계(부산점) 051-333-8849        |
|                           |                           |                         | M B K TIME(부산점) 070-8200-2234 |
|                           |                           |                         | 교보문고(대구점) 053-256-1575        |
|                           |                           |                         |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
|                           |                           |                         | 엘가시계(대구점) 053-255-6940        |
|                           |                           |                         | 엘가시계(구미점) 054-451-6940        |
|                           |                           |                         | 더타임(진주점) 055-741-3072         |

# Contents



## 126

### Who's That Girl?

## 한규리

〈화성인 바이러스〉 2대 V걸  
한규리가 21세기 버전 큐티섹시  
핀업걸로 변신했다.  
주머니 좀 비워야겠다.  
넣고 다니게.

### Circus Maximus

- 20 파리의 분수대 위를 날아다니는 스님
- 22 몸으로 말하는 스샷 퀴즈  
아예니일까, 일반 애니일까?
- 24 숫자 10개로 풀어본 우주의 비밀
- 26 세계 최초 개인 인공위성 발사자  
송호준의 유언장
- 28 굿시니스트 카툰:  
열혈 애국 여전사 마리아

### How To

- 30 회사 자리에서 사랑 독차지 하는 법
- 32 오감자 김치 치즈 그리탕 만드는 법
- 34 진짜 썩본 사람이 알려주는  
개인 인공위성 쏘는 법
- 36 스모 선수 되는 법
- 37 그녀의 몸 살살이 만지는 마사지 비법
- 38 수능시험 고수의 길: 제1장

### Sport

- 44 추추 트레인, 추신수! 1억 달러의  
사나이가 될 수 있을까?

### Comment

- 46 병문안 스캔들 후 술술 풀리는 아이유
- 48 우리는 모두 성기의 노예대?  
본격 '자위 실현' 만화 〈셀프〉
- 50 구령이 같은 얼굴로 관객을 홀리는  
'연기의 신' 송강호

### Game

- 51 이달의 캐릭터: 〈영웅의 군단〉 라시타
- 52 이달의 병맛 게임:  
〈비키니 가라데 베이브즈2〉
- 53 쌀쌀한 날씨에 심장 박동 빨라지는  
모바일 좀비 게임 4선
- 54 게임 카툰: 〈GTA 5〉  
생활감이 너무 좋아서 위험한 그 게임

### Sex

- 56 원나잇 성공률 높이기 제2탄!  
술자리에서 침대로 직행하는 법
- 60 여성 독자를 위한 섹스 이야기.  
"섹스 파트너와의 적당한 거리는?"

### Motor

- 63 이달의 자동차: BMW 5 시리즈
- 64 This is My Car!  
디자이너 독자의 애마, 닷산 큐브
- 68 이달의 SUPER CAR:  
포르쉐를 능가하는 레트포 포르쉐
- 72 MAXIM 시승기: 크라이슬러 300C

### Smoke&Drink

- 78 간지나게 폭탄주 만드는 스킬 대공개



108



146

# SUPERSTARI

슈퍼스타아이

**365 on SALE**

하루 하루 바뀌는  
유행과 스타일에  
지친 남자들 에게  
언제나 파격적인 가격과  
퀄리티 높은 옷을 위한 공간

[www.superstari.co.kr](http://www.superstari.co.kr)

맥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10% 할인혜택

**643B-FC51-F40A-60E1**

슈퍼스타아이 홈페이지 방문 후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전상품 이용가능합니다.



# Contents



100

## Stuff

- 80 황금 사과로 돌아온 아이폰 5s 분석
- 82 꼬리가 없어 편리한 무선 마우스 8종
- 86 추억의 GEAR: 문지르면 강해진다! <바코드 게임기>
- 88 드림카를 소장하라! 다이캐스트의 세계
- 90 이달에 MAXIM이 지른 물건: 삼천리 바운스 자전거, Razer 키보드, 캐시퐁 스탬프, 베가 아이언

## Style

- 94 옷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코트 9선
- 96 캠퍼스 패션 대결 고연진

## Icon

- 100 한국판 독점 인터뷰! NBA 최강 괴짜 메타 월드 피스구 '론 아테스트'를 만났다.

## Maya Ford

- 104 메타 월드 피스 여친의 비키니 회보

## Maxim Report

- 108 에디터의 알바 체험기: 동물 인형 쓰고 귀엽 떠는 알바의 진실

## Killing Words

- 122 연쇄 살인범이 남긴 섬뜩한 어록

## Music

- 134 '컨트롤' 디스전 이후 말을 아끼던 스위스가 MAXIM을 만나 입을 열었다. "드루와, 다 드루와. 이 X발놈들아!"

## Miss Maxim Contest

- 138 4명으로 좁혀진 2013 MISS MAXIM 이현지와 박무비의 바니걸 대결

## B-Boys Battle

- 146 에디터의 일본 원정 취재기: BC One 비보잉 대회 아시아 태평양 결승

## From Maxim Australia

- 150 호주 MAXIM 2주년 기념 회보! 미녀 DJ 히바나 브라운의 란제리 폭격

## Fight

- 156 특집! 너희가 UFC의 20년을 아느냐!

## Military

- 160 간만에 현장 취재! 최고의 헬기 조종사를 뽑는 육군항공사격대회

## Party

- 164 MINI 진당대회: United Korea 2013
- 166 DJ 릴레이 인터뷰 #6: 디제이 코난
- 168 패션의 한 수: 흥대 클러버 편



64



138



134



68

#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http://www.konocorp.com) | [www.ingersoll.kr](http://www.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유티타임 [www.eurotime.kr](http://www.eurotime.kr)

[ 직 영 점 ] 롯데백화점 분당(031-738-2140) 롯데백화점 미아(02-944-2130) 대구백화점 프라자(053-253-7133) 하이힐(02-2136-9743)

제주중문면세점(064-780-7671)

[ 먼 세 점 ] 롯데백화점 본점(02-772-3908) / 노원(02-950-2164) / 잠실(02-2143-1922) / 영등포(02-2164-6191) / 건대 스타시티점(02-2218-3191) / 부평(032-452-2146) / 진주(063-289-3191) / 창원(055-279-3192) / 부산

본점(051-810-4087) 부산광복점(051-678-4191) / 신도림 디류브백화점(02-2211-0142) / AK PLAZA 구로(02-839-5128) / 수원(031-240-2199) / 대구 백화점(053-422-3191) / NC백화점 강서점(02-2667-9902)

해운대점(051-709-5741) / 뉴코아아울렛 강남점(02-535-1948) / 안산점(031-8085-1708) / 대전 세이백화점(042-257-7745) / 서울(02) 현대이마트 헤피타임(2012-0625) / 와와치 강남점(537-8977) / 원타임(2200-1355)

전진상사(764-4716) / 타임머신(6388-2927) / 타임21(34 24-7063) / 타임월드(3132-4108) / 패션존(3398-7527) / 프로워치(779-6964) / 경기(031) 시계상자(466-1014) / 사본주얼리(463-9788) / 유빈(658-6883) /

타임루트(487-9057) / 타임24(931-5500) / 타임플러스(371-6850) 경기(032) 대성(325-7467) / 타임스토리(613-0516) / 핑기름(662-0886) / 타임런(504-8245) / 카시오포유(502-7138) / 창주(043) 보보스워치(235-1510)

타임21(224-8851) 복워치(223-1333) / 광주(062) 타임엔타임(222-3114) / 대구(053) 광주나라(256-0975) / 골드&워치(424-4442) / 그리나치(255-6185) / 대백프라자(254-3977) / 레프(425-0157) /

스위스워치(593-4844) 신세계투스텍(566-3316) / 주얼리아(428-2688) / 헤피타임(428-3086) / 부산(051) 명성시계 광복(253-5315) / 명성 시계 남포(253-5334) / 명성시계 서면(667-7356) / 명성시계 신창(253-5354) /

월드타임(245-8359)



Bek & Bell



Butterfly on your wrist



벤키앤벨 | www.bekandbell.co.kr | 02.3397.7100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직영점] 롯데백화점 부당 (031-738-2140) /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하이원 (02-2136-9743)  
[판매처] 롯데백화점 잠실 (02-2143-1909) / 롯데백화점 부산광역시 (051-678-4191) / 뉴코아백화점 강남 (02-535-1948) / 대구백화점 (053-422-3191) / NC백화점 강서 (02-2667-9902) / 천진사 (02-746-0333) 경기 사진 주얼리 (031-463-9789)  
[연세집] 제주 중문면세점 (064-780-7671)



# MAXIM

www.maximkorea.net

## 편집장 이영비

### Editorial / 편집부

**편집 1팀**  
에디터 김희성 대리/ 팀장  
조용재 주임  
김세형 사원  
김소윤 사원

**편집 2팀**  
에디터 손안나 주임  
박정욱 사원

**편집 3팀**  
디자이너 서운정 주임/ 팀장  
김려은 인턴  
이상윤 인턴  
임지호 인턴

**편집 4팀**  
수석 에디터 유승민  
에디터 김진욱  
정재식 인턴  
뷰티 에디터 장해민 사원  
영상 에디터 김상수 인턴

**객원 에디터**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엑스포즈> 기자 김덕중  
<마이데일리> 스포츠팀 기자 강산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김대영  
카툰 작가 공시니스트  
카툰 작가 onesound  
칼럼니스트 덕사마  
변호사 Devil's Advocate

###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과

재무 회계 최인영 과장  
인사 장선영 주임  
유통 안재만 사원  
비서 정석영 인턴

### Marketing / 마케팅과

광고마케팅 김진욱 과장  
정재식 인턴  
박상준 인턴  
손 호 인턴

### Web & Mobile Service / 웹 모바일

토크엔 사정민 팀장, 남원규 팀장

### Photography / 사진

포토그래퍼 정기수 실장  
박 울 실장  
이진호 실장  
오준석

### 교열 산선경

### Circulation / 유통

송주출판유통 이용관 대표

### Printing / 인쇄 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성지서리 192-1 인쇄인 이재수

### MAXIM Korea 발행인 / CEO 유승민

### MAXIM Contact

독자 Q&A / 일반 문의 www.maximkorea.net 접속  
상단 BOARD 메뉴 ▶ Q&A 게시판 이용  
광고 문의 / 사업 제휴 partner@maximkorea.net  
TEL. 070-4010-8994  
joy@maximkorea.net  
경기 구독 / 대량 구매 TEL. 02-323-1182

MAXIM에 귀사의 브랜드 및 이벤트, 인물과 콘텐츠 등을 소개하고 싶으시면 편집부 대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취재 문의 및 화보, 협찬: press@maximkorea.net / 영화사, 공연 홍보: movie@maximkorea.net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6-0193  
2013년 11월호 통권 제43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 ALPHA MEDIA GROUP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PRESIDENT: Ben Madden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b>AUSTRALIA</b> Santi Pintado	<b>CZECH REPUBLIC</b> Jan Stepanek	<b>ITALY</b> Paolo Gelmi	<b>SOUTH KOREA</b> Young-Bee Lee	<b>UNITED KINGDOM</b> Alpha Media Group
<b>AUSTRIA</b> Boris Etter	<b>GERMANY</b> Boris Etter	<b>PORTUGAL</b>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b>SWITZERLAND</b> Boris Etter	<b>UNITED STATES</b> Dan Bova
<b>BULGARIA</b> Hristo Zapryanov	<b>INDIA</b> Vivek Pareek	<b>RUSSIA</b> Sasha Malenkov	<b>THAILAND</b> Surawong Krueafan	
	<b>INDONESIA</b> Ronald Adrian Hutagalung	<b>SERBIA</b> Dragan Otašević	<b>UKRAINE</b> Sasha Malenkov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3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ANTI-WRINKLE TREATMENT ESSENCE**  
Take care of men's wrinkled skin with this one drop!

[www.mdock.co.kr](http://www.mdock.co.kr)

**M-CARE MASSAGER**  
Wrinkle Care Total Solution



## Beyond Perfect Man's Skin!

Only Man's Cosmetic Brand

**RELIEF GIFT SET**  
Moisture/Special edition



**RELIEF FIRST PEELING GEL**  
Start with relief first peeling gel to remove dead skin cells of men's face.



**RELIEF TONIC**  
Feel the freshness with zero-stress relief tonic-



# 국내최초 남성전문 피부타입별 화장품 엠도씨



**RELIEF ESSENCE EMULSION**  
Rich moisturization of essence - no more oily skin with silky finish!



**RELIEF ESSENTIAL MASK**  
Amazing effect from botanical ingredients only for men

**RELIEF FOAM CLEANSING**  
Foam cleanser best suited for men's skin type - feel the freshness.



**MEN'S B.B CREAM**  
Present yourself with confidence by naturally covering widened pores and blemishes. (Triple function product)



맥시코리아 단독  
3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할인쿠폰  
2013년 11월 30일까지 사용

[www.mdockkorea.com](http://www.mdockkorea.com)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오른쪽 쿠폰번호를 입력하세요



**A0Y0-85F6-P2HB-OQI4**

에이엠와이엠 - 팔오에프육 - 피이에치비 - 오큐마사



# Letter From MAXIM

## 발할라의 재현

"북구 신화의 천국에 해당하는 발할라는 전투 중에 사망한 전사들의 혼이 발카리의 인도에 의해 안착하게 되는 바이킹의 이상향이다. 해일달이 경비를 서는 그곳에서는 매일 밤 연화가 이어지며 불멸의 신체를 가지고 부활한 바이킹 워리어들은 오딘과 토르가 지켜보는 앞에서 라그나로크가 올 때까지 영원한 전투의 향연을 벌인다. 조금 오버를 보태서 말하자면 UFC 166 경기는 지상으로 내려온 발할라였다." -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정말이지 이렇게 피가 철철 나는 경기는 오랜만이였다. 나도 참 변태 기질이 있는지, 눈썹이 찢어지고 살이 벌어지고 거기서 피가 콕콕 솟는 선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20일에 있던 UFC 166은 하나하나가 명경기였다. 나의 비명은 메인카드 3경기에서부터 터졌다. 길버트 멜란데즈와 디에고 산체스전 전 스트라이크 포스 챔피언다운 위용을 유감없이 발휘한 멜란데즈는 역시 강자였다. 하지만 해설진도, UFC 대표 데이나 화이트도 할 말을 잃게 만든 사람은 패자 산체스 쪽이었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맞고, 터지고, 찢어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계속 일어나 덤비고 마지막까지 화심의 공격을 시도해 보는 산체스의 투혼, 그의 '전사의 심장'은 무서울 정도로 집요했다.

하지만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헤비급 챔피언 케인 벨라스케즈와 전 챔피언 주니오르 도스 산토스의 3차전이었다. 서로 1승 1패씩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챔피언 벨트를 두고 다시 붙은 두 자구 최강의 사나이의 경기이니 팬들의 기대도 대단했다. 하지만 전략, 테크닉, 지구력, 심지어 그가 자랑하는 펀치에서조차 산토스는 벨라스케즈에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다. 산토스의 특징인 큰 펀치가 들어올 수 없도록 거리를 주지 않으면서 벨라스케즈는 산토스를 냉정하게, 끊임없이 압박하였다. 마치 야생 산짐승을 굴복시키려는 냉혹한 조련사처럼 그는 산토스의 모든 움직임을 좌절시켰고, 결국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5라운드 TKO승).

이 경기에서조차 나는 승자 벨라스케즈가 아닌 패자 산토스를 보고 있었다. 후반으로 갈수록 산토스는 거의 의식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팔꿈치와 팔은 산토스의 의식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듯 끝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아마 다른 선수라면 이미 포기했을 상황에서 그의 초인적인 맷집과 정신력은 빛을 발했다. 다른 어떤 스포츠에서도 볼 수 없는 처참하고 처절한 남자의 모습을 MMA는 가감없이 보여준다.

UFC가 20주년을 맞았다. 이젠 그 무대에서 한국인 파이터의 활약상을 보는 게 익숙하다. 얼마 전 승리한 김동현 선수, 슬슬 엔진에 불이 붙기 시작한 임현규 선수, 그리고 챔피언 '조제 알도'에게 석패한 정찬성 선수, 거기에 한국의 피가 흐르는 전 챔피언 벤 헨더슨까지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MAXIM 표지와 각종 인터뷰에서 만났던 이 파이터들의 승승장구가 그렇게 기쁠 수 없다. 거기에 최근 대단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토종' 종합격투기 대회 로드 FC 역시 나의 큰 즐거움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MMA를 비주류 스포츠라 말한다(사실 주류 스포츠 몇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비주류긴 하다). 비주류 중에도 MMA는 유난히 무식하고 잔인하다는 천대를 받아왔다. MAXIM은 그런 종합격투의 세계를 진지하게 다루는 거의 유일한 미디어였다(지금도 그렇고, 우리 여기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낀다).

MAXIM이 지향하는 남성성을 한 마디로 규정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전 세계 모든 MAXIM 편집부가 공통으로 그리는 그 모습의 밑바닥엔 날것의 '진짜 수컷'이 있다. 타협하거나 물렁해지지 않으며 좌절의 순간에도 끝까지 주먹을 내지르는 그런 남자의 모습 말이다. 그러니 MAXIM이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남성성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MMA를 다루는 일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이번 달엔 특별히 UFC의 20주년을 정리한 기사를 준비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파이터의 면면과 그들이 뒹구는 옥타곤 무대를 보면서, 독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강인하고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수컷다움이 팔팔 끓길 바란다.

동쪽 동쪽을 보자



2013년 11월 편집장

이영비





라이트 헤비급 빅매치

**UFC**

**벨포드 VS 헨더슨**

11월 10일 (일) 오전 8시 30분

수퍼액션 독점 생중계

**SUPER ACTION**

수퍼액션 공식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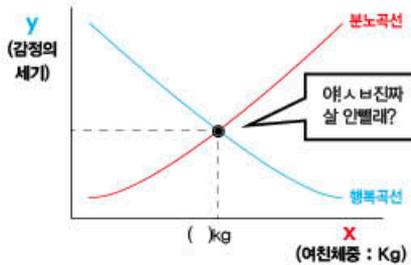
# Letters

죽어도 없이 갈팡질팡하는 환절기 날씨만큼이나  
정처 없이 방황하는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주매!

## 새빨간 거짓말

맥심의 왕 팬 김석희라고 하요. 얼마 전 해외에서 일을 6개월 정도 하고 국내로 돌아오니 여친이 너무 똥똥해져 있는게 아니겠소? 원래 솔직한 편이 아니라 "건강해 보여. 보기 좋네?"라는 정말 마음에도 없는 멘트를 날려버렸소. 여친은 살이 계속 쩌 기는데 "당장 살 좀 빼고 운동 해"라며 대놓고 말하기가 그렇소. 웬지 상처 받을 것 같고... 무슨 방법이 없겠소? <김석희, 이메일 사연>

**에디터 유승민** ● 살 빼라고 말했다가 차여서 그나마도 없게 될 바엔 동년친이라도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살이 너무 찌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지요. 그래프를 그려 보세요. 여친의 몸무게를 x축, 당신의 감정지수를 y축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친 몸무게에 따른 행복곡선과 분노곡선이 나오지요.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말할 타이밍입니다.



### 내 여친의 사생활

유동 쪽 일을 하는 20대 남성 독자입니다. 요즘 여자친구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해 고민입니다. 솔직히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저도 노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클럽에서 만나 연애를 하게 됐기 때문에 서로 쿨하게 각자의 취미 생활(?)은 존중하는 편이었는데, 점점 짜증이 나네요. 이제 와서 갑자기 구속하면 조잔해 보일 것 같고... 어쩌면 좋죠? <쿨한 남자, 이메일 사연>



### 개나 소나 사장이야

얼마 전 3년 동안 하던 장사를 접고 IT 회사 영업부에 입사했습니다. 다른 건 별 문제 없이 적응하고 있는데, 입에 붙어버린 말투는 고치기 힘드네요. 장사할 때 손님만 보면 무조건 "사장님" 하고 부르던 습관이 남아 있어 회사에서도 과정이건 부장이건 뒷사람만 보면 입에서 "사장님"이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만 좀 혼나고 싶어요. <장사치,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용재** ● 클럽을 폭파하세요. 아예 발미를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아는 형님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만난 여성분과 연애를 시작했는데, 하도 게임만 하는 여자친구가 싫어서 계정을 삭제해버렸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럴 능력이 없다면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좋습니다. "나 아는 형이 그러는데, 그 클럽에 돼지 발정제 파는 새끼들이 다닌대."

**에디터 김희성** ● 아아, 이걸 마지 연상인 구남친과 헤어지고 연하인 새남친을 사귀었는데 자꾸만 예전의 습관이 붙어 새 남친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 상황과 비슷한 경우로군요. 뿐만 아니라 동갑이든 연하든 관계없이 남자 사람만 보면 저도 모르게 "오빠"라고 부르고야 맙니다. 아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만 좀 혼나고 싶네요. 찹쌀 아랫!

### 궁금해요, MAXIM!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감수  
에디터 조용재

**Q.** 광고 제작 일을 하는 저는 하루에 세 잔씩 커피를 마십니다. 너무 많이 마시나 걱정도 되는데요. 커피를 자주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고 머리가 아픈 이유가 될까요? <요셉양, 이메일 사연>

**A.**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인 '트리메틸크산틴'이라는 화학 물질로, 인간의 중앙신경계를 자극하며 이노자교용을 돕지만 과다섭취시 심장근육을 시마게 자극해서 핏트스스사, 왜 이리저리 카페이 | 중독인가? 살려주 1에

## 이달의 빠친 사연

남친의 내연현장.jpg



안녕하세요? 저는 화양동 사는 25살 난 처녀랍니다. 살짝 빠친는 일이 있어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며칠 전 3년 된 남자 친구랑 카페에 갔는데, 글세 이놈이 거기 있던 MAXIM 9월호를 보느라 저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는 겁니다. 말을 시켜도 대답도 없고, 음료수가 나와도 먹지를 않아요. 짜증 나서 그냥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나만 바라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조언 구합니다. <질투의 화신,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용재** ● 상황을 바꿔 볼게요. 남자친구가 9월호 커버의 주인공 MISS MAXIM 영상미, 최혜연 양과 카페에 갔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밥 먹듯 보던 아주 친한 사이죠. 그런데 테이블 위에 놓인 잡지에 빨간색 비키니를 입은 독자님이 반쯤 찾아 아찔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면? 아마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남성의 사선이 비키니에 꽂히는 건 자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음부터 카페에 갈 때 비키니를 입어 보세요.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달의 QUICK 상담소!

**Q.** 술 먹고 깨보니 길바닥이었습니다. 폰이랑 지갑도 다 잃어버렸어요. 어쩌죠? <일일구, 이메일 사연>  
**A.** 요즘 같은 세상에 다행히 손가락이나 정기는 안 잃으셨나 봐요. 감사하며 사세요.

**Q.** 요즘 노는 것도 재미없어요. 뭐 신나는 일 없을까요? <디지털 익사이팅, 이메일 사연>  
**A.** 저는 마감만 끝나면 가전 제품 사용설명서를 읽어도 박장대소 할 것 같아요.



# REAL GYM, REAL PEOPLE, REAL RESULTS!

즐기면서 운동하는 REAL GYM,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REAL PEOPLE,  
전문 강사진과 맞춤 프로그램을 통한 REAL RESULTS!

Cover model Trainer Philip



일산점 031-932-7010 여의도점 02-782-1003 강남점 02-2052-0096 교대점 02-593-7766 논현점 02-543-5800  
광고점 031-211-2528 세종점 044-863-9682 울산점 052-281-1122 부산 연산점 051-758-5554



## 역대급 프리포즈

망원동 사는 30대 남성이요 2년 전 첫 직장에서 만난 두 살 연상의 여자 친구와 알콩달콩 사랑을

이어나가다,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소. 근데 이 여자가 웬만한 이벤트엔 별로 감동하지 않는 여장군 스타일이요. 전에 그녀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촛불 이벤트를 했는데, 집 홀랑 태워 먹을 일 있냐며 등짝 스매싱을 당했대요. 무뚝뚝한 그녀를 감동시킬 어마어마한 프리포즈를 선사하고 싶는데, 어떤 게 좋을지 같이 고민해 주시오.  
(결혼해줄래, 이메일 사연)

널 위해 준비했어



## 꿈과 함께 사라진 그녀

어젯밤 꿈에 MISS MAXIM 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뭔가를 말했어요. 벌떡 잠에서 깬는데, 황당하게도 무슨 내용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숫자였던 것 같은데, 혹시 로또 번호였으면 어찌죠. 상미 양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그랬다간 상미양이 '이건 또 웬 뉴타입의 광인인가' 하겠죠. 왜 잠에서 깨면 꿈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죠? 슬프네요. <월리엄, 이메일 사연>



시노자키 아이방 진짜 했더니깐요?



**편집장** 저도 방금 원고를 다 탈고 마감을 마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시발, 깨어났는데 일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꿈에서 쓴 가사는 전혀 기억에 없고... 꿈은 우리의 무의식 때문에 꾸게 됩니다. 그러니 의식이 깬 상태에서 우리는 꿈에 직접 '접속'하지 못하죠. 하지만 꿈을 꾸 후에도 기억에 남는 파편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마감 때마다 '결국 집지를 못 내는 꿈', '에디터들이 야반도주하는 꿈' 등을 꾸는 이유도 같은 거겠죠. 아침, 상미가 알려준 번호는 아마 이걸 겁니다. 02-323-1182(정기 구독 안내), 해해.



**에디터 손안나** 그녀가 등짝 스매싱을 날린 포인트는 독자님이 자취방에 '몰래'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혼자 사는 자취방은 조금 너저분하기 마련이죠. 저 같은도 스매싱이 아니라 이단 열차기를 시전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프리포즈를 선사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이벤트 같은 건 자취방에서 하지 마세요. 사실 여자들은 박신양의 '용기 내 볼래요' 같은 거한 이벤트보다는 산책하던 중 갑자기 반지를 꺼내는 반전 있는 프리포즈를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하질 못하네!

## 독자 사연 응모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사연이 실린 독자 모두에게 주는 이달의 독자 선물

보내기만 해, 아주 그냥 선물들을 딱딱 싸 줄 테니깐, 아, 참고로 랜덤 배송이다?

## For Men

**랩시리즈 멀티 액션 페이스 워시**  
부드러운 크림 타입의 클렌저로 건조한 날씨 탓에 부쩍 푸석해진 당신의 피부에 보약 한 첩 지어줘라! 순한 각질 제거 알갱이로 피부결을 정리해주면 모하비 사막같이 푸석했던 피부도 전라남도 곡창지대만큼 비옥하고 촉촉하게 변한다.



## For Ladies

**Unstitched Utilities 친환경 슈즈**  
아찔한 킥힐을 신고 다니는 여자라도 가볍고 편한 슈즈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 초경량 런닝화보다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하는 Unstitched Utilities의 친환경 슈즈를 당신의 예쁜 발에 선물한다!



**MAXIM 여성용 V넥 티셔츠**  
수많은 수컷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자가 입었을 때 가장 섹시하다는 티셔츠 핏을 완성했다. 대충 입어도 섹시함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MAXIM V넥 티셔츠로 동네 남성들의 시선을 독자치하라!



## MAXIM 페이스북 베스트 댓글

지금도 MAXIM Editors 폐북에는 에디터와 독자들의 깨알같은 대화가 땡! 땡!



**Maxim Editors**  
인공위성을 날려 화제가 된 송호준 씨를 만났습니다! 참고로 저 썬 위에 있는 둘은 우리님 왕석이라고 하네요. 어어...?  
-에디터 조웅재-



**이영비** 음, 조웅재 에디터도 결국 우리님에 노출되었고... 너도 이제 고자의 길로 들어서시는 거냐, ㅋㅋㅋ



**정훈** 기생과 어울릴 수 없겠네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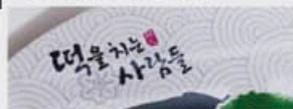
**Junye Lee** 그래서 11월호부터 고자 섹션이 생긴다는... 건 잘 모르겠고 천연 우리님은 능숙하기 전에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밝혀졌지요. ☆



**Maxim Editors**  
편의점 떡국 먹다가, 나 왜 웃기지 이거? -에디터 유승민-



**Jake Lee** 유사 제품이네요, 저희 동네에선 정품을 팝니다. ☆



**HeeSeong Kim**  
들 중 뭐가 진짜인가요? ㅋㅋ





Jägermeister

# ICE COLD SHOT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염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Jägermeister**

PRODUCED AND BOTTLED BY  
Mast-  
Jägermeister SE  
WOLFENBÜTTEL  
GERMANY

70 cl 35%  
700 ml vol



**WE NEVER FREEZE**

[www.facebook.com/jagermeister.Korea](http://www.facebook.com/jagermeister.Korea)

# Dear. Readers

## 스피카의 독자 고민 상담소

한창 물오른 걸그룹 스피카의 박나래(좌)와 양지원(우)이 독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예쁜 처녀들이 고민 상담까지 해주고! 이게 웬 떡이야?



**Q.** 1년 전 이직을 한 후 잘 지내오다가 얼마 전 사장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술이 뻥겨서 업무 시간에 이탈했다 걸리고 말았네요. 이렇다 저 찔리는 건가요?

〈평생씨에스타, 이메일 사연〉

**A. 나래:** 아직이라... 보통 고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 실수를 하시다니 안타깝네요. 그래도 잘못된 잘못은 혼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혼나도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 동료들도 '저 사람 멘탈 쟁인듯'하고 독자분을 인정하게 될 테니까요.

**Q.** 같은 과 선배인 룸메이트 언니가 밤만 되면 큰 소리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네요. 제가 잠을 자려고 해도, 공부를 하려고 해도 개의치 않고 콧소리를 냅니다. 선배 언니라 뭐라 할 수도 없고... 남친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두사부선일체, 이메일 사연〉

**A. 지원:** 불만을 쿨하게 얘기하세요. 너무 진지하게 말하면 오히려 더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어요. 혹시 언니가 기분 나빠한다면 장난 섞인 애교를 부려보는 건 어떨까요? "언니 혼자만 좋지 말고, 나도 남자 한 명 소개해줘요!"라고요(웃음).

**Q.** 소개팅을 주선 받은 여자와 만나기로 한 날 하루 전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반가워서 인사를 건넸더니 그녀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더군요. 근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운명인 줄 알았는데... 상처받은 제 마음 어찌죠?

〈전기운, 이메일 사연〉

**A. 나래:**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 법이죠. 여자분을 밤나무 흔들듯 조금 더 흔들어 보세요. 요령이요? 너무 자주 팽범한 문자를 보내는 건 질릴 수도 있어요. 기끔씩 한 번 문자를 보내더라도 똥 터지게! 센스있게!

http://www.arbutus.co.kr/

# ARBUTUS® New York

Arbutus  
Globaltime watch company  
NY Sensibility  
Real Watches

real watches **for** real people



## WALL STREET COLLECTION

AR702RWF

Gent's Automatic Skeleton Watch

공식수입처 : 글로벌타임 Tel 02.778.1590 www.globaltime.co.kr

서울 노원 워치록 070-4136-5090

두타 타임갤러리 02-3398-5528

안양1번가 시계상자 031-441-0158

인천 부평 타임런 070-7516-4545

제주 한림읍 부띠 010-9083-5706

신촌 이타임월드 02-313-4108

신도림 타임타임 02-2111-1141

안양1번가 사본 031-463-9788

충남 대천 대천마켓 041-935-4994

종로구 천진상사 02-764-4716

가로수길 블랙브라운 1588-6768

일산 웨스턴돔 타임24 031-931-5300

청주 복외치 043-223-1333

테크노마트 타임21 02-3424-7063

수원AK 031-240-2277

인천 구월동 워치보이 070-8632-5300

부산 광복동 명성시계 051-253-5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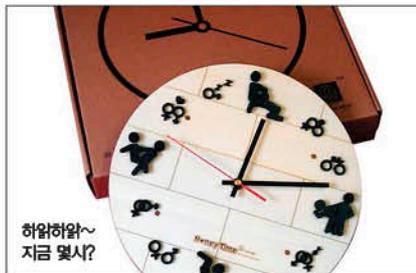
## 맥대加里 뉴스

어느 날, MAXIM 한국판 편집장에게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M 데빌 대가리가 탐났다"며 "한 번만 빌려달라"고 조르는 MAXIM 미국판 편집장 댄 보바의 메일이었다. 왔다갔다 배송비가 일만데... 차라리 하나 더 만드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우리는 3주에 걸쳐 제작한 MAXIM 탈을 지난달 저 멀리 미국 땅으로 떠나 보냈다. 몇 주 후, MAXIM 대가리를 영접한 MAXIM US의 직원들이 고맙다며 MAXIM US 사무실에서 그걸 쓰고 노는 사진을 보내왔다. 바다 건너간 MAXIM 탈은 MAXIM US판 11월호 'Office Assistant' 라는 기사에 등장했다! 그런데 이런 명중한... 속옷 차림의 몸매가 죽이는 여자 모델에게 MAXIM 탈을 씌워버리는 과오를 범했다. 사실 그거 못생긴 사람 얼굴 가리는 용으로 제작한 건데... 두 유 노 외람 세잉~?



### MAXIM ONLINE SURVEY

#### 하루 중 언제 하는 섹스가 가장 자극적인가?



하얏하얏~  
지금 몇시?

**1위** 밤늦은 시간 술 한 잔 걸치고 하는 야간 섹스 (692표, 34.1%)

**2위** 몸의 감각이 덜 깬 상태에서 모닝 섹스 (585표, 28.8%)

**3위** 점심 밥상 없는 대낮 섹스 (577표, 28.4%)

**4위** 기력 완충해준다는 새벽 섹스 (177표, 8.7%)

- 총 투표자: 2,031명  
- 투표 기간: 2013년 10월 7일 ~ 진행 중

MAXIM 설문  
바로 가기



가장 자극적인 섹스의 시간대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야간 섹스'가 1위를 차지했다. 역시 밤일은 밤에 해야 제맛! MAXIM 홈페이지에선 이 외에도 기어, 연애, 자동차, 정치, 인물 등 온갖 것에 대한 요망하고 재미있는 설문들이 늘 진행 중이다!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 Miss Maxim: Finally Final 4!

'핫 보디' 박무비와 '한채영 님은꼴' 이현지가 2013 MISS MAXIM CONTEST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8강을 거쳐 4강에 오른 MISS MAXIM 4인방을 열렬히 환영한다! MAXIM 홈페이지에서는 10월 21일~10월 30일엔 김소희와 박무비, 10월 30일~11월 8일엔 이아영과 이현지가 각각 결승에 오르기 위한 투표 대결을 벌인다. MAXIM에서 당신이 지지하는 모델을 내내에도 더 자주 보고 싶다면 어서 투표하라. MAXIM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김소희 vs 박무비  
4강 1차 투표: 2013.10.21 낮 12:00



이현지 vs 이아영  
4강 2차 투표: 2013.10.30 낮 12:00



### 홈페이지 섭외 요청 게시판으로 오라



이번 Who's That Girl?(P.126) 화보에 등장한 한규리, 그녀는 지난 3월호에 흥대를 거니는 옛지녀로 MAXIM에 잠깐 등장했다. 이를 본 눈썰미 좋은 독자가 MAXIM 홈페이지의 섭외 요청 게시판에 그녀를 추천했고, 우리는 마침 <화성인 바이러스> 2대 V걸로 활동 중이던 그녀를 다시 찾아 섭외했다. 여러분도 MAXIM에서 만나고 싶은 모델이 있다면 MAXIM 홈페이지 섭외 요청 게시판에서 추천 글을 남겨라 꿈을 이뤄 주마!



# 남성의 3대 콤플렉스를 한방에 날리는 법

추남에서 진정한 秋(추)남, 가을 남자로 변신해볼까?

## 사회가 선물한 종합 하자세트

올해 35세인 K군은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 그러나 외모는 그리 평범하지 않다. 각종 스트레스로 머리가 작년부터 조금씩 빠지더니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다. 지금은 앞머리 라인이 한창 날릴 때 삼성전자 주식처럼 상한가를 치고 있다. M자로... 어디 머리뿐인가? 잦은 회식과 혼자서 하는 자체 회식, 주말 낮술 등등. 술, 안주들을 베프로 삼은 결과, 배만 보면 임신 8개월이다. 또 어디 그것뿐이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 덕분에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까지 반납하며 온 몸 바쳐 일해 얻은 것은 턱밑까지 내려온 다크서클! 판다는 귀엽기라도 하지요! 이진 뭐... K군의 주변에는 여자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능력은 돈이 아닌 외모

뒤처지는 외모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남성들의 비애가 아니겠는가. 사회의 풍파는 3단 콤보(탈모, 다크서클, 복부지방)로 나타나고 줄어든 자신감으로 인생의 낙이 없고 어딜가도 위축되기 쉽다.



여친이 있어도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자신의 외모와 잦은 주말 근무 때문에 결혼은 커녕 언제 이별 통보가 날아올지 불안하기만 하다. 여친 없는 남자는 그저 개콘의 '안 생가요'를 보고 공감하며 눈물을 삼킬 뿐이지... 여자도 남자의 외모를 보는 시대다. 남자는 능력이 있어도 외모가 아니면 짝인 것이다!

얼마 전,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연봉도 더 높다'는 내용의 기사는 이런 남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대못을 뽑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청춘은 끝나는가!

'아놔시방(我懶始筋)', 한탄만 하고 있으면 누가 네 인생 바꿔준대?! 자기 개발서만 추구장창 본다고 성공의 열쇠가 하늘에서 푹 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외모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자신감이 지하 세계를 헤매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굿닥터를 만나보자. 내 콤플렉스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힐링해 주는 굿닥터가 당신 곁에서 "어레스트!"를 외치고 있다.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도움말 주신 분  
배준성 원장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대학원 의학과 졸업(성형외과 전공)
- 가톨릭의대 부속 서울성모병원 인턴, 레지던트 수료
- 성형외과 전문의
- 가톨릭의대 부속 성가병원 성형외과 전임의

## JK김동욱과 전혀 상관없는 JK성형외과 배준성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Q. 모발 이식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A. 슬릿(SLIT) 방식 모발 이식으로 진행합니다. 슬릿 방식은 밀도와 생착률이 매우 높은 수술법입니다. 수 여부 전체에 미리 구멍을 낸 후 수작업으로 하나 하나 모발을 이식하는 방법으로써 고도의 집중력과 세밀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풍부한 수술 경험이 있는 전문의와 의료 서비스팀에게 맡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쩡쩡하고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자신감을 회복해 보세요.

Q. 모발 이식 수술을 하면 입원해야 되나요?  
A. 모발 이식 수술은 당일 퇴원이 가능한 정도로 통증이나 붓기가 없습니다. 시간 날 때 예약을 해서 수술 받고 당일 퇴원하면 끝! 이를 후 내원하여 샴푸 및 수술 부위에 드레싱을 받으면 됩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훈남으로 변신 가능합니다.

Q. 복부 지방 성형이 복잡하거나 아프지는 않은가요?  
A.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흔히들 수술을 통해 제

거하는 방법만 생각하지만 고강도 초음파를 통해 복부나 리프 핸들 주위에 불필요한 피하지방조직을 파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리포소닉'이라는 시술로써 통증 없이, 별도의 회복 기간 없이 단지 1시간 시술로 1 inch, 1 size 감소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으니, 주사 바늘이 무서운 진짜 사나이도 얼마든지 산만한 복부를 평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Q. 눈 밑 다크서클 수술로 흉터가 남지는 않나요?  
A. 눈 밑 지방 재배치는 결막을 통해 불룩하게 나온 지방을 고르게 퍼주고, 눈 밑의 끈이 진 부위를 커버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자칫 아래로 처질 수 있는 피부에 리프팅 시술을 더하면 애교살과 화사한 피부색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결막을 통해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으며, 약간의 부기와 멍이 생길 수 있지만 며칠 후면 가라앉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승사자마냥 어두웠던 눈 주위에 생기를 더해보세요.

### before & after

탈모 전후



복부 지방 전후



안티에이징 전후



#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 불심으로 공중 부양!

 분수대 위를 날아다니는  
스님의 정체는? BY 손안나

프랑스 파리의 라 빌레 공원. 머리를 박박 깎은  
한 스님이 분수대 위를 날아다닌다. 그렇다. 무공의 절대  
고수들만 시전한다는 바로 그 공중 부양! 이걸 선보일  
수 있는 자가 지구상에 허경영 말고 또 있었다니...

서울에도  
왔었다!



# aximus



뽀뽀기 조오오태!



근두운을 탄 손오공도, 불심으로  
기적을 행하는 스님도 아니다.

사실 이 남자는 '중력을 거스른 사진' 시리즈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인 예술가 리웨이이다. 그는 지금 거울, 메탈 와이어, 도움닫기 발판 그리고 약간의 스텐트 묘기만을 이용해 진지한 태도로 '아트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중이다. 와이어 줄에 장시간 매달려 있다 보면 분명 거기(!)가 낡아서 엄청 고통스러울 텐데... 명상에 잠긴 듯 편안해 보이는 그의 표정을 보라. 이건 정말 '아트'다, '아트'.

그나저나 웃기려는 의도도 아니면서 삼장법사 코스프레는 왜 한 거냐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서유기의 '손오공'이다. 중력을 거스르고 나이가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즐깁니다. 자신을 손오공과 비슷한 존재라고 여겨왔으나 뭐라나... 리웨이의 공중 부양은 예술일까, 아니면 서커스일까? 뭐가 됐든 '돈 되는' 묘기인 건 확실해 보인다. 현재 그의 아트를 담은 사진은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MAXIM 연합뉴스



### 수상한 그림 퀴즈!

MAXIM 독자 3년이면 눈 감고 유두를 찍는단지. 눈썰미 업그레이드를 위한 특별 과외! BY 조용재



#### 1 둘 중 남자는?

TIP 가슴골은 성별을 구분하는 척도.



(A)

(B)

#### 2 남매는 어느 쪽?

TIP 남매일수록 끈끈한 법.



(A)

(B)

#### 3 노래하고 있는 사람은?

TIP 알몸 노래방이 있을리까? (아, 있을지도...)



(A)

(B)

#### 4 매롱 하고 있는 사람은?

TIP 귀엽거나 아하거나.



(A)

(B)

#### 5 공부 중인 사람은?

TIP 자세는 항상 올바르게.



(A)

(B)

#### 6 병원에 있는 사람은?

TIP 입에 뭍 대고 있는 걸까요?



(A)

(B)

#### 7 안마를 받고 있는 사람은?

TIP 그 '안마' 말구요.



(A)

(B)

#### 8 아이스크림을 흘린 사람은?

TIP 아이스크림을 머리로 먹진 않죠.



(A)

(B)

### 알려주세요! 야애니 박사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템!

#### 야애니에도 장르가 있나요?

물론이죠! 애새끼를 보는 애니가 아니라고 해서 장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딱 치는 씬만 있다 뿐이지 일반 애니메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컨대, 무서운 특수 외계인들과 맞서 싸우다 괴물한테 당하는 SF '축수물', 어두운 도시에서 총을 쏘고 떡을 치는 '노와르물', (간혹학개론)처럼 순수한 첫사랑의 감정으로 떡을 치는 '순애물' 등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 일반 성우들도 야애니 성우를 하나요?

야애니 성우 출신의 무명 성우들이 일반 애니메이션 더빙을 맡는 경우는 있지요. 야애니 성우들의 대다수는 일반 성우에 지원하다 자리가 나지 않는 관계로 일단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일반 성우들이 야애니 성우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유명한 성우에 대한 일본인들의 팬심은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성우들이 야애니 더빙을 한다는 건, 걸그룹 멤버가 AV를 찍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깐요.

#### 혹시 H신을 찍을 때 성우들이 진짜로 하나요?

아무리 야애니라도 기본적인 녹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답니다. 떡을 치면서 균형잡힌 녹음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궁금하면 직접 해 보세요). 다른 성우들처럼 기만히 서서 대본을 읽으며 침착하게 녹음을 하죠. 아, 꿀 물거나 키스를 하는 장면 등을 연출할 때면, 자기 손을 들고 듣고 함으로써 소리를 낸다고 하더군요. '할썩할썩'이나 '츄릅츄릅' 같은 소리를 말이죠.

OD MUSICAL COMPANY, CJ E&M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Book, Music & Lyrics by JIM JACOBS and WARREN CASEY

10th  
ANNIVERSARY

그리스의  
티켓을  
원한다면



내가 선택한 첫 뮤지컬!  
**No.1 뮤지컬 그리스**

2013.10.22 ~ OPEN RUN | 대학로 유니플렉스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오픈리뷰 1588-5212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LOUN.G

### 스페이스 오디세이

최근 개봉한 우주 재난 영화 <그래비티>가 화제다. 그래서 이번 달엔 까마득한 우주의 비밀을 10개의 숫자로 정리했다. 시발, 아무것도 모른 채 우주에서 개죽음 당할 순 없잖아.

우주 세상  
오픈 임팩트



# 2



우주에 간 사람은 지구에서보다 키가 2인치 더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고추까지 2인치 길어지는 건 아니다.

# 10~99

개, 원숭이, 토끼 등의 수십 마리의 동물이 우주를 떠돌고 있다. 이 동물들은 실험 비행에 이용돼 팔자에도 없는 우주 여행을 하다 각지에서 외롭게 죽었다. 당신이 보고 소원을 빌었던 그 별종별이 사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강아지의 원혼이었을지도...



# 1649°C DEGREES



나사 비행선이 지구 귀환 도중 대기권을 뚫을 때 비행선 표면 온도가 1649°C까지 치솟는다. 유 아 쏜 헛

# 3.8 CENTIMETERS

매년 달은 지구로부터 3.8센티미터씩 멀어져 간다. 짝꿍한테 입냄새가 날 때 멀어지는 마음의 거리와 같다.

# \$1,500,000.00

민간 우주여행사 '버진 갤럭틱'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떠나는 우주 여행 티켓을 경매에 붙였다. 이에 참가한 러시아의 땅부지는 150만 달러, 한화로 약 15억 9,450만 원에 그 기회를 잡았다. 디카프리오와 함께하는 '고풍격 여행이라... 아찔지 타이타닉의 저주가 떠오르는데?

# 5~20 YEARS

우주로 올라간 인공위성의 평균 수명. 임무를 다한 인공위성은 쪼트 먹던 힘을 다해 대기권으로 잔인해 스스로를 불사르거나, 고도를 200km 이상 높여 지구 궤도 바깥으로 몸을 내던진다. 내내 뻥뻥이 돌리다 엔딩은 자살 특공이라니!

# -270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주 공간 온도는 영하 270°C. 겁나 춥네.

VACANCY

# 78,000

네덜란드의 한 사업가가 시작한 화성 이주 프로젝트 '마스원'이 첫 번째 화성 이주민을 모집한 지 2주 만에 7만 8,000명의 지원자들이 몰렸다. 마스원은 오는 2023년까지 지원자를 10명으로 추려 화성으로 향하는 편도 우주선을 쏘아 올릴 계획이다. 이거 슈퍼스타K 탐 10보다 흥미진진하겠네.

# 2028

2028년에 1997 XF11이라는, 지름 1.3~2.8km의 어마어마한 운석이 지구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갈 예정이다.

### 우주가 무서운 이유

지구 떠나면 개고생이다.

#### 무시무시한 우주 쓰레기

수명을 다 한 인공위성은 우주쓰레기가 되어 우주를 떠돌며 임무 수행 중인 열정한 다른 인공위성을 공격한다. 그 파편에 맞아 파괴된 물체들은 또 다른 쓰레기가 되어 우주를 떠돈다. 딱 좀비 같다. 7~11km/s의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는 것만 빼면 말이다.



#### 무시무시한 우주 방사선

태양이 가끔 엄청난 규모의 수소폭발을 할 때 뿜는 알파, 감마, X선 등의 우주 방사선은 통신을 교란하고 인체에 치명상을 준다. 그래서 우주선에서는 방사선 피폭을 피하기 위해 돌기둥으로 둘러싸인 대피소가 있다. 지구에선 대기권이 방어막 기능을 한다.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 0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커집니다.
- 0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 0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 [www.meddoctor.co.kr](http://www.meddoctor.co.kr) / 02-3445-4514

### 혼자서 인공위성을 쏘는 남자 송호준의 최후

최초로 개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미디어 아티스트 송호준을 만났다. 여생이 24시간 남은 그에게 "후회되는 일 없냐"고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인공위성, 괜히 만들었어" BY 김소유

안타깝지만 당신에게 살 시간이 24시간밖에 안 남았다. 24시간 후에 죽는다면 어찌피 그건 내 의지가 아닐 테고, 죽음에 굴복하기 전에 스스로 직접 죽음을 택하겠다. 한 23시간 30분쯤 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릴 거다.

자존심 때문에 30분을 버리겠다니 쿨하다. 그럼 23시간 30분 후엔 어떻게 죽을 건가? 어떻게든 남을 웃길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을 거다. 너무 황당한 나머지 내가 죽어도 여운이 전혀 남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

당신이 죽는데 남들이 피식 피식 웃으면 짜증나지 않겠나? 소위 대단하다는 위인들을 보면 자기가 이룬 업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리해놓는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업적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리지. 그런 위인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엄청 안타까워하겠잖아? 그런 건 정말 별로다. 누구나 운만 좋으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 있거든. 사실 내가 인공위성을 쏘는 것도 다 운빨이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인공위성은 대체 어쩌다 쏘는 건가? 2008년 개봉한 영화 <프로스트 vs. 닉슨>을 봤다. 그 영화는 무책임하고 준비성도 없는 주인공이 어쩌다 보니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 그걸 보고 '안 되면 말고' 식의

정신을 받았었다. 인공위성을 쏘는 과정을 통해 무책임하게 시작한 일이 어쩌다 보니 진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심었다.

인공위성 말고 또 어떤 일을 했나? 옛날부터 여러 가지들 해 왔는데, 요즘 미는 건 딱 세 가지다. 망치로 때리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계, 방사능 보석 그리고 인공위성 프로젝트. 앞으로는 기술을 사용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할 예정이다.

하나같이 다 요상하고 멋있군. '이건 하지 말걸' 후회하는 프로젝트는 없나? 인공위성이 그중 하나지. 다른 것보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게 후회된다. 앞으로는 6개월에서 1년짜리 프로젝트만 할 거다. 성취감은 늘 적당히.

MBC <라디오 스타> '왜 저래?' 특집에 나온 거 봤다. 공중파 출연한 이후 엄청 바쁘지? 여기저기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적절히 거절하고 있다. 진지한 건 기피 싫다. 원래 코미디만 하고 싶었는데 마침 <라디오 스타>에서 연락이 오더라. 얼마 전엔 tvN에서 섭외가 왔는데, <SNL 코리아>인 줄 모르고 거절해 버렸다. 지금도 아쉬워 죽겠다. 마침 MAXIM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을 때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기대했다.

화제가 된 인공위성 프로젝트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던가? 그냥 "뽕뽕하고 다니는 청년"의 이미지를 기대했는데 의도와는 다른 반응이 나오더라. <라디오 스타>에 나가서도 "저 XX 돈 지랄 했네"라며 까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가 돼버렸다. 반기로 UN 사무총장의 페이스북에도 날 소개하는 글이 있더라. "꿈을 좇는 청년이네."라는 칭찬들뿐인데, 별로 팀닥치는 않다. 일으로 그런 이미지를 깨부수고 싶다.

그나저나 빛이 많다고 들었는데, 죽기 전에 다 갚을 수 있겠지? 로켓 임대료만 1억 2천이었는데, 요즘 얼마 하면서 열심히 갚고 있다. 센서를 만들어 달라거나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빛의 70~80%는 벌써 다 갚았다.

인공위성 프로젝트 자금 마련을 위해 팔았던 티셔츠는 이제 살 수 없는 건가? 이제 OSSSI(Open Source Satellite Initiative) 티셔츠는 안 핀다. 사람들이 재미있게 사주길 바랐는데, 언젠가부터 "좋은 일 하는데 후원 좀 해줘."라는 식으로 들리게 되더라. 티셔츠가 예뻐서 사이지, 그런 건 싫다. 일으로는 '인공위성' 그런 거 다 빼고 티셔츠의 디자인과 퀄리티로만 승부하고 싶다. 진짜 다 때려치우고 티셔츠 장사나 할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을 것 같다.  
대학교 때 공학을 전공했다. 근데 그때  
제일 열심히 배운 게 스노보드다.  
졸업할 때 이수한 학점이 교양 수업  
위주로 거의 200학점에 육박한다.  
교양이 넘치는 융합형 인재였지.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나?  
글쎄... 여자 친구나 가족을 만나면  
슬플 것 같고, 그냥 혼자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야겠다.

먼 길 가려면 우선 배를 채워야지. 뭘  
먹을 텐가?  
평양냉면 한 그릇을 먹겠다. 청계천에  
있는 을지면옥이 제일 낫다. 죽기  
전에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테니  
수육은 빼고.

자살용 방사능 목걸이를 제작해서  
10억 원에 내놨다가 계정 정지만  
먹었다며? 그거 차면 진짜 죽나?  
맛없는 커피를 한 입 마셔보면 다시는  
돈 주고는 안 사 먹잖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시음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민든 거다. 우라늄 원석이 한국으로  
배달될 때 박스에 분명히 우라늄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냥 들어온 걸 보니  
아마 안 죽을 거다. 목걸이를 만들어 준  
아저씨한테는 그냥 들어라고 속였는데  
좀 미안하다.

당신이 보기에 본인 괴짜인가?  
전혀.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때가 되면 취직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런  
'인생의 매뉴얼',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다 뺀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괴짜라고 부르더라.

헤어스타일이 독특하다. 죽을 때까지  
그런 스타일을 고수할 생각인가?  
2007년부터 이 스타일이다. 스타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자를 기회가 많이 없어서 기른 거다.  
청담동 학동 사거리에 계시는 원장님  
아니면 안 자르거든. 유선확적으로 곧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발을 할 수가 없겠지?  
정수리는 대머리인데 옆머리만 길면  
'프레데터' 같잖아.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 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공부를 좀 더 일찍 관두지 않은 게  
아쉽다. 대학원도 확점 다 수료하고  
졸업 논문을 쓰던 중에 그만뒀다. 사실  
그건 좀 아쉽긴 하다. 요즘 여기저기  
강연 요청이 많은데, 공공 기관에서  
하는 강연은 대줄, 대학원 졸업에 따라  
페이가 다르더라.

장례식으로 '우주장'은 어떤가?  
인공위성 쏘 정도면 우주는  
익숙하겠지?  
우주라니! 난 우주가 싫다. 무섭잖아!  
지구 멸망하기 직전까지 땅에 붙어있고  
싶다. 뭐, 짜질한 포즈의 말투인형으로  
박제돼 투명한 관에 보관되면 웃기긴  
하겠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미래 앞에서  
뭐라고 말할까?  
"지 사람 잘 죽었네."랑 "송호준이  
죽어서 아쉽다."는 반응이 반반 정도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묘비명에 남기고  
싶은 문구가 있다면?  
"재미있는 말이었으면 좋겠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같은 느낌인데,  
따라 하는 티는 안 나는 좋은 말 뒤  
없을까? 그래 차라리 묘비명에  
내 모든 온라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 놓겠다. 아직은  
안 죽었으니 밝힐 순 없지.  
어때? 괜찮지 않아? 🐱

## 송호준

직업 미디어 아티스트  
회제가 된 프로젝트  
세계 최초 개인 인공위성  
발사 프로젝트 OSS  
(OPEN SOURCE  
SATELLITE INITIATIVE)  
트위터  
twitter.com/opensat

망원동  
작업실  
구경하기



**麥心** 만주 쌍권총 김마리아 선생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선생은 동성동명의 두 분이 계셨는데-

김말이야?! (말하는 사람: 김마리아)

한 분은 여성운동쪽의 김마리아 선생.

광산 김씨지

다른 한 분이 만주 쌍권총 김마리아(1901~1970)

연해주 출신으로 러시아어와 중국어에 두루 능했으며-

경주 김씨다

마리아라해~

마리아스키~

광복군 이병석 장군과 진중결혼.

파시스트라도 사랑만 있으면 괜찮단 마리아

부부가 함께 항일 무장투쟁에 나서며,

일본경찰에 잡혔을 때 받은 고문으로 평생 고생하기도 하고.

대한독립은 반드시 온단 마리아!! 끄아악!!

김마리아는 승마 쌍권총 사격솜씨로 명성을 떨침.

대한독립은 반드시 온단 마리아!! 끄아악!!

광복 후,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병석과 이기봉이 2인자 권력다툼을 벌일 때

꺼져라 맨발의 기봉이

이기봉 아내 박마리아와 김마리아의 마리아 대 마리아 전쟁.

너 말이야 개기면 죽는단 마리아

말이야 방구야?

결국 이병석이 실각하자 김마리아는 경무대로 쳐들어가 이승만 대통령을 겁박했다고 한다.

충신을 토사구팽 시키면 각하도 말년이 편치는 않을 거란 마리아!!

훗날 4.19 때, 이기봉 일가의 비참한 최후를 생각하면 이때 실각한 게 다행.

인생만사 새옹지마리아

SEENSEE COMPANY in association with  
Colin Ingram, Hello Entertainment and Paramount Pictures presents

영국 웨스트엔드 최신 대작, 한국 초연!

영화 사랑과 영혼 원작

# GHOST

Ticket

평일 낮공연 할인 **15%** 평일 낮공연 예매시 할인

초연기념 할인 **10%** 11/24 ~ 12/1 공연 예매시 할인

주 원 김준현 김우형 아이비 박지연  
최정원 정영주 이창희 이경수 성기윤

뮤지컬 **고스트**

11.24 GRAND OPEN

3디큐브아트센터

주최 SBS 신시컴퍼니

# HOW TO



## Office Life Tip

### #10. 회식 자리에서 상사 요리하는 법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다.

BY 김희성



### ① 단계: 자리 선정

회식 장소로 당첨된 삼겹살집에 들어가자마자 당신은 선택 장애에 빠진다. 저 수많은 방석 중 내가 앉아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자리 선택은 이날의 회식자리가 자옥이 될지 아닐지를 좌우하므로 머리를 잘 굴리는 게 좋다. 먼저 괴로운 술자리를 방지하려면 당신과 주량이 비슷한 상사 근처에 앉는 게 좋다. 반면 술을 잘 마시는 편이라면 평소 얘기할 기회가 없었던 상사 근처 자리를 찜하는 게 좋을 거다. 이 때 상사가 외곽에 앉지 않도록 테이블의 가운데 쪽으로 자리를 안내하는 센스는 필수다. 멋도 모르고 지가 상석에 앉아 상사가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는 걸 보고만 있는 신입도 많은데, 너 그러다 오늘 폭탄주 연타로 마실 수도 있다.

### ② 단계: 고기 굽기

고기를 굽는 게 신입의 몫이라는 건 직장 생활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그냥 굽기만 해서서는 다른 신입들과 차별화될 수 없다. 평소 고기 부위별로 맛있게 잘 굽는 법을 몇 가지 알고 있으면 이럴 때 유용하게 써먹기 좋다. 사실 각기 다른 직급끼리 한데 모여 앉아 먹히 할 얘기도 없기 때문에 고기 굽기는 대화의 소재로 삼기에도 유용하다. 입 다물고 고기만 구우면 시위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고기를 구우면서 "목살이랑 삼겹살을 불판에 동시에 올려놓고 구워야 적당히 기름기도 돌고 맛있게 구워진대요. 고기를 씹을 때도 부드럽고요. 과장님, 제가 구운 목살 한 번 드셔보시겠어요?" 같은 멘트를 날려라. 먹는 대화는 직급과 연령, 성별을 초월해 모두들 공감할 수 있으니 술자리도 화기애애해지고 얼마나 좋나? 실제로 잘 못 구워도 상관없다. 이런 센스가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회식 자리 가기 10분 전에 오늘 먹을 고기 잘 굽는 법을 검색하는 성의만 있어도 상사를 당신 마음대로 구워 삶을 수 있다.

### ③ 단계: 술 따르기

상사에게 술을 따를 때는 잔을 얼마나 채우는 게 매너일까? 애정이 넘친다고 술잔을 가득 채우는 건 매너가 아니다. 이거 다 먹고 빨리 취하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술잔을 들다가 술이 넘쳐 셔츠나 바지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기분이 상할지도 모른다. 잔은 80% 정도를 채우는 게 가장 적당하다. 상사의 잔이 비는지를 주시하고 있다가 비면 잔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냥 무작정 술잔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뒤에 술을 따르도록. 그리고 상사에게 술을 받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상사의 술잔을 채우는 게 예의다. 만약 상사가 술을 따라줬는데 도저히 못 먹겠다면? 잔만 부딪치고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입술에 갖다 대기라도 해야 한다. 토하기 직전이라도 "최송한데 더 이상 못먹겠습니다"하고 아예 잔을 받지 않아 상사의 손을 무안하게 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



대리님, 2차는 저희 집에서 피자로 해장 몰?

### ④ 단계: 자리 옮기기

자, 이제 술자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싶으면 자리를 옮겨라. 보통은 한 자리에 붙박이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회식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 회식은 평소 말할 기회가 없었던 다른 부서 상사와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 먼저 술을 청해보라. 회식 때마다 이를 반복하면 어느새 당신의 평판은 높아져 있을 거다.

### ⑤ 단계: 술자리 대화

회사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면 반드시 하는 대화가 있다. 바로 다른 동료의 뒷담화. 회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샌가 끼리끼리 노는 분위기가 되면 같은 테이블에 모여 있는 선배들끼리 누군가를 욕하는 광경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때 같은 테이블에 있는 당신에게도 "맞지?", "그렇지?" 하면서 동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선배들과 친해지려는 심정으로 그들의 말에 격하게 동조하거나 같이 누군가를 욕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야말로 최악이다. 오히려 이후에는 당신이 험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절대 본심을 털어놓아서는 안된다. 당신이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거다. 회식을 별도의 술자리, 즉 사석에 준한 자리라고 생각해 평소 털어놓지 못했던 진심을 얘기하거나 술자리 게임에서 느닷없이 아자타임이라도 했다면... 다음 날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취했으니까 이해하겠지', '귀엽게 봐주겠지' 이런 거 없다.

어떤 회식 자리건, 어떤 직급이건 회사 회식 자리에선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여주게 게 가장 좋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해봐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그럴 일이라면 하고, 아니면 절대 하지 마라. 회식도 일이라니깐? ☹

## 오감자 김치 그라탕 만드는 법

5분  
완성!

편의점에서 파는 간단한 주전부리를 조합하면 궁극의 안주가 탄생한다!  
궁상맞게 맥스봉 빨면서 술 마시지 말고, 에디터가 알려주는  
맥주 안주 레시피에 주목하라. 아웃백 오지 치즈 후라이 안 부럽다. BY 손안나

이래서  
시집  
가겠어?



### 준비물

- 오감자 오리지날 1봉지
- 볶음 김치 50g 1봉지
- 고추 참치 100g 1캔
- 스트링 치즈 1개

- 1 볶음 김치는 잘게 썰고, 고추 참치는 수저를 이용해 으갠다.
- 2 프라이팬에 김치와 참치를 투척한다. 중간 불에 끓이면서 물을 조금씩 부어 너무 되지 않게 한다. 기호에 따라서, 참치캔에 남은 기름을 첨가한다.
- 3 접시에 오감자를 담고 완성한 소스를 붓는다.
- 4 스트링 치즈를 6~8 등분으로 찢어 그 위에 올린다. 참고로, 스트링 치즈는 체다

- 치즈와 플레인 치즈 맛이 반씩 섞인 트윅스트로 구입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5 전자레인지에 약 2분간 데운다.
  - 6 기다리는 동안 집 밖으로 나가 그럴듯해 보이는 풀떼기를 따온다.
  - 7 완성된 요리를 장식한다(먹지만 마).

자, 이제 그녀와 도란도란 앉아 맥주 끼는 일만 남았다. 굿 럭! 🍷



그가 그녀를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한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How To Launch Satellite



## 송호준의 비기 전수! 인공위성 쏘는 법

그는 결 좋은 단발을 찰랑이며 말했다.  
“인공위성 쏘는 법, 어렵지 않아요.”

BY 송호준

### 1 브로커를 찾아라

당신 집 뒷마당에 자가용 로켓이 있다면 모를까, 위성을 쏘려면 당신의 인공위성을 등에 업고 우주로 날아갈 발사 대행체가 필요하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발사체는 정부 기관이 관여하고 있으니 직접 연락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인터넷에서 런치 브로커(Launch Broker)를 검색해 발사체를 주선해 줄 브로커를 먼저 찾자.

### 2 법적 문제를 해결하라

인공위성을 쏘기 전에 알아야 할 법적인 등록 절차가 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미래 창조부'와 '방송통신 위원회'에 연락해 우주 물체 등록을 해야 하고, 다음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인공위성이 어떤 주파수를 쓰는지를 일러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관련 자료를 베끼면 돈 안 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

### 3 인공위성을 만들어라

인공위성 만들기의 핵심은 '우주에서 건널 수 있는 부품'을 만드는 거다. 인공위성 개발자들이 만든 사이트(cubesat.org)에 가서 논문들을 참고해 인공위성을 만들면 된다. 그게 다가 아니다. 청계천 아저씨를 구워 삶아 '용접하는 법'과 '절삭하는 법'도 알아내야 한다. 너무 어렵다고?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면 내가 대신 해줄 수도 있다.

### 4 쏘라

로켓을 직접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별로 할 건 없다. 대행업체 쪽에서 까먹을지도 모르니 로켓이 발사되는 날 찾아가 당신의 인공위성이 장착대에 올라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해라. 아왕 간 김에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도 먹고 농구도 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돌아오면 된다.

### 5 통신하라

축하한다! 당신의 인공위성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갔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주 밖의 인공위성을 가지고 놀 수 있다. 아마추어 HAM 주파수 자격증을 따서 자기 집 위에 안테나를 세우고 인공위성을 마음대로 조종해라. 불을 켜려면 켜고, 거기 날씨는 어떡냐고 물어보면 우주의 온도도 알려줄 거다.

뭐 하는 남자야?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 부르르닷컴 콘돔사용 캠페인



사랑한다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백만 가지 어덜트 솔루션 부르르닷컴에서, 다양한 콘돔을 만나보세요.

# bururu.com



# How To Sumo



## 스모 선수 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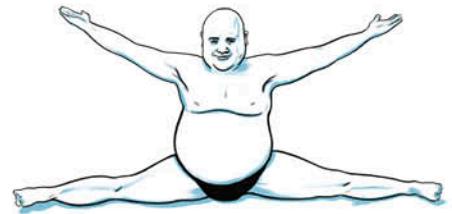
배 터지게 먹고 늘어지게 꿀잠 잘 수 있는 운동이 있다. 이 매력 터지는 스포츠를 즐기려면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라!



**1 먹고 자기**  
스모 선수는 아침 따윈 먹지 않는다. 배고픈 상태에서 점심을 먹으면 하루 종일 굶은 사람처럼 엄청나게 먹을 수 있으니깐! 그들은 보통 '찬코나베'라는 생선이나 닭고기가 들어간 전골 요리를 주식으로 한다. 중요한 건 그걸 세 그릇이 아니라 세 바가지나 먹는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낮잠을 잔다. 덩치 불리는 데는 먹고 바로 자는 게 직빵인 거 알지?



**2 쿵! 쿵!**  
스모는 항상 '시코'라는 자세로 시작해서 '시코'로 끝난다. '시코'는 양발을 어깨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다리를 한쪽씩 들어 올렸다가 다시 힘차게 쿵! 내리찍는 스모의 기본 자세다. 이 자세를 매일 탈진할 때까지 연습해야 하는데, 당신 사부님이 아침에 사오님이랑 싸워 기분이 구리기라도 한 날에는 1,000번 이상 땀이 쳐야 할지도 모른다.



**3 다리 찢기**  
스모 선수가 되려면 180도로 다리 찢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힘들어서 토할 때까지 스쿼트를 반복하고, 거대한 장정을 등에 업은 채 오리갈음으로 운동장을 돌아야 한다. 힘들어 보인다고? 그래도 일본에는 돈 많고 명 째다는 이유로 쪽쪽 땀뻗은 모델들과 결혼하는 스모 선수가 많다. 당신도 도전하라! 일단 뱃살 아래 숨은 고추를 찾아 세우는 방법부터 배우고 나서...



## 많이 먹기 대회에서 우승하는 법

스모 선수고 뭐고, 일단 존나 처먹고 덩치부터 불려야겠지? 많이 먹기 대회 챔피언 크레이지 레그스 콘티가 많이 먹기 대회 우승 팀을 알려준다. 찹찹.

**1 요가를 하라**  
대회 때마다 4만 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줘야한다. 그중에는 가슴과 엉덩이를 내놓고 당신을 응원하는 여자도 있다고! 요가는 이럴 때 당신이 잡생각을 몰라치고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일본 라멘을 먹어라**  
선수들도 대회가 끝나면 담배를 존나 피우고 맥주도 겁나 마신다. 하지만 대회 전엔 항상 먹는 것에 신경 쓴다. 부드럽고 걸쭉한 음식을 먹는 게 좋는데, 일본 라멘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은 데다 소화가 금방 되므로 훈련 음식으로는 와따다.

**3 복근을 만들어라**  
많이 먹기 대회 출전자의 대부분이 체육관 죽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식스팩이 선명해질수록 위장이 늘어난다고. 이참에 풀줄이 입은 쪽뿔녀가 넘쳐나는 볼 좋은 체육관을 찾아 보는 건 어때?

## 맥심 동의보감: 혈자리 마스터

아직은 당신의 터치가 낯선 그녀를 자연스레 만지는 법. 의사 앞에선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BY 김소윤

MODEL 2012 MISS MAXIM 준우승자 엄상미

상미를  
주물주물



### 그녀에게 감기 기운이 있다.

그동안 뽀뽀 한번 해보려고 전전긍긍하던 당신에게 하늘이 주신 기회다. "여길 누르면 감기 예방에 좋다던데..."라며 한 손으로 그녀의 뒷목을 잡아라. 다 됐다. 밀그림은 완성된 거다. 그리고 이어지는 폭풍 키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박력 있게! 감기 예방은 서비스!

**중지혈 위치:** 귀 뒤쪽 뼈 밑의 움푹 들어간 곳

**주의 사항:** 방향 잘 잡아라. 뒤에서 뒷목을 잡으면 싸우자는 얘기가.

###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근을 마치고 온 그녀가 몹시 짜증을 낸다. 저거 그냥 놔두면 밤새도록 투정만 부리다 날 새겠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두 젖가슴 사이를 누르며 "여기에 있는 전중혈을 누르면 스트레스가 풀린대"라는 전광열스러운 대사를 친다. "근데 옷 때문에 혈자리를 잘 못 찾겠어. 좀 벗어볼래?"

**전중혈 위치:** 유두와 유두 중간점

**주의 사항:** 이미 열받은 그녀가 불꽃 싸대기를 날릴 수 있다.

### 그녀가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못 간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표정이 밝지 않은 그녀. 피부도 유난히 푸석푸석하다면? 변비가 틀림 없다! "여기 '족심리혈'을 누르면 뱃속이 편안해진다"라며 그녀가 솔깃할 만한 정보를 흘린다. 다리 마사지를 제안하면 며칠째 장 트러블로 고생 중인 그녀가 못 이기는 척 다리를 내밀 거다. "스타킹이 미끄러워서 잘 안 돼. 좀 찢어도 될까?"

**족심리혈 위치:** 무릎 아래로 튀어나온

뼈 밑에 움푹 들어간 곳

**주의 사항:** "왜 똥을 몸에 모아놨냐? 더러워! 푸하하하!"라며 놀리고 싶겠지만 참아라. 두 번 다시 그녀를 볼 수 없을테니까.

자진 공짜♡

### 그녀가 잦은 아근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

그녀의 뒤를 공략할 적절한 기회다. 일단 화를 내며 공포감을 조성하자. "너 인현왕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환도혈에 난 증기 때문이라고! 신수와 지실, 환도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라며 어려운 말로 혼을 쏙 빼놓는다. 이어서 믿음직한 말투로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내가 지압해줄게."라며 자연스럽게 엉덩이와 허리를 주물주물 터치하자.

**신수혈과 지실혈 위치:** 배꼽 반대편 등허리의 중앙에서 양옆으로 3cm (신수혈<sup>[1]</sup>), 6cm(지실혈<sup>[2]</sup>)

**환도혈<sup>[3]</sup> 위치:** 엉덩이에 힘을 쫓을 때 움푹 들어간 곳

**주의 사항:** 어렵고 긴 대사를 읊다 중간에 꼬이면 패망.

# 修能神功

수능신공



수능 최강 고수를 향해 방황하는 청년들의  
꿈과 사랑의 비망록

## Chapter.1 무공의 서막

대입수능시험 정복(농담 아님) 프로젝트 첫 회.  
잡지를 넘어 수험서의 강호를 평정하기 위해  
MAXIM 편집부의 수능 고수 2인이 나섰다.

BY 유승민 이영비 PHOTOGRAPH YuD, Zho  
MODEL (왼쪽부터) 에디터 김상수, 손안나, 조웅재,  
2012 MISS MAXIM TOP4 김수아, 에디터 박정욱, 김소윤  
ASSISTANT 정석영 HAIR&MAKEUP 장혜민



**편집장 이영비**  
수능 점수: 393.5점(400점 만점)  
주특기: 4교시 외국어 영역  
광주과학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과외 쌤 경력: 2년  
과외 활동 구역: 2학군(마포 지역)



**수석에디터 유승민**  
수능 점수: 396점(400점 만점)  
주특기: 1교시 언어 영역  
서울강서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과외 쌤 경력: 4년  
과외 활동 구역: 7학군(목동 지역)

### 수능 고수는 우등생이 아니다. 기술자다.

바야흐로 입시와 수능의 계절 11월이다. 고3을 앞둔 한 고교생 독자로부터 사연이 도착했다. 수능시험에 대한 막막함을 담아 쓴, 간만에 진지한 고민에 "넌 편지 잘못 보낸 거 아님? 그 딴 건 학교 선생님한테나 물어보삼"이라 답하려다 멈췄었다. 아니, 대체 학교와 학원은 뭘 하길래 고딩이 MAXIM에까지 이런 것을 물어보기에 이르렀단 말인가!

수능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라... 기초를 튼튼히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의 실력을 높여라 따위의 꾀대 같은 훈수는 이미 많이 들어봤을 테고, 격려나 들으려고 MAXIM을 찾은 건 아니겠지. 그 방법, 우리가 알려주겠다.

혹자는 꾸준한 노력 외엔 방법이 없다 하고, 수능 시험을 가리켜 결국은 머리 좋은 놈이 고득점하게 되어 있는 일종의 아이큐 테스트라 말하기도 한다. 물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당연히 실력도, 머리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그건 바로 수능 시험의 '기술'이다.

실력이나 지능보다 한발 스킬 따위가 더 중요하다고 단언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실제로 수능이라는 시험에 있어 실력이나 지능을 향상시켰을 때보단 이 '기술'을 체득했을 때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 여러 가지의 기술을 한 데 모아

익히면 바로 공부보다 효험이 좋다는 <수능 신공>이 완성된다.

그런 기술이 어디 있냐고? 잔머리가 고도로 발달한 수험생의 경우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터득하는 경우도 있고, 나처럼 누군가 선배 기술자로부터 은밀히 전수받기도 한다. 어쨌든 고딩 독자여,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다. 수능의 감자들을 통해 은밀히 전래되던 극강의 시험 기술 <수능 신공>을 이번 달부터 전수하도록 하겠다.

### 공부 안 하고 30점 올리는 법을 알려주마

애초에 못박아두지만 이 <수능 신공>이라는 것을 익히면 공부로 실력을 높이지 않고도 수능 점수를 30점 정도 그냥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수능 신공>으로 올릴 수 있는 점수의 한계는 30점 남짓이다. 이 기술을 써서 200점인 자는 230점으로, 350점인 자도 380점으로 올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점수 향상은 어쨌든 공부의 '양'으로 올리는 거다. 그래도 따라하기만 하면, 익숙하게 사용할 줄만 알면 수능 30점을 점프할 수 있는 스킬이다. 몹시 매력적이지 않나? 30점이면 대학의 색깔이 바뀌어도 10번은 바뀐만한 막대한 점수이기 때문이다. 대체 어떤 요령이길래 실력의 향상 '없이' 점수를 30점이나 올릴 수 있던 말인가? <수능 신공>을 익히는 것은 말

그대로 요령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든가 '학문'을 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학업 능력의 향상과는 무관한 기술이다보니 당신이 지금 풀 수 없는 문제는 <수능 신공>을 마스터한 후에도 여전히 풀지 못한다. 똑같이 틀릴 거다. 그런데 점수가 어떻게 오르냐고? 간단하다. <수능 신공>은 '못 푸는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못 푸는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공부'를 더 해야 한다. <수능 신공>은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치지 않는' 기술이다.

부단한 노력과 공부를 통해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과, 기술의 익혀 저난이도의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 당연히 후자다. 그럼 둘 중에 점수 향상의 효과가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도 후자다. 왜냐면 수능 시험이란 다수의 중/저 난이도 문제와 소수의 고난이도 문제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그래야만 변별력이 생기니까). <수능 신공>은 철저히 후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수험생에게 만족스러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도 같다. 최상위권의 실력을 가진 녀석들은 쉽게 저난도 문제를 풀어담은 후 고난도 문제와 씨름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저난도 문제에서 점수가 줄줄 새버리곤 한다.



# How to

## 맥심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를 차분히 다시 풀어 본 적이 있을 거다. 어떤가, 실수는 없었나? 아마 시험이 끝난 후 다시 차분히 풀어 보면 별 것 아닌데, 시험 시간에는 주의력이 부족해서 실수한 문제가 부지기수일 거다. 실수의 원인은 매번 다양하다. 시간 압박을 잘못해서, 중간에 이상한 문제 때문에 꼬여서 시간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맨 뒤의 몇 문항은 채 읽어보지도 못하고 3번으로 밀어버리기도 한다. 나중에 보면, 중간에 말리지만 읽었다면 다 맞혔을 쉬운 문제들이다. 이럴 땐 참으로 그 점수를 내 실력이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실수도 실력이야" 라는 말은 이제 들어도 짜증만 난다. 당연하다. 실제로 당신의 학업 능력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실력이 되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래서 당신은 언젠가 한 번쯤 '말리지 않고' 페이스를 잘 유지했던 시험에서 얻은 점수를 진짜 실력이라 믿으며 자위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수는 계속 반복된다. 대다수의 수험생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럴 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 봤자 소용없다. 앞서 말했듯 '공부'라는 건 '못 풀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실력'을 높이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풀 수 '있는' 문제도 다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력을 높이는 건 무의미하다. 똥똥해서 인기가 없는 건데 피부 관리만 계속 받는 꼴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수험생은 단순하게 접근한다. 그저

'더 열심히 공부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만다. 점수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필요한 건 공부가 아니다. 우선 자신의 실력으로 잡을 수 있는 문제들부터 모조리 쓸어담아서 내 실력에 합당한 점수부터 되찾아야 한다. 공부로 실력을 더 높이는 건 그 다음 문제다. 그럼 대체 쉬운 문제부터 쓸어담는 방법은 뭘까?(문항 앞에 난이도 표기라도 돼 있으면 좋으련만)

### <수능 신공> 제1장: 포기 신공 포기가 빨라야 이긴다

<수능신공>의 기본이자, 초식 제1장은 바로 '포기하기'다. 수능에서 근성과 끈기는 결함이다. 고득점을 위한 최대의 덕목은 '압박함'이다. 선 놈을 만나면 빨리 포기하고, 나보다 약한 놈만 골라 까는 압박한 자가 수능을 제패한다. 당신이 만만한 문제들을 놓치는 건 따지고 보면 결국 시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시험 시간은 왜 그리 부족한 걸까? 버려야 할 문제에 연연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으라 이거다. 풀 수 '없는' 문제는 포기해라. 단, 쟁쟁해 포기해야 한다. 고민하거나 끈기를 발휘해선 안 된다. 과감히 포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 <수능 신공>의 초식 제1장은 바로 '모르는 문제를 빨리 포기하는 기술'인 거다. 클럽에서 여자가 튕긴다고 3초만에 포기하고

옆의 여자에게로 바로바로 넘어가며 들이대면 골뱅이 하나 건지기 힘들겠지만, 여기서 반대다. 튕긴다 싶으면 바로 "꺼져"라고 하고, 쉬운 여자를 하나라도 더 찾아 먹어야 한다. 딴 놈들에게 다 대주는 헤픈 문제는 특히나 당신도 놓쳐선 안 된다. 비싸게 구는 문제 열 번 찍는다고 너한테 감동해서 한 번 주는 거 아니잖아?

### 포기형 멘탈이 필요하다

모르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라... 겨우 그거? <수능 신공>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것 치곤 너무나 쉬워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해 보면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만약 실제로 시험에 임했을 때 한 다섯 개 연속으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의 학생은 멘붕에 빠진다. 갑자기 한숨을 쉬며 시험지를 이리 저리 뒤집고, 문제를 푸는 순서를 엉망진창으로 바꾸며, 심지어는 시험 중에 갑자기 뒤쪽 문제들을 이리저리 훑어보기 시작한다. '뒤에도 다 이렇게 어렵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다(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이 무슨 뜬금없는 난이도 분석집이란 말인가). 그래서 멘붕 없이 포기신공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하다. 너댓 문제가 아니라 연속으로 열 문제를 못 풀더라도 멘붕없이 과감히 패스한 후, 차분히 11번째 문제에 임하는 강한 멘탈을 길러야 하는 거다.





## Time Attack!

1문항 당 과목별 최장 고민 제한 시간



〈수능 신공〉은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것들로만 구성된 기술집이지만 딱 한 가지, 훈련이 필요한 게 있다.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처리하는 속도 훈련이다. 제한 시간 내에 문제의 정답을 맞히려는 건 아니니 화내지 마라. 제한 시간 내에 답을 적든(틀러도 괜찮아), 포기하든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훈련만 하면 된다. 우선 모든 문제는 아래의 평균 소요 시간 안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훈련한다. 단,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우측에 기재한 만큼의 시간이 경과되면 그 문제는 무조건 패스한다는 원칙을 세워라.

과목	1문항 평균 소요시간	최대 고민 시간
언어	1분 15초	2분 00초
수리	2분 20초	3분 30초
외국어	1분 00초	1분 50초
사,과,직탐	1분 00초	1분 40초

(1문항 당)

관한 불안함에 뒷 페이지를 뒤적거리는 한심한 짓은 특히 하지 마라. 그저 "이번 시험엔 엇같은 문제들이 앞쪽에 몰려있어 멘탈 붕괴를 일으키는 애들이 여럿 있겠구나 꺾꺾꺾"하며 하나하나 패스해 나가라.

### 포기의 기준을 세워라

물론 이것도 막상 하려면 생각처럼 잘 안 될 거다. 만약 정답일 것 같은 아래까리한 보기를 두 개까지 추려 났다면 어떻게든 양자택일해서 답을 낸 후 넘어가고 싶은 게 수험생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시간을 관리하면서 일관된 기준으로 문제를 일사불란하고도 체계적으로 포기하려면 자신만의 '포기의 기준'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 문제의 최대 고민 시간을 정해놓는 거다. 예를 들면, 언어 영역(국어)의 경우 한 문제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2분을 넘기면 무조건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는 식의 원칙을 세워두란 말이다. 과목별로 적당한 '최대 고민 시간'은 왼쪽 표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포기하더라도 선택지를 좁혀 놓아라

보통 수학 문제는 계산으로 답을 내야하므로 객관식의 이점이 별로 없지만 나머지 과목은 ①~⑤까지의 보기를 읽어 나가면서 오답을 지워 나가야 한다. 명백한 오답을 더 많이 지울수록 막판에 찍더라도 정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명백히 오답인 보기는 사선으로 찍 그어서 확실히 제껴라. 그래야 그 문제를 패스하더라도 후시 시간이 남아 다시 풀 수 있을 때, 보기를 다시 읽는 수고를 덜 수 있다.

### 〈수능 신공〉 제2장: 재탕 신공

#### 빠른 포기는 작전상 후퇴였을 뿐

안 풀리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포기하고 넘어간 이유는 1차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번~끝번까지의 모든 문제를 정주행하기 위해서다(그 중 몇 개의 문제를 포기했던 관계없다). 그리고 그 정주행 1회독이 끝났을 때 반드시 시간이 남아야 한다. 포기하는 멘탈까지 연습하고, 적잖은 문제를 공란으로 남겨두면서까지 속도를 냈던 건 모두 의도한 만큼의 시간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남긴 시간은 당연히 포기하고 넘어간 문제에 재도전하기 위한 세컨드 찬스다. 필자가 과외선생질을 할 때 이 훈련을 받던 고딩이 이렇게 되물었다.

"쌤, 어차피 나중에 다시 풀 건데 첫 번째에 대충 답을 골라놓는 게 낫지 않아요? 기껏 파악한 내용 까먹었다 다시 읽으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애초에 못 풀고 넘긴 문제를 잠시 후에 다시 본다고 풀릴까? 풀린다. 장담컨대 그 중 50% 이상이 어이없이 풀린다. 거짓말처럼 쉽게 말이다. 그럼 대체 왜 1회독 때 골머리를 썩었던 문제가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렇게 손쉽게 풀리는 걸까?

#### 미지의 문제에 대한 공포

언어 영역(시험시간 80분)의 경우 1회독을 마친 후의 이상적인 잔여 시간은 20분이다(최소 15분 이상 남아야 한다).

자, 중간에 몇 문제를 포기했던 당신은 지금 막 마지막 장에 도달했다. 만약 당신이 계획대로 60분 내에 마지막 문제를 풀었다면? 시험 종료까지 두려

# How to

## 맥심고등학교

20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는 거다.  
(물론 처음부터 20분을 남기긴 힘들다. 그게 되려면 '포기의 훈련'이 아주 잘 되어있어야 할 뿐 아니라, 앞으로 MAXIM에 연재할 <수능 신공>의 20가지 꿀수를 모두 익혀야 한다. 이번 달에 수능 보는 고3에겐 미안)

15~20분이 남은 것을 확인하는 순간 조금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게 된다. 비록 안 풀고 넘어간 문제가 있긴 했지만 풀 문제와 더 많을 것이며, 무엇보다 당신은 이 시험지 안에 있는 문제와 지문, 보기를 다 읽어보았다. 이 사실은 의외로 상당한 자신감을 가져다준다.

시험지를 펼치고 처음 문제를 풀 때의 긴장과 초조함은 뻑뻑한 제한 시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공포심 때문이기도 하다. 원래 사람은 자신에게 곧 닥칠 무언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때 가장 공포를 느낀다고 한다. 때문에 1회독 때와 비교하면 2회독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침착함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 남긴 시간에 새로운 것이 보인다

그 상태에서 문제를 차분히 다시 보라. 아까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어처구니없이 쉬운 문제였던 것도 꽤 있을 거다. 1회독 때 '오아~ 땀' 하고 초를 닦으며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쉬운 단서를 눈에서 놓치고, 쓸데 없는 디테일에 주목하며 결론 없는 고민에 빠지고 한다. 순간적으로 머리 속의 논리 구조가 뒤엉키기도 한다.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시 머리를 Refresh 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문제를 다시 보는 것이지만 당장은 절대로 '한 걸음 물러나서' 같은 게 되질 않는다. 애써 봤자 시간 낭비다. 진짜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문제를 바라보려면 일단 지금은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봐야한다.

그 문제에서 고인 뇌는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히 정상으로 돌아온다. 특히 암기 과목인 경우엔 1회독 맨 죽어도 생각나지 않던 암기 사항이 2회독에서 기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1회독 때는 시간에 쫓긴다는 압박이 뇌 어딘가에 쩡박혀 있는 암기사항 로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압박이 사라지고 나면 무의식 어딘가에 박혀있던 기억이 특 하고 튀어나온다. 포기했던 문제를 재탕에서 의외로 쉽게 주워먹는 것이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2회독에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험을 몇 차례 하고 나면 2회독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1회독에서 더 과감하고 스피디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원동력이 된다.

'지금 안 풀려도 조금 있다가 다시 보면 풀린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1회독에서 제 속도를 낼 수 있다. 물론

금주, 금연, 금복





여전히 안 풀리는 문제도 있다. 강박이 사라진다고 당신이 천재가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원통해할 거 없다. 그 문제는 어차피 당신의 실력으로는 못 푸는 문제다. 두 번째에도 안 풀리는 문제는 '틀릴 문제'다. '틀릴 문제'를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오로지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맞힐 문제'를 틀리는 일 뿐이다. 아는 문제도 다 못 챙기는 수능에서, 못 풀 문제를 틀리는데 뭐가 억울한가? 



### 12월호 <수능 신공> 예고:

고교생 독자를 위한 MAXIM의 특별기획 <수능 신공>의 맛배가용 첫 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는지? 당장 이 달에 수능을 치를 고3생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그렇다고 일부러 재수를 하진 말고). 이제 D-20일 대로 접어들었을테니 이마 MAXIM을 뒤적이지 않겠지.

다음달엔 OMR카드 작성 신공과 OMR카드 작성 후 마지막에 꼭 필요한 화용점정 작업(OMR이 시험의 끝일 거라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인어/ 수리/ 외국어 등 과목별로 고수들만 아는 극강의 꿀수를 차근차근 누설해 나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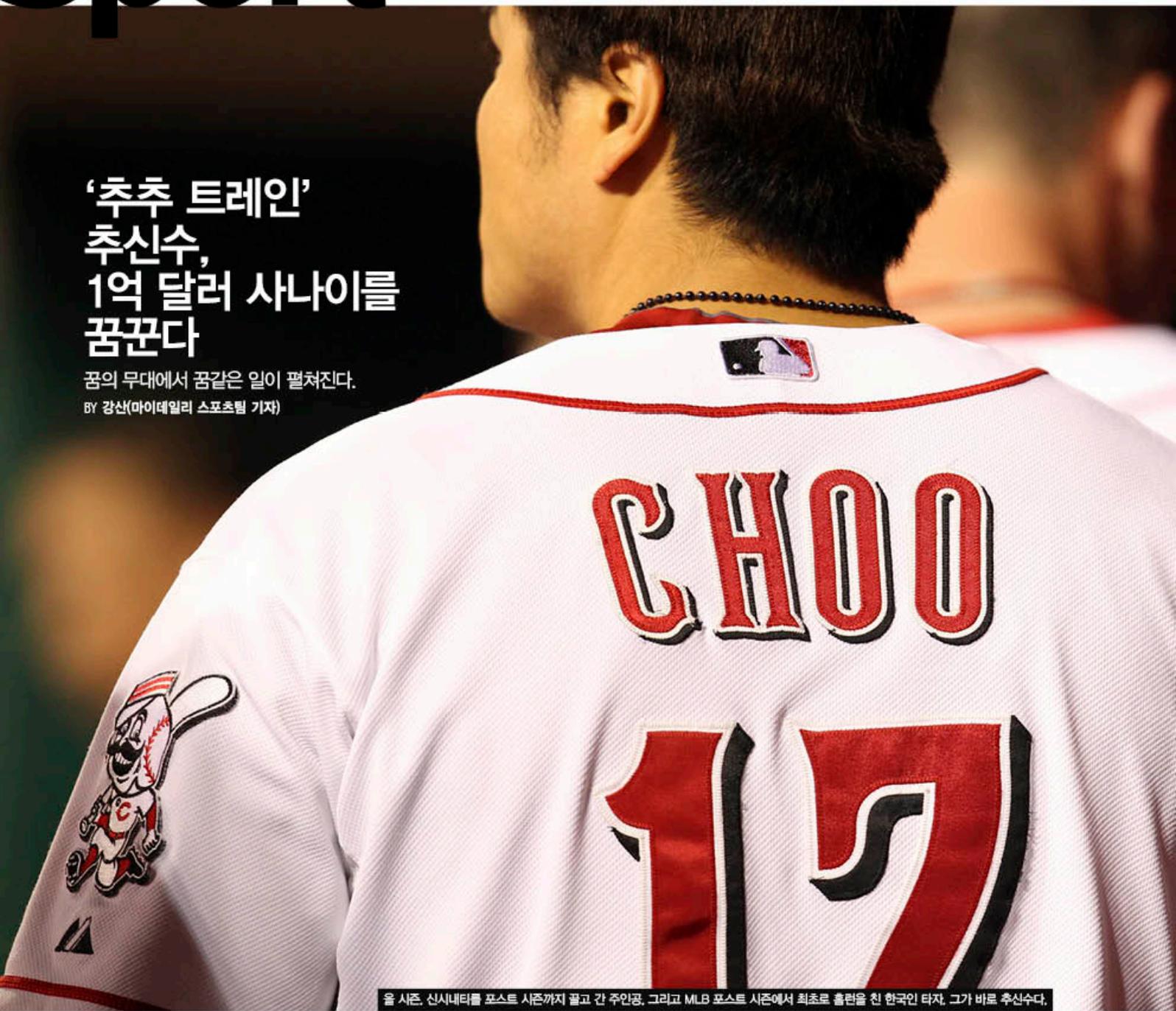
수능을 이미 패스한 대다수의 독자들은 MAXIM이 고딩 독자들에게만 편애적인 과외를 한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다음 달엔 maxing고등학교의 예쁜 동복을 공개할테니. 그나저나 누가 제일 잘 어울려?



## ‘추추 트레인’ 추신수, 1억 달러 사나이를 꿈꾼다

꿈의 무대에서 꿈같은 일이 펼쳐진다.

BY 강산(마이데일리 스포츠팀 기자)



올 시즌, 신시내티를 포스트 시즌까지 끌고 간 주인공, 그리고 MLB 포스트 시즌에서 최초로 홈런을 친 한국인 타자. 그가 바로 추신수다.

### 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다

올해 한국 야구 팬들은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했을 것이다. LA 다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데뷔 첫해 14승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고 있는 ‘추추 트레인’ 추신수도 내셔널리그(NL) 입성 첫 시즌에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오프 시즌 최대 화두는 추신수의 1억 달러(한화 약 1,074억 원) 계약 가능 여부다. 올 시즌 활약만 놓고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추신수는 올 시즌 타율 2할 8푼 5리 21홈런 54타점 20도루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3년 만에 20(홈런)-20(도루) 달성에 성공했다.

이뿐만 아니다. 4할 2푼 5리의 출루율은 빅 리그 전체 4위다. 추신수가 1번 타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증거다. 또 112볼넷, 107득점을 기록해 100-100-20-20까지 달성했다. 메이저리그에서 단 6명만 보유한 의미 있는 기록이다. 또 올 시즌 300출루를 기록한 선수는 팀 동료 조이 보토와 LA 에인절스 마이크 트라웃, 추신수 셋뿐이다. 비록 탈락하기는 했지만 지난 4일 피츠버그 파이러츠와 치른 데뷔 첫 포스트시즌 경기에서도 홈런을 터뜨리며 홀로 빛난 추신수. 게다가 팀 내 최고의 타자인 조이 보토를 제치고 ‘올해의 타자’로 선정됐으니 추신수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은 셈이다.

### 여기저기서 ‘추’를 원추

추신수의 1억 달러 계약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에이전트 스킷 보라스다. 그는 인터뷰에서 “올해를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추신수의 몸값은 총액 1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 팬을 의식한 립시비스로 볼 수도 있지만, 전혀 신빙성 없는 얘기는 아니다.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머(MTR) 사이트는 추신수를 올해 FA 랭킹 3위로 꼽았고, ESPN도 원터리그 전망 기사에서 “대어급 FA 외아수”라고 높게 평가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블리처리포트> 칼럼니스트 제이슨 마르티네스는 추신수의 행선지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했다. 화이트삭스는 올 시즌 63승 99패

로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꼴찌다. 리그에서 2번째로 승률이 낮기에 추신수가 원하는 우승 전력의 팀은 절대 아니다. 어찌 됐든 현지 언론에서 추신수를 대어급 FA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메이저리그 구단장 회의에서도 "추신수의 몸값은 총액 9,000만~1억 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라스는 그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다. "현 시점에 단장들의 예상액은 실제보다 낮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추신수는 파워와 득점 능력, 스피드는 물론 골든 글러브급 수비까지 갖춘 우익수다. 중견수도 소화할 수 있다. 또 많은 팀이 리드오프(1번 타자)를 원하고 있다."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추신수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드러낸 팀이 있다. 뉴욕 메츠와 시카고 컵스,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언론을 통해 추신수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슬쩍 내비쳤다. 최근에는 텍사스 지역 언론이 "텍사스 레인저스도 추신수 영입을 고려해야 한다.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며 관심을 보였다. 물론 신시내티 레즈 잔류도 생각해볼 만하지만 더스티 베이커 감독이 해임되면서 그걸 확률은 다소 낮아진 게 사실이다.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떠났으니 학생인 추신수로서는 남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 Go Choo! Go Choo!

지난해 말, 추신수의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 여부는 큰 이슈였다. 추신수는 미국으로 떠나기 앞서 "아직 계약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WBC에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이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새로운 팀에서 더 나은 에너지를 갖고 이기는 야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간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잘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추신수는 이적할 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WBC가 아닌 새 시즌에 집중하는 게 중요했다. 어느 선수를 막론하고 이적 첫 시즌은 무척 중요하다. 적응 여부에 따라 성적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WBC 출전 대신 첫 시즌 준비에 더욱 집중했고, "새로운 팀에서 더 나은 에너지를 갖고 이기는 야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잘할 자신이 있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추신수는 2009년 제2회 WBC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나섰고, 또 최선을 다해 뛰었다. 그의 활약이 있었기에 한국의 WBC 준우승과 아시안게임 우승이 가능했다. 특히 그는 2010 아시안게임에서 타율 5할 7푼 1리 2홈런 11타점

6볼넷의 맹활약을 펼치며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 아무 걱정 없이 빅 리그에서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추신수도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에는 시련을 겪었다. 그는 2001년 빅 리그에 진출했지만 2004년까지 단 한 차례도 빅 리그 무대를 밟지 못했다. 2005년 메이저리그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10경기 출전에 그쳤고, 2006년 시애틀에서 4경기만 뛰고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됐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그가 빅 리그에서 소화한 경기는 단 65경기다. 2008년 이후야 그는 풀타임 메이저리거가 됐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 최상급 외야수로 성장한 그는 지금도 힘겨웠던 빅 리그 진출 첫해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리고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로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력과 스타성, 인성까지 대박 조건은 모두 갖췄다. 현지 평가도 호의적이다. 지금 이 순간, 모두가 추신수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도전하고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완벽하게 도약한 코리아인 메이저리거 추신수. 그가 꿈의 무대에서 또 어떤 꿈같은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 



클리블랜드에서 20~20 클럽, 4할대 출루율 등을 달성하며 폭발적으로 도약한 추신수.



예전엔 지금보다 마른 체격이었다. 눈빛 살아있네!



그는 소속팀 신시내티를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었다.

### 추신수

생년월일: 1982년 7월 13일  
출생: 대한민국 부산  
체격: 키 180.3cm, 몸무게 93kg

소속팀: 신시내티 레즈  
투수 경력: 그는 고교 시절 구속 140km/h를 뿌리던 유망주 투수였다.  
MLB 데뷔: 2005년 4월 21일  
시애틀 매리너즈  
피는 못 속여: 와삼촌이 롯데제이언츠 박정태 선수. 추신수의 아버지 역시 복싱과 수영에 일가견이 있었다.  
고추를 외쳐라: "Go Choo!" 미국 팬들이 추신수를 응원할 때 외치는 말. 부디 내년 시즌에도 고추 농사가 풍년일길.

# Comment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 병문안 스캔들, 그 후 1년



설리아... 수지야...  
아이유가 그리하라고 가르치던? BY 손안나



한때 아이유의 인기는 신드롬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했다. 그녀가 “나는요~ 오빠가~”를 외치면 삼촌 팬들은 뒤집어졌고, 토크쇼에 나와서 경제적으로 어렵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 다음 날, 전 국민이 기특하다며 “우쭈쭈” 응원을 보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2012년 11월 10일(절대로 날짜를 잊어버릴 수 없다), 슈퍼주니어 은혁과 병문안 스캔들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난 10월 8일, 2년 만에 아이유가 세 번째 정규 앨범 《Modern Times》을 내놓았다. 천하의 아이유가 새 앨범을 발표했으니, 지금쯤 전국이 들썩들썩해야 정상인데 확실히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음악적 성과는 꽤 실한 편이다. 타이틀 곡 ‘분홍신’은 공개되자마자 버스커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를 뛰어넘어 1위에 안착했고, ‘누구나 비밀은 있다’(2위), ‘울의 연애’(5위), ‘Modern Times’(6위), ‘입술 사이’(7위), ‘우울시계’(10위)까지 총 6곡이 10위권에 진입해 차트 줄 세우기에 성공했다.

음악으로 인정받는 것. 어쩌면 이것이 “연예인이 아니라 가수로 오레 노래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아이유가 그토록 원했던 ‘뮤지션’의 그림은 아닐까. 3집은 아이유의 음악적 성숙이 잘 드러난 앨범이다. 그녀의 변신은 지루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딱 소녀와 여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한다. 타이틀 곡은 어른스러운 느낌의 스윙 재즈와 빅밴드 사운드를 차용했고, 앨범에는 원로 가수 최백호(‘아이야 나랑 견자’), 양희은(‘한낮의 꿈’)과 함께한 듀엣 곡도 있다. 또 ‘입술 사이’에서는 보컬이 어찌나 농염하고 아릿한지 이어폰으로 들으면 귀뚜방이 간질거린다.

놀라운 점은 한층 성숙해진 이 음악들이 어린 그녀와 조금의 이질감도 없이 잘 어우러진다는 것이다. “눈 깜박하면 어른이 될 거예요”라고 말하던 국민 여동생, 2년 전 그녀라면 최백호와 진행한 듀엣 작업이 할아버지와 손녀의 만남처럼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도 음악을 들어보면 알 것이다. ‘뽕끼’를 머금은 이 보사노바 곡에서 두 뮤지션의 어울림이 얼마나 근사한지 말이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병문안 스캔들은 더 이상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소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아주 강하게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 모든 게 아이유의 계획된 범행(?)이라는 추측까지 나돌았다(MAXIM 2012년 12월호 P.42 ‘아이유의 계획’).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팬들의 뒤통수를 치겠다”고 예고까지 했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 미리 짜여진 전략이든 아니든, 그때의 스캔들이 기나긴 아이유의 음악적 커리어에 독이 아닌 득이 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 일로 그녀는 자연스럽게 국민 여동생의 이미지를 탈피했고, 아이돌로서의 인기 거품을 씻어낼 수 있었으니 말이다.

작년에 아이유가 그랬듯, 올해는 유난히 스무 살 여자 아이들의 스캔들이 많았다. 걸스데이 헤리는 열여섯 살 연상인 토니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쿨하게 인정했고, 예프엑스의 ‘자이언트 베이비’ 설리가 다이아믹 듀오의 ‘대물’ 최자와 다정하게 손잡고 있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뿐인가? 아이유에게서 국민 여동생 칭호를 이어받은 수지 역시 지난 10월 11일 모델 출신 배우 성준과 열애설이 터졌다. 어쩌면 그녀들도 아이유의 전략을 충실히 따르는 중인지 모른다. 아이유의 컴백이 말해주지 않나. 이미지 변신에 ‘스캔들’만큼 효과적인 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

눈물의  
삼촌 팬들



IMAGE 로엔엔터테인먼트 제공



어떻게 하는 거죠?

자위는



# 자위의 모든 것 셀프(Self)

내 몸을 찾아, 그리고 진정한 쾌락을 찾아 떠나는 한 남자의 머나먼 자위 여정. BY 조웅제



친구가 종종 학교에 갖고 오던 야한 만화 (범개범개)와 (신혼부부)가 삶의 유일한 낙이던 시절이 있었다. '18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빨간 딱지가 붙은 책은 경험 없는 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우리는 그저 여자 가슴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린 매직 스틱을 국기 게양대처럼 세울 수 있었던 순수한 소년들이었다. 당시 우리가 열광하던 '야짤'은 이제 흉대 거리에 떨어진 공초들처럼 흔하다. 어느새 우리는 어지간한 자극이 아니면 귀두가 움질거리지 않는 '때 묻은 20대'가 되었다. '섹스'에 대한 환상? 그런 게 있었던가?

<셀프>는 그런 20대의 때 묻은 성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만화다. 작가는 파상적인 섹스를 버리고 자위 행위를 통해 진정한 쾌락과 자기애를 찾아보라고 말한다.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몸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미안하지만, 선생. 나는 항상 내 몸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애만 늘 지나친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혼자 하는 거는...

저...

성기의 노예가 아니다!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고,

나는 남자다

당신의 자위 상식은 어느 정도?



**셀프**  
 장르 드라마  
 작가 유키조우 시쿠  
 출판사 대원씨아이  
 연재 상태 전 4권(완결)  
 등급 19세미만 구독불가

장처럼 용맹하며

오늘 할당량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 비호감에서 호감, 그리고 동료애로

일상을 다룬 만화에는 반드시 독자와 작품 속 주인공 사이에 '공감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30cm의 거대 육봉을 가진 남자? 다섯 번 연속으로 서는 남자? 그런 건 '망가'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이 만화의 주인공도 실은 마찬가지다. 태어나서 20대 중반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위 행위'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없다. '섹스만' 해 본 짝난 남자란 말이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뜬금없이 '자위 행위'라는 걸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여기서부터 주인공은 독자의 호감을 얻기 시작한다.

재수 없는 '짝난 놈'은 허점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공감과 호감을 얻는다. 항상 브런치와 고급 와인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 같은 S급 연예인들이 예능에 나와 어리바리를 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인간이로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다. <셀프>의 주인공이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방법도 비슷하다. '자위 행위에 푹 빠진 섹스왕'. 이 얼마나 병신 같은 캐릭터인가? 우리는 그의 추락을 지켜보며 진한 동료애를 느낀다. 그의 엉뚱한 열정을 응원하며 힘찬 박수를 보내고 싶은 정도다. "꼭 혼자 싸시게."

## 범상치 않은 인물들의 향연

자위의 참맛을 알아버린 주인공은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아웃도어 자위 후기'를 접한다. 이를 따라 바닷가 벼랑 끝에서 기분 좋게 절정에 다다른 주인공. 하지만 이빨싸. 뿜어져 나온 정액 한 방울이 우연히 지나가던 소녀의 얼굴에 튀고, 바지를 벗은 주인공과 소녀는 그렇게 뽀뽀 향 연인을 맺는다. 하지만 예쁘장한 그녀의 정체 역시 심상치 않았으니, 그녀는 주인공보다 한술 더 떠 '자위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 부잣집 딸내미였다. 그 벼랑은 그녀가 짝해 놓은 혼자만의 '비밀 자위 장소'였던 것. 그렇게 주인공과 인연을 맺게 된 그녀는 주인공과의 만남을 통해 남성 공포증을 조금씩 극복하고, 어느새 그에게 '자위 동료' 그 이상의 애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얼마나 풋풋하고 참신한 로맨스인가! 자위 동료, 자위 선생, 그리고 주인공의 자위 연구를 돕겠다는 섹시한 여자 친구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주인공의 주변을 맴돈다. 일상을 소재로 했지만, 절대로 일어날 리가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작가는 주인공과 비슷한 부류의 인물들을 대거 등장시켜 비현실적인 주인공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자위 선생이 있는 마당에 자위를 탐구하는 사람이 뭐가 이상하겠는가.

## 그럴싸한 이론과 명대사들

갖은 방법으로 본격적인 자위 행위를 시작한 주인공은 지하철 문에 자신의 육봉을 문지르다 문에 거시기가 끼고 만다. 잦은 자위 행위와 부상으로 인해 정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그의 결을 하나둘씩 떠나는 여자들. 자위 선생은 그의 정자 활동 상태를 모니터로 보여주며 원인을 밝힌다. "음... 역시 그랬어" 그녀들은 그가 남성성을 상실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의 환호성 섞인 리액션이 가관이다. "이제 난 성기의 노예가 아니다" 중독 보존의 능력이 탁월했던 수컷이 능력을 상실하자 암컷들이 본능적으로 떠나가게 된다는 이론은 꽤 그럴싸하다. 그 어떤 만화가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들먹이면서 자위 얘기를 하고



올라온 자위를 거부해줄게.

있었겠는가. 명작 자위 만화를 만들기 위한 작가의 노고에 고개가 숙여진다.

이론뿐 아니라 묘비명에 적어도 어색하지 않을법한 명대사가 난무한다. "인생은 자위야. 마찰이 일어날수록 기분이 좋지.", "너도 문지르고 마구 문질러 뱌 문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이만큼 멋진 표현이 있을까. 버나드 쇼가 울고 갈 정도다.

## 급이 다른 묘사

<요리왕 비룡>이나 <미스터 초밥왕> 등, 요리 만화에 등장하는 심사위원들의 우주적 리액션을 기억하는가.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바닷속을 헤엄치는 장면들 말이다.

<셀프> 역시 이런 묘사들을 즐겨 한다. 절정에 이르는 순간 록 페스티벌에서 환호하는 사람들과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나타나며 남녀 주인공이 하늘을 난다. 분명 오르기슴에 다다르는 그 순간은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의 향연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요란했던가...?

그림으로 묘사하는 '큰 한 방' 외에도, 작가는 텍스트를 이용해 자위 행위를 멋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췄다. "바그너처럼 아름답고 힘차고 드라마틱한 선율에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에요" 여자 주인공이 집안끼리 선을 보는 장소에서 뜬금없이 자위 행위를 하는 순간 상대 남자가 그녀를 보며 외치는 말이다.



세상에 어떤 미친 년이 선보는 장소에서 자위를 하고 또 그걸 보고는 어떤 미친 놈이 감탄을 하느냐 말이다!

한편, 자위의 최고수인 과외 선생은 비장하게 웃을 집어 던지며 이렇게 말한다. "진짜 자위를 보여 줄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인공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 모습은...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고, 무장처럼 웅망하며, 전장의 성난 함성처럼, 우주의 자장가처럼 모든 희로애락이 넘쳐흐른다."

## '급'을 깬 신장르, 그리고 새로운 시도

엄청난 흡인력을 가진 개판 5분 전 스토리에 푹 빠져 만화를 읽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고작 4권짜리의 짧은 스토리를 읽었음에도 마치 긴 여행을 다녀왔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한 편의 팬타지 대 서사시를 감상한 느낌이었을까? 그간 섹스를 주제로 한 만화는 많았다. 하지만 훌륭한 작화를 갖추고 있음에도 자극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시각적인 유익함(?)만을 제공하는 B급 만화로 취급받기 일쑤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야망가' 내지는 '상업지라 부르며 작품성은 논외로 두거나 무시해 왔다.

<셀프>를 보면 생각이 바뀐다. 깔끔한 작화, 시트콤 속 인물들처럼 개성 넘치는 캐릭터, 유익한 생활 정보 (무슨 정보...?) 그리고 잔잔한 여운까지 제공하는 그런 만화다. 마치 일 년의 금욕 기간 후 오랜만에 맛보는 자위 행위처럼 '속이 후련한' 만화라고나 할까? 🍷

## 오직 비주얼로만 승부한다!

당신의 정자를 마르게 할 만큼 '뽀뽀'나게 섹시한 만화들



### 병개병개

말도 안 되게 촌스러운 이름의 이 만화는 동정이던 남자 주인공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자들을 꼬셔 정복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병개병개'인가? 촌스러워) 주인공은 직장 상사, 모델, 보험사 직원, 연예인 등 별의별 여자들과 즐기지만 정착 여주공인이라 할 수 있는 두 여자는 여고생이다. 아첨법 개입이 없던 시절에 유행하던 작품이니 그러려니 하자.



### 신혼부부

만년 동정이던 남자 주인공이 결혼할 때가 되어 선을 보는데, 완벽한 현모양처 스타일의 초미녀를 만나게 된다. 우물쭈물하던 주인공의 프로포즈가 어이없게 성공하고, 이후 진짜 '신혼부부'가 된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다. 매 권 전체 분량의 절반 정도가 '밤 일'에 관한 내용으로, 신혼부부의 성생활을 적나라하게 그려냈다. 그래서인지 실전에 써 먹을 수 있을 만한 유익한 내용들도 꽤 많다. 아, 물론 굉장하지 않다.

# Comment

## 배우열전

### 송강호의 '얼굴'

구렁이 같은 얼굴로 삼라만상을 표현하는 대한민국 대표 얼굴. BY 손안나

34-24-36...?



"이제 송강호도 악발 다 했다". 작년과 재작년 <하울링>, <푸른 소금>으로 이어진 망작 콤보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단정지었다. 올해, 송강호는 그러한 세간의 평가를 바꿨다. 지난 8월 <설국열차>로 900만, 한 달 뒤 개봉한 <관상>으로 800만 관객을 동원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관상>을 보면, "역시 송강호"라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번 영화에서 그는 관상으로 사람의 운명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췄지만, 정작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한 관상가의 회한을 영화 마지막, 단 몇 초의 클로즈업으로 표현해낸다. '술(마신 듯한 얼굴) 툰'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저씨스러운 피부색, 퇴근길 지하철에서 마주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자극히 평범한 이목구비. 그런데도 일단 송강호의 얼굴이 스크린 가득 잡히면, 우리는 침을 꿀꺽 삼키고 그의 미세한 표정 하나하나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를 잘 아는 영리한 감독들은 영화 말미에 꼭 송강호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자신들이 러닝 타임 내내 보여주고 싶어 하던 어떤 '얼굴'을 관객에게 각인시킨다. 그런 면에서 송강호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이자 대표 '얼굴'이다. <박쥐>에서 불에 타 죽어가는 뱀파이어 신부나 <살인의 추억>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말하는 형사 박두만의 얼굴은 당신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지 않나.

<관상>의 개봉을 앞두고, 송강호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제 얼굴이 '구렁이 상' 이랍니다. 짝눈에 구렁이 상은 남을 속여 즐겁게 해주는 직업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마술사가 아니면 연기자가 될 운명을 얼굴에 타고났다고 하네요." 정말이다. 사람을 흘리는 이 남자의 구렁이 같은 얼굴에 우리는 이번에도 또 속아 넘어갔다. 🐍

송강호 레전드 연기 5



영화 <관상>에서 계유정난에 휘말리게 된 천재 관상가 김내경을 연기한 송강호.

### 송강호의 여자들 그리고 '안 팔린' 송강호표 멜로 영화 3선.

#### 전도연 in <밀양>

전도연과 송강호가 만나니 터지라는 '케미'는 안 터지고, 대중상 시상식 분위기가 연출되더라. 스크린 가득 이 커플의 투샷이 나오면, 기립박수쳐야할 것 같잖아.



#### 신세경 in <푸른 소금>

송강호 멜로 연기의 최고의 오점. '연기의 신' 송강호도 말 뽀 되는 신세경과의 '나이 차이'는 뛰어넘지 못했다. 사실 신세경은 <괴물>과 <설국열차>의 '송강호 전용 딸' 고아성과 겨우 두 살 차이다.



#### 김옥빈 in <박쥐>

영화는 강렬하지만 '멜로'에선 대실패다. 관객의 뇌리에 박힌 장면은 김옥빈과의 베드신이 아니라 송강호의 불알 노출신이거든. 덜렁 덜렁~ 덜렁 덜렁~



# Game

CHARACTER OF THE MONTH

## 영웅의 군단 라시타



히잡을 벗은 이슬람계 미녀는 이런 모습인가! BY 조웅재

### → 라시타

개발 단계부터 게이머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캐릭터는 의문의 소녀 '라시타'다. 뚱한 표정에 걸렁걸렁한 것이 페르시아 거리 뒷골목에서 마주했다간 "뭘 고라보냐"며 개머리판으로 죽빵이라도 날릴 기세다. 도통 그녀의 속을 알 수 없어 개발자에게 "이 여자 뭐 하는 여자요?" 라고 묻자 아직 밝힐 수 없단다. 뭐야, 젠장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알아서 추측하는 수밖에. 일단 화승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직업은 거너(Gunner)가 아닐까 싶다. 허리춤에 매고 있는 저 북처럼 생긴 물건은 폭탄인가? 터번을 쓰고 허리가 날씬한 것을 보면 무히 출신일 테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으니 소식적에 꽤 고생을 한 모양이다. 그러므로 고아 출신이라는 설정을 추가하자. 마지막으로 관상을 보면 눈매가 날카롭고 코 위에 점이 있으니 좋은 레이싱 모델이 되겠구나! 농담입니다. 그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요. 하하. ☹



혹시...

요거 보고 만드셨세여?

웬지 익숙한 얼굴과 포즈... 지난 MAXIM 5월호 속 '공구 화보'에 나온 모델 최별하 씨를 꼭 빼닮았잖아! 태닝만 시킨다고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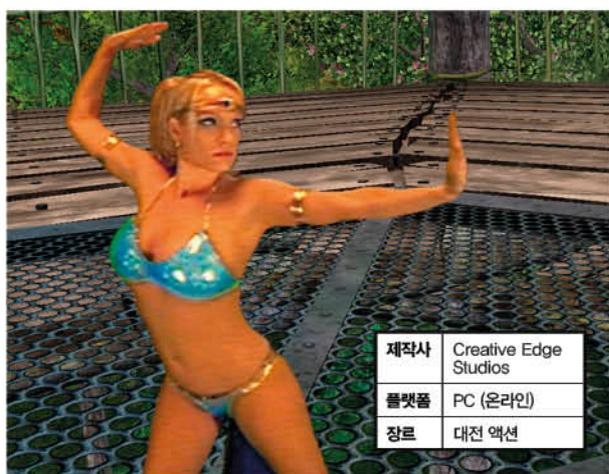
모바일 게임 맞아?



장르	모바일 MMORPG
플랫폼	Android
개발사	넥슨/엔도어즈 3차 CBT 준비 중

### 영웅의 군단

넥슨이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풀 3D 모바일 MMORPG 게임. 모바일 게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안드로이드 유저에 한해 APK 파일을 홈페이지(yg.nexon.com)에서 다운로드해 설치 후 즐길 수 있다. MMORPG 게임을 모바일 플랫폼 안에서 적절히 녹여낸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기존 MMORPG처럼 3인칭 백 뷰 시점으로 캐릭터를 움직이듯, 실시간이 아닌 너 한 대 너 한 대 때리는 턴제 전투 방식을 도입했다. 불안한 스마트폰 통신 환경에 걸맞은 게임 방식이랄까? 비록 정식 서비스 단계는 아니지만 CBT 플레이를 해 본 결과 어지간한 온라인 게임 못지않은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 이 달의 병신 게임! 비키니 가라데 베이브즈 2 Warriors of Elysia

 '비키니, 가라데, 여자'라는 훌륭한 소재로 이런 똥망 게임이나 처만들고 있어? BY 조용재



**1 어색한 그래픽**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의 백미인 '실사 오프닝'이 시작된다. 유적지 같은 고대 사원 앞에서 핑크색 비키니 차림의 여자들이 육탄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하나 둘 나타나 함께 뒤엎는다. HD 화질이 판치는 요즘 시대에 마치 <우뢰매>를 틀어놓은 듯 흐리고 촌스러운 색감에 속이 터진다! 비키니는 아메리칸 어패럴에서 단체 협찬을 받았는지 죄다 무난하고 정직한 단색 뿐이다. 옷에 신경 좀 쓰지, 찌웃. 본격적인 게임 화면으로 들어가면 화려한 3D CG를 배경으로 매우 평면적인 2D 실사 캐릭터가 등장한다. 유능한 그래픽 디자이너를 불러다 2년 동안 배경 작업만 시키고 집에 보냈나 보다. "사장님, 캐릭터는 어떡할까요?" "필요 없어! 너넨 그저 배경이나 만드는 기계일 뿐이지."

**2 어실픈 캐릭터**  
게임 속 캐릭터는 피부색이 각기 다르며, 착용한 비키니도 차이가 있다. 인종이 다양한 것은 범세계적 히트를 노리고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물론 동양인 언니는 전혀 예쁘지 않다. 양키들이 동양 여자를 보는 인목은 여전히 개편이다. 물론 실사 캐릭터의 자연스럽게 출렁이는 가슴은 쓸쓸한 볼거리다. 하지만 육덕이 지나치다 못해 육중해 보이는 어떤 캐릭터는 가슴과 복부가 함께 출렁여 부담스럽다. 펀치를 내지르면 팔뚝이 출렁이고, 땅 짚고 무거운 몸을 들어 올리면 처진 뱃살이 출렁인다. 제작진은 한 인터뷰에서 "아하라고 만들었다기보다는 대놓고 웃기려고 (hilarious)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래서였다. 망할 자식들! 이모님을 섭외할 작정이었으면 포샵이라도 제대로 해드리던가.

**3 답답한 조작성**  
펀치 버튼을 마구 누르면 주먹을 휘두르는 연속기가 작동한다. 그러다 키를 누르면 발이 나가야 하는데, 아까 누른 펀치가 계속 이어진다. 당황한 나머지 후퇴하려고 뒤로 가는 방향키를 눌렀는데, 방금 전 누른 키이 뒤늦게 입력되어 필살기가 나간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PK' 라는 필살기를 입력했나 보다. 기세를 몰아 잡기 버튼을 눌렀더니 상대를 집어서 던지기는커녕 옆으로 눕히고는 스팅킹을 한다. 조, 좋다! 참고로 펀치 버튼만 연타해도 최종 보스 따위는 쉽게 때려눕힐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난도를 'EXPERT (숙련자)' 레벨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쉽다. 필살기? 연속기? 그런 게 왜 필요해! 그냥 펀치만 눌러도 두드러 떨어질 수 있는데.

 **총평 ★☆☆☆☆**  
게임을 제작한 스타프 중 누군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 "제대로 된 격투 게임을 하고 싶으면 오락실 가서 철권이나 해라." 그래 맞아. 이건 웹에서 할 수 있는 10메가바이트 용량의 플래시 게임만도 못하다. 조작도 구리고 볼거리도 시원찮다. 이 게임 속 '현실의 섹시녀'보다 <DOA>에 나오는 '가상의 섹시녀'들이 훨씬 꿀맛하다! 구르고 때리고 터지는 것도 모자라 초상권까지 팔린 여자 모델들만 안쓰럽다. 그런 그녀들을 위해 특별히 별 두 개를 투척한다.



1 식물을 조합해 요가 하이어를 발사할 수 있다.



2 18인의 좀비가 도로를 질주하고.

## 피와 살이 튀는 모바일 워그!

수능도 끝났다. 애인도 없이 방구석에서 뒹굴거리는 당신을 위해 손바닥만 한 액정으로 좀비를 갖고 노는 방법을 알려주마. BY 조용재

플레이 화면 미리 감상!



3 게임의 특징을 단번에 이해하게 만드는 튜토리얼 화면.



4 쓰리 쿼션을 실패해도 게임이 몰아 낼 걱정은 없다.

### 1 좀비를 막자! Plants vs. Zombies 2

제작사 EA Swiss Sarl  
플랫폼 iOS  
가격 무료



느릿느릿 걸어 오는 좀비를 식물로 무찌르는 <식물 대 좀비> 시리즈의 후속작.

전작에서 스케일이 고작 주인공 앞마당에 불과하던 배경이 <백 투 더 퓨처> 급으로 커졌다. 플레이어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며 좀비를 때려잡아야 한다. 제 앞마당 지키기도 빠듯한 주제에 오지랖도 넓지. 유료였던 전작과 달리 무료로 바뀌었지만, 알다시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쥐꼬리만큼 모이는 돈이 답답해서 자꾸만 코인 결제창으로 손이 이동하는 비굴한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

### 2 좀비를 만들자! Infectorator Hot Chase

제작사 Armor Games  
플랫폼 iOS/Android  
가격 무료



바이러스를 뿌려 세계를 감염시키며 '정복의 맛'을 제대로 보여준

<인펙토네이터>의 두 번째 시리즈다. '체이스(Chase)'라는 부제목답게 이번 작품은 레이싱 요소를 가미해 전작과 게임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플레이어는 빠르게 달리는 좀비를 터치로 조작해 사람들과 부딪히게 만들어 좀비로 감염시켜야 한다. 전작에 출연한 김정일, 마이클 잭슨 좀비에 이어 새로 추가된 패러디 캐릭터 '강남 좀비'를 사용해 보자. 돈을 끌어모으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 3 좀비로부터 벗어나자! Zombies Run!

제작사 Six to Start  
플랫폼 iOS/Android  
가격 4,338원



"달려! 달려! (Run! Run!)"라는 목소리가 긴박하게 울려 퍼진다. 이제 당신은 '진짜로'

달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듣기 싫은 좀비의 울음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들려온다. 화면에 표시되는 좀비와의 거리(Distance)가 점점 줄어든다. 마음이 급해진다. 원래 운동 목적으로 개발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GPS 기반으로 작동하는 오디오&텍스트 게임이다. 주어진 시간 동안 일정 거리를 빠르게 움직여야 가상의 좀비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여유를 두고 플레이하자. 급한 나머지 버스나 택시를 타는 병신짓은 하지 말도록.

### 4 좀비를 아작내자! Stupid Zombies 2

제작사 GameResort  
플랫폼 iOS/Android  
가격 무료



"쿠션에 능한 자, 세상을 구하라." 장총을 든 캐릭터의 총구를

움직여 총을 쏘아 맵 이곳저곳에 멀뚱히 서 있는 좀비를 잡는 게임이다. 총알이 최대 10번까지 벽을 맞고 튕겨 나오는데, 소실적 4구 좀 처분 사람이려면 스마트폰을 손에 쥐자마자 '길'이 보일 것이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암전 시 서 있던 좀비가 기어다니는 등 개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동안 당구장에서 갈고 닦은 황오시, 마오시, 딸딸이 스킬을 적절히 조합해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자! "자기가, 내가 방금 딸딸이로 세 놈을 죽였어!"

게임 전문 카툰리스트 원사운드(Onesound)가 이번 달부터 MAXIM에 합류한다!  
당신의 게임 라이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원사운드 게임 카툰 Star!

**Panel 1 (Top Left):** grand theft auto V. 안녕하세요. 맥심에서 인사드리는데 원사운드입니다.

**Panel 2 (Top Middle-Left):** 게임 모르는 분들이 좋아할만한 수식어로는 출시 당일 1조 800억 어치를 판 게임의 정수 GTA의 신작! PC판 아직 안나와서 팔았던 게임기 또 삼.

**Panel 3 (Top Middle-Right):** 시리즈 처음으로 한글판을 내줬죠. 살다살다 GTA 한글판이 나오는걸 보게 될 줄이야... 과연 21세기...

**Panel 4 (Top Right):** 무슨 게임인지 짧게 요약하면 미국에서 범죄 저지르며 생활하는 게임입니다. 생활감이 좋은 게임이에요.

**Panel 5 (Row 2, Left):** 거대 도시를 아주 현실감있게 잘 구현한게 특징.

**Panel 6 (Row 2, Middle-Left):** 은행을 털어서 돈을 번 후 인터넷 쇼핑으로 차를 산다든가

**Panel 7 (Row 2, Middle-Right):**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든가 영상 전체가 다 들어있음.

**Panel 8 (Row 2, Far Right):** 술이나 대마가 있어서 이걸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버블검**

**Panel 9 (Row 3, Left):** 게임 설명서가 없고 큰 지도만 들어있음.

**Panel 10 (Row 3, Middle-Left):** 친구랑 만나서 테니스를 친다든가 테니스 미니게임을 할 수 있음.

**Panel 11 (Row 3, Middle-Right):** 게임안에서 극장에 들어와 영화를 보다니!

**Panel 12 (Row 3, Far Right):** **회성** **회성** 캐릭터 조작이 제대로 안됨.

**Panel 13 (Row 4, Left):** 돌아다니다 보면 스트립바가 있고 에이 비키니네.

**Panel 14 (Row 4, Middle-Left):** 안에 있는 스트리퍼에게 돈을 줄 수 있으며 버튼 연타에서 돈 뿌려야 됨.

**Panel 15 (Row 4, Middle-Right):** 돈을 많이 주면 프라이빗 룸에서 다른 쇼를 하기 시작. 어!? 전작엔 숨가노출 없었는데!!! 이게 왜 가슴 **인형**

**Panel 16 (Row 4, Far Right):** 페이스북이나 아이폰, 같은 미국 문화를 비꼬는 내용도 재밌죠. [www.bleeter.biz](http://www.bleeter.biz)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립니다. 허세남 허세녀들의 잡담 세상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당신이 재미있는 친구들과 끝내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십시오. 등장인물들이 SNS도 함. 새로 출시되는 폰에 폭탄을 설치한 다음 이 폰은 혁신입니다! 주커버그+잡스 패러디 등장인물

**Panel 17 (Bottom Left):** 집에서 TV로 생방송을 보며 터트리는 미션이 있질않나... **퐁!** 제노리스 생방송 **까아아악!!**

**Panel 18 (Bottom Middle-Left):** 주인공 세명을 플레이어가 직접 전환하며 **영화나 책으로는 즐길 수 없는 멋진 경험이거든요.** **영화** **운전** **전투** **집에서 게임**

**Panel 19 (Bottom Middle-Right):** 미국에서의 삶이 잘 느껴 지는 게임입니다. 여행한다는 기분으로 해보시면 좋을거예요. **VINEWOOD** 미션은 안하고 관광사진만 즐창 찍음.

**Panel 20 (Bottom Right):** 저 근데 실제 미국은 안 저렇습니다. 에이 거짓말. 일본가서는 마추치니까 다들 포켓몬 꺼내던데요. **그렇리가 있다.**

# Subscribe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구독 중 가격 인상 없는 서비스, 푸짐한 사은품까지!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MAXIM KOREA**

**XTINA**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세 번째 MAXIM  
세 번째 합을 맞추니 나올 것이 나오고 알았다  
지구에서 가장 매력적인 팝스타와 나는 어른들의 비밀 토크

**ONE NIGHT STAND**  
여자의 옷차림과 원나잇의 상관관계

**SKILL FOR GIRLS**  
1초 만에 남자 흘리는 기적의 페티시 활용법

**EXCLUSIVE**  
45업승의 살아있는 전설, 스포츠 재벌 1위  
**Floyd Mayweather Jr.**  
"예전 절친 50Cent와의 관계는 어떤가?"  
"관계? 난 여자하고만 관계한다"

**MISS MAXIM 한미 4:4 합동 훈련**  
한국 미스맥심 TOP4의  
**SEXY HALLOWEEN**  
US 미스맥심 최정예 4인방의  
**LINGERIE BOMB**

**MAXIM RPM**  
이달의 차: DS3 투경 뺨네  
BMW에 빠진 미녀 에디터들의 M상황  
현대차 다니는 독자의 애마, 기아 포르테

**BMW LEXUS**  
**M.F**  
VS.  
2013년 10월호  
정가 5,900원

**MAXIM 법정**  
이혼의 모든 것  
결혼 전 마지막 경고!

**STYLE BATTLE**  
서강대 VS. 홍익대  
더 물 좋은 학교는?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최대  
5만 원  
할인!**



48개월  
정기 구독시  
무료 증정

**ARBUTUS 손목 시계**

3개월	정가 17,700원	
6개월	32,400원 (정가 35,400원) 3,000원 할인 + 1,000원 적립	
12개월	63,800원 (정가 70,800원) 7,000원 할인 + 2,000원 적립	
24개월	126,600원 (정가 141,600원) 15,000원 할인 + 4,000원 적립	
36개월	182,400원 (정가 212,400원) 30,000원 할인 + 6,000원 적립	
48개월	233,200원 (정가 283,200원) 50,000원 할인 + 8,000원 적립	



※떡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떡=1원)  
※사은품은 한정 수량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왼쪽 QR 코드 스캔 후 확인하세요!

## 정기 구독 신청 안내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 2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 하나은행 569-910012-00904
- KB국민은행 185801-01-004866
- 농협 355-0006-4797-03
- 신한은행 100-026-074070
- 우리은행 1005-701-637646
- 기업은행 208-107032-04-013
- SC제일은행 117-20-225316
- 우체국 012559-02-079161

**MAXIM을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매거진 앱!  
종이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 MAXIM의 아이패드 매거진에는 편리한 인터랙티브 디자인, 풀 버전 영상 화보, 종이 매거진에서는 볼 수 없는 미공개 화보와 깨알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MAXIM KOREA] 또는 [맥심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아이패드 매거진 : 1권 구매 시 \$2.99 / 1년 정기 구독 시 \$19.99  
아이폰 매거진 : 1권 구매 시 \$0.99

원나잇 성공률 높이는 법  
Part 2. 결정 편

술자리에서 침대로  
직행하는 법

애꿎은 술값만 낭비한 채 다음 날  
홀로 해장술을 마시는 것만큼 서글픈 게 또 있을까?

BY 김희성 PHOTOGRAPH YuD MODEL 2012 MISS MAXIM 우승자 단영



## “나가서 술 한 잔 더 할래요?”

저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 무리의 여자를 당신은 아까부터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다. 당신의 합석 제안에 그녀가 알듯말듯한 표정을 짓는다. 당신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건 오케이 사인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걸. 당신은 오늘 처음 본 그녀와 함께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긴다.

### MT와의 거리를 고려하라

합석 제안을 수락한 그녀들과 다음 행선지를 찾아 나서거나 1차에서 2차로 이동할 땐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밖에 나와서 “어디 가지?”, “뭐 좋아해요?”라고 물어본 뒤 갈 곳을 정하는 건 고조돼 있던 텐션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밖에서 헤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흥은 꺾이고 중간에 집으로 향하는 이탈자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2차로 갈만한 행선지 정도는 미리 조사를 하고 실전에 임하라.

아, 2차 장소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또 하나 있다. 바로 모텔과의 거리다. 모텔이 있는 동네나, 모텔까지 택시 기본요금 거리인 장소에서 마시는 게 가장 좋다. 알겠지만 술자리에서 모텔로 향하는 동선이 길수록 술기운은 떨어진다. 술이 점점 깨면서 별안간 정신이 말뚱말뚱해지며 냉철해진 그녀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MT 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술이 점점 깨가는 상태에서의 섹스는... 아아, 그 기분이 얼마나 최악인지는 당신이 아마 더 잘 알고 있겠지.

### 그녀를 귀엽다는 듯이 대하라

여자들은 누구나 자신이 쉬운 여자로 보이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난 당신과 술을 마시는 내내 그녀의 주파수는 모두 거기로 맞춰져 있을 거다.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해도 자신을 쉬워 보이지 않는 여자로 보이게 할 만한 답변을 하려고 할거다. 그렇기 때문에 원나잇 상대로 만난 그녀에겐 오히려 아한 얘기로 대화를 끌어가지 않는 게 좋다. 그런 대화를 진행하면 할수록 여자의 섹스 텐션이 고조되는 게 아니라 '쉬운 여자'로 보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영국 더햄 대학의 심리학 교수 캠벨이 과학기술 학술지 <휴먼 네이처>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남자는 자신의 원나잇에 대해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 여자는 원나잇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걱정한다.

안 그래도 오늘 처음 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대화마저 그러면 그녀는 더 방어적이게 된다. 이따가 원나잇을 할거라고 해도 어찌됐든 오늘 처음 본 남자다. 오늘 보고 말 사이라고 해도 자신이 쉬운 여자였다고 평가 받기를 원하진 않는다. 이럴 때 당신이 해야 하는 건 그녀를 전혀 쉬운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대화에서 그녀의 몸매나 섹스를 소재로 한 이야기는 철저히 제외한다.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나 스포츠, 각종

취미나 관심사 등 소개팅 자리에서나 할법한 이야기들을 해라. 그리고 그녀에게 '섹시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다', '귀엽다'라고 하는 편이 낫다. 스킨십을 할 때 당신의 손은 그녀의 허벅지나 허리, 엉덩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녀의 손을 잡거나 볼을 살살 어루만져 주는 편이 낫다. 그러면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쉬운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여자로 봐준다고 느끼게 된다. 그런 느낌을 받은 이상 그녀가 당신과의 섹스를 거절할 이유는 없다.

# Sex Want more?



원나잇 스탠드 이후 여자의 만족도는 남자보다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원나잇 판타지를 자극하라

여자들은 원나잇을 사전에 결심하고 나오지는 않는다. 기승골이 흰히 들여다보이고 아슬아슬한 길이의 원피스를 입고 나온 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이거나 기분에 따라 입은 것이지 작정하고 원나잇 상대를 포드기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술을 마시거나 클럽에 가는 이유도 원나잇을 하기 위해 의도한 동선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노는 도중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도 그녀가 기대했거나 예상한 일이 아니다. 그녀에겐 '우연'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여자들은 원나잇을 계획하지는 않지만 원나잇 판타지는 갖고 있다. 자세한 그림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큰 그림은 이렇다. '우연한 장소에서 우연히 자신에게 반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된다. 우연히 술을 같이 마시게 되고 술자리는 곧 격정적인 섹스로 이어진다. 다음 날 눈을 뜨면 따스한 햇살이 자신을 비추고 어제의 그가 자신을 따듯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운명적인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는 게 대략의 줄거리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라며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의 마음이 단지 하룻밤을 위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흥대 주차장 거리나 강남역, 건대, 신천길에 술집이 즐비한 거리에서 흔히 오고 가는 뻘한 멘트는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흔히 픽업 아티스트라고 본인들을 일컫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멘트들은 오히려 반감을 사기 십상이다. 무슨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는 상황의 디테일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럴 땐 이런 멘트를 날려야 100% 먹힌다' 같은 완벽한 방법론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뻘한 멘트는 자제하고 원나잇 판타지를 자극할 것. 그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당신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원나잇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여자들이 품고 있는 환상이 아니다. 여러 번의 원나잇을 해본 여자도 '혹시나 이번엔 진짜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니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당신 같은 분을 보게 돼 그냥 가면 후회할 것 같았어'라는 진지한 멘트로 그녀의 판타지를 자극하라. '혹시나'하는 그녀의 마음이 '예스'를 부를 수도 있다.

## 일단 그녀의 집 근처로 가라

이제 남은 건 그녀와 밤을 같이 보내는 것뿐이다. 그런데 할 건 다해놓고 같이 자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며 MT행을 거절하면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일 거다. 피같은 술값이 공중분해 될 지경이니 말이다. 아마 당신이 마음에 들어 함께 술은 마셨지만 생판 처음 보는 남자와 당장 자려니 겁이 나서 일거다. 원나잇 이후 당신이 그 후기를 이야기하고 다닐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걸 댄 일단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는 그녀의 의사를 존중해 주며 "위험하니 동네까지 데려다 줄게"라고 하라.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술까지 같이 마신 사이이기 때문에 거절하진 않을 거다. 그녀는 집에 가면서 1차 안심이 된다. 잠깐이라도 당신을 위험군으로 분류했던 걸 미안해 하면서 말이다. "그녀가 사는 동네에 내린 다음 한 번 더 던져봐라. "그냥 보내기 아쉬 워서 그런데 같이 있을까?" 그녀는 머뭇거리다 수락할 거다. 왜냐고? 이상하게도 집 근처에만 오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섹스를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 그녀의 집 근처에서 MT행을 제안해 봐라. 성공률은 보장한다.



### MT행을 말로 허락받지 마라

아침한 시각까지 함께 술을 마신 데다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오갔다. 둘 사이에는 지금 언제 당장 섹스를 하러 가도 이상하지 않을 기류가 흐르고 있다. 드디어 그가 그 말을 입 밖에 낸다. “오늘 같이 있을까?” 이럴 땐 뭐라도 답을 해야 할지 사실 굉장히 난감하다.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사실 그녀도 이미 달아올랐지만 ‘같이 잘까?’, ‘쉬었다 갈래?’라고 물어오면 뭐라도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해진다. 막상 ‘오늘 밤 함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튀어나오고야 마는 거다. 대부분 상대편이 나를 그렇고 그런 여자로 생각해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쉬운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노’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오늘 같이 자자’는 말에 선뜻 ‘예스’를 하기에도 참 민망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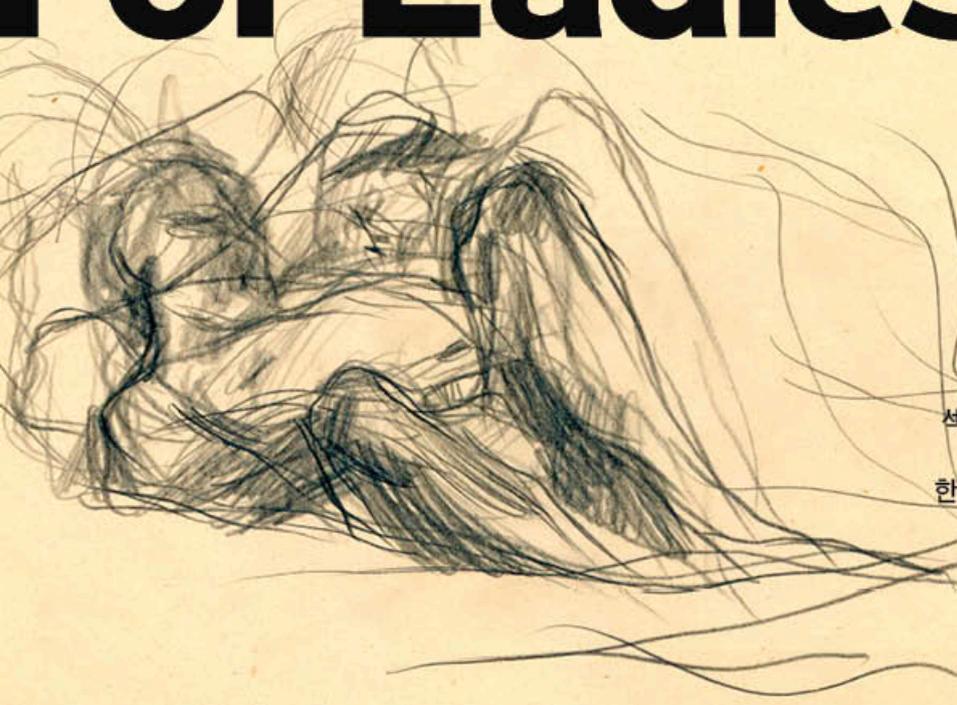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곧 섹스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남자를 눈 앞에 두고 당장의 섹스에 대한 생각보다는 원나잇 이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어찌 됐든 원나잇도 상대에 대한 호감이 전제돼야 가능한 건데 상대에 대한 호감이 취기 때문인지 진심인지 당시로서는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다가 일이 잘 돼 원나잇 이후 상대와의 관계가 진전됐을 경우, 이날의 헤터보임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뒤로 빼기도 한다는 거다.

섹스 자체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원나잇을 하게 된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 외롭고 힘든 상태에 처했을 때 원나잇을 더 즐기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원나잇 상대가 남친이 되는 상상을 여자들이 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물론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쓰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그냥 아예 그 질문 자체를 하지 마라. 아마 당신도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을 거다. 섹스를 제안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아주 민망하고도 오그라드는 순간을 말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합석 제안을 수락하고, 당신과 몇 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오간 그녀에게 ‘오늘 나랑 잘래’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녀는 당신과 술을 마시기로 한 그 순간 오늘 이 사람과 섹스를 해도 상관없겠다는 마음을 이미 먹은 거다.

그렇다고 아무런 말도 없이 무작정 MT로 데려가라는 건 아니다. 그랬다간 나중에 변태, 개객기로 욕을 먹거나 최악의 경우 고소미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의 답변이 필요한 의문문으로 말하지 말고 ‘술 많이 먹었으니까 눈 좀 붙여야겠다’, ‘술 쥔 때까지 조금 쉬어야겠다’며 그녀의 눈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하라. 그녀가 별다른 말없이 미소를 짓는다면 지금 그녀는 ‘쿨’을 외친 거다. ☺

# For Ladies



## 섹스 파트너와의 적당한 거리

오직 섹스만을 위한 자극적이고 걱정적인 관계,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섹스 파트너는 더 차갑고 건조하게 느껴진다. 당신과 그 남자 사이는 어떠한가? 한 여자와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 봤다.

BY 이영비

“아아..”

그가 나의 턱을 깨문다. 치아가 턱을 파고드는 아픔에 정신이 번쩍 든다. “아파?” 다정해진 그의 목소리. 하지만 움직임은 멈추지는 않는다. 그는 나를 배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서로의 섹스 파트너다. 시계는 어느새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다.

갑자기 울리는 아이폰 벨소리에 벌떡 잠에서 깬다. 사무실 책상에서 고개를 드니 새벽 4시. 울리는 건 내 전화다. 그다. 술에 취해 있다. 아직 흥대라고 한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많이 바쁘지, 집엔 언제 들어갈 건지 스케줄을 묻는다. 일이 산더미처럼 남았지만 집에 곧 들어갈 거라고 대답한다. 그가 약간 늘어지는 목소리로 말한다.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가 없다고, 대리운전도 안 올 것 같다고, 밖은 아주 춥다고 말이다. 내가 말한다. “그럼 자고 갈래요?”

그의 전화가 오기 몇 시간 전, 그러니까 저녁 무렵, 그는 흥대 근처에서 일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아마 몇 시간 뒤에 너랑 섹스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할 거야.’ 라고 대놓고 말할 자신이 그에게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늦은 밤에 이 근처에 있다며 ‘일부러’ 동선을 나에게 알려줬다. 조금 잠잠은 방식으로 돌려 표현했지만 그의 의도는 충분히 전달됐다. 피식 웃음이 나온다. ‘아, 오늘 이 양반이 되게 하고 싶나보네.’

몇 분 뒤, 회사 앞으로 그의 차가 도착한다. 그의 차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이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눈에 들어온다. 하늘색 줄무늬 셔츠를 입은 그가 차에 앉아서 날 기다리고 있다.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어요?” “이게 무슨 냄새가?”

“급창? 으익!”

나는 급창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도 급창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주보며 얼굴을 함께 찌푸린다. “왜 사람들이 그 돈 내고 급창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이해 안 돼.” 급창이 맛있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와 나의, 아마 유일한 공통점..인가? 합리적이고 낭비가 없으며, 상대의 취향과 성격에 대해 연구를 하지 않는다. 그와 나의 사이는 그렇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첫 섹스 후까지 그는 나의 나이조차 알지 못했다. 묻지 않는다. 왜 나에게 대해 더 궁금해 하지 않는지 따져 묻지도 않는다. 편리하다. 그래서 우리 불편한 관계다. 소소하게 서로의 일상을 아끼자기한 이모티콘, 스티커으로 도배하기면서 재잘거리지 않기 때문이다. 연인끼리 나누는 ‘보고 싶다’는 애착 어린 말이 있을 자리에, ‘하고 싶다’는 단호하고 자극적인, 그리고 건조한 말이 있을 뿐이다. 그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묻는 유일한 질문은 스케줄에 관한 것이다. “바빠? 지금 일해?” “귀가는 언제?” 같은 말. 상대가 미적대며 잠잠에는 느낌이 들 때, 나는 이렇게 대화를 정리한다. “자고 싶으면 자고 싶다고 해요. 괜찮아요.” 이리저 말하고 매번 스스로 다짐했지만 버릇을 어쩔 수 없다. 섹스 파트너는 될 수 있을지언정, 깊은 사이로는 발전하지 않을 게 분명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버리고 만다. 아니면 그만이다. 가끔 ‘내가 남자면 나같은 여자랑 만나고 싶겠네.’ 하고 생각한다. 나는 늘 바쁘고, 새벽까지 일하는 날이 많다. 그래서 밤은 나에게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 전후매력 없는 섹스가 필요한 날엔 이렇게 간단한 답장을 보낸다. “어차피 오늘도 자기 글렀어. 올래?”

그는 섹스 중에 대화를 한다. 섹스 중에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나에게겐 그가 거의 처음이다. 대체로

모두 과묵한 편이었다. 다들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 받거나, 체위를 바꾸자는 정도의 말을 한다. 그와의 섹스가 주는 이 신선함이 싫지 않다. 아마 이 남자와 대화를 한 내용을 다 적으면 그 중 70%는 섹스 중에 나는 대화할 거다. 물론 그의 말 역시 자신의 퍼포먼스를 확인하거나, 몸을 어떻게 움직이라는 명령어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섹스와 무관한 일상 대화도 한다. 내 가슴을 두 손에 쥐고 얼굴을 파묻으면서, 무릎을 끌어당겨 세우고 예민한 무릎 신경을 입으로 간질이면서, 내 발목을 잡아 어깨 위로 넘겨 올리면서,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자극하면서 나에게 말을 건다. “내일 몇 시까지 출근해?” 같은. 그러면 말인지 신용인지 모를 나의 대답이 이어진다. “9시.” 그나저나 이 내용의 대화는 전에도 그와 몇 번 한 것 같은데, 또 물어보네.

새벽 4시 30분 경, 캄캄한 방 안에서 인간 암수 한 쌍이 붙어 움직인다. 이렇게, 저렇게,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듯, 장난치듯 자세를 바꾼다. 내 허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의 부위를 나는 알고 있다. 그는 아직 나를 잘 모르는 듯하다. 그의 손을 잡아끌어 내 머리카락을 쥐게 한다. 자극은 빠르고 강하게 머리를 휘감는다. 그는 잠시 속도를 늦추더니 이내 나의 민감한 반응에 맞춰 괴롭히듯 강하게 들어온다. 나는 누군가 강제로 내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상상을 한다. 그가 갑자기 왼손을 뺀어 침대 옆 전등 콘센트를 켜다. 눈이 부시다. 부끄러워 팔로 얼굴을 가리자 그가 명령한다. “손 치워. 얼굴 봐.” 순순히 따른다. 시선이 몸을 뚫는 기분에 두 다리가 긴장한다. “뒤로 돌아.” 얼굴이 달아오르는 기분에 머리가 어지럽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의 명령조에 숨막힐 듯한 자극을 받는다. 자기 전, 샤워를 하고 난 뒤엔 늘 체리 향 보디로션을

바른다. 그가 "체리 향이 좋다"며 내 몸 주변의 공기를 들이마신다. 이 향기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가슴을 내 등에 바짝 붙이고 허리를 움직이며 한 손으로는 가슴을, 또 한 손으로 다른 곳을 깊숙이 파고들던 그가 나에게 묻는다. 저번에 자기랑 하고 나서 또 누구랑 했느냐고 음, 새로운 화두다. "오빠는?" 그는 안 했다고 한다. "난 잤지. 다른 놈이랑." 웃으며 내가 말한다. 상대가 누구냐고 묻는다. "어려. 나보다 세 살 아래."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나쁜 여자네, 너?" 그의 동작이 더 거세고 빨라진다. 생각났다. 이 대화. 얼마 전 그 연하남과도 나는 대화다. 여덟 살이나 차이는 두 남자가 똑같은 질문을 한다. 웃음이 터진다. 잠시 섹스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가 이 침대에서 했느냐고 묻는다. 명랑한 목소리로 내가 말한다. "응, 여기서 했어." 그는 "웬지 더 흥분된다"면서 나의 귀를 혀로 핥고 이로 깨문다. 귀를 자극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에 나는 쉽게 반응한다. 그가 나에게 대해 아는 것 중 하나다. 자신이 나온지, 그 어린 놈이 잘하는지 그가 묻는다. "오빠가 낫다"고 대답하니 그가 바로 되묻는다. "흠, 개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 "당연히, 개가 더 잘한다고 했죠." "그걸 좀 말았어. 췌." 약간 심드렁한 말투. 하지만 나는 그가 심통 나지 않았다는 걸 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즐거워 보인다. 나를 누르는 그의 두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강하게 당기며 "나는 오빠랑 하고 싶었어" 라고 말한다. "나도 너랑 하고 싶었어." 그가 말한다. 마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에 "네, 잘 지내셨어요?" 라고 대답하듯, 우리 사이에도 그 정도 예의는 있다.



'하고 싶었어.' 이 침대에 누웠던 누군가에게 했던 말. 소중하고 익숙했던, 공기 같고 물 같던 옛 연인이 갑자기 생각나고 만다. 뜬금없이 눈물이 고이고 울음이 터진다. 축축하게 젖은 울음이 만드는 묘한 소리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정확히는 내 위에 있는) 그 남자에게 절정에 달한 여자가 내는 짐승 소리일 뿐이다. 영문을 알 리 없는 그가 낮게 말한다. "이제 갈 것 같아." 그의 큰 어깨와 등이 들썩이는 걸 주저앉히기라도 할 듯 내 양 팔이 그를 강하게 붙든다. 네, 가세요. 안녕히.

그에게 여자 친구가 있는지 묻는 적이 있다. "근데 오빠ㅋㅋ 여자 친구는 있어요? ㅋㅋㅋ"라는 경박하기 그지없는 문자 메시지로 떠 보는 게 아니다. 그럴 마음이 없다. 다만 나는, 나에게서는 그저 편한 섹스 파트너인 그와의 관계가 다른 여자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진 않을까 문득 걱정스러웠다. 그의 여자에게, 과거의 내가 겪은 '이 여자 누구야'로 시작하는 가슴 찡렬한 슬픔과 고통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여자에게 머리카락을 집히고 싶지 않아서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 묻지 않았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 사실 '상관 없다'가 맞는 표현이었겠다. 추측해 보건데 그는 이성적이고 보수적인 '것 같다'. 자신감 있고 자기 생각이 뚜렷하며 재미있고 활발한 사람인 '것 같다'. 여유가 있을 땐 목적지까지 차로 친절히 데려다주기도 한다. 운전은 잘하고 꽤 즐기는 '것 같다'. 그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 외에 내가 아는 것은 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포인트뿐이다. 몸이 차디찬 나는 유난히 체온이 높은 그의 피부가 닿을 때 기분이 좋다. 아마 그는 나를 끌어안으면서 시원한 죽부인을 떠올리겠지. 그와 처음 섹스를 하게 된 밤, 순순히 자신을 집으로 초대하는 나에게 그가 말했다. "너 진짜 겁이 없다?" 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쪽이야말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걸요?" 그는 이런 나를 재미있어 한다. 뭐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그를 잘 모르고, 그도 나를 모르니까. 나는 그들의 일상을 묻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는 그들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적정선이 있다. 하지만 차가운 내 몸에 닿는 그 낯선 이들의 따뜻한 체온에 익숙해질까봐 두렵다. 한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그래서 섹스 파트너와는 자기 집에서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이

사라지면 어쨌거나 허전하거든. 근데 그걸 남녀 관계의 애착이란 착각하게 된다면, 왜 이런 조언은 누군가 내 집에 온 다음에야 떠오르는 거지?

섹스가 끝났다. 전보다 과격하고 폭력적인 느낌이 나쁘지 않다. 그는 먼저 씻고 나오더니 마치 자기 집인듯 내 침대 위에 벌렁 드러눕는다. 아침 6시. 오래도 했구나. "7시에 나가야 하는데 지금 갈까?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 음, 못 일어날 텐데 그냥 또 할까... 그가 혼잣말하듯 질문을 던진다. 어차피 내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니다. "알아서 해요. 잠들면 이따 깨워줄게. 어쩔로 시간 맞추세요." 침대 머리맡에 둔 알람시계를 그에게 건넨다. 정확히 1시간 후에, 옛 남자친구가 선물한 그 알람시계가 파트너와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겠지. 샤워를 하고 나오니 그는 잠들어 있다. 조용히 거실로 나와서 회사에서 가져온 일거리를 펼친다. 잠이 오지 않는다. 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경이 예민해진 나는 이미 잠을 자긴 글렀다. 그는 코를 심하게 골지 않는다. 그가 자는 동안 회사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일을 마치고 거실 바닥에 누워 잠시 눈을 감는다. 역시 잠들지 못한다. 불이 난 소년이 개울가에서 괜히 돌맹이를 주워 핵 던지듯, 섹스가 끝나고 나면 마음속에 핵 하고 땀기가 차오른다. 그와 나의 거리는 거기까지다.

오전 8시. 출근 후 책상에 앉아 그와의 짧은 새벽 만남을 떠올린다. 행위에 대한 반추다.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하진 않다. 내가 그를 생각하는 딱 그만큼이니까. 아침 자기 회사에 도착한 그가 문자를 보냈다. "힘들. 니가 내 기를 쪽 빨아감." 이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야한 농담을 던진다. 이것 역시 나의 머릿속에 그어져 있는 '적정선' 안에서의 일이다. 이 대화는 전부 '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서로의 '감정'에 대한 내용은 없다. 또 하나 없는 것. 우리가 나는 대화창에는 '다음'과 '약속'의 말이 없다. 그래도 우리 착실하게 답장을 한다. 말했지만, 그 정도 예의는 있으니까. 그리고 곧 그와 내가 나는 시뮬레이션 이야기는 서로의 일상이 시작되면서 공중으로 사라진다.

몇 시간 전, 그가 깨물어 아픈 턱을 문지르며 나는 지금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다. "적당한 거리. 이 정도?" ☹

“우리 사이엔 연인끼리 나누는 ‘보고 싶다’는 애착 어린 말이 있을 자리에, ‘하고 싶다’는 단호하고 자극적인, 그리고 건조한 말이 있을 뿐이다.”

# 2013 MISS MAXIM CONTEST TOP 4 Tournament Battle Start!

MISS MAXIM 4강전이 시작됐다.  
당신의 한 표가 MAXIM의 간판 미녀를 좌우한다!



2013 온라인 콘테스트 총 상금 700만 원!  
**2013 MISS MAXIM**

**Winner!**



**결승**

우승자는 내년 한 해 동안 MAXIM에서  
각종 화보 모델 활동을 하게 되며,  
2014년 중에 MAXIM 정규 월호 또는  
스페셜판 매거진 표지 모델로 발탁된다!



김소희

4강



**BATTLE**  
10/21~10/30



이아영

4강



**BATTLE**  
10/30~11/8



박무비



이헌진



2010 우승자 최혜연



2011 우승자 이명희



2012 우승자 단별



2013 우승자 뉴~규?

## Your Choice! Your Miss MAXIM!

MAXIM을 사랑하는 섹시 매력녀 중 최강자를 선발하는 2013 MISS MAXIM 콘테스트! 여느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더 뜨거운 경합을 벌이고 4강에 올라온 그녀들이 이제 결승 진출을 위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11월호에는 박무비와 이헌진, 두 4강 진출자가 당신의 마음을 흔치는 바니걸 코스프레 화보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한다. 10월 21일부터는 김소희와 박무비 중 첫 번째 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투표가 시작된다!  
당신이 원하는 그녀의 화끈한 화보를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라. 역대급 화보로 보답하겠다.

## 투표 방법

1. 모바일 기기 또는 PC에서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에 접속해 4강 진출자들의 아찔한 매력을 감상한 뒤 투표한다.
2. 여기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바로 투표한다!



## 2014 MISS MAXIM 참가 문의

[missmaxim@maximkorea.net](mailto:missmaxim@maximkorea.net)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Motor

CAR OF THE MONTH

「6,290만원~」



왕좌수성  
王座守城

## BMW New 5 Series

BMW 왕조의 선봉장이 창검을 갈고 귀환했다. BY 박정욱

이렇게 바뀌었다.



당나라를 세운 태종이 왕좌에 오른 후 신하들에게 물었다. "왕좌에 오르는 창업과 그 자리를 지키는 수성 중 무엇이 더 어렵겠는가." 충신 위징이 말했다. "어렵게 얻은 왕좌를 안일할 속에서 잃기 때문에 수성이 더 어렵습니다." 창업수성. 이루기보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어쩌면 BMW에겐 뼈저린 한마디일지도 모르겠다. 늘 수입차 브랜드 판매 1위를 고수하던 BMW는 올해 처음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에 왕좌를 뺏겼다. 여기엔 사실 '5시리즈'의 부진이 한몫했다. 월평균 800대 이상을 팔아치우며 베스트셀링 카에 이름을 올리던 효자 BMW 520d는 9월 한 달간 166대를 팔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반면 라이벌인

벤츠 E220는 575대 판매로 1위를 기록했다. 물론 이는 9월 말, BMW 뉴 5시리즈가 출시되기 바로 전 성적표다. 5시리즈 모델의 교체 공백기로 인한 물량 부족 때문에 동급의 경쟁자 E 클래스가 반사이익을 누린 것이다. 5시리즈의 막강한 판매력을 실감할 수는 있었지만, BMW가 5시리즈에 너무 의존하지는 않는지 우려도 되는 부분이다. 9월 25일, BMW 왕좌 수성의 사활이 걸린 뉴 5시리즈가 모습을 드러냈다. 무리하게 많은 부분을 바꾸지는 않았다. 뉴 5시리즈의 변화가 3시리즈에서 보여준 수준에 그쳤다면 '예상했던 디자인'이라는 불멘 목소리도 들려온다. 하지만 2010년에 출시한 6세대 5시리즈가 세계적으로 100만 대가 넘게 팔렸다. BMW가 굳이 잘하는 걸 버리고 모험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세세히 살펴 보니 '5시리즈가 다 좋은데, 이것만 좀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용케도 모두 바뀌었다. 전면부에는 제논 헤드라이트가 강인한 인상을 주며, 인개등 주변에는 3시리즈에서 선보인 디자인을 재가공하고 크롬을 적용해 한층 더 스포티해졌다. 다소 낮은 감이 있지만 사이드 미러엔 LED 방향 지시등을 추가했다. 게다가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의 iDrive 컨트롤만으로 인포테인먼트를 제어해야 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터치 방식으로 인포테인먼트를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바꾸었다. 쉬운 싸움이 될 것 같진 않다. 라이벌인 벤츠 E 클래스가 4년 만에 부분 변경을 시도하며 세력을 넓히고 있다. 이에 질세라 BMW 왕조도 창검을 갈고 귀환한 뉴 5시리즈를 출격시키며 왕좌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승부는 지금부터다.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6

## NISSAN CUBE RIDER

MAXIM 독자들의 에미를 소개하는 화제의 코너, 독자의 차. 수많은 경쟁자 중 여섯 번째 독자의 차 화보 주인공이 된 게임 콘셉트 디자이너 신민근 독자의 차는 박스카의 대명사 닷산 큐브다. 이런 귀여운 차에, 귀염과 섹시의 양면성을 가진 모델 최현아를 끼었으면 어떨까?

MODEL 2012 MISS MAXIM TOP4 최현아



### Body

“처음에는 진화색 차량이었는데 개성이 너무 없어 보여서 노란색으로 전체 랩핑했다. 원래는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달라는 삼 사장님께서 협찬 받아서 필름 값만 조금 줬어졌다.”

### Carbon

“사이드미러와 대시보드에 부분적으로 카본을 적용했다. 노란색 차량에 검은 색 카본으로 포인트를 주니 훨씬 멋있어졌다.”

귀염 썩시의  
진수를  
보여 주는  
현아



### 닛산 큐브를 선택한 이유는?

디자인 일을 하다 보니 유니크한 차에 많이 끌린다. 많은 자동차를 타봤는데 큐브만한 차가 없더라. 요란하지 않게 나만의 차로 꾸미기 좋다.

큐브 동호회 운영진이라고 들었다. 닛산 큐브 동호회라면 예쁜 여자가 많을 것 같다.

자동차 특성상 남녀 성비가 반반이다. 커플도 많다. 차 얘기는 별로 하지도 않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일이 더 많다. 자동차 동호회는 대부분 남자끼리 모여 “닥치고 달리자!”는 분위기인데 큐브 동호회는 그런 남탕과는 다르다.

큐브는 ‘이효리 차’로도 유명하다.

이효리가 탄 차는 2세대 큐브, 내 차는 3세대 큐브다. 나도 3세대를 타기 전엔 2세대를 먼저 탔었다. 이효리가 타던 큐브를 구매한 분이 우리 동호회 회원이다. 사실 큐브의 유명세는 <커피프린스>에서 이선균이 타면서 시작되었지.

큐브를 또 산 이유가 뭐가?

유니크할, 넓은 실내 공간, 편의성, 연비 등 모든

면에서 큐브만큼 만족감을 주는 차가 없었다. 그래서 큐브 3세대가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인 2009년에 일본에서 직수입했다.

같은 가격대 자동차 중에 큐브와 저울질 했던 차는 뭐였나?

국내에 들어온 큐브는 사양을 낮춰서 가격이 저렴하다. 내가 큐브를 샀을 때는 폭스바겐 골프, 미니 쿠퍼와 가격대가 비슷했다. 하지만 와이프가 ‘스피드’ 보다는 ‘안락함’을 원해서 큐브를 택했다.

스피드가 아니라 안락함이라면, 주행 성능은 별로란 말인가?

보다시피 박스 형태라 공기저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스펜션이 부드러워 승차감은 좋다. 반면 단단함이 없어서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은 너무 물렁하다는 말을 한다.

큐브의 라이벌은 어떤 차라고 생각하나?

사람들은 소울이나 레이 같은 차가 큐브의 라이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큐브는 비교할 차량이 없다. 독보적이다.

### Audio

“비워드리는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했다. 큐브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또한 박스형이라서 노래를 듣는데 굉장히 좋다. 콘서트홀에서 음악을 듣는 느낌이랄까? 박스카를 몰면 오디오 튜닝은 필수인 것 같다.”



### 신민균 / 33세 / 게임 콘셉트 디자이너

활동 중인 동호회: 팀 큐브(Team Cube) 운영진  
내 차 애칭: 범블큐  
드림카: 포르세 911  
추천 드라이브 코스: 춘천 의암호 주변

# Motor

## This is My Car

구두 슈즈원



### Seat

“시트는 인공적인 바깥시트로 바꾸면서 검은 시트를 빨갈게 물들여 봤다. 또한 피복의 재질을 모두 레더 재질로 바꿨다.”

### Decal

“범퍼에는 ‘스티커 밤’ 데칼을 적용했다.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 밝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깜찍한 이모티콘 같은 큐브에 어울리는 튜닝이다.”

일본 직수입이라 우핸들이다. 불편하지 않나?  
전에 타던 차도 우핸들이었다. 깜빡이가 반대로 있어서 헷갈리긴 했지만 금방 적응한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적응 못하는 것 같은데? 좁은 일반동행 골목에서 와이프가 조수석에서 내려 걸어가니까 뒤차가 뱅뱅거리더라. 원래 운전석이 있는 쪽에서 사람이 내리고 그냥 가버리니까 놀랐나보더라.

조수석에 탄 여성을 도로 방향으로 타고 내리게 하는 건 매너가 아니다!  
혼자일 때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행인에게 길 물어볼 때도 편하고, 잠깐 뭐 사러 갈 때도 편하다.

그러고 보니 흔히 보이는 큐브와는 좀 다르게 생겼다. 낫산 자동차에는 라이더 등급이라는 게 있다. 낫산 협력회사인 오텍에서 공식 튜닝된 등급이다. BMW M 튜닝, 벤츠 AMG 튜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다. 라이더는 주로 외관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온다. 귀여운 스포일러와 부담 없는 에어댐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또한 다른 큐브는 전면 범퍼가 동그랄지만 이 차는 각이 쳐서 박스에 더 가깝다.

뒤에 달고 다니는 트레일러는 어디 가면 살 수 있나?  
JY 커스텀에서 구매했다. 요새 캠핑 많이 다니잖아. 이것만 있으면 텐트 치라, 가재도구 정비하랴 서너

시간은 좀 걸리는 사이트 구축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안에 구색도 다 갖췄다. 성인 세 명이 잘 수 있는 공간과 소형 TV, 싱크대 등 있을 건 다 있다. 주문 제작이라서 원하는 옵션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 큐브는 누구를 위한 차일까?

남녀노소를 위한 차다. 일본에서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탄다. 잘 어울린다.

### 다음에 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몰아보고 싶나?

BMW M3를 몰아보고 싶다. 하지만 와이프의 허락이 필요하다. 계속 푸시 중이다. 🚗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This is My Car**

백삼 스테프  
항시 대기



오너드라이버 독자를 위한 특급 이벤트는 계속된다. MAXIM 화보로 당신의 애마에게 지상 최고의 호강을 시켜줘라

**“타 본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는 뭐예요?”**

지난 5년간 수십 종의 신차를 시승해 온 MAXIM의 자동차 전문 에디터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바로 ‘내 차’입니다.



배기량, 최고속도, 마력 등... 수많은 기준을 놓고 서로 최고의 차라며 떠들어대지만 ‘내 차’라는 특별한 존재 앞에선 모두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다. 나와 함께 울고 웃고, 수많은 추억을 담고 달리는 ‘내 차’. 심지어 나를 먹여살리는 것도 ‘내 차’ 뿐이니까. 이 화보의 주인공은 어느 자동차 잡지처럼, 자동차 회사의 신차 홍보를 위해 제공된 ‘남의 차’가 아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쉴 새 없이 달려준 바로 ‘당신의 차’다.

**MISS MAXIM을 만나다!**

잡지로만 만났던 미스맥시미를 앙팔에 끼고 앓을 수 없는 기념 촬영을! 간직해 뒀다가 아들에게 보여줘라.

**당신의 차를 MAXIM 화보에!**

레이싱걸을 거느린 모터쇼 슈퍼카처럼! MAXIM에 영원히 남겨주마.

**당신의 자동차를 전국에 뽐내라!**

튜닝하고 꾸민 당신의 자동차를 자랑해라

**이게 정말 내 차 맞아?!**

최고 수준의 MAXIM 포토그래퍼, 조명팀, 에디터가 당신의 차를 멋진 화보로 남긴다!

**덤으로 1년 정기 구독까지!**

차가 공짜 구독 혜택도 안겨준다. 당신의 애마가 실린 호가 MAXIM정기 구독 첫 권!

**응모 요령**

- 당신의 자동차를 직접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차종(모델명)/ 구입연도도 적어라.
- 메일 보낼 곳: [event@maximkorea.net](mailto:event@maximkorea.net)

**당첨 확률을 높이는 Tip**

- 당신 차에 얽힌 재미난 사연을 적으면 더 유리하다.
- 안전한 차보다는 당신만의 개성으로 튜닝한 차가 더 유리하다. 갓 뽑은 새 차라면 튜닝 안 해도 된다.
- 같은 차를 모는 동호회 친구가 있다면 함께 신청해도 좋다.

# PORSCHE 911 Restored By Singer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클래식 슈퍼카.  
감성은 뽀뽀인데, 성능은 최신 스마트폰?



초호화 옵션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무장한 슈퍼카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한 녀석 하나가 시대에  
역행하며 운전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바로 미국 LA에  
있는 자동차 레플리카 업체 '싱어(Singer Vehicle Design)'가 복원한  
포르쉐 911이다. 클래식 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꿈꾸는 1990년식 중고  
포르쉐 911을 매입해 패널을 다듬고 새 부품을 집어넣었다. 덕분에  
클래식 포르쉐의 감성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성능은 결코 현재의 포르쉐에 뒤지지 않는다. 계기판을  
빛내는 호이어 크로노그래프와 수통으로 조정하는  
사이드미러, 그리고 레카로 버킷시트와 917의  
스티어링 휠까지... 이 클래식 슈퍼카는 세세한 곳  
하나까지 8090의 감성을 놓치지 않았다.





**SPEC  
CHECK**

엔진  
공평식  
수평대향  
6기통

변속기  
게트락 G50

최대 출력  
410 HP

0-100km/h  
3.9초

「3억 7,000만원 ~」

심어가  
복원한 911  
탄생기



# Motor

## Super Car



← 포르세 마니아 중에는 유독 뒤태 페티시가 많다. 그들은 원래 트렁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엔진이 들어있는 리어엔진과 뒷바퀴 굴림 방식의 후륜구동만으로 가까이 포르세 오타쿠가 되기를 자처한다. 등작하게 떡 벌어진 뒷바퀴 펜더의 위용을 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포르세의 뒤태에 매혹돼 버리겠지만 말이다.



← 가죽을 엮어 만든 '레카로' 버킷시트 만으로도 감탄이 나오는데, 대시보드와 차문 등 포인트 곳곳을 가죽으로 깔끔히 마감하는 센스까지! 운전석에는 프랑스의 자동차 내구레이스 르망 24시의 전설, 70년대 포르세 917에 달려있던 RSR사의 스티어링휠이 달려있다.



← 차체는 중고 포르세 911이 그대로 쓰이니 불법 개조차량으로 신고당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911을 그대로 튜닝했기 때문에 앞은 길고 뒤는 짧아 개구리를 닮은 롱노즈-숏데크 형태의 차체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패널은 모두 카본 섬유로 교체했다. 주유구를 보닛 한가운데로 옮긴 것도 기발하다.





◀ 변속기는 게트락 5단 변속기가 기본이며, 6단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후방에 위치한 보닛에는 rpm을 높일 수록 유독 더 시끄럽고 진동이 커 옛날 포르쉐의 향수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랭식 3.8리터 수평 대향피스톤이 수평으로 왕복 운동) 6기통 엔진이 없었다. 실린더마다 개별 솔로를 보다가 달려 있으며 8,000rpm까지 회전한다.



◀ 호이어 크로노그래프 계기판의 위용은 이 자동차를 갖고 있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 태그와 호이어사가 합병해서 태그호이어가 된 것이 1985년의 일이니까... 이 자동차는 무려 시간을 30년 이상이나 거슬러 올라간다.



조수석 뒤편에 달린 오일캡



◀ 싱어가 복원한 포르쉐 911의 사이드 미러는 수동으로 조정해야 한다. 온갖 전자장비로 중무장한 요즘 자동차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편한 자동차가 돋보이는 이유는 조금은 불편했지만 낭만이 있던 아날로그 감성이 그리워서겠지?

## MAXIM이 싱어의 창립자 롬 디킨슨에게 물었다

회사 이름은 왜 싱어인가?

내 직업이 가수이기도 하고, 포르쉐 911의 사랑스러운 배기음이 노래 같기도 해서 그렇게 지었다.

세상에 차가 얼마나 많은데,

왜 포르쉐 911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나?

오랜 세월 동안 포르쉐 911에 매료돼있었다. 아마 5살 때부터였던 것 같다. 나만의 포르쉐 911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결국 싱어 자동차 디자인 회사를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다.

포르쉐 911을 복원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사항은 무엇인가?

차체와 엔진에 가장 많이 신경 썼다.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더 좋게 바꾸되 911만의 감성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포르쉐의 공랭식 엔진을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는 많은 집중력이 필요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이 차의 가격대는?

자동차 가격은 옵션에 따라 35만 달러(3억 7천만 원)부터 50만 달러(5억 3천만 원)까지 차솟는다.

일 년에 포르쉐 911 주문은 얼마나 받나?

일 년에 포르쉐 911 열두 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대뿐이지.

포르쉐 911의 라이벌이 있다면 어떤 차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스포츠카 중에 포르쉐 911은 가장 특별하다. 라이벌 따위가 있을 리가...

다음에는 어떤 차를 복원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텐가?

몰래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 조만간 공개하겠다! 항상 지켜봐 달라.



내가 원래 가수라서 회사 이름이 '싱어'야

노래를 못 하면♪ 정가를 못 가요♪

MAXIM  
시승기  
#41

## 크라이슬러 300C



비오는 성산 대교 밑에서 미녀 에디터의  
히치하이킹에 걸려든 이 달의 떡밥은  
미국에서 오신 김삼백씨 되겠습니다.

WORDS 유승민 손안나 장혜민 PHOTOGRAPH YuD

MODEL 에디터 장혜민



아하, 이 차 이름이 300C였군요? 가끔 보이면 어떤 남자가 타나 궁금했는데!

궁금하긴, 300C는 누가 봐도 회장님 포스지. 에쿠스는 왠지 정부 기관장 느낌이고...

하하 그랬군. 이번에 시승하면서, 내가 차에서 나오면 여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

그럼요, "어머, 운전기사도 있네?" 했을테니까요.

이렇게 중후한 차 촬영에 모델을 제가 해서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었나 싶어요.

불륜 느낌 나고 좋네. 추적추적 비도 오고, 비 맞는 여인네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컨셉?

크크 비 맞느라 고생했다. 헤민씨 이 달부터 인턴 떴고 정규 에디터구나, 자동차 토탈화 멤버에 들려면 이 정도 신고식은 해야지.

넹! 맥심 에디터는 종종 직접 모델도 한다더니 정말이군요. 비와서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알뜰 없네요.

헤민씨 신고식은 유독 거친데? 선배님 팀 이날 촬영하다 폐복에 올린 애 사진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한바탕 맥심으로 뒤덮였어요. 알아요?

깜놀했다. '맥심'만 쳐도 '맥심 신입사원'이라고 자동 완성되길래 봤더니 헤민씨가 끝없이 나오워!

아...네, 놀라서 페이스북은 지웠는데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맛글 보니 별 희한한 소리를 많더라. 너보고 맥심 사장 비서라고 하질 않나. 맥심 공채는 외모만 보고 뽑는다는 등...

앤 면접 때 영어 잘해서 붙었지. 헤민 너, 맛글 그런 거 보지 마. 저급한 드림이 너무 많더라. 그러게 그걸 폐복에 왜 올렸어요... 그리고 선배가 찍은 사진이 너무 야했어!

이럴 줄 몰랐지 난. 그리고 사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애 몸매가 그래. 저거 봐. 사람 허리가 왜 저래, 헤민씨 무슨 병 있나?

아니예요. 사진 보니 저 살 좀 빼야겠는데요? 맛글은... 보고나서 약간 충격 먹었어요.

인터넷 맛글이란 게 다 그렇지 뭐. 율지 여기 있는 손안나나, 아님 김희성한테 가서 상담 받아. 아주 인터넷 맛글 후유증 전문가들이야.

시끄러워요. 헤민씨가 뒤에 모델력은 충분한데 여기 쫓 만류 자동차 지식도 해박한가?

그럼요, 특히 요 300C는 저의 로망 중 하나 거든요. 제가 원래 쪽 빨아놓은 차보단 클래식한 차를 좋아하는데, 크라이슬러 차가 그래요. PT크루저도 한 클래식 하잖아요.

맞아. PT크루저 참 영국 택시같이 좋았는데 이제 단종돼서 안 나오지. 그러면 크라이슬러 마크 달고 나오는 차는 정말 300C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게. 포드, GM과 더불어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가 유독 한국에선 판매가 부진해. 세브링이나 그랜드 보이저도 이제 안 나오고, 여전히 선방하는 건 300C 뿐?

그래도 지프나 닷지처럼 크라이슬러 그룹이 갖고 있는 다른 브랜드가 많잖아요. 지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잘 팔리죠.

그 뿐 아니야. 2008년인가 크라이슬러 그룹과 이탈리아의 피아트 그룹이 합병했으니 피아트 쪽도 이전 다 같은 집안 식구들이잖아. 피아트 그룹엔 알파로메오,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명차들이 많지.

해의 자동차 회사의 합병이 반복되다보니 "미국차는 이래, 이탈리아 차는 저래"하는 구분도 이전 무의미한 것 같아. 크라이슬러와 페라리가 사실은 한 지붕 아래서 나오는 차라니...

그런데 이렇게 회장님 포스 타지는 수입 대형 세단이 의외로 안 비싸서 놀랐어요. 5,600만 원이면 에쿠스보다 싼 거 아니예요?

맞아. 내가 회사 사람들 붙잡고 이거 얼마쯤 할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열이면 열 1억 원 넘게 보더라. 에쿠스보다 싸단 말에 다들 놀라는 눈치였어.

음... 스펙상으로도 대형 고급 세단인 에쿠스랑 비슷한데 수입차에 없어지는 선망의 시선을 감안하면 300C는 가격대비 메리트가 상당한 셈이지.

진짜 크다. 5미터는 그냥 넘겠네. 에쿠스가 사실 한 10cm쯤 더 긴데, 생긴 걸로만 보면



# Motor / Girl Talk

300C가 더 큰 느낌이에요. 각이 살아있네.

**Q** 뒤쪽 트렁크로 떨어지는 각이 정말 위엄 짚조. 300C의 디자인이 지난 몇 년간 계속 조금씩 바뀌었지만 뒤편에는 변화가 없어서 좋아요.

**A** 하지만 앞쪽의 변화는 좀 아쉽다. 가로로 7줄 별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로 오면서 300C 특유의 클래식한 매력이 반감됐어요.

**Q** 나도 같은 생각이야. 라디에이터 그릴은 2010년에 나왔던 300C 시그니처 모델이 정말 끝내줬지. 고기 불판처럼 사선으로 촘촘하게 엮여 있는게 웅장함의 극치였는데!

**A** 2011년형부터 가로형 그릴로 바뀌면서 모던해지긴 했지만... 300C에 어울리는 매력이 모던함은 아닌 것 같아요.

**Q** 저는 시그니처 이전의 그릴도 좋았어요. 기억나요? 가로 세로 바둑판처럼 격자형이었던 거요. 그 때 300C가 드라마 <하얀거탑>에 나왔거든요. 주인공 김명민도, 김창완 아저씨도 극중에서 300C를 타고 나왔거든요.

**A** 기억력 쪼는데? <하얀 거탑>이면 거의 7년 전이야. 헤민씨는 그 때 몇 살?

**Q** 고 거울 방학 댕기? 훗~ 전 너무 어려서 기억이... <푸른 거탑> 패러디인가요? 호호호

**A** 야. 지랄 마. 고기 때가 기억 안 나면 대가리가 나쁜 거야.

**Q** 농담인데... 하지만 흰색 300C는 정말 처음

봤어요. 흔한 건 감정이지만 흰색이 더 멋진 듯.

**Q** 보통 하얀 차는 여자들이 많이 모는데, 이렇게 큰 세단은 하얀 색이라 해도 왠지 여자가 몰 것 같진 않네요.

**A** 흑간지도 아니고 백간지라. 남자가 흰색 300C를 몰면 여자들 눈엔 어떤 이미지로 보일까? 흰색이니까... 회장님 말고 병원장님?

**Q** 300C가 생긴 게 웅장하다고 해서 '회장님 차, 사장님 차' 이런 쪽으로만 너무 편견을 갖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젊은 아빠의 패밀리 카로도 썩 괜찮거든요.

**A** 하긴 이게 생긴 게 비싸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5,600만 원이잖아? 독일차나 대형 세단에 '억' 소리 나지 독일차 중형 세단 값이면 300C 사겠네.

**Q** 네. 그리고 300C에 관한 리뷰들을 보면 편의사양들이 뒷좌석보다는 앞좌석에 훨씬 잘 되어있대요. 운전자 중심의 차란 얘기죠. 냉온장 컵홀더도 앞에만 있잖아요.

**A** 음. 전에 경쟁 모델인 에쿠스를 타 봤는데, 확실히 뒷좌석을 위한 차라고 느껴졌어.

**Q** 300C는 운전 중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하기가 참 편해. 다른 차는 보통 기어 레버 아래 조작 틀이 있잖아? 이걸 어디에 있게?

**A** 어디 있는데요? 그냥 터치스크린 방식 아니에요?

**Q** 아예 핸들 뒤 손가락 닿는 데 이동/선택

버튼이 다 있어. 처음엔 나도 이게 뭐가 했네.

**Q** 우와, 정말이네? 그럼 이걸 아예 핸들에서 손을 뗄 필요도 없는 거군요?

**A** 그렇지. 인포테인먼트 조작 틀이 BMW같은 다이얼 방식이든, 렉서스같은 마우스 형태든 기어 레버 아래쪽에 있다 보니, 만지려면 어쩔거나 오른손을 핸들에서 떼야 하잖아? 하지만 이걸 양손으로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Q**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핸들 뒤에 버튼이 6개나 있네요? 감지, 중지, 악지로 눌러요?

**A** 응. 익숙해지니까 영락없이 플레이스테이션 하는 기분이야. 맞다. '어댑티드'크루즈 콘트롤(ACC)도 100% 운전자를 위한 거지.

**Q** 그게 뭐예요? 그냥 정속 주행이랑은 다른 거예요?

**A** 응. 정속 주행이라는 게 설정한 속도로 계속 달리도록 가속해주는 기능이잖아? 하지만 감속은 직접 해야하지. 앞 차가 속도를 줄이면, 브레이크를 직접 밟아야 하니까. 그런데 감속까지도 차가 알아서 해 주는 게 바로 ACC야.

**Q** 알아요. 레이더로 앞 차와의 간격을 감지해서 간격이 좁혀지면 감속도 스스로 하는 거 맞죠?

**A** 그렇지. '어댑티드'크루즈 콘트롤은 가속 페달만 대신 밟아주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대신 밟아주는 셈이지.

**Q** 다리는 가부좌 들고 핸들만 돌려도 되겠네요.





5,600 만 원

고속도로에서 진짜 편하겠다.

하지만 완전한 기능은 아냐. 커브길에서 앞 차와의 간격을 놓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장애물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맞아. 그래서 300C 사용설명서에 ACC 편을 열어보면 'ACC를 믿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하는 경고 문구로 꼭 차 있어. 심지어 의도치 않게 막 가속이 될 수도 있대. 덜덜덜

차 값도 싸고, 운전자 중심인 건 알겠는데, 선풍리 샀다가 유지비 김당이 될까? 연비는 후덜덜할 것 같은데.

기름값 장난 아니겠지. 미국차 연비 알잖아. 게다가 무게가 거의 2톤인데, 역시 300C는 기름값 걱정 없는 어른신들의 차인 건가...

하지만 생각보다 연비가 나쁘지 않대요. 요즘 크라이슬러에서 (300C 연비왕 선발대회)같은 걸 하거든요.

뭐, 300C로 연비 대회? 전경련 회장님 이면지 쓰기 대회같은 소리하고 있네. 10km/L 나오면 막 우승하고 그런거 아냐?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공인 연비 9.4km/L가 무색해지는 기록이 나온대요. 1등한 아저씨가 18.34km/L 찍었고, 13km/L 이상도 수두룩 했대요.

헉, 연비 18.34km/L면 우리 회사 스파크보다 높은 건데 말이 돼? 시동을 끄고 달렸나...

정말이네. 그리고보니 이거 거어비가 8단이나 돼. 고속도로에서 8단으로 정속주행 사약— 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네?

연비마저 괜찮은 수준이라면 회장님 아니라도 패밀리 카로 끌기에 꽤 매력적인 천대요? 능력도 있어 보이고, 유지비도 그리 많이 안 들고,

이제보니 젊은 아빠가 끌기에도 괜찮하네.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인 능력남이 끌고 다니면 멋지겠어. 회사원이 끌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왜요? 회사원 중에도 연봉 높은 능력남 많잖아요.

애가 아직 한국의 조직 사회를 잘 모르는구나. 사장이 그런저 끌고 다니는데 과장이 300C 끌고 오면... 더 크면 알게 돼.

흠, 알겠어요. 저 선루프 한 번만 열어봐도 돼요?

뒤에서 보니까 선루프 진짜 크네. 뒷좌석 천장까지 투명해서 개방감 장난 아니에요.

밤에 교외로 드라이브 나가서 한적한 곳에 차 세워 놓고 선루프로 별구경하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시트 뒤로 끌까지 제거하고 여자랑 별구경하다가 대화가 끊겼다 싶을 때 옆으로 몸을 살짝 뒤집으면 바로 그날!

어머, 회장님! 이리시면...

좋아요. ☺

## 초심자를 위한 자동차 읽는 법 SOHC / DOHC

'속독'이라고 읽은 색취 나와



300C는 DOHC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DOHC, SOHC 하는 말, 한 번 쯤은 들어봤지? 엔진 실린더에 배기 밸브가 하나면 SOHC, 두 개면 DOHC다. 실린더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데, 배기 밸브가 하나일 때보단 당연히 두개일 때 더 잘 된다. 밸브가 하나일 땐 배기에 병목 현상이 생겨 출력이 일정치 이상 나오지 않는다. 가속 페달을 밟아 RPM이 높아지고 배출할 가스의 양이 많아지면 병목 현상이 적은 DOHC 엔진에서 더 좋은 출력이 나오는 거다(그렇기 때문에 SOHC엔진은 저 RPM에서, 300C같은 DOHC 엔진은 고 RPM에서도 최대 토크가 나온다). 시내에서는 낮은 RPM으로 주행하므로 SOHC 엔진도 나쁘지 않지만, 높은 RPM이 필요한 고속 주행에서는 DOHC엔진이 유리하다. SOHC 엔진은 구조가 간단해서 정비가 편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대부분의 엔진이 DOHC이며 SOHC는 사라지는 추세다 (고속 차량에만 DOHC 엔진을 쓴다는 건 이제 옛날 얘기다). 하지만 신차 중에 SOHC 엔진이 전혀 없진 않다. 혼다의 SOHC는 지금도 '10대 엔진상'에 선정되며 여전히 명기로 꼽히는데, 신형 어코르나 크로스투어, 오딧세이, 파일럿도 이 SOHC 엔진을 달고 있다.

# 이달의 결다리 모터 뉴스

토크니, 마력이니 관심 없는 사람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자동차 핫 이슈.



이달의  
별난  
자동차

아싸 뻗었다!



## 세계에서 가장 X만한 자동차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사는 오스틴 콜슨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SUV '나는 크다(I'M BIG)'를 제작해 기네스 기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길이 1,200mm, 폭과 높이 600mm에 불과한 이 자동차(사진 속 오른쪽)는 아파트 단지를 누비는 꼬꼬마들 장난감처럼 생겼지만, 엄연히 도로교통법에 알맞게 제작됐다.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몰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도 있다.

의외로 이 귀여운 녀석은 스틸을 사랑하는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다. 콜슨에 따르면 이 자동차는 서스펜션이 없기 때문에 최고 속도인 53km/h로 달렸을 때 마치 160km/h로 달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연비는 86km/L나 된다고 하니 5만 원만 주유하면 전국 방방곡곡을 일주할 수도 있겠네.

도로 주행 시전하는 꼬마 차



하이, 중고차 시장에서 만나요!



이달의 은퇴 소식

## 다마스, 라보 구매하려면 11월 중순이 마지막

한국지엠이 다마스라보의 단종이나, 추가 생산이나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다마스라보에 새롭게 적용된 규제를 지키기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마스라보의 단종에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나서서 다마스라보에 대한 환경 규제와 안전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여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아직 생산 중단 결정을 반복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다마스라보를 구매하기 원하는 고객은 11월 중순까지는 주문해야 한다고 엄포까지 냈다. 저 귀염둥이들을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니 왠지 섭섭하네!



이달의 무서운 신입생

## 람보르기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베네노 로드스터' 공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베네노 로드스터'가 공개됐다. 베네노 로드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9대만 한정 생산되며 가격은 450만 달러(약 48억 원)다. 경매에서 60억 이상에 매매되는 1998년식 맥라렌 F1 같은 희귀 자동차를 제외하면 현재 생산되는 자동차 중 최고가다. 베네노 로드스터에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타이틀을 뺏긴 차는 형벌인 람보르기니 베네노 쿠페다. 올해 초, 딱 3대만 제작된 베네노 쿠페는 390만 달러로 로드스터보다 60만 달러 싸다.

지붕을 뺄 수 있고 없고의 가치가 6억 원인 셈이다. 베네노 로드스터는 루프리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베네노 쿠페와 모든 제원이 같다. 베네노 로드스터 역시 기존에 사용된 6.5리터 12기통 기술린 엔진으로 최대 출력 750마력, 제로백 2.8초, 최고 속도 355km/h의 성능을 발휘한다.

### 베네노 로드스터 한 대 값이면...

- 현대 쏘나타 160대
- 페라리 458 이탈리아 20대
- 부가티 베이론 3대를 구매할 수 있다.



\* 흑백처리된 커버의 원호는 품절을 의미합니다.

→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아찔이 빠졌나?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MAXIM 과월호를 구할 수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으로 오래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십시오!  
 •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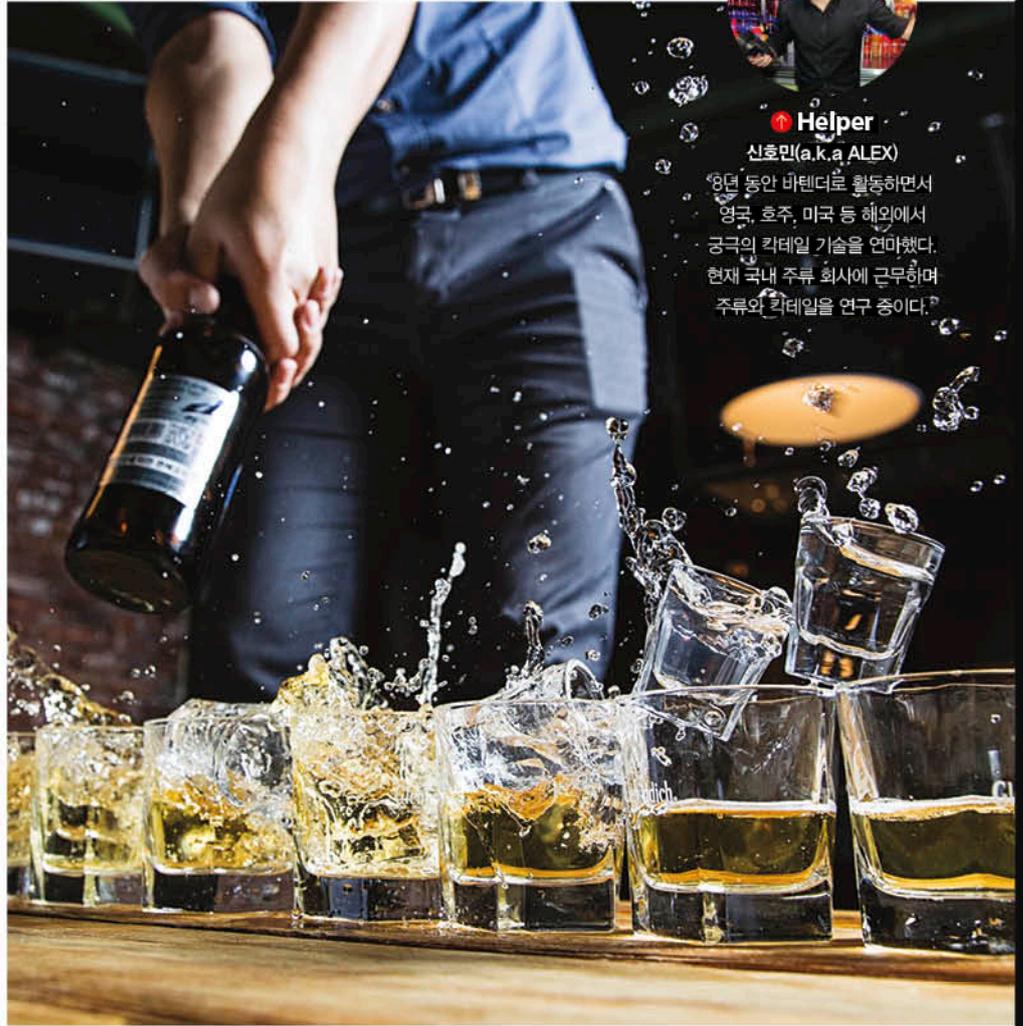


# Smoke&Drink / Bomb!

## 폭탄주 간지 나게 마는 법

 어딜 가든 주목받는  
폭탄주 제조 스킬.  
그냥 섞는 건 지루하잖아?

BY 김희성



### Helper

신호민(a.k.a ALEX)

8년 동안 바텐더로 활동하면서 영국, 호주, 미국 등 해외에서 궁극의 칵테일 기술을 연마했다. 현재 국내 주류 회사에 근무하며 주류와 칵테일을 연구 중이다.

### 골프주

- 1 큰 잔(언더락잔이나 맥주잔) 위에 소주잔으로 탑을 쌓는다.
- 2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들고 의자 위에 올라간 뒤 병을 아래로 향해 골프채를 쥐듯 잡고, 정지돼 있는 골프공을 치듯 첫 번째 소주잔을 툭 건드린다. 맥주병을 휘두르기 전 준비운동처럼 스윙을 몇 번 보여주면 더 멋있어 보인다. 사장님, 나이스 셋!



### 야구주

- 1 큰 잔 위에 소주잔으로 탑을 쌓는다.
- 2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야구 배트 다루듯 어깨 뒤에서 앞으로 휘두르면서 소주잔에 살짝 갖다 댈다. 진짜 야구공을 치듯 세계 휘두르면 대재앙이 일어난다. 오빠, 홈런!



### 태권도주

- 1 큰 잔 위에 소주잔으로 탑을 쌓는다.
- 2 앞차기, 돌려차기, 이단 옆차기 등 자신 있는 발차기 기술로 좌중의 시선을 끈 다음, 발끝으로 소주잔을 툭 건드리는 걸로 마무리 자세를 취하면 된다. 태권!

## 빨리 취하게 만드는 법

폭탄주를 먹어도 그녀가 도무지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보라.

- 1 **빨대로 마시게 하라**  
우리 몸속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 그런데 술을 빨대로 마시면 알코올이 조금씩 계속 몸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계속 분비되므로 취기가 더 빨리 온다.
- 2 **도수는 높고 맛있는 술을 시켜라**  
그런 술이 뭔지 일단 알아야겠지? 대표적인 종류가 롱이일랜드 아이스티, 코스모폴리탄, 드라이 마티니다. 도수가 꽤 높지만 마실 때는 술을 넘어서기 멋모르고 마시다가는 인사불성이 되지.

### 마초남은 가라! 임팩트남이 온다!

남자의, 남자에 의한, 남자를 위한 세계.  
그 정수를 고로쇠 수액 받듯 모아 모아서 새로운 남자가 탄생했으니,  
이름 하여 '임팩트남(男)'이다. BY 정재식



#### 1 임팩트남의 조건 하나! 팔각 패키지처럼 각진 어깨

진짜 남자라면 자기 여자가 편히 기댈 넓고 단단한 어깨가 있어야 한다.  
여자들이 진짜 환장하는 건 빨래판 복근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어깨다. 알겠나. 재군!!

**대표 임팩트 어깨남: 피콜로 대마왕**



어깨 하면 피콜로지. 안 그래도 광활한 어깨에 괴상한 뿔까지  
었으니, 그 광활함이 만주벌판 뽕친다. 저기에 구첵반상 차려  
먹어도 되겠다. 뿔까지 없은 건 반칙이지만 신이니까 이해하자.

#### 2 임팩트남의 조건 둘! 하드 필터처럼 단단한 갑빠

어디 출렁이는 두부 가슴을 들어마나?  
남자는 갑빠로 말한다! 더윈 임팩트의  
튼튼한 하드 필터처럼 튼튼한 갑빠는  
임팩트남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지.

**대표 임팩트 갑빠남: 실베스타 스탠튼**



1946년생인 이 할배의 최근  
갑빠샷. 난 시발 무슨 벽들을  
가슴에 아식한 줄 알았어.  
터미네이터 할배(1947년생)의 두 젖은  
이미 땀바닥까지 처진 지 오래인데 말이지.

#### 3 임팩트남의 조건 셋! 홀로그램처럼 강렬한 안광

잡아먹을 듯 시선으로 모두를 압도하고,  
여자를 볼 때는 이글이글 더욱 불타는  
그 눈빛! 더윈 임팩트의 홀로그램  
장식처럼 강렬하게 빛나는 남자의 눈빛이  
임팩트남의 화룡점정이다!

**대표 임팩트 눈빛남: (릭키짱)의 강건아**



일단 흰자가 엄청 크고,  
아래에서 위를 봐야 박력  
있다. 전국 싸움쟁이라면  
이 정도 흰자가 있어야지.

#### 4 임팩트남의 조건 넷! 시대를 뛰어넘는 '칭' 간지

제임스 딘의 반항적인 느낌부터 소지섭의  
날카로운 카리스마까지 모두 연출 가능한  
'칭'이야말로 농도 100%의 진한 수컷  
임팩트가 폭발하는 최고의 컬러다.

**대표 임팩트 칭 간지남: 원빈**



모두가 비난하는 칭-칭  
패션? 자신있게 입어래  
사람들은 원빈이 갑자기  
나타난 듯 웅성거리며 당신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할 거다(어떤 이유에서든).

### Impact Blast!

아직도 임팩트남을 몰라?



임팩트 찌찌!

**Impact:** (강력한) 영향, 충격, 충돌,  
영향(충격)을 주다.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한 방향으로  
주변을 사로잡는 남자를 우리 '임팩트남'  
이라고 부른다. 마치 헤비급 복서의,  
생사를 가르는 위력적인 한 방처럼

단박에 보는 사람이 압도하는 그런  
마력 넘치는 남자 말이다.  
최근 임팩트 넘치는 연기력과 비주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배우가 있다.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에 출연 중인  
배우 서강준이 그 주인공. 성격이  
아주 지랄맞고 못되 처먹은 밴드 보컬

최수혁을 연기하는 서강준은 꽃미남도,  
조각미남도, 여자들이 환장하는 귀요미  
상도 아니다. 하지만 낮고 굵은 남자다운  
목소리와 개성 넘치는 눈빛, 나쁜 남자의  
강렬함으로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임팩트'를 딱딱 심어주면서 '임팩트남'  
으로 단번에 등극했다.

# Stuff

GEAR OF  
THE MONTH

## 맛좋은 사과가 왔어요! 아이폰 5s



사과 농사는 늘 풍년이였다. 이번에 나온 여섯 번째 종자는  
얼마나 맛있는 녀석일까? BY 조용재





## SPEC CHECK

크기 123.8(긴 축) x 58.6(짧은 축) x 7.6(두께)mm  
 해상도 1136 x 640(와이드스크린 레티나 디스플레이)  
 칩셋 A7 칩(64비트 아키텍처)  
 메모리 1GB  
 용량 16/32/64GB  
 배터리 1,570mAh(대기 시간 최대 250시간)  
 카메라 전면 120만/ 후면 800만 화소  
 출고가 880,000원  
 국내 발매일 10월 25일



“잡스와 함께 혁명도 사라졌다.”

애플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 했던가. 공전의 히트를 친 잡스의 유작 아이폰 4s에 이어, 올해 초 내놓은 아이폰 5s 역시 출시 한 달 만에 200만 대의 판매량을 올렸다. 싱크빅을 거듭하며 시리즈마다 참신한 기능을 집어 넣는 애플의 저력은 여전했다.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5s에는 ‘Touch ID’라 부르는 지문 인식 기능이 들어 있다. 최근 성진국의 한 남성이 자신의 유두를 인식시켜 유두 잠금 해제에 성공해 화제가 된 바로 그 기능이다. 홈 버튼을 감싸고 있는 링 센서가 신기하게도 사용자의 지문을 기억하고 인식한다. 이에 착안해 ‘귀두 인식’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유두와 귀두 인식이라니, 커플들이 유용하게 써먹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듯. “우리 잠깐 잠금 해제하는 시간을 가져볼래?” 한편 32비트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쿼드코어니 옥타코어니 하며 피 터지게 싸우면서 골목대장을 가르고 있을 때, 애플은 조용히 UFC 레벨의 파이터를 키워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이폰 5s에 장착한 세계 최초의 모바일 64비트 프로세서, A7 칩이다. 이는 전작 A6 칩의 두 배에 이르는 벤치마크(전자 기기의 성능을 수치로 나타내는 테스트) 성능을 보여주며 호평 받고 있다.

반면 제품 색상 선정은 조금 의아하다. 이번 시리즈는 어쩔 일로 골드, 실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페이스 그레이(그냥 회색이라고 해라)’의 세 가지 컬러로 출시했다. 하지만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한 나머지 북미에서는 판매 개시 10분 만에 골드 색상이 모두 매진되었다. 아직 출시 전이지만, 국내라고 다르겠는가. 같은 값이면 금메달이지. 아이폰 5s에 대한 국내외 언론 보도는 여전히 중구난방이다. “판매량이 급증한다”와 “판매 부진에 시달린다”는 기사가 함께 돌고 있으니 말이다. 일단 써 보고 판단하자. 웬일로 한국이 2차 출시국에 들었으니 괜히 낚시성 기사들 눈팅하며 귀 팔랑댈 필요는 없으니까. ‘진격의 애플’을 계속 거인으로 남겨둘 수 있을지 우려한 것과 달리 팀 쿡의 애플과 아이폰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다만 요즘 애플의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이전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쁜인가? 잡스의 “하나 더 있지롱!”이 그렇고 아쉽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대?



## 아이폰 5s의 선방 요소

### Touch ID

홈 버튼에 있는 링을 터치하면 1초 내로 손가락 이미지를 정전식 터치 센서로 전송해 피부 표면을 기억한다. 터치를 반복할수록 사용자의 지문을 점점 넓은 범위로 인식할 수 있다. 이로써 홈 버튼 클릭과 동시에 잠금이 해제된다. 직관성이 돋보이는 기능이다.



### 슬로모션 동영상

동영상 기능도 개선되어 720p의 고화질로 초당 120 프레임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동영상 촬영 후 느리게 하고 싶은 부분을 지정하면 해당 클립이 4분의 1 속도로 느리게 재생된다. 민스매를 입고 달리는 가슴 큰 여자를 맘껏 찍어두자.



### 트루톤 플래시

색상과 색 온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듀얼 플래시를 도입했다. 사진 촬영 시 장소의 밝기와 색 온도를 감지해 최적의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능이다. 무려 1,000가지 조합을 통해 어두운 모델 방에서도 최적의 피부 톤을 제공한다.



### 지금은 무선(無線) 시대



뭘든 꼬리가 길면 귀찮은 법이다.

BY 조웅재 MODEL 재롱이 the Cat PHOTOGRAPH YuD



### BLUETOOTH + USB WIRELESS

#### 1. Madcatz R.A.T.M

매드캣츠가 게이밍 업계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옵티머스 프라임을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번쩍번쩍 빛나는 하이그루사 재질의 보다는 금방이라도 로봇으로 변신해 모니터 속 몬스터들을 때려잡을 것 같다. R.A.T.M은 최대 6,400dpi 까지 올라가는 감도와 다중 버튼, 그리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팔레스트(손바닥을 얹는 마우스의 본체 부분) 덕에 게이밍 마우스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1

최대 해상도 6,400dpi  
사이즈 95L x 74.5W x 38H (mm)  
방식 2.4GHz 무선 USB/블루투스 3.0  
가격 171,000원  
문의 제이웍스(02-948-5757)

## BLUETOOTH ONLY

### 2. Sony VAIO Mouse VGP-BMS21

일핏 보면 에어컨 리모콘처럼 생긴 심플한 디자인의 블루투스 전용 마우스, 역시 디자인만으로도 먹고사는 소니 제품답게 흔히 볼 수 없는 길쭉한 조약돌형 보디가 눈에 확 들어온다. 소니의 VAIO 노트북 시리즈와 함께 있으면 케이 티지는 비주얼을 연출하지만, 칙칙한 탱크보과 함께 있으면 최자 옆 설리처럼 어색하기만 하다. 말로 할 때 떨어져라.

### 3. Microsoft Wedge Touch Mouse

뿔뿔 발판처럼 생긴 블루투스 전용 마우스, 핑거스트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튼만 남겨두었다. 불편해 보이지만 의외로 금방 익숙해진다. 터치 기능이 있어 버튼 표면을 애무하듯 살살 비벼대면 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정도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철사상이라도 한 것처럼 손바닥이 굳은살로 도배가 될지도?

### 4. Sony VAIO Mouse VGP-BMS15

무선 마우스의 전원을 끄는 것을 깜빡해 배터리가 방전된 경험이 있나? 소니의 슬라이드 덮개형 마우스는 간단히 플립 커버를 올려주는 것만으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다. 그녀의 일몰 위로 이물을 덮어주듯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꾸준히 재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유용한 팁이지?

\* BlueTrack(블루트랙)

MS사에서 개발한 마우스 스케닝 기술, 반사광 인식율을 높여 일반 마우스의 레이저 센서보다 8배 높은 정밀도를 갖추고 있다. 마우스 패드가 아닌 책상, 유리, 대리석 주방, 카펫 등 표면이 거친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③  
최대 해상도 1,000dpi  
\*BlueTrack LED  
사이즈 60.9L x 53.6W x 22.1H (mm)  
방식 무선 블루투스 3.0  
가격 75,900원  
문의 마이크로소프트(1577-9700)

②  
최대 해상도 800dpi  
사이즈 112.4L x 53W x 31H (mm)  
방식 무선 블루투스 3.0  
가격 79,000원  
문의 소니코리아(1588-0911)

④  
최대 해상도 800dpi  
사이즈 50L x 24.8W x 87H (mm)  
방식 무선 블루투스 3.0  
가격 94,000원  
문의 소니코리아(1588-0911)

### BLUETOOTH + CABLE

#### 5. Razer Orochi 2013 Edition

찢리면 피가 날 것처럼 호전적인 레이저의 다른 제품과 달리 햄스터처럼 작고 귀엽다. 그런 주제에 거대한 뱀을 의미하는 일본어 '오로치'라는 이름이 붙었다.(사실 이름이야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레이저 제품 중에는 '대왕오징어(크라켄)' 헤드폰도 있으니) 그래서일까? 성능은 이무기 급이다. 감도는 6,400dpi에 달하며, 좌우 대칭형 보디 덕에 어느 쪽 손으로 사용해도 어색하지 않다. 포터블 제품마저 게이밍에 최적화하다니! 그 장인 정신에 눈물이 날 지경이다. 전용 파우치가 있어 가방 속에 아무렇게나 쑤셔 박고 다녀도 흠집 날 걱정은 없다.

5

최대 해상도 6400dpi  
 사이즈 99L x 67.8W x 35H (mm)  
 방식 USB 유선/무선 블루투스 3.0  
 가격 93,000원  
 문의 웨이코스(02-712-2630)

Editor's  
 Choice!

**블루투스 마우스와 일반 무선 방식 (USB Wireless) 마우스의 차이**  
 블루투스 마우스와 일반 무선 방식 모두 주로 2.4GHz의 주파수를 이용하지만, 블루투스가 일반 무선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단일 주파수를 유지해 방해

전파에 취약한 일반 무선 방식과 달리 블루투스 방식은 틈틈이 주파수 대역을 바꾸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 부팅이 되기 전까지는 작동하지 않거나, 배터리 효율이 낮은 점은 일반 무선 방식이나 유선 방식에 비해 불편하다.

	안정성	배터리 효율	부팅 속도	사용 거리	휴대성
블루투스	안정	낮음	느림	매우 넓은	중음
일반 무선	불안정	높음	빠름	좁음	중음
유선	안정	높음/미사용	매우 빠름	매우 좁음	나쁨

만사가  
귀찮은  
고양이



## USB WIRELESS

### 6. Logitech G700s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로지텍의 게이밍 마우스 시리즈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으로 꼽히는 G700. 이번에 새로 발매한 G700s는 전에 출시된 G700의 육중한 보디에 필름 코팅을 가미해 지문 방지 효과와 그림감을 한층 높였다. 이전 시리즈에서 문제가 된 더블 클릭 문제(한 번 클릭으로 더블 클릭이 되는 현상)도 개선했다고 하니 구매를 갈등하던 유저들의 고민이 줄어들 듯.

### 7. Gigabyte Aivia Uranium

기가바이트는 그래픽 카드, 노트북, 주변 기기 등을 만드는 만능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다. '우라늄'이라는 이름의 이 제품은 기가바이트의 플래그십 게이밍 기어 브랜드 '아이비어(Aivia)'가 출시한 현존 최고 스펙의 마우스다. 감도와 설정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OLED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하다 보면 우주 비행사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 8. Royche RAPOO 7800P

7800P는 값싸고 좋은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독일 브랜드 라푸(RAPOO)의 풀 사이즈 그림형 제품이다. 이 제품은 무선랜, 블루투스 및 동일한 주파수 대역인 2.4GHz를 사용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유일하게 5GHz 대역을 사용한다. 그 덕분에 전파 방해 등으로 오작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안정적인 무선 마우스다. 외부의 전파 따위는 씹어버리는 무적의 스텔스기 같은 녀석이랄까?



6

최대 해상도 8,200dpi  
사이즈 126L x 80W x 46H (mm)  
방식 USB 유선/2.4GHz 무선 USB  
가격 10만 원대  
문의 로지텍(00798-601-8207)



7

최대 해상도 6,500dpi  
사이즈 130L x 78W x 40H (mm)  
방식 USB 유선/2.4GHz 무선 USB  
가격 미정  
문의 제이씨현시스템(1577-3367)



8

최대 해상도 1,600dpi  
사이즈 124.6L x 78.1W x 42.8H (mm)  
방식 5GHz 무선 USB  
가격 38,760원  
문의 로이체(02-701-2181)

ASSISTANT 김세형, 김소윤, VIDEO 김상수  
COOPERATION 기가바이트, 로이체, 로지텍,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웨이포스, 제이원스



### SPEC CHECK

- 제품명 전자 게임기
- 사용연령 5세 이상
- 수입자명 (주)대도실업
- 생산지 중국
- 사용상 주의 볼 또는 물에 가까이 하지 말 것
- 권장 소비자가격 43,000원



전원을 켜고 캐릭터를 고르면 '뿔' 하는 소리와 함께 게임이 시작된다. 이 때 게임기 상단의 홈에 바코드를 읽어야 대전 중에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성인이 되어 해 보니 신음카드로 필살기를 구매하는 느낌이다.

플레이 화면이 궁금해?



## 긱어야 장풍이 나가지! 바코드 게임기

 그저 긱어대는 게 좋던 그때 그 국민학생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카드를 신명 나게 긱어대며 술값을 계산하고 있었다. BY 조웅재

→ 온수 매트, 앰프, 전자 기타 등 현재 각종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대도실업'은 원래 완구 회사로 시작했다. 이 회사는 1994년 바코드 수치를 게임기에 입력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미국의 타이거 일렉트로닉스(Tiger Electronics) 사에 수출한다. 그 제휴 결과 탄생한 게임기가 바로 '타이거 바코드(Tiger Barcodzz)' 시리즈다. 미국에서 출시해 짧은 기간 선풍적으로 인기를 끈 이 게임기는 곧 국내로 역수입되었다. 사실 이 게임기는 당시 오락실에서 유행하던 <스트리트 파이터>나 <엑스맨>을 디스플레이 주변에 그려 넣고 '이게 바로 그 게임이다'라며 우기는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함께 제공하는 바코드 카드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유명 게임의 타이틀을 풀어서 쓴 덕분에 출시와 동시에 국내 어린이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당시에 출시된 다른 게임기보다 두 배는 비싼 4만 3,000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손가락만 빨고 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생각난 김에 네이버의 레트로 게임 동호회 '구닥동'을 뒤적거리던 에디터는, 마음씨 좋은 모 회원에게서 본 게임기를 건네받고 잠시나마 추억에 젖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 과거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둬야 했다. 살면서 건전지가 아깝다고 생각한 전자 기기는 이 녀석이 처음이었으니까.

1994 그때 그 시절

- 1월 8일, 드라마 <서울의 달> 방영 시작
- 6월 24일,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개봉
-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 심근경색으로 사망
- 10월 9일, 황영조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마라톤에서 우승
-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11월 4주차  
가요 톱텐 1위 후보



마법의 성  
- 더 클래식

'더 클래식'은 삼성증권 국제부에서 근무 중인 셀러리맨 김광진과 가수 이수만에게서 컴퓨터 음악을 배운 박용준이 결성한 2인조 그룹이다. 이들은 지난 8월 데뷔곡 '마법의 성'을 발표, 10월 이후 음반 판매 차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위인전보다 게임기가 좋아요



조 옹 재  
(양화국민학교 3학년 8반)

"쿠쿠쿠쿠쿠!" 게임기의 전원 버튼을 누르자 듣기 거북할 정도로 탁한 천둥소리가 귀를 찌른다. 한 달 전 월간 <게임 매거진>에서 본 <스트리트 파이터> 바코드 게임기다. 동네 부잣집 친구 녀석이 어제 생일 선물로 받았다며 동네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랑 중이다. 지난 생일에 <웅진위인전기> 전집을 받은 나는 서러울 뿐이다. 엄마는 이게 몇 배는 더 비싼 거라고 나를 혼냈지만 에디슨은 파동권을 못 쏘잖아. 하나도 재미없어.

"나도 한 번만 읽어보자. 응?" 친구 녀석은 앞에서 치근대는 나를 귀찮은 듯 밀쳐내며 "잠깐만! 나 좀 하고! 내가 주인이잖아!"라고 소리친다. '아 짜증나는 새끼. 되게 비싸게 구네.' 친구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갈끔하게 잘라낸 투명 플라스틱 포장 안의 바코드 카드 문치를 조심스레 꺼낸다. 100원에 세 장 들어 있는 스트리트 파이터 뽑기 카드보다 훨씬 멋있다. 뒷면에는 캐릭터 프로필이 적혀 있다. 예쁜 춘리 카드를 뒤집어 본다.

1968년생, 170cm라니, 우리 엄마보다 여섯 살이나 어린데 키는 훨씬 크네! 몸무게 항목을 살펴보니 "그녀가 말하려 하지 않

는다"라고 쓰여 있다. 여자들은 왜 몸무게를 숨기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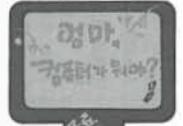
"아, 겠어! 엄청 어려워!"라며 친구가 나에게 게임기를 건넨다. 실제로 들어보니 내 손바닥보다 크고 묵직하다. 두근대는 마음을 안고 시작 버튼을 누른다. 이소리를 담은 페이-롱, 근육쟁이 인디언 티-호크, 자-메/이카\!에 사는 흑인 디-제이, 전기가 나오는 괴물 블랑카까지, 네 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어? 왜 류랑 켜는 없어?

그나마 제일 주인공처럼 생긴 페이-롱을 골랐다. "이거 굵고 해야지 필살기 나가." 아하! 시작할 때 바코드를 긁어야 하는구나. "빠-" 소리가 날 때 바코드를 긁으면 숨은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바코드를 긁자 게임이 시작된다. 내 캐릭터는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편지랑 키큰 공격한다. 오락실 버전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살기가 있으니 진짜 <스트리트 파이터> 같다.

열심히 했는데 블랑카한테 졌다. 전기만 계속 쓰는데 어떻게 이겨? "한 판만 더! 이번엔 이길 수 있어!"라고 졸라보지만 친구는 가차 없이 게임기를 회수한다. 뭘, 재수 없는 새끼. 재미 하나도 없어. 파동권도 없고 승룡권도 없는 스트리트 파이터를 뭐 하러 해? 집에 가서 위인전 '석가모니' 편 사이에 품쳐둔 1,000원 들고 오락실이나 가자.

萬物商會

만물상회



어린이 컴퓨터 교실  
시간: 9.12.26 - 1.27  
문의: 02-323-1182

대한생명

MAXIM  
購讀申請  
02-323-1182

**최불암시리즈 365\*1**

연세대학교 교수 **마광수** 해설

최불암 시리즈 "인결편" 드디어 출간

최 불 암 시리즈의 우렁찬 권위주의적 보수 도덕에 대한 자전스러운 저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부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국가의 문명을 대변한다고 한다.

최 불 암 시리즈의 우렁찬 이 시대의 가장 비발방은 세리,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어릴썬한 위치에서 온 본능적 욕구를 차단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욕구충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허 울러의 집권 가능성에 한 것은 당시 최불암의 보수적이고 국수적인 관념적 정신이 우물쭈물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민주, 민중을 요구하지 않았던 후에도 후고 있는 것은, 최불암을 상징으로 하는 윤이상들이 갖고 있는 복고론 경건주의의 독해 비화주의인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최불암 시리즈에 나타나는 정당한 일간이 틀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윤이상적으로 재해석되지 못한 채 상징적인 '혁명과 민주'의 기둥 역할을 한 것이다.

₩4,000원

최진실 시리즈·화장실 시리즈·최불암 장군 시리즈·최불암 교수 시리즈 등 최불암 시리즈 속의 31개 시리즈 **366** 편 완전수록!

▶ 지금 곧 서점에 가 보세요. **한빛** 121-020 서울 가로구 불암동 417-2 전화(02) 720-8904(대포)

폭력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전자오락 성행

승용차 걸린 대회까지... '폭력 조장' 우려

세계 각국의 민족들이 모여 싸움 실력을 겨루는 폭력 액션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가 청소년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의 유명 게임 회사 '캡콤'이 개발한 이 게임에는 일본의 무술가, 미국의 공군, 중국의 여자 쿵후 선수, 일본의 목욕탕 주인 등이 등장해 필살기(必殺技)를 사용하며 상대를 쓰러뜨린다. 최근 성남의 모 오락실에서는 2인용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가해자였던 김모씨는 "블랭카를 골랐는데 장풍이

안 나갔다. 화가 나서 얼굴을 때렸다"라며 당시 분노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1'출판사는 오는 12월 티코 승용차를 걸고 <스트리트 파이터 2>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액션 게임이 폭력을 조장하고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PHOTOGRAPH YuD  
COOPERATION 구덕동 (cafe.naver.com/paramax)

Stuff

Ultimate Toy

# Diecast

아이언맨의 차고가 안 부러운 드림카 컬렉션! 더 이상 꿈이 아니다!

BY 김세형 PHOTOGRAPH YuD



진격의 주인 옹호:

### CM Model 웨보레 아테오

이 시리즈는 작년 말에 CM사가 작성하고  
퀄리티를 높여 제작한 다이캐스트다.  
외형, 내형 모두 실제 차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



### Collector's Profile

350대의 드림카와 동거하는  
다이캐스트 컬렉터,  
화이트돌리 군을 만났다.



**화이트돌리**  
(본명: 이재범)  
블로그 '돌리군님의 일상 &  
다이캐스트 스토리' 운영  
whitedoldole.blog.me



(왼쪽부터) 부라고 람보르기니 레벤톤, 부라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킨스마트 웨보레 골벳, 부라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여기 있는 다이캐스트를 모두 진짜 차 값으로 환산하면 28억 8,458만 원이다.

도대체 이게  
다 몇 대야?



**다이캐스트는 쉽게 말해 실제 자동차를 같은 비율로 축소한 미니카다. 쇠로 만든 전문적인 자동차 모형을 일컫는 말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어린 시절 놀던 미니카를 여기에 포함하기도 한다. 당신이 꿈꾸던 슈퍼카를 늘 곁에 두고 볼 수 있는데(사이즈는 좀 작아도) 어찌 풀리지 않을 수 있겠나.**

**다이캐스트를 모으는 이유는 뭔가?**  
당연한 얘기지만 자동차를 좋아해서 다이캐스트 수집을 시작했다. 실제 차를 모으기에는 금전적,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대안으로 찾은 것이 축소판으로 내 드림카를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다이캐스트다. 이렇게 벌써 350대나 모았다.

**동호회 정도도 있나?**  
물론 있다. 정모에서는 다른 컬렉터의 다이캐스트를 구경하며 신제품이나 컬렉션 권리법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

**말만 들어도 '남탕'이 그려지는데?**  
첫 정모에 나갔을 때는 전부 남자 회원이었는데 점차 여자 회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활동이 가장 활발한 동호회는 '1/18 모형자동차 마니아 (cafe.daum.net/diecast)'라는 다음 카페다. 한번 놀러 와라.

**추천하는 다이캐스트 입문법이 있나?**  
좋아하는 브랜드와 모델을 정하는 게

가장 좋다. 내 경우엔 대우 자동차의 디자인이 좋아 다이캐스트에 입문했다. 최종 목표도 대우 자동차 시리즈를 전부 모으는 거다.

**직접 커스텀 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실제 차와의 싱크로를 맞추기 위해 도색과 같은 간단한 커스텀 정도는 내가 직접 한다. 한 컬렉터는 자신의 다이캐스트에 전 후방 라이트를 장착하고 RC카처럼 조종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더라. 어느 각도에서 봐도 실제 자동차처럼 디테일해서, 사진만으로는 다이캐스트 라는 사실을 모두 믿지 않을 정도였다.

**컬렉터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교쇼의 아우디 R8 시리즈. 2007년에 발매되었는데 빠른 디자인과 엄청난 퀄리티로 아직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거대한 엔진의 디테일이 끝내준다. 한침을 낮 놓고 쳐다 볼 정도라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취미가 어울릴까?**  
다이캐스트 자체가 작고 세밀한 물건이라 그런지, 컬렉터도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 부지런하다. 물건에 먼지가 잘 끼 자주 청소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손이 크고 두꺼운 사람이라면, 커스텀 작업이 쉽지는 않을 거다. 부품이 워낙 깨알 같아서 말이지! ☹



**크로바 기아자동차 그랜드카니발**  
“퀄리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분해해서 보완하고 있는 제품이다. 전에는 무조건 실제 차와 똑같이 보이도록 꾸미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번 차는 나만의 느낌으로 자유롭게 커스텀할 생각이다.”



◀ 조종재 에디터의 삼천리 자전거 700C 바운스 7  
동네 삼천리 자전거 매장에서 300,000원 주고 구매  
애칭은 킁키 앤 킁키(twinkie&twinkie)

## 그거 왜 샀어? #12

찬바람 불어와 마음이 뒤숭숭한 에디터들. 오늘도 지름으로 그 마음 위로하네. BY 김세형

### 삼천리 자전거 700C 바운스 7

웅재 선배! 아침에 보니까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던데, 자전거 사셨어요? 허벅지 굵어지지 않네요.



요즘 동네 친구놈들이 야간 라이딩 하자며 나를 꼬시더라고. 한밤에 한강 둔지에서 치맥하고 있을 예쁜 불량 여고생들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급한데로 아버지 MTB를 끌고 합류했지. 아, 근데 새끼들이 안장 높이고 드롭바까지 달아놓은 하이브리드를 끌고 나왔더라. MTB로는 어쩐지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확김에 삼천리 자전거 가게로 들어갔어. 삼천리 아저씨랑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한 끝에 입문형 하이브리드(MTB와 로드바이크의 중간단계, 속도와 안정성의 밸런스를 갖춘 도심형 자전거)로 괜찮다는 이 녀석을 구매했어...는 구라고, 아저씨가 신형이라며 이걸 사라고 날 꼬드겼어.

다른 자전거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이에요. 소재가 뭐예요? 중이에요?



이건 '크로몰리' 소재로 되어 있어. 존나 무거워서 '철TB'라 불리는 13kg 이상의 MTB와 9~10kg대의 가벼운 픽시의 중간 정도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 단단하고 탄성이 있는 소재라 보디 자체가 쇼바 역할을 조금은 해 줘(라고 아저씨가 그랬어). 확실히 전립선 브레이크인 동급 자전거들에 비해 거기 충격은 덜 하더라.

그런데 이걸 색깔이 왜 이렇게 아리꾸리해요? 한강 가면 간지나는 하이브리드 타는 오빠들 많던데...



젠장. 나도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안들어. 어쩐지 동네 살집 아저씨가 타고 다닐 법한 디자인이랄까. 이 모델은 유광 프레임에 보라색 포인트, 무광 프레임에 빨간색 포인트 두 가지 버전이 있어. 보라색이 존나 촌스러워 보여서 무광/레드로 샀는데, 일고보니 대부분은 크로몰리 소재의 간지를 위해 유광 프레임을 산다고 하더라. 시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며칠 동안 유광 프레임이 눈에 아른거렸어. 그리고 이거 보여? 프레임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 BOUNCE, 3000, 심지어 레스포(LESPO)!

여백의 미를 모르는 새끼들. 어딜 가나 디자인팀은 공공의 적인가. 디자인 팀장 나오라 그래.

전 당연히 선배의 미적 감각을 의심했... 어쨌거나 저 이거 한 번만 타 볼래요!



응. 그런데 키 작은 세형 씨한테는 좀 높을 거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게 안장을 높이고 낮추는 데 육각 렌치가 필요해서 존나 불편해. 전에도 한강에 라이딩 나가서 "좀 달려볼까?"하고 안장을 높이려다가 공구가 없어서 멸망했지. 그에 반해 친구들은 즉석에서 속속 안장을 높이더니 나를 버리고 떠나더라고. 비웃음과 함께. 시발.

그래도 안장 스틸 당할 걱정은 없겠네요.



여튼 이걸 자전거에 대해 뭇도 몰라서 뭇 질러도 후회 안 할 것 같은 사람에게 추천. 자전거 좀 아는 사람한테 자랑했더니 10만 원대에서도 질나가는 하이브리드 살 수 있다며 타박하더라고. 아 그림 지르기 전에 얘기해 주던가!

## Razer 블랙위도우 토너먼트 에디션

안나 선배, 키보드 새로 사셨네요? 웬재 선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맨날 원고 쓰느라 키보드 동명거리는 일이잖아. 사무실에 있던 로지텍 K270이 요새 자주 버벅대더라고. 키감 좋은 기계식 키보드로 바꾸면 마감 때 좀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해서 알아본던 차였지. 조용재 에디터가 쓰는 블랙 무광의 레이저 블랙위도우 얼티밋이 간지나 보이길래 레이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텐키리스(숫자판이 없는) 버전이 있길래 이걸로 갖겠지. 조용재 꺼는 너무 거대하고, 낡직한 나에게는 이게 딱 인 듯!

키보드 사이즈가 작으니 책상 활용 공간도 넓어졌네요. 써 보니까 어때요?

 키보드 본체랑 케이블이 분리돼서 휴대하기 편해. 세형 씨도 일주일 내내 회사 키보드 쓰다가 주말에 집에서 컴퓨터 할 때 불편하지 않았어? 일주일간 손에 익은 키보드를 주말 동안 집에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더라고!

선배가 키보드 두드릴 때 나는 소리가 너무 찰져요! 1층 현관에서부터 선배 키보드 소리가 들리겠어요.

 키감이 살아있다는 게 이 키보드의 매력이야. 쫘득쫘득하면서 가벼운 키감이 마치 말랑한 마시멜로 안에 숨은 바삭한 비스킷이 씹히는 기분일까? 세형 씨 말대로 자판 칠 때 소리는 좀 시끄러운 편이지.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도 가장 요란한 소리를 낸다는 칭찬이거든. 키보드를 두드리면, 멀리 편집장님 사무실에서도 내가 폭풍 업무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훗.

## 개인정보 유출방지 롤러 케시봉 플러스

왜 귀엽다! 이게 뭐예요, 승민 선배?

 이번에 야심차게 장만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스탬프야. 사무실로 배달되는 우편물이 엄청 많은데 일일이 찢어버리기도 힘들고 문서 분쇄기에 갈아버리기도 귀찮더라고. 그냥 버리자니 소중한 내 개인정보가 걱정돼서 교보문고에 책 사러 간 김에 핫트랙스에서 하나 질렀어.

이 쪼그만 스탬프로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가려져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응, 이걸로 가리면 끝내나 사진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 써 볼래? 롤러형 스탬프라서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찍으면 돼. 그렇다고 아무데나 시도하진 말고, 나도 처음에 신기해서 여기저기 찍어

보다가 큰 낭패를 봤거든. 존나 아끼던 화보였는데... 하필이면 기습골에 찍어버려서...

얼마나 쓸 수 있는대요?

 폭이 26mm로 고지서에 찍힌 주소랑 이름 가릴 정도 되고, 잉크는 50m쯤 쓰면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 내장형 잉크인데 뚜껑이 없는 게 특이야. 뒷부분을 딸깍 눌러주면 스탬프가 뿜! 하고 튀어나오고, 다시 누르면 스탬프가 쏙 들어가. 뚜껑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서 편하지. 보관할 때는 세워놓으면 돼.

일본제던데 비싸진 않았어요?

 교보문고 핫트랙스에서 1만 4천 원 주고 샀어. 그런데 인터넷 보니까 1만 5백 원에 팔더라. 시발. 워든 인터넷 최저가로 사는 게 진리야.



유승민 에디터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롤러 케시봉 플러스 교보문고 핫트랙스에서 14,000원에 구매



손안나 에디터의 Razer 블랙위도우 토너먼트 에디션 Razerzone.com에서 119,000원에 구매

● 김희성 에디터의 베가 아이언(IM-A870k) 회사 근처 핸드폰 대리점에서 할부원금 729,400원에 구매. 주위 사람에게 호갱이라고 놀림 당하는 중.



그나저나 액정에 이 무서운 얼룩은 뭐예요?

나도 몰라. 떨어뜨린 적도, 물에 빠뜨린 적도 없는데 산 지 한 달도 안 돼서 액정이 곰팡이 핀 것처럼 스물스물 까맣게 변했어. 핸드폰 사면 고장 한 번 안 내고 오래 쓰는 편인데... 아야, 베가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얼룩이 액정 전체로 퍼져 나갈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A/S 받고 싶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도무지 연결이 안 되더라. 통화량이 많아 기다려달라는 멘트만 수십 번... 여러 번 전화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됐어. 혹시 관계자분 중 이거 보시면 제발 MAXIM 사무실로 연락 좀 주세요. ㅠㅠ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선배. 이 물건... 도대체 장점이 있긴 있어요?

물론 장점도 있긴 있어. 통화 음질이 끝내주더라. 전에 쓰던 아이폰 4, 갤럭시 2 보다 통화 음질이 '단연컨대' 뛰어나. 특히 남자 목소리가 레알 최강!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는 누구든 이병헌급 목소리가 된다니까. 이병헌을 모델로 쓴 이유가 있었나 봐!

화질은 저질인데 음질이라도 괜찮아서 다행이네요. 배터리는 어때요? 오래가요?

오래간다고보다는 충전이 빛의 속도로 되더라고! 나처럼 핸드폰 충전하는 걸 잘 깜빡해서 외출 전에 "아 맞다!" 하며 잠깐씩 충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딱 좋아.

그럼 다음에는 어떤 브랜드로 기번하실 거예요?

글쎄. 뭐가 되었든 '단연컨대' 베가는 절대 아니야! 🙄

베가 아이언(IM-A870k)

희성 선배, 드디어 핸드폰 바꾸셨네요?

응. 얼마 전에 산 지 5개월도 안 된 갤럭시 2를 잃어버렸거든. 확김에 질렸지. 사실 난 새로운 기기를 체험해 보고 싶은 얼리어답터 기질이 좀 있는데 일단 아이폰과 갤럭시는 한 번씩 써 봐서 아예 다른 걸 이용해 보고 싶었어. 핸드폰을 잃어서 멘붕 상태였는데도 이병헌의 '단연컨대' 광고에 혹해서 베가를 구매했지. 하지만 이 모든 게 불행의 씨앗일 줄은...

베가 유저인 친구가 베레기라고 하던데... 어때요?

카메라부터가 쓰레기야! 후방 카메라는 꽤 괜찮은 편인데, 전방 카메라 화질이 구러서 셀카 좋아하는 나도 이 폰을 사고 나서는 셀카를 안 찍는다니까?

얼마나 구린지 저도 한 번 볼래요!

어? 화질은 나쁘지 않네요?

화질만 좋으면 뭐해. 일상의 순간을 포착해내는 게 폰카의 존재 이유잖아. 근데 이걸 초점을 너무 못 잡아. 조명이 어둡거나 피사체가 너무 가깝다 싶으면 초점 잡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니까. 으휴 속 터져...

베가 아이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테두리가 메탈이네요.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건가?

간지는 나는데 이 메탈 소재 때문에 조금만 핸드폰을 잡고 있어도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느낌이야. 내가 전자파에 좀 예민한 편이거든. 전화 통화를 잠깐만 해도 머리가 아프더라고. 게다가 발열이 심해서 카톡 몇 개만 보내도 메탈 부분이 금방 뜨거워져. 겨울을 맞이해 손난로 대용으로 쓰라는 베가의 배려인가?

# MAXIM 뽐뿌질

빠빠로 작업해 봤자 안생겨요.  
차라리 그 돈 모아 이거 질러!

## 다이내믹한 음질의 강자 JAYS, A-JAYS FIVE 출시

스웨덴 명품 브랜드 JAYS에서 힘이 넘치는 이어폰이 나왔다. 새롭게 출시된 A-JAYS FIVE는 기존 제품보다 더 다이내믹하고 파워풀한 드라이버를 장착하여 더 역동적인 사운드를 제공한다. 훌륭하게 성장한 A-JAYS FIVE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일단 걸모습부터 시크하다. 콤팩트한 사이즈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은 실용성과 멋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애플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호환되는 버전으로 출시되어 편의성까지 좋다. 포장 박스만 봐도 그냥 벌써부터 어깨가 들썩거린다.  
가격 미정, JAYS(02-546-0203)



## 올림푸스 PEN, 가을을 입다

기능뿐 아니라 그 멋스러움으로 더 사랑받는 올림푸스의 미러리스 카메라 PEN E-P5이 가을을 맞아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E-P5 전용 가죽 스킨은 사피아노 가죽을 사용해 필름 카메라만의 클래식한 느낌을 최대한 살렸다. 종이처럼 얇은 가죽스킨은 PEN E-P5와 딱 맞아떨어져 최상의 그림감을 구현했다. 가을과 어울리는 사피아노 블랙, 사피아노 초콜릿, 사피아노 베이지 세 가지 컬러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가을 옷을 입은 PEN E-P5를 뽐내보자.

13,500원, 올림푸스(www.olympus.co.kr)



## 소니코리아, 헤드폰과 이어폰 일체형 워크맨 2종 출시

소니코리아가 아웃도어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의 일체형 MP3플레이어 워크맨 2종을 출시한다. 올인원 워크맨 NWZ-WH시리즈는 MP3 플레이어, 외장 스피커와 헤드폰 3가지 모드가 가능한 아주 아무진 녀석이다. 평상시엔 목에 걸고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하여 헤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포츠워크맨 NWZ-W274S는 완벽 방수 기능으로 수심 2m에서도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수륙양용,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한 녀석이다.

119,000원(NWZ-W274S), 169,000원(NWZ-WH303),  
269,000원(NWZ-WH505), 소니코리아(www.sony.co.kr)



## WD, 새로운 디자인과 더욱 강력해진 백업기능의 마이북 출시

글로벌 외장하드 업체 WD에서 데스크탑과 맥용 외장하드 마이북을 출시하였다. 최대 4TB 용량과 뛰어난 데이터 보호 기능으로 대용량 자료를 보관하기 좋다. USB 3.0 연결로 고속 데이터 전송은 기본! 게다가 완벽한 백업 기능과 재해 및 도난에 대비한 보안 기능까지 탑재했다. 또 하드웨어 암호화 기능을 통해 해킹 등의 침입으로부터 소중한 나의 자료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제 내 비밀스런 폴더 속 보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149,000원(2TB), 179,000원(3TB), 229,000원(4TB),  
유프라자(02-702-3288, www.uplaza.co.kr)



## 못 찍어도 괜찮아. 미러리스 카메라 X-A1이 있잖아!

후지필름이 사인 초보자를 위한 렌즈 교환형 미러리스 카메라 X-A1을 선보였다. 초보자 용이라고는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스펙을 갖췄다. 1,630만 화소와 최대 감도 ISO 25,600까지 설정할 수 있어 밤이나 어두운 실내에서도 밝고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다. 거기에 13가지의 멋스러운 아트필터 효과와 Wi-Fi 무선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함까지, 욕심도 많다! 색상은 빨강, 파랑, 검정에 디자인도 깜찍하다. 딱 봐도 이 빨간색에 여자들이 깽깽 델 게 분명하다(어서 이 페이지를 그녀에게 숨겨!!!).

가격 미정,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1544-4798, www.fujifilm-korea.co.kr)

# Style



## 옷장을 열면 하나쯤 있어야 할 코트

언제까지 묵은 때가 화석처럼 박힌  
오리털 잠바만 입고 다닐래?

BY 박정욱

MODEL 2013 MISS MAXIM 4강 진출자 박무비

→ 날씨가 추워지면 코트만 한  
효자가 없다. 어떻게 코디하고  
어떤 아이템을 장착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코트를 골라야 할지 막막해 결국  
겨우내 잠바 하나로 버티는 사람들을 위해  
옷장에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할 코트를  
소개한다. 자, 올겨울엔 코트 빨 좀 세워보자고!

← 아직도 피코트는 슬림하고 정갈하게  
입어야 맞이라고 생각하나?  
이 피코트의 박시한 피트와 엉덩이  
밑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은 당신을  
한층 어려보이게 만든다.  
평소엔 단정한 인상을 주지만,  
여기에 루즈핏 생지 데님 진과  
폭 눌러 쓴 비니를 함께 코디하면  
힙합클럽에서도 먹어줄 거다.  
브라운브레스 / 208,000원

구두 슈즈원



## Unique Coat



↑ 누가 딱복이 코트는 촌스럽다고 했다. 자연스러운 빈티지 워싱과 윗트 있는 비대칭 단추 배열이 더블코트의 어리바리함을 날려버렸다. 고딩 때 이런 놈 하나 있었으면 옆 학교 여학생들 다 쓰러졌을 텐데, 지금도 먹힐라나...

라이플 / 159,000원

티셔츠 스톤아일랜드  
바지 파리게이츠  
신발 썬코니



초어코트는 원래 광부나 작업자들이 입던 외투로 일명 '사파리 재킷'이라 한다. 태생은 '막 입는 옷'이었으나, 지금은 스타일쟁이들의 필수 아이템이 됐다. 특히 이 초어코트는 금장 버튼으로 교묘히 출생의 비밀을 숨겨 오히려 부촌 도련님 같은 인상을 준다.

칼하트 / 262,000원



노르웨이 군복에서 따온 카무플라주 무늬에 헌팅재킷을 변형해 만들었다. 후드는 탈부착이 가능해 편리하다. 하지만 군대에서, 심지어 예비군까지 가서 지겹도록 입은 군복을 떠올리면 선풍 손이 가지 않겠지만, 은근히 여자를 이런 모던한 밀리터리룩 좋아한다? 본인들이 군대 갔다 오면 그 소리 쏙 들어가겠지만.

모디파이드 / 119,000원



← 견장과 어깨 패치를 과감히 떼어내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기본 트렌치코트다. 두툼한 내피를 탈부착할 수 있어 가을, 겨울 내내 입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다만 내피가 꽤 두꺼워 언뜻 보면 패딩처럼 보인다.

CP 컴퍼니 / 1,750,000원

셔츠 바이크리퍼어샵  
바지 파리게이츠  
신발 스키스티브

## Essential Coat



그 옛날 미국이나 영국 신사가 입었을 법한 클래식한 라인의 코트. 입으면 당장이라도 영어 방언이 튀어나올 것 같아! 흰 스트라이프가 점잖으면서도 지루하지 않다. 여기에 테가 동그란 안경을 쓰면 멋스런 모던보이로 보이겠다.

커버넌트 by BARRELS / 188,000원



깔끔한 싱글 코트는 어쩐지 격식 있는 파티 연회장에나 어울릴 것 같지만, 이 녀석은 흥대 앞 버스킹 밴드에게도 잘 어울릴 만큼 자유분방하다. 옷 잘 못 입는 남자라도 이런 코트에 왜냐나 브로치로 멋을 내면 스타일 리더로 보일 수 있다.

디스이즈네버렛 / 259,000원



잘 입으면 10년은 젊어 보이고, 잘못 입으면 노명처럼 보이는 게 갈색 싱글 코트다. 이 녀석처럼 버튼을 은밀하게 숨긴 디자인의 코트는 심플하면서도 가벼운 인상을 준다. 소개팅 자리에 입고 나가면 연하남으로 착각할지도 모른다!

모디파이드 / 119,000원



격식 있는 자리와 '마시고 죽자' 분위기의 파티에 모두 잘 어울릴 코트를 찾고 있나? 점잖은 실크햇은 물론 스냅백 모자와도 어울리는 전천후 체스터필드 코트는 어떨까. 늙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더블 버튼 특유의 신사다운 유지를 했다.

디스이즈네버렛 / 216,000원

VIDEO 김성수 LAYOUT 서용경 COOPERATION 디스이즈네버렛(070-4015-0014) 스니키즈티브(02-518-4335) 스톤아일랜드(02-516-2778) 썬코니(02-2009-6423) 라이플(02-511-7288) 모디파이드(02-2236-8844) 바이크리퍼어샵(02-332-8776) 브라운보이즈(02-474-2009) 슈조원(02-3443-1703) 칼하트(02-541-0852) 커버넌트 by BARRELS(02-338-0331) 파리게이츠(02-3409-3000) CP컴퍼니(02-516-2778)

# Style / Campus Battle #2

## 고려대 vs. 연세대

대한민국 최고의 라이벌 사학 대결 연고전(고연전)이 무승부로 싱겁게 끝났다. 이번에는 패션으로 붙어볼까? BY 김세형

**서지연/23/영어교육과**

**강의실 작업 방법:**  
음료수를 건네며 과제를 물어본다.

**이건 고대가 낫지:**  
캠퍼스가 예쁘고 미인이 많다.

**연대생에게 한마디:**  
솔직히 손연재보다 김연아가 낫잖아?



힘준 아이템:  
알렉산더 왕 가방



힘준 아이템:  
계절을 무시한  
선글라스



힘준 아이템:  
오늘 개시한 코트



힘준 아이템:  
가을에 어울리는  
깁맛굽

**이예나/23/방사선학과**

**강의실 작업 방법:** "필기 노트 좀 보여주세요!"

**이건 고대가 낫지:**  
몸 좋은 사람이 많다. 역도부도 있다고!

**연대생에게 한마디:** 독수리상도 없어졌다면서? 신촌 참새들 파이팅~!

**조현철/28/사회학과**

**강의실 작업 방법:**  
열심히 공부만 하느라 그런 거 모른다.

**이건 고대가 낫지:**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

**연대생에게 한마디:**  
너희가 패션을 아느냐. 푸른 곰팡이들애!

**성은아/23/사회학과**

**강의실 작업 방법:** 음료수와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건넨다. 너무 고전적인가?

**이건 고대가 낫지:**  
개인주의인 연대에 비해 우린 단합심이 뛰어나다.

**연대생에게 한마디:** 너희는 옷발. 우리는 얼굴발.



힙준 아이템:  
세로 산 회색 니트

1 정별/22/관현악과

**강의실 작업 방법:** 수업 내용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본다.  
**이건 연대가 낫지:** 개네는 음대가 없어 예술적이지 못하다.  
**고대생에게 한마디:** 아무리 노력해도 고대는 연대는 못 따라와.

조성은/26/생물학과  
**강의실 작업 방법:** 수업 중 그 사람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Reply하기!  
**이건 연대가 낫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촌스러움... 같은 건 연대에 없다.  
**고대생에게 한마디:** 그래, 울지 말고 계속 말해보렴.



힙준 아이템  
직접 디자인한 구두



연세대학교



힙준 아이템: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스커트

2 김동하/26/경제학과

**강의실 작업 방법:** 돌직구를 던진다.  
“전화번호 뭐예요?”  
**이건 연대가 낫지:** 칙칙한 고대에 비해 자유분방하다.  
**고대생에게 한마디:** 흠이나 좀 털고 와!

1 강예리/25/경영대

**강의실 작업 방법:** 조모임이 있으면 같은 조가 되어 자연스레 친해진다.  
**이건 연대가 낫지:** 신촌에 있어서 더 절고 활기찬 느낌이 든다.  
무엇보다 교통이 좋다.  
**고대생에게 한마디:** 훗, 비교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힙준 아이템:  
보이러던 팬츠

# Style news

## 크록스, 톰슨 데절트 부츠 출시

데절트 부츠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사막 주둔을 위해 신던 신발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편안한 부츠다. 톰슨 데절트 부츠(Thompson Desert Boot)는 크록스가 개발한 크로슬라이트 소재를 사용하여 장시간 걸어도 발이 편안하다. 톰슨 데절트 부츠는 발목의 복숭아 뼈를 살짝 감싸 안정감 있게 발을 지지하고, 회색 스웨이드 재질에 옐로우색 끈으로 가을 느낌에 상큼함을 넣었다. 그마저도 크록스가 여름에만 신는 신발이 아니었다니! 139,900원, 크록스(1661-0677, www.crocs.co.kr)



## 이비니아(IBINIA) 킬링 트레클 백팩 출시

차별화된 백팩 디자인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이비니아에서 3가지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킬링 트레클 백팩을 출시한다. 누버진 킬링 원단을 넣은 디자인에 천연 소가죽 핸들을 이용하여 멋지게 들 수 있다. 또 어깨 끈을 부착해 브리프 케이스로 연출할 수 있으며, 뒤쪽 포켓에 숨어있는 스트랩을 꺼내면 백팩으로 착용이 가능하다. 넉넉한 사이즈와 수납 공간을 많이 넣어 여행용 가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세 가지 용도로 골고루 사용하면 돈이 아깝지 않겠네! 188,000원, 애플샵(070-8258-1029, www.appeshop.com)



## 아이웨어 크리거(KRIEGER) 모델 출시

뉴욕 브록클린의 감성이 담긴 아이웨어 액티비스트에서 크리거 신제품을 출시한다. 따뜻한 브라운 컬러감이 돋보이는 프레임으로 남녀 구분 없이 감각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또한 가을, 겨울 시즌 가장 트렌디한 레오포드 패턴을 적용해 패셔너블함을 더했다. 또 다리 부분이 뺨 허처럼 두 갈래로 나뉘어 프레임의 무게를 분산시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독특한 디자인으로 멋을 더했다. 멋있는 안경을 쓰면 못한 얼굴이 좀 나아보이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추천한다. 445,000원, 엠투아이티씨(02-3443-1703)

## 센트럴포스트, 라벤앰과 클라보레이션!

클래식한 매력의 패션 피플이라면 주목하자. 라이프 스타일 편집 매장 센트럴포스트에서 영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라벤앰과 협업한 제품을 선보인다(어허! 누가 깔깔이래?!). 라벤앰은 자수를 넣은 일명 킬링 재킷을 제작하는 브랜드. 이번 라인업은 남성용 단헴 재킷과 여성용 크레이튼 재킷으로 구성되었다. 계절감을 고려해 울과 나일론, 두 가지 소재로 선보여 스타일에 따라 제품을 고를 수 있다. 그래도 가능한하면 누런 색은 피하는 게 좋겠다. 20만 ~ 80만 원대, 센트럴포스트 본점(02-6925-0067)



## 엘레세, 에어히트 2.0 발수다운 출시

여자 친구 없는 것도 서러운데 감기 걸리면 서러움이 배가된다.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엘레세에서 겨울을 맞아 에어히트 2.0 발수다운을 출시한다. 엘레세의 에어히트 2.0 발수다운은 100% 오리털에 발수 가공법을 통해 땀을 배출하고 공기층을 형성하여 탁월한 보온 효과를 제공한다. 후드는 탈부착이 가능하여 일상에서나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때 상황에 맞게 연출할 수 있다. 아무리 따뜻하고 포근하고 폭신폭신해도 꺼안고 자진 말자. 더 슬프니까. 239,000원, 엘레세 (080-999-0456, www.ellese.co.kr)



아무요!

## 리복, 쿠션이 예술! 러닝화 ATV 19+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리복이 문어 빨판을 담은 독특한 아웃솔 디자인으로 안정적인 접지력 및 쿠션감을 제공하는 러닝화를 출시했다. 충격을 흡수하는 기본 고무로 제작되어 바닥에 발이 닿는 그대로 바닥을 움켜쥐는 느낌을 준다. 물론 마찰에 강한 소재와 내부 패딩처리를 통해 내구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췄다. 전국 리복 매장 및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름이 왜 ATV 19+일까? 웬지 아해... 야메데. 가격 미정, 리복(1588-7324, shop.reebok.co.kr)

# Watch out!



**위트 넘치는 워치, 헬다이버 SB2C-5001M-BK**  
 센스 넘치는 남자는 스타일부터 남다르다. 얼마 전 유희 아빠 윤민수가 착용해 화제가 된 워치 헬다이버 SB2C-5001-BK로 위트 넘치는 남자로 변신하자. 블랙 색상의 스테인리스 케이스와 밴드 그리고 청량한 블루 색상의 문자판은 헬다이버의 승고한 정신을 표현했다. 측면에 위치한 문자판을 포함하여 세 개의 문자판으로 구성된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 각각 시간 맞추기 가능하며 5기압 생활 방수 기능이 적용됐다.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으니 스타일에 맞춰 선택하자. 498,000원, 헬다이버(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

## 루미녹스 Modern mariner (모던 마리나) Automatic 6502

루미녹스 Modern mariner Automatic 6502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나이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된 터프한 워치다. 현대적인 감성이 가미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검정 다이얼 바탕에 실버 인덱스가 은은한 자태를 뽐낸다. 루미녹스 발광 테크놀로지를 통해 별도의 동력 없이도 25년간 밝은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야광보다 100배 이상 밝은 자체 발광 기술과 수심 200m 방수 능력은 아웃도어용 워치로 완벽하다. 시계 하나가 오징어잡이 배보다 더 밝겠네!



1,250,000원,  
 미림시계(02-757-9866, www.milimwatch.co.kr)

## 클래식워치의 마침표, 아부투스(arbutus) AR610RWF

출날리는 낙엽 사이에서 고독을 즐기는 남자의 분위기를 내는 워치 아부투스 AR610RWF를 소개한다. 고급스러운 금장에 가죽 스트랩으로 클래식한 멋을 살려 가을 정장 패션에 완벽히 매치되는 아이템이다. 또 명품 시계에서만 볼 수 있는 원터치 벨트 클립이 장착되어 깔끔하고 젠틀한 품격을 보여준다. 24시 표시와 날짜 및 요일 모두 콤비안한 옹두 하나로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하다. 멋과 실용성 모두를 잡은 아부투스 AR610RWF를 차고 가을 낙엽 좀 밟아 볼까? SUIT UP!



578,000원, 글로벌타임(02-778-1590, www.globaltime.co.kr)

## 목직함과 세련미의 조화, 자스페로 투파토레 201

탄탄한 남자의 근육만큼이나 힘이 넘치는 워치 자스페로의 투파토레(TUFFATORE) 201을 소개한다. 목직한 남성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매트 타입의 스트랩과 12각 베젤의 견고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투파토레 201은 200m 방수기능이 있어 높은 기능성까지 갖췄다. 또 Super Luminova 인덱스를 채택하여 빛 한 점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도 가독성이 뛰어나다. 그녀와 침대 위에 있을 땐, 잠시 벗어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677,000원,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 잉거솔 한정판 모델, 알래스카(Alaska) IN7910BK 국내 출시

스위스 바젤 박람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잉거솔의 한정판 모델인 사파이어 컬렉션의 알래스카 IN7910BK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했다. 주얼리 20석, 사파이어 글라스와 부식에 강한 316스테인리스 스틸이 클래식한 남자의 매력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강렬한 블랙과 눈부신 골드 색상의 조화는 고급스러운 남성의 기품을 완성한다. 이 가을에 걸맞은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 어디서든 당신을 돋보이게 만들 최강 워치가 필요하다면 잉거솔 한정판에게 손목을 맡겨보자.

740,000원, (주)거노코퍼레이션(02-3397-7100, www.eurotime.kr)

## 스포티해지고 싶다면, AQ2015X 어때?

활력 넘치는 스포츠맨처럼 보이고 싶다면 ALBA의 Neo Digital AQ2015X를 주목하자. 개성 있게 연출하기에 좋은 스포티한 디자인의 이 시계는 블랙 색상의 스포티한 우레탄 밴드와 모던한 케이스 디자인으로 시선을 끈다. 산뜻한 블루와 옐로우 색상의 라이트는 어두운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스톱워치, 알람, 캘린더, 24시 표시 등의 다양한 기능은 AQ2015X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한다. 이걸 차면 그녀는 그날따라 왠지 더 건강해 보이는 당신 팔을 만지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260,000원,  
 삼정시계(02-511-3182, www.albawatch.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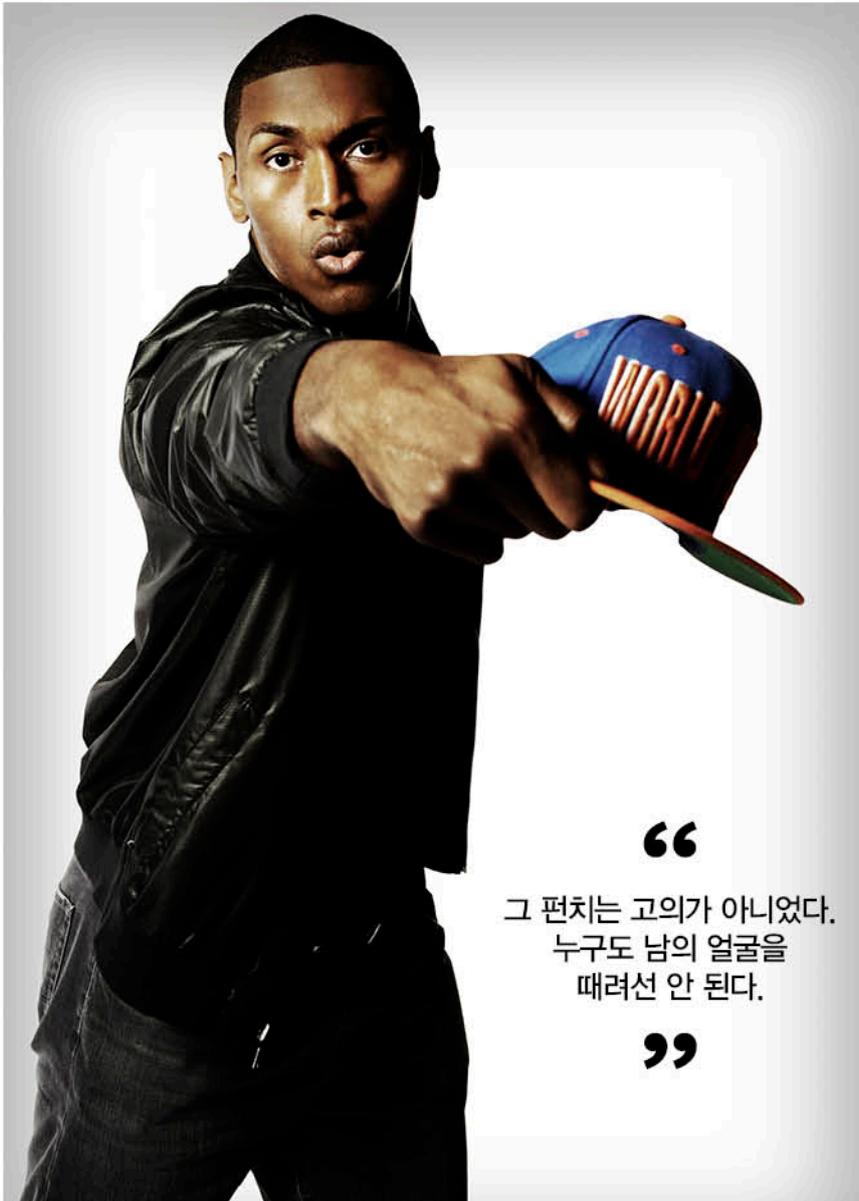
# ICON



이 세계에 평화를  
**NBA Star**  
**METTA**  
**WORLD PEACE**

독특한 언행으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NBA 스타 '메타 월드 피스'를 MAXIM 한국 편집부가 단독으로 만났다. 아마 그동안 MAXIM이 진행한 ICON 인터뷰 중 가장 '평화로운(PEACE-full)' 인터뷰가 아닐까.

WORDS 이영비 PHOTOGRAPH MICHAEL VINCENT



“  
 그 펀치는 고의가 아니었다.  
 누구도 남의 얼굴을  
 때려선 안 된다.  
 ”



NBA 최고의 수비수 론 아테스트, 1999년 시카고 볼스에 지명되면서 시작한 아테스트의 선수 생활은 늘 화제 만발이었다. 감독과의 말싸움은 물론이요, 상대 선수와 관중에게 주먹질도 기본이었다. 목욕 수건만 걸치고 연습장을 거닐거나, TV 중계 카메라를 때려 부수고, 시즌 중 자신의 음반을 홍보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구단에 휴식을 요구하기도 했던 독특한 멘탈의 소유자. 그에게 '악동'이란 표현은 실례다. 그는 '기인'에 가까웠으니까. 그와 얽힌 크고 작은 소동들을 지켜보노라면 그 순수함과 인간적인 자연스러움에 오히려 감탄하게 된다. 그간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던 '론 아테스트'는 급기야 스스로 이름을 '메타 월드 피스(자비, 세계, 평화)'로 개명하기에 이른다(법적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의 실력은 누가 봐도 NBA 톱 레벨이다. 그는 2010년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레이커스를 우승으로 이끈 장본인이다. 가족 사랑도 대단하다. 몸이 아픈 딸을 응원하기 위해 <댄싱 위드 더 스타>에 나가 춤을 추기도 했다. 물론 아쉽게도 광탈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한국 사랑도 굉장하다. 레이커스 시절, 그는 머리에 한글로 '레이커스'를 새겨 우리나라 팬들에게 확실히 그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여자 친구 역시 한국 혈통이 흐르는 아름다운 여인이다(4페이지만 넘기면 볼 수 있지). 흔쾌히 MAXIM 한국판과의 독점 인터뷰에 응해준 그는 "한국에 가면 꼭 MAXIM 파티에 가겠다"며 우리와 손가락 걸고 약속했다. 이제 넥스에서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될 이 흥미로운 사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헬로우, 미스터 세계 평화! 한국판 MAXIM 인터뷰에 응해주다니 진심으로 고맙다!**  
 나도 반갑다! 한국 매체와 인터뷰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함께 하게 되다니 무척 영광이다!

**당신은 한국에서도 이미 상당히 유명하다. 레이커스 시절 머리에 레이커스(Lakers)라는 한국어를 새긴 일 때문에 특히 화제가 되었다.**  
 그냥 개성있고 색다른 재미를 선보여 팬들과 더 교감하고 싶었던 건데, 반응이 좋았더니 기쁘다!

**당시 한국어와 중국어 두 가지 버전으로 새겼는데, 어떤 게 한국어고, 어떤 게 중국어인지도 몰랐는지?**  
 다행히도 지금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확실히 달라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어랑 중국어는 뭐가 다른 건지 혼란스럽다.

**중국에서도 뛰고 싶다는 이야기 들었다. 진지하게 중국으로 이적을 할 생각이 있나?**  
 누가 미래의 일을 장담하겠나. 아마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지.

**시카고 볼스에서 신인으로 뛰던 시절, 마이클 조던과 처음으로 함께 훈련한 날, 그의 갈비뼈 두 대를 부러트렸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갈비뼈일 텐데 식겁했겠다!**  
 고의는 아니었다. 나중에 마이클 조던이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에 대해 오히려 좋은 평가를 해줬다. 그는 진짜 전설이다.

**레이커스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우승을 이끌었다. 그 마지막 경기는 최고였다!**  
 코비는 진짜 좋은 동료이자 진짜 훌륭한 농구 선수다. 게다가 의외로 랩도 꽤 한다.

**둘이 함께 술도 자주 마시고 그랬나?**  
 난 시즌 중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전혀? 경기 도중에도 헤네시 코냑을 마시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나? 못 믿겠지만 나는 평소에도 엄청 일찍 자고, 엄청 일찍 일어나는 편이다. 시즌이 아닐 때는 물론 엄청 마신다.

**역대 NBA 선수 중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인가?**

아아... 너무 많아서 꼽기 힘들지만, 굳이 꼽자면 데니스 로드맨이다.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번 시즌엔 뉴욕 닉스에서 뛰게 되었다. 기분이 어떤가?**

그렇잖아도 난 뉴욕 출신이다. 세상에 이제 내 고향인 뉴욕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다니! 기분이 꽤 좋네.



**이번엔 그럼 머리에 '닉스'라고 새길 건가?**

미안하지만 내 여친 스타일이 좀 보수적이라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의 수비 능력은 최강이다. NBA 사상 가장 터프한 수비수일 거다. 하지만 가끔 당신도 다른 공격수들처럼 경기 중에 멋진 덩크슛을 내리꽂고 싶은 충동을 느끼진 않나?**

농구는 팀 스포츠다. 다 같이 협업할 때 덩크슛도 나오고 하는 거다. 멤버들의 슛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나는 행복하다.

**그럼 농구 말고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가?**

복싱이랑 미식 축구를 즐겨 본다. 가끔 미식 축구를 직접 하기도 한다. 여자 친구가 허락할 때만.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난 늘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 아버지도 그런 나를 계속 응원해주셨고, 매년 농구 경기장에도 데려다주셨다.

**당신은 농구 외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검토하는 당신의 모습은 상상이 안 된다. 농구는 코트에서 벌어지고, 비즈니스는 사무실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다를 뿐, 둘 다 엄청난 헌신과 열정, 집중력을 요구한다.**

**채식 레스토랑을 오픈했는데, 당신 채식주의자인가?**

난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하지만 늘 유기농 음식과 건강한 고기를 섭취하려고 애쓴다. 가능하면 저녁 7시 이후에는 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쿠키만큼은 쉽게 꿀을 수 없는 유혹이다!

**하긴 당신이 채식주의자일리가 없지. '갈비'를 좋아한다고 들었다.**

맞다! 갈비를 좋아한다.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레스토랑에 여자 매니저를 뽑는다고 가정해 보자. 똑똑하지만 못생긴 여자와 예쁘지만 멍청한 여자, 둘 중 누굴 고용할 건가?**

어허, 그 일의 책임자를 뽑아야지. 난 무조건 똑똑한 사람을 뽑겠다.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자기 전에 읽는 메타의 이야기(Metta's Bedtime Stories, NYC edition)>를 냈다. 그리고 보니 데니스 로드맨도 동화책을 냈는데, 요즘 NBA 선수가 어린이 책을 쓰는 게 유행인가?**

하하, 그렇지가. 똑같은 동화책일지라도 로드맨의 책과 내 책은 서로 다른 교훈을 담고 있다. 누구 게 더 낫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말이다.

**자녀들에겐 무척 다정한 아빠라고 들었다. 몸이 아픈 딸을 위해 <댄싱 위드 더 스타>에도 나갔지만 광속 탈락했다. 딸이 실망하진 않았나?**

딸이 둘 있는데, 딸들이 부탁하면 정말이지 뭐든 거절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착한 우리 딸들은 내가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에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트위터에 '애완 펭귄이 갖고 싶다'는 말을 써냈던데, 펭귄, 사자, 코블소 중에 하나를 애완 동물로 키울 수 있다면 뭘 선택하겠는가?**

이 인터뷰 질문 중 가장 어려운 질문이로군.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사자가 좋겠다.

**그나저나 요즘도 랩을 하나?**

가끔씩 팬들을 위해 음악을 만들기는 한다.

**평소 어떤 음악을 즐겨 듣나?**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듣는다. 투팍, 비기 같은 힙합부터 셀렌 디온의 노래까지.

**셀린 디온이라니 의외다!**

가장 좋아하는 곡을 묻는다면 한 곡만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아한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셀린 디온의 콘서트에 갔었는데 진짜 감동의 도가니였다!

이름을 론 아테스트에서 메타 월드 피스로 개명하면서, 그 이름 말고 다른 최종 후보군이 있었나? '러브 월드 피스' 라던가...

아니, 난 '평화'를 지키고 싶었다.

정확히 어디까지가 성인가?

'월드 피스'인가, 아님 그냥 '피스'?

월드 피스가 내 성이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테스트라는 성을 쓰고 있다.

개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라면 무엇이든 상관 없다. 꽃혔으면 해라!

지난 2월, 경기 중 브랜튼 나이트 (디트로이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플래그런트 파울을 먹었다. 세계 평화 싸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잘 들어라. 그 누구도 남의 얼굴에 함부로 펀치를 휘둘러서는 안 된다!

안티 팬들의 기분 나쁜 말엔 어떻게 대응하는 편인가? 맘같아선 지구 끝까지 쫓아가고 싶은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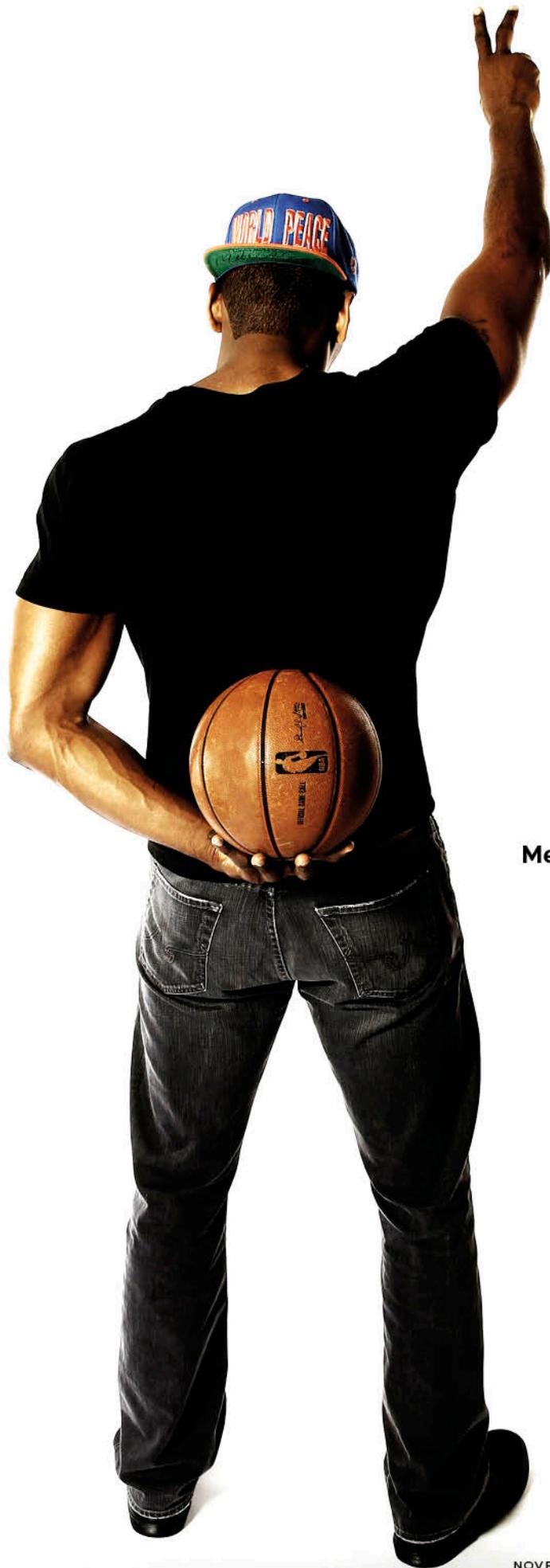
그냥 신경 안 쓰고 잊어버린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것 밖에 없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당신의 섹시한 여자 친구 마야 포드 양의 화보가 등장한다. 한국계라지?

맞다. 마야는 정말 아름답다. 언젠가 꼭 한국에도 가 보고 싶다.

서울에 오면 MAXIM PARTY에

초대하겠다. 꼭 놀러 와라. 같이 갈비 뜯자. 좋다! 꼭 가고 싶다. 마야랑 함께 가겠다. ☺



## Metta World Peace

생년월일: 1979년 11월 13일

태어난 곳: 미국 뉴욕

현재 소속팀: NBA 뉴욕 닉스

포지션: 포워드

페이스북

[www.facebook.com/rartest](http://www.facebook.com/rar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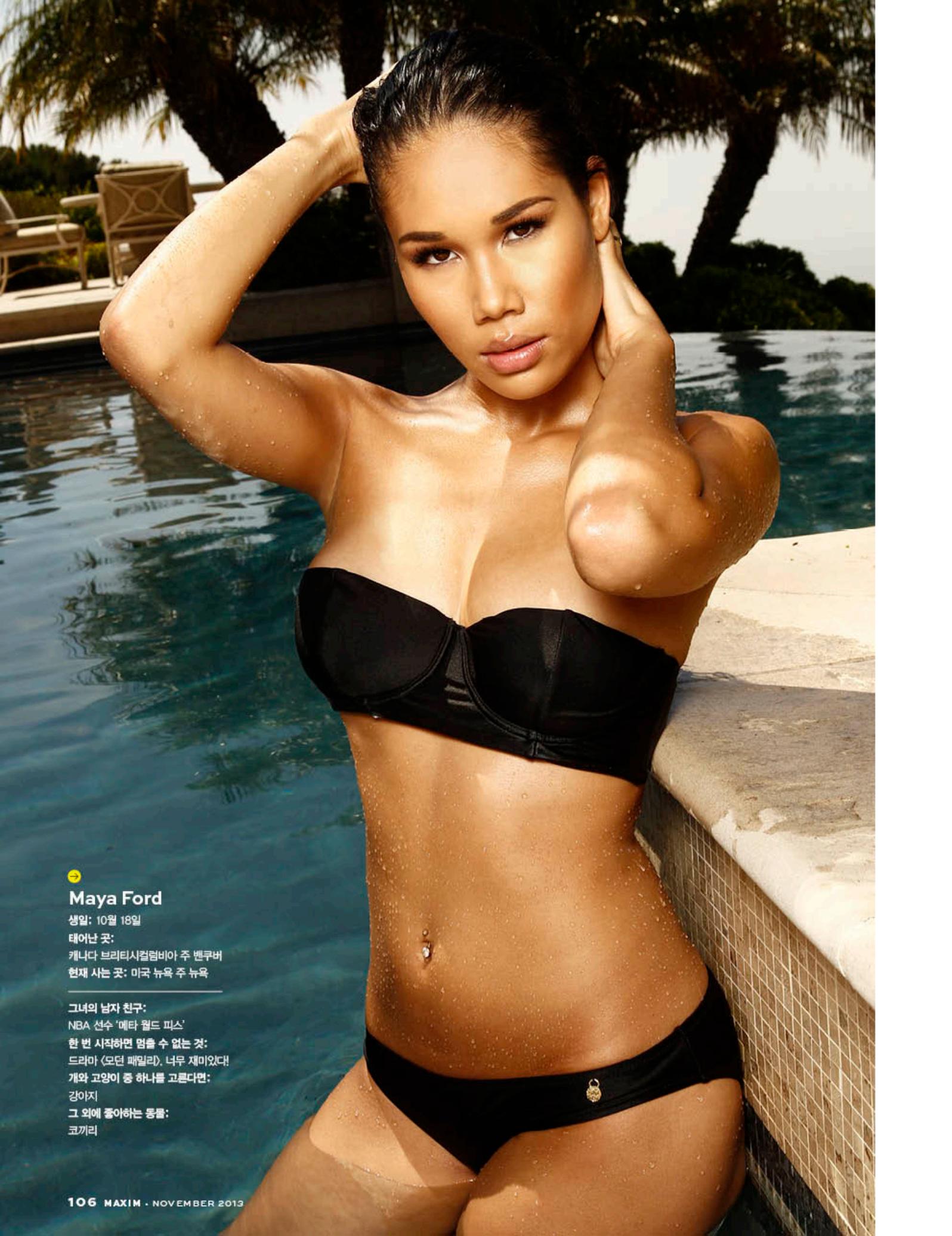
A photograph of a woman's legs in a swimming pool, with text overlaid. The legs are wet and glistening, resting on the pool's edge. The water is dark blue, and the pool deck is light-colored. The text is centered in the upper half of the image.

# *Lady of Peace* **MAYA FORD**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NBA 선수 메타 월드 피스를 홀린 **마야 포드**.  
그녀가 이번 달, MAXIM 한국판의 ICON으로 선정된 남친과 함께 우릴 찾아왔다.  
이 섹시한 구릿빛 피부를 보고 반하지 않을 남자가 누가 있겠어?!

PHOTOGRAPH MICHAEL VINCENT



## Maya Ford

생일: 10월 18일

태어난 곳: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

현재 사는 곳: 미국 뉴욕 주 뉴욕

그녀의 남자 친구:

NBA 선수 '메타 월드 피스'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것:

드라마 <모던 패밀리>, 너무 재미있다!

개와 고양이 중 하나를 고른다면:

강아지

그 외에 좋아하는 동물:

코끼리



영상으로  
만나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촬영은 어땠어요?**  
고마워요! 저도 MAXIM 한국판에 실리게 돼서 정말  
기뻐요! 촬영도 아주 재미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전 제가 아시아 혈통인 게 무척  
자랑스러워요.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있나요?**  
떡볶이요! 정말 좋아해요.

**오! 매운 것도 잘 먹나 봐요. 영락없는 한국 소녀  
같네요. 당신의 어릴 적 꿈은 뭐였나요?**  
사실 어렸을 때는 수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 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  
에 다니고 있어요. 졸업까지 2년 남았네요. 그다음엔  
로스쿨에 진학할까 생각 중이에요. 모델 일은 취미  
삼아 재미로 하고 있구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를 남자 친구로  
두었는데, 이 자리에서 당신 입으로 남자 친구를  
자랑해 본다면요?**  
그는 참 대단한 남자예요! 무척이나 사려 깊고  
현신적이지요. 전 그를 정말 사랑해요!

**메타와 당신은 어떻게 만나게 됐죠?**  
제가 있는 캐나다 밴쿠버로 그가 영화를 촬영하러  
왔었죠. 우리 그때 처음 만났어요.

**두 사람의 첫 번째 데이트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첫 데이트 때 해변에 갔어요. 정말 좋았어요.  
함께 있는 내내 웃었죠!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늘 남자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을 텐데요. 세계적 농구 스타는 그런 걸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설마 질투?**  
그는 질투가 많은 타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걸 오픈하고 솔직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딱히  
질투할 만한 거라도 없어요.

**어떤 차를 좋아하나요? 과몰같이 큰 SUV, 아님  
포르세 같은 스포츠카?**  
특별히 차종을 따지지 않지만, 그 둘보단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겠어요. 비싼 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친환경적인 차요. 전 제 \*탄소  
발자국에 신경 쓰면서 살려고 노력하거든요.(웃음)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살면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지 측정할 양.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생긴 단어.**

**인생 최고의 데이트를 꼽는다면요?**  
아마 제 인생 최고의 데이트는 론(메타)과 함께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간 일일 거예요. 무척  
재미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물원 데이트를 꼭  
추천해요.

**메타 말고 좋아하는 NBA 선수가 있나요? 당신이  
원한다면 메타에게 비밀로 할게요.**  
하하하. 사실 론을 만나기 전엔 농구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론과 중국에  
다녀오면서 거기서 야오밍 선수를 만났죠. 론은  
항상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실제로 만나  
보니 정말 나이스 가이더군요. 론 외에 다른 선수를  
꼽으려면 전 야오밍을 꼽겠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정직함, 소통 그리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남자는, 여자의 믿음을 얻기 위해 늘 대화하고  
진실된 태도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나저나 당신 피부가 엄청 썩시고 매끄러워  
보여요! 우리 독자들 광채 터지는 꿀피부로 시선 좀  
끌 수 있게,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음, 특별한 건 없지만 잠을 푹 자고 물을 많이  
마시고... 아! 최근에 코코넛 오일을 피부에  
발라봤는데 보습 효과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MAXIM 한국판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해요!**  
한국에 계신 MAXIM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호 재미있게 보시길  
바랄게요! 사랑하는 마야 포드로부터!

# 나는 <sup>홍대</sup> 고양이로소이다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돈을 버는 전설의 알비가 있다고 들었다냥. 금금증을 참지 못한 에디터가 직접 해봤다냥. by 조용재



## 영물이 되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디터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복잡한 홍대 거리. 코브라 트위스트를 시잔하듯 어지럽게 뒤엉켜 있는 커플들이 눈에 들어온다. 여자 손을 잡아 본 게 언제던가. 서러움이 가슴에 사무친다. 길 가는 여자를 붙잡고 이렇게 외치고 싶다.

"구급차! 구급차를 불러 주세요!", "왜 그러세요?"

"이런. 당신이 내 심장을 멎게 했잖아요!"

아마 죽행이가 남아나질 않겠지.

갑자기 뒤쪽에서 "깽 귀여워!"라는 사랑스러운 외침이 들린다. '나?' 에디터는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본다. 하지만 그 곳에는 귀여운 단발머리의 여인이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부둥켜안고 있다. 머리가 거대한 고양이. 근처 고양이 카페 아르바이트다. 녀석은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마치 노동당 군사 퍼레이드 속의 김정은처럼 사람들의 애정 어린 시선을 받고 있었다.

꼬꼬마 시절, 사랑방 캔디를 털러 안방에 들어가면, 외할머니께서는 오레 된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동물의 왕국>을 보며 "고양이는 영물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그렇다. 저 녀석은

영물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여자들을 홀리고 다닐 리가 없잖은가. "그래, 저 녀석이 되면 여자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나는 1차원적인 욕구에서 출발한 이 결심을 곧 실행에 옮겼다. 운명의 신이 내 고생길을 광이 나도록 닦고 있는 줄은 모르체.

## 고양이를 입다

"사장님, 일전에 말씀드린 고양이 탈 아르바이트..."

"네~ 그러세요." 용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락부터 하시는 쿨한 사장님과 전화 통화는 이것으로 벌써 세 번째. 매번 "그러세요", "오세요"라며 OK 싸인을 받을 때마다 되려 '이거, 진짜 가도 되는건가?' 싶다. 어쨌든 허락을 받은 우리는 홍대에 위치한 고양이 카페를 찾아갔다.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낭랑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들어오시기 전에 반드시 손세척을 해 주세요" 그녀는 철저하게 위생관리에 신경썼다. 아, 걱정 마세요. 매일 동 닦고 손 안 씻고 만져도 세 살 박이 내 조카는 살아 있어요.

카페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고양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에디터의 수염에 반한 듯 가르릉대는 녀석,



고양시창장이 고양이리안서요?

뭐라는 거이 이 새끼가...

미친놈이고양~



지퍼 달아주면 어디 뗏나?

가장 난감한 상황은 역시 화장실에서 벌어졌다.



스핑크스 놀이 중



개껌 내기 한 편?

개들이 딱히 고양이를 싫어하는 건 아닌 듯했다.



명기르세

머리 큰 에디터에게 말 입구는 너무 가혹했다.

스마트폰 조작을 위해 창간에 구멍을 뚫었다.



오빠, 나 요즘 이려고 자네.

사실 배가 고르 건 아니었다.

### 고양이탈 알바 의상 분석

- 말** 입구 지름 25~30cm  
냄새가 심하다. 턱뼈가 있어 고개를 움직일 때 용이하다. 시야가 상당히 좁다.
- 장갑** 오른손 검지와 엄지 사이에 스마트폰 조작을 위한 큰 구멍이 뚫려 있다.
- 가방** 전단지 30여 장이 들어있다.
- 신발** 빨간 장화를 착용했다. 255~260 사이즈.

엎어져 자는 녀석, 눈도 안 마주치는 무심한 녀석 등 모두가 티피코시를 입을 김건모만큼 막강한 개성을 자랑하고 있었다. 에디터 일행은 직원으로부터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고 의상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조그만 방 안에 들어가니 후리스처럼 두꺼운 겨울용 옷, 그리고 날다람쥐처럼 생긴 여름용 옷 두 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선택은 자유롭다. 하지만 아디다스는 삼선, 고양이 알바 옷은 역시 두꺼워야 한다고 생각한 에디터는 "오리지날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엄청 덥고 습해서 찻찻하실 텐데요?" 에디터는 걱정의 눈초리를 보내는 직원에게 "괜찮습니다. 저는 사무나 안에서도 수분크림을 바르거든요."라며 너스레를 떠 후 시크하게 웃을 입었다. 무거운 중심은 아래쪽에 있다. 짧아 보이는 다리를 연출하기 위한인지, 바짓가랑이 부분에는 거대한

스펀지 덩어리가 들어 있다. 이 때문에 바지에 똥을 한두더기는 싸 놓은 것처럼 불편하게 팔자걸음을 할 수 밖에 없다.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난 후, 그렇게 써 보고 싶었던 고양이 대가리 탈을 손에 넣었다. 입구가 생각보다 좁다. "냄새 좀 나도 참으세요" 직원의 진심어린 충고를 무시하고 탈을 썼다. '아니 이런 미친 개새발! 이게 무슨 냄새야!' 고양이 탈인데 개 같은 냄새가 났다. 구토를 유발하는 역겨운 냄새에 몸부림을 친 지 5분쯤 지났을까, 다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인간의 오감 중 가장 둔한 것이 후각이라고 했던가. '다들 그렇게 괴로워하며 시작합니다.'라고 말하듯 나를 바라보는 카페 직원의 눈이 글썽인다.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며 흉대 거리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의 시선이

사지 이곳저곳에 따갑게 꽃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 본 탓에 긴장한 에디터의 배노근이 빛의 속도로 수축하기 시작했다. 아, 안 돼! 여기서! 워밍업도 할 겸 근처 놀이터에 있는 화장실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맘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직원의 충고를 새겨들지 않은 후회가 탈 속 냄새와 함께 밀려왔다. 다행히도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매직스틱을 꺼내기 위해서는 예서 입을 옷을 전부 벗어야 했다. 빌어먹을, 500원 짜리 만한 담배행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 잔혹한 동심의 테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여자 초등학교생 둘과 눈이 마주쳤다. 사시 같은 고양이의 눈 속에 숨겨진 에디터의 눈이 살얼기처럼 빛났다.

# MAXIM Report



아이는 결국 하이파이브를 해주지 않았다.



너 말고 니 스무디.



너희 엄마 결혼하셨나?

아니면 현호 좀 따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으나 아이들은 날 몹시 귀찮아했다.

어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치어부터 다룰 줄 알아야 하는 법. 에디터는 아이들에게 슬금슬금 다가갔다. 무슨 일이나는 듯 호기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아이들에게 두 손으로 사각 프레임 모양을 만들어 내밀었다. '사진을 찍어도 좋단다'는 의미였다. "뭐래?" "같이 사진 찍어달래."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찍어주겠다는 얘기다." 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쿨한 초딩들은 곧 시뮬잡다는 얼굴로 내 옆에 와서 사진을 한 방 찍고는 "됐지?" 라고 말하며 사라졌다. 사람의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순수한 아이들이 "귀여워!"라고 외치며 내 품에 쏙 안기는 장면을 상상했던 에디터는 멘탈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번에는 눈 앞에 과자를 먹고 있는 귀여운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에디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과자를 달라고 하자, 결심을 한 에디터는 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에디터가 다가갈수록 아이는 뒷걸음만 칠뿐이었다. 결국 보다 못한 엄마가 "아옹이가 과자 달래."라고 말하자 아이는 억울한 듯 울먹이며 과자를 건네고 도망쳤다. 두 손에 담긴 옥수수 과자 두 조각이 차량하다. 시발 그깟 콘, 당장이라도 탈을

벗어던지고 슈퍼로 달려가 사막을 수 있었다. 곁에 있던 포토그래퍼가 내 등을 툭툭 치며 손에 있던 과자를 집더니 자기 입에 털어 넣었다.

아직 동심이 부족하다! 에디터는 조금 더 어린 아이를 공략하기로 하고 근처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할머니 몇 분과 아주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거나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다. 유모차에 있던 사내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아옹이다~ 아옹이한테 인사하자. 인사." 유모차를 끌던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했다. 그래, 이겨다. 에디터는 다시 한 번 가식 섞인 인사를 던지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아이는 바로 울음을 터뜨렸다. "싫어어! 안 인사해!"라며 아이가 울부짖자 엄마는 민망한 듯 유모차를 돌렸다.

실로 쾌심한 녀석이었다. 이번엔 암전히 할머니 등에 업힌 아이에게 다가갔다. "OO야~ 하이파이브! 고양이랑 하이파이브!" 할머니가 측면에서 길게 센터링을 날렸다. 나이스 어시스트. 하지만 결과는 기성용의 엿박자 점프만큼 실망스러웠다. 아이의 손은 몇 번이고 움찔거렸으나 끝까지 에디터의 손뼉을 쳐 주지 않았다. "이상하다~ 원래 평소엔 잘 하는데?" 할머니의 마무리 멘트는 에디터를 더욱 슬프게 했다.

## 고양이탈 알바 급여와 경쟁률

- 기본 시급 \*6,500원(일당 45,500원)
- \*숙련도에 따라 시급이 빠르게 인상될 수 있음
- 경쟁률 광고 붙이던 바로 지원자가 들어오는 수준
- 최장수 아르바이트 기록 7개월
- 최단 기간 아르바이트 기록 1일
- 자격 요건 없음

## 여고생을 안고 싶다

문제는 타겟팅이었다. 어린 아이들이 고양이 카페에서 코코아를 시키며 뽀로로의 철학적 세계관에 대해 담소를 나누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래, 에디터는 지금까지 잘못된 고객층에게 접근해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의 호감도를 스스로 낮추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본격적으로 주 고객층인 여학생들을 노리기로 했다.

시간도 마침 교복 소녀들이 가장 흥대로 나오고 싶어한다는 오후 네 시. 지금이라면 누구라도 더러운 고양이로 된 에디터를 부둥켜 안아줄 것 같다. 예상대로였다. 곧 방귀 썬 새색시마냥 풋풋하고 수줍은 모습의 여학생들이 거리를 채워 나가기 시작했다. 그저 고개를 눈만 마주쳤을 뿐인데 "까르륵!" 하고 웃어 주던 소녀들 덕에 에디터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GD도 용준형도 부럽지 않았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이번엔 여고생을 안아 보기로 했다. 이곳저곳 물색을 하던 중 손에 스무디를 든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다. 슬금슬금 다가가 말없이 그녀의 음료수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여학생은



재미있다는 듯 “까르르!” 웃으면서도 음료를 쥔 손에는 힘이 딱 들어가 있었다. 안되겠다 싶어 포옹을 하려고 다가가지, 더러운 듯 코를 조심스레 만지며 “고양아, 목욕해~”라는 말을 날리고는 이내 사라졌다. 매정한 여자 같으니.

### 시크한 관심중자

두어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 대중 감이 왔다. 사람들이 “귀엽다”라고 말해 주는 포인트를 점점 알아가고 있었다. 양 손으로 수줍은 듯 얼굴을 감싸고 허리를 마구 꺾어 대는 인형의 병신 댄스는 롯데월드 너구리나 하라 그래, 이 고양이는 흥대 고양이다. 관심을 갈구하면 사랑받을 수 없다. 시크해야 한다.

화장품 가게가 모여 있는 사거리에 들어서니 동그란 벤치에 사람들이 웅기중기 앉아 있었다. 인상이 좋아 보이는 두 아가씨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옆에 앉아 허공을 바라봤다. 두 아가씨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닥거리더니 에디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작전 성공. 이때다 싶어 전단지를 쥐어 주니 머리를 숙이며 받아 준다. 참으로 예의 바른 아가씨들이로다.

흥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그 곳, 거리의 약사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버스킹 장소를 찾았다. 하지만 이른 낮이라 그런지 수업이 끝나고 놀러 온 여고생 두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살며시 다가가 옆에 앉자 애써 외면하던 여고생 한 명이 “애 어제 나한테 막 들이대던 개장아”라고 얘기한다. 뭐? 나는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아닐 걸? 개는 좀 더 내대는 애였잖아” 대체 원래 말하는 뭐 하는 사람일까. 에디터는 ‘나 맞아’라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 봐! 맞아 봐, 어제 개!” 맞긴 될 맞아.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고 있었던’ 여고생의 반응이 식을 때쯤, 귀찮은 에디터는 몸을 반쯤 누웠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며 “귀여워!”라고 외쳐댔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보였다. 아, 이런 거구나. 그저 누워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주목받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사는 게 다 그래,  
한 방에 흑가

저자식이 있는  
몰이리요 제발...

## 말! 말! 말!

아르바이트 체험 중 에디터가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들

- 1위. 귀여워!
- 2위. (주로 아이들이)고양이다!
- 3위. 더러워!
- 4위. 재 좀 봐!
- 5위. (들어보며)야, 깜짝이야!  
기타 남자 아냐?  
고자새끼ㅋㅋ(니 얼굴 봐 뵈어)

##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여기저기 드러누우며 인기가 좀 언다 보니 술술 아르바이트가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에디터를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이 이제는 귀찮다는 생각이 들 무렵, 언제 또 이 짓을 해 보겠냐 싶었던 에디터의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뭐든 해 보자. 어차피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잖냥.

넓은 장소에 세팅된 마이크와 앰프를 발견했다. 누군가가 버스킹을 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 같았다. 무명 인디록 밴드 출신인 에디터는 물 만난 물고기마냥 마이크를 부여잡고 이홍기의 어깨춤을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일 때도 인기가 없었는데 고양이 탈을 쓴다고 해서 달라질 리가 없었다. 에디터는 '그래, 다들 자주 만나는 이 고양이 탈이 식상해서 그랬을 거야'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퇴근 후 정류장까지 가는 길목에 있던 인형 뽑기가 생각났다. 평소 흥대에서 술만 걸렀다 하면 만 원으로 보로로와 친구들 콜렉션을 완성하던 에디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천 원을 넣자 크레인인 작동하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태도로 게임에 임하려 했으나, 시야의 폭이 너무 좁아 인형 뽑기 기계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피카추를 잡으려 했던 에디터의 크레인인 고길동을 잡았고, 결국엔 그마저 놓쳐 버렸다. 아! 이 큰 대가리만 없었다면! 난시행처럼 어깨에 피카추를 얹고 다니려 했는데!

날이 술술 어두워지자 허기가 지기 시작했다. 고양이에게 빙의한 에디터는 거리를 걷던 중 수산물 횡집을 발견했다. 마치 고양이에게 빙의한 듯 균침을 흘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주방 안 쪽에 있는 주인아저씨는 아직 에디터를 발견하지 못했다. 잠깐 사이에 커다란 망을 꺼내어 싱싱한 활어를 단반에



남았다. 그대로 들어 올리는 순간 '야, 이 게XX야! 너네 지금 뭐하는 거야!'라는 주인장의 사자후가 들려왔다. 당황한 에디터는 망을 그대로 수조에 집어 던지고 도망쳐 나왔다. "개새끼 아닙니다! 고양이입니다아아아!"

## 스트리트 디너쇼

한참을 도망치다 보니 어느덧 흥대 놀이터에 도착했다. 뱃가죽이 꼬리에 닿을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이 꼴로 밥집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에디터는 결국 근처에 있는 수타 짜장면 전문점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흥대 정문 앞 놀이터로 자장면 한 그릇만 배달해 주세요. 미끄럼틀도 오시면 고양이도 보일 겁니다" 잠시 후 일회용 그릇에 담긴 뜨끈뜨끈한 수타 자장면이 도착했다. 에디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배달 아저씨를 예서 외면하고 식사 장소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여덟 시, 알바 종료까지 한 시간 정도가 남아 있었다. 이대로 대중대중 시간을 때우며 하루를 마치기에는 뭔가 아쉬웠다. 배트맨의 수트를 입은 듯 자신감이 충만해진 에디터는 곧장 휴대 정문 쪽에 위치한 사거리 횡단보도로 향했다. 역시 주말 밤거리답게 횡단보도 양쪽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신호가 바뀌자 A 컵 브라를 건디지 못한 D 컵 승가처럼 사람들이 단번에 터져 나왔다. 에디터는 냐다 횡단보도 한 가운데로 달려가 대자로 뻗어 누웠다. "뭐야 ㅋㅋ" "재 뭐함?" "미쳤나 봐, 위험하게."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 섞인 시선이 뒤통수에 따깝게 박혔다. 아욱고 좀 노는 것처럼 생긴 청년 몇 명이 뒤통수를 발로 퍽퍽 차고 지나갔다. '아, 이 새끼들!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라고 생각하며 몸을 일으키는 순간,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마을버스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로드킬을 갈망하는 아저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가 두 칸 남아 있었다. 에디터는 빛의 속도로 자리를 떴다.

### 고양이를 부탁해

어설픈 세리머니를 마무리하고 퇴근을 위해 터벅터벅 카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마주보며 다가오던 남자 두 명이 "저거 존나 괴롭대"라는 말을 흘리며 지나친다. 그래, 존나 괴롭다. 맘에 찌든 온 몸이 찢찢하다. 숨을 들이쉬 때마다 풍기는 묵은 펴고 지독한 침 냄새가 이제는 내 냄새 같다. 아르바이트생이 이 대가리 속에서 얼마나 병신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줄 알면 아마 놀랄 거다. 적어도 난 오늘 하루 온종일 그리고 다녔으니까. 음흉하게 웃고 있는 고양이 대가리가 이제부터는 안쓰럽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 녀석을 왜 그리도 부러워했던가!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씻어"라는 말을 들은 더러운 고양이를 그냥 가져다 주러니 마음이 좋지 않아 에디터는 코인 세탁소로 발걸음을 돌렸다. 알바생 형이 잘 빨아서 돌려줄게! ☺



흥대 놀이터 뒤편에는 수십 년 길고 닳은 타파 할머니들이 섰다 실력을 뽐내는 노인정이었다.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니 아늑한 공간이 있었다. 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눈에 잘 띄지 않게 포크려 앉아 자장면 비닐을 뜯었다. 면을 손으로 얼마나 후려 쳤는지 이미 진득 퍽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입에 들어가면 낫발은 키스방 3년차 여대생의 허처럼 웅틀임을 하며 에디터의 입 안을 자유자재로 휘젓고 있었다. 생선 이렇게 맛있는 자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다른 스태프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사이, 에디터는 이미 마지막 단무지를 집어 이빨 자국을 내고 있었다.

## 고양이 아르바이트 Tip! 이걸 사장님도 모를 걸?

**1 활동량을 줄여라**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심하다. 장기간 활동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일수록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 무리한 움직임으로 오후 근무 시간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2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굳이 빌풍 필면서 체력 소모를 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보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내지는 버스킹 거리에서는 그저 앉아 있기만 해도 쉽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3 캐릭터를 실려라**  
말을 쓴 순간 고양이는 당신 그 자체가 된다. 만약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다면 고양이의 콘셉트 하나 정도는 정해 두자. 시크함이 매력인 신촌 고양이는 맥도날드에서 음료수만 들고 앉아 있어도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다.

**4 말하지 마라**  
제스처를 하다 답답한 나머지 가끔 말이 튀어나오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귀여운 말 속에서 '오세요 고양이 카페' 라고 말하는 굼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튀어나온다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할까.



# LAUNDRY FANTASY

실력파 아이돌이라 하기엔  
너무 예쁘고,  
미녀 아이돌이라 하기엔  
노래를 너무 잘 하는  
'수식불가' 아이돌 스피카가  
MAXIM을 찾았다.  
보고만 있어도 안구가  
정화되는데?

BY 김희성 WORDS 조웅재 박정욱  
PHOTOGRAPH Zoo  
LOCATION 스타일난다  
(www.stylenanda.com)





**양지원**

생일 1988년 4월 5일  
신체 166cm, 49kg

스피카 멤버 중 MAXIM 촬영이 두 번째인 유일한 멤버다. 오늘 촬영 어땠나?

이번 촬영 때는 콘셉트가 조금 성숙했다. 의상도 노출이 거의 없었다. 오늘 촬영은 그때보다 훨씬 나이에 맞는 것 같다. 내가 좀 동안이잖나. 오늘은 의상도 좋고 멤버들도 함께 있어서 더 좋다.

**KBS <해피 투게더> 야간매점 역대 메뉴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원래 요리를 잘 하나?**

제법 잘 하는 것 같다.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주는 게 좋다.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

솔직하고 쌍꺼풀이 없는 남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배려가 많으면 된다.

멤버들과 합숙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

아티스트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긴 하다. 그래도 함께 요리도 만들어 먹고 수도도 떨면서 재미있는 시간도 많이 보냈다.

**같이 지내본 결과 멤버 중 안 씻는 멤버는 누구인가?**

다들 씻는 걸 좋아한다. 보형이는 반신욕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

**지켜봤는데 멤버들 스타일을 꼼꼼히 챙겨주더라.**

On Style <이효리의 X 언니>를 찍으면서 효리 언니와 함께 일하는 아티스트들을 보고 따라하니 조금 감이 오더라. 멤버 모두 스타일링이 많이 늘었다.

탑 아메리칸어패럴  
팬츠 아메리칸어패럴  
구두 슈즈원



◎

**박나래**

생일 1988년 2월 23일  
신체 165cm, 48kg

〈슈퍼스타K〉 출신이다. 프로 무대에서 가 보니 어떻게?  
슈스케 덕분에 데뷔를 하게 됐다. TOP 10 안에 들었을 뿐 우승한 것도 아닌데 운 좋게 이슈가 돼서 가수로 데뷔하는 영광을 얻게 됐다. 덕분에 연예계 인맥도 많이 쌓았고

얼마 전 트위터에 영암 F1 패독 GARAGE 투어를 인증했다. 멤버들과 같이 보러 갔는데 진짜 재미있게 봤다. 그런데 아쉽게

행사 스케줄이 있어서 중간까지만 보고 왔다. 그거 엄청 비싼 표라고 하던데 버리기 아까워서 누군가에게 양도하고 돌아왔다. 아까워 죽겠네. 자리도 엄청 좋았는데...

앞으로 그런 경기가 열린다면 또 갈 생각이 있나?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솔직히 굳이 챙겨서 보러 갈 것 같지는 않다. 표도 너무 비싸.

“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주는 게 좋다  
”



1

**김보아**

생일 1987년 1월 14일  
신체 171cm, 50kg

탑 스타일한다

**멤버 중 연애에 가장 목마른 멤버는 누구인가?**

나다.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됐다. 연차로 5년차다.

**5년 만에 연애를 시작한다면 어떤 남자를 만나보고 싶나?**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날 좋아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땡큐지!

**성격이 워낙 좋아서 친한 남자 아이돌 동생이 많을 것 같다.**

데뷔 전부터 보컬 디렉터를 하면서 만났던 인피니트와 친하다. 비투비와도 친한데, 얼마 전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했다더라. 노력만큼 잘 안 돼서 그런가?

**쿨한 언니 이미지가 강해서 여성 팬이 많을 것 같다.**

팬 미팅을 하면 8:2 비율로 여성 팬이 많다. 여성 팬이 많은 것도 좋다.

**이효리라는 최강의 후원자를 등에 업었다. 든든한 후원자로 삼고 싶은 다른 선배 가수가 있다면?**

아직 언니한테 흡아먹을 게 많다. 너무 감사하고 배울 게 많다. 언니가 우리 곁에 있는 한 최대한 배울 만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손목에 ☺+♯=☺ 모양의 타투가 있다. 뜻이 뭔가?**

타투에 관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타투를 하면 도려내버리겠다고 해서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효리 언니가 이 타투를 보여줬다. 귀엽고 내용도 좋아서 바로 했다.

**성형에 대해 쿨하게 오픈했다. 그냥 살을 많이 뺐다고 하지 그랬나.**

사실 살을 많이 뺐 것도 있다. 고구마만 먹고 살았다. 살 빼서 예뻐졌다면 그냥 넘어가도 됐는데 내가 거짓말을 잘 못한다.

**사실 사진 보니까 많이 용 되긴 했다.**

고등학교 때 사진이 거의 없다. 그때의 나를 포맷해버렸다. 그 아이는 왜 내 인생에 끼서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 아이 덕에 지금의 내가 있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웃음)

**박주현**

생일 1986년 11월 29일  
신체 168cm, 50kg

**포켓볼을 제법 잘 친다고 들었다. 학창 시절에 좀 놀았나?**

그냥 친구끼리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동네 커피숍에 포켓볼 다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 처음에는 커피숍에서 치다가 실력이 늘다 보니 당구장을 찾게 되더라. 한때 프로 선수였던 사장님이 선수 해볼 생각 없냐며 키워주겠다고 했다.

**프로 당구 선수에 도전해볼 생각은 없었나?**

해보고 싶었는데 연습생 때라서 가수와 당구 선수 중 가수를 택했지. 자세가 좋아서 진짜로 선수 제의는 많이 들어왔다.

**당구 말고 좋아하는 운동이 있나?**

헬스장에 있는 건 대답해서 밖에서 할 수 있는 달리기를 좋아한다. 보통 등산을 자주 다니고 집 근처 석촌 호수 근처를 달리기도 한다.

**촬영하면서 느꼈는데 표정 연기가 일품이더라. 연기해 볼 생각 없나?**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다. 연기에 욕심이 있고, 또 잘 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든 가리지 않고 해볼 생각이다.

**노래하는 모습 말고도 TV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봤던 것 같다.**

정극을 해왔던 건 아니지만 광고는 거의 스무 편정도 찍었다. 어떤 광고에 나왔는지는 비밀이다. 사실 6년 전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난다.

**짧은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 보이시한 매력이 철철 넘치는데?**

효리 언니와 함께 프로그램을 하면서 앨범 재킷 사진 찍으러 가는 날 콘셉트를 잡기 위해 질렀다. 웃도 더 잘 어울리고 주변 반응도 좋다. 일단 젊어 보인다는 점이 제일 만족스럽다.



스커트 스타일난다  
구두 슈즈원



→

### 김보형

생일 1989년 3월 31일  
신체 167cm, 51kg

#### 스피카에서 막내다. 언니들이 군기를 좀 잡나?

다들 나이가 고만고만 해서 딱히 군기는 없다. 그렇다고 다 친구 먹는 건 아니다.

#### 그룹 내에서 어떤 이미지를 맡고 있나?

눈물이 많아서 울보를 맡고 있다. 얼마 전 '울보형'이라는 별명이 지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많이 떨린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할 때보다 더 떨린다.

#### 그럼 예능에서는 어떻게 버텼나?

언니들이 잘 이끌어줬다. 담력 키우는데 뭐가 좋지? 어디 가서 번지점프라도 해야 하나?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안 되겠다.

#### 요즘 바쁠 텐데, 연애는 좀 하고 다니나?

연애도 물론 하고 싶은데 음악 작업이 더 좋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진정한 사랑을 해보고 싶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 마지막 연애가 언제인가?

작년이다. 그런데 그것도 한 달 잠깐 만난 거다. 남자를 잘 못 만나겠다.

#### 어젯 밤에는 뭐했나?

친구들과 놀다가 새벽 두 시에 들어갔다. 이런 거 인터뷰에서 말해도 되나? 뭐 애도 아니고 괜찮겠지?

다섯 명의  
미녀가  
한꺼번에...  
↓



양지원)  
탑 아메리칸어패럴  
비지 아메리칸어패럴

김보형)  
비지 아메리칸어패럴  
구두 투와이

김보아)  
탑 스타일난다

HAIR: 신동서 MAKEUP: 장미영(장생물 인스피레이션 02-518-8100) VIDEO: 김상수 ASSISTANT: 김세형 김소윤  
COOPERATION: 슈조원(02-3443-1703) 아메리칸어패럴(02-545-9437) 투와이(070-4236-4523) 스타일난다(www.stylenanda.com)

They Talk, They Kill

# 연쇄 살인범들의 한 마디

“살인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을 테니까”  
- 메리 플로라 벨(최연소 연쇄 살인범) -

BY 김희성

**“나는 갈색  
젖꼭지가 달린  
유방만 자른다”**

**제리 브루도스**

국적: 미국

특이 사항: 극단적인 발 페티쉬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자신의 발 페티쉬를 일었던 걸까. 제리 브루도스는 이미 5세 때 집 근처 쓰레기 더미에서 예나멜 소재로 된 여자 구두를 주워와 하이힐을 신고 온 집안을 돌아다녔다. 놀란 그의 어머니는 구두를 빼앗아 난롯불에 집어던진 후 제리에게 몽둥이질질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의 하이힐을 훔치다가 들켜 또 아단을 맞게 된다. 신발에 대한 그의 집착은 열여섯 살이 되자 성적 노예로 삼을 여자를 납치해야겠다는 계획으로 바뀌었다. 그러던 중 한 소녀를 칼로 위협해 옷을 벗기려다 체포되어 정신과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의사에게 ‘여자를 냉동고에서 얼린 뒤 뿔뿔하게 굳은 몸을 포르노 자세로 만드는 공상’에 대해 털어놓았다. 하지만 정상 판정을 받고 9개월 뒤 석방되었다. 이후 그는 전기 기술자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에게 나체로 집안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아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브루도스의 페티쉬는 더 심해지게 되고 마침내 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그는 자신이 첫 번째로 살해한 린다 슬로슨의 발을 잘라 뽀족한 하이힐을 신겨 냉동실에 보관하다 강가에 내다 버렸다. 두 번째로 차가 고장난 쟈 휘트니를 차에 태워 차고로 데려가 목을 졸라 죽인 뒤 향문 강간을 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체를 이를 동안 천장 갈고리에 매단 다음 한쪽 유방을 잘라내 예폭시 처리를 한 뒤 버렸다. 세 번째로 죽인 여자는 양쪽 유방을 다 잘라내 버린 뒤 시체에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채워 강에 버렸다. 그가 네 번째로 죽인 여자도 마찬가지로 차고에서 죽인 뒤 강간하고 시체를 천장에 매달았는데 전선으로 연결한 피하 주사기 두 대가 그녀의 가슴에 꽂혀 있었다. 그는 “전기 충격을 하면 시체가 춤을 추는지가 궁금해서

그랬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네 번째 희생자의 유방은 잘라내지 않았는데 훗날 그는 경찰에게 자신은 분홍빛 젖꼭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는 갈색 젖꼭지가 달린 유방만 자른다”고 말했다.



## “내 나이만큼 사람을 죽이겠다”

은보현

국적: 대한민국

특이 사항: 한국 최초의 택시 연쇄 살인범, 살인

일지 작성, 스스로 경찰에 자수

어릴 적 성격이 온순하고 착해 동네 사람들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던 은보현은 무력무력 자라서 살인자가 되었다. 그가 그렇게 된 배경에는 불우한 가정사가 있었다. 그에겐 폭행과 외도를 일삼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만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던 그는 24세 때 늙어서 힘이 없어진 아버지를 향해 심한 폭력을 휘두른 후 가출을 하게 되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러 어느새 전과 13범이 된다.

그즈음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귀어 여자 친구가 자신을 떠나자 자살을 결심한다. 하지만 막상 죽겠다고 생각하니 억울했던 건지

“내 나이만큼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살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한다. 그 때 그의 나이 38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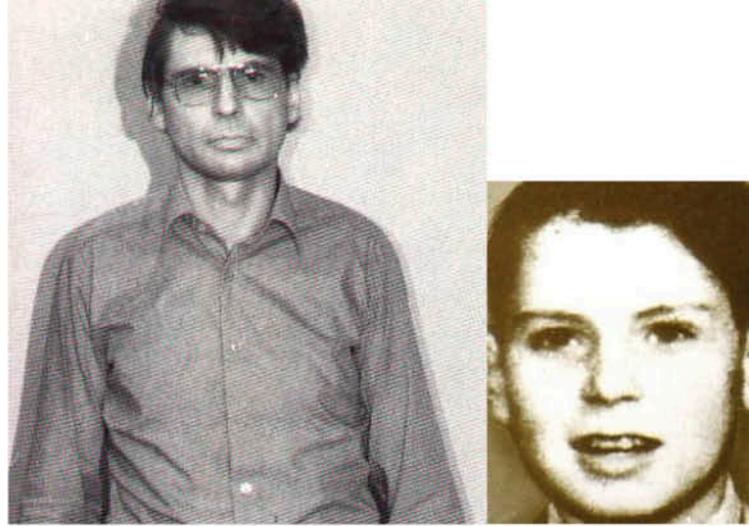
1994년 8월, 평소 가지도 않던 고향에 20년 만에 내려간 그는 숙부집에 나흘 동안 머물면서 뒷산에 구멍이를 판다. 그 구멍이에 38구의 시체들을 파묻고 자신도 그곳에 묻힐 생각이었다.

하지만 숙부는 그런 그를 기특하게 생각했다. 악마의 구멍이를 파는 줄은 모르고 그가 별초를 하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은보현은 어떻게 살인을 할지

고민하다가 예전에 택시기사를 했던 기억을 떠올려 택시를 훔쳐 번호판을 위조했다. 그는 여성들만 골라 납치한 뒤 성폭행,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다. 살인 행각을 상세히 기록한 ‘살인 일기’도 작성했다. 납치한 여성 모두를 죽인 건 아니었다. 강동구 천호동 사거리 부근에서 태워 칼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한 19세 회사원은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고분고분하게 그의 말을 따랐는데, 그녀와 얘기하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서 혼자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에 동정심을 느껴 그녀를 집 앞까지 배려다주기도 한다. 몇 명은 포박을 풀고 도주해 은보현은 납치한 6명 중 2명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지 18일 만에 사형이 구형되었다.

요즘 같으면 쉽게 검거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는 CCTV나 도로 교통정보 수집 장치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은보현을 검거하지 못했다. 그를 검거한 건 경찰이 아니라 은보현의 자수였다. 당시는 지존파가 막 검거됐을 때였는데, 은보현은 “지존파와 나를 비교해 보고 싶다. 지존파와 같은 감방에 넣어달라”며 지존파를 검거했던 서초 경찰서를 찾아갔다. 그리고 지존파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 “그들이 돌아가는 게 외로워서 죽었다”

데니스 nilson

국적: 영국

주요 오펜 수법: 시체를 토막 내 번기에 버림

범행이 발각된 이유: 하수도가 막혀서

데니스 nilson은 어릴 때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많은 살인마들이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만행을 유년기에 저지르는 것과 달리 그는 성인이 되어도 동물만큼은 사랑했다. 그가 사랑한 건 또 있었다. 바로 시체였다. nilson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군에 입대할 지 2년이 되었을 때 동갑내기인 한 사병과 성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그 사병은 nilson의 취향을 알게 된 후 그와 섹스를 할 때 나체 상태로 숨을 참으며 죽은 척 해줬다. 착해 빠진 건지 nilson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그의 취향도 마침 시체처럼 섹스하는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의 시체 연기는 nilson의 성욕을 채워줄 수 있었다. 그와 헤어진 이후 nilson은 인간의 ‘시체 연기’보다 더 강렬한 것을 욕망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산 사람에게서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없게 됐고 진짜 시체만을 원하게 됐다. 방법은 단 하나였다. 직접 시체를 구하는 것.

nilson은 어느 날 술집에서 그해 14세가 된 소년 스테판 홀즈를 집으로 꼬드겨 그와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머리를 물속에 처넣어 죽이고야 말았다. nilson은 죽은 소년의 옷을 벗기고 깨끗이 씻긴 뒤 그 시체와 성관계를

가졌다. TV도 함께 보고 식사도 함께 하고 물론 섹스도 했다. 7개월쯤 지나자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주위에 들킬까 두려웠던 그는 정원에서 시체를 태웠는데, 실가죽 타는 냄새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타이어를 함께 태우는 치밀할까지 보였다. 그게 그의 첫 번째 살인이었다.

이후 5년 동안 15명의 젊은 남자를 죽이고 그 시체와 섹스를 하고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 시체를 없애기를 반복했다. 그는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으로 빠져서 고기를 발라내는 작업을 했는데, 그 때의 기술이 범죄의 흔적을 지우는 데도 꽤 유용하게 쓰였다. 시체를 토막낸 뒤 빠져서 발라낸 살은 냄비에 끓이고, 몸통은 여형 가방에 넣어 짐꾸속에 보관했으며 나머지 잔해는 정원에서 태워 흔적을 말끔히 없앴다. 무슨 연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그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다. 아파트에는 시체를 태울 정원이 없으므로 그는 시체를 조각내 화학약품에 녹인 후 번기에 버렸다. 어느 날 하수도가 막혀 이를 수리하러 온 배관공은 맨홀 바닥에 썩어있는 시체 찌꺼기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렇게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nilson의 살인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nilson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 They Talk, They Kill

“나는 당신의 딸을 범하지 않았다  
당신 딸은 처녀로 죽었다”

## 알버트 피쉬

국적: 미국

주요 은폐 수법: 시체를 먹어치움

범행이 발각된 이유: 수사를 종결한다는 가짜 기사에 낚여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조상들마저도 정신병을 앓았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인지 알버트 피쉬는 연쇄 살인범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살인마로 꼽힌다. 태생 자체가 남달랐던 그는 미국 전역에서 40여 명의 아이들을 유괴한 뒤 죽이고 먹어 치웠다. 그가 식인을 한 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고기를 정말로 먹고 싶었기 때문이었으며 아이들만 골라 죽인 건 아이들이 제일 맛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알버트 피쉬는 신문에 농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짓 구인광고를 심는다. 그 광고를 보고 한 청년이 연락을 했고, 피쉬는 청년의 집에서 그를 만나게 된다. 원래는 그를 죽일 생각이었으나 그의 여동생 그레이스를 보고 목표를 수정한다. 피쉬는 그레이스의 엄마에게 조카의 생일파티가 있는데 그레이스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불행히도

그레이스의 엄마는 인자한 노인의 외모를 지닌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만다. 그 이후 그레이스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피쉬의 이름이 가명이며 신문 광고도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다. 당시 퇴직을 1년 앞둔 윌리엄 킹이라는 형사가 이 사건을 6년 간 조사했지만, 도무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지를 발휘해 ‘수사가 종결됐다’는 가짜 기사를 신문에 심는다. 이 기사를 본 피쉬는 그레이스의 엄마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낸다. 편지에는 그레이스를 살해한 과정과 수법을 아주 자세히 기술해 놓았는데 ‘부인 맥을 찾아갔을 때 무릎 위에 앉아 뽀뽀를 하며 애교를 부리는 그레이스를 보고 그녀를 먹겠다는 결심을 했으며, 그레이스를 데리고 미리 봐둔 빈 집에 데리고 갔다. 그녀의 피가 핏가봐 웃을 다 벗었는데 별거벗은 나를 보자 그레이스는



알버트 피쉬의 골반 X-Ray 사진



울음을 터뜨렸다. 울며 발버둥치는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인 다음 몸을 조각내어 썰었고, 그 고기로 요리를 해 먹어치웠다’는 내용이었다. 그레이스의 엉덩이는 오븐에 넣고 구워 먹었는데 매우 부드러웠으며 그녀의 시체를 모두 다 먹어치우는 데 9일이 소요됐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말도 덧붙였다. ‘I did not fuck her tho I could of had I wished. She died a virgin.’(하려고 했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당신의 딸을 범하지 않았다. 당신 딸은 처녀로 죽었다) 경찰은 이 편지를 역추적해 그를 체포했다. 수년간 그를 쫓던 늙은 형사는 그 순간 “Finally, I got you”

라는 말로 그간의 세월을 보상받았다. 알버트 피쉬가 수감된 이후 그의 엽기적인 도착증이 알려졌는데, 알코올에 적신 헝겊을 항문에 집어넣은 뒤 불을 붙이거나 가시 박힌 장미를 요도에 삽입한다든지 골반에 바늘을 쏘서 넣는 걸로 성적인 흥분을 느꼈음을 고백했다. 처음엔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으나 X-Ray 검사 결과, 그의 골반 근처에서는 진짜로 20개가 넘는 바늘이 발견돼 진짜 미친놈임을 입증했다. 그를 조사하던 담당의는 그가 무려 17가지의 성적 도착 증세를 가지고 있으며 “한 개인이 이런 증세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건 의학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여자를 죽이는 데 5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

## 페드로 로페스

국적: 콜롬비아

특이 사항: 모범수로 석방

1948년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난 페드로 로페스는 8세 때 자신의 여동생을 성추행 하다 어머니에게 들키 쫓겨나게 되고, 중년의 소아성애자가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준다는 말에 그를 따라갔다가 강간당했다. 10대 중반 차량 절도로 체포돼 감방 생활을 하면서는 죄수 4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직접 만든 면도칼로 그들을 죽여 버렸다. 출소 이후 그는 페루 전역을 돌며 젊은 여자들을 강간하고 죽였으며, 원주민의 9살난 딸아이를 강간하려다가 걸려 산채로 매장될 뻔도 했지만,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페루에서 추방되는 걸로 마무리됐다. 그는 1980년 에콰도르에서 12세 소녀를 강간하려다 붙잡히고 나서,

감방 동료에게 자신이 에콰도르에서만 최소 100명을 죽였음을 털어놓았다. 여자 한 명을 죽이는 데는 5분에서 15분이 걸렸으며, 강간을 하며 목을 졸라 죽일 때 최고의 쾌락을 느꼈다고 말했다. 여기서 반전. 그가 감방동료라고 믿었던 사람은 사실 죄수가 아니라 죄수복을 입은 정부 관계자였다. 처음에 그는 페드로 로페스의 말을 저질적인 농담으로만 생각했지만 로페스가 말한 곳의 땅을 파보니 8~12세로 추정되는 소녀들의 유골이 그곳에서만 53구 발견되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에콰도르 정부는 그를 1998년 모범수라며 석방, 콜롬비아로 추방시켰고 영문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그는 아직도 살아 있다고 한다.



그의 집 곳곳에서는 수십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 “Kiss my ass”

### 존 웨인 게이시

국적: 미국

특이 사항: 사회적인 성공, 남색, 삐에로 집착

존 웨인 게이시는 대외적으로 성공한 남성이었다. 평소 삐에로 분장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으며 성실하고 꽤 성공한 사업가였다. 또한 민주당원으로 정치에도 참여하며 카터 대통령의 영부인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어릴 때 게이시는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학대당해 아버지를 피해 어머니와 여동생들에게 의지하면서 점점 더 여성적으로 변했고 자기혐오는 갈수록 심해졌다.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상당히 성공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존 웨인 게이시를 추락시킨 건 그의 동성애 취향이었다. 소년들을 추행하는 걸로 시작해 급기야 청소년들을 납치해 강간한 뒤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72년부터 살인을 시작한 게이시는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총 30여 명을 죽였으며 그의 집에서 28구, 근처의

강가에서 3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게이시는 시체를 파묻지 않고 강가에 버린 이유에 대해 “무덤을 파면 등짝이 아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이시는 이전에도 몇 번 체포될 뻔 했는데 그의 집에서 비명 소리가 나 경찰이 출동했지만 마을에서 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인물이었으므로 아무도 그가 범인일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게이시는 기소되고 14년 후 사형을 당했는데, “Kiss my ass”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 많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X끼”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피해자들의 저주 때문인지 게이시의 사형 집행 중 악물이 갑자기 응고되어 체내에 주입되지 않아 튜브를 교체하는 소동도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형수들에 비해 꽤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 “살인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을 테니까”

### 메리 플로라 벨

국적: 영국

특이 사항: 최연소 연쇄 살인범

WE did  
murder  
MURKIN  
Drown  
Fuck off  
you Bastard

메리 벨의 필체로 써어진 낙서



774987 BELL, M.  
18-7-77

메리 벨의 엄마 베티 벨은 매춘부였다. 1957년 5월 26일, 메리 벨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서 “내 눈앞에서 저것 좀 빨리 치워”라는 말을 들은 불쌍한 아이였다. 메리 벨은 네 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남성들과의 성행위를 강요받았다. 메리 벨을 원하는 소아성애자가 있으면 그녀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녀의 엄마가 직접 나서서 도왔으며 심지어 낯선 남자가 자신의 딸을 성추행할 때는 오히려 메리 벨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기까지 했다. 그녀가 다섯 살 때는 친한 친구가 버스에 치여 죽었다. 이후 메리 벨은 손으로 다른 친구들의 목을 조르며 “왜?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어?”라고 되묻기도 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충격과 트라우마 때문인지 메리 벨은 이미 10세에 2건의 살인을 저지르며 최연소 연쇄 살인자로 악명을 떨친다. 1968년 5월 25일, 마틴 브라운이라는 4세 소년의 시체가 외딴집에서 발견됐다. 메리 벨은 자꾸 시체가 있는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다음 날 메리 벨은 마틴의 이모를 찾아가 “마틴이 없어서 외로워?”, “마틴이 없어서 울었어?” 등 죽은 마틴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한편 마틴의 시체가 발견된 지 이틀째 되는 날 근처 보육원에서는 아이의 필체임이 분명한 네 개의 종이가 발견됐다. 그 쪽지에는 ‘난

살인을 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야 할지도 몰라, ‘우리는 살인을 한다. 조심해, ‘우리는 마틴을 살해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때까지도 메리 벨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경찰도 누군가의 장난이라고만 생각했다. 메리 벨은 범인이 자기라는 걸 알아달라는 듯 다음 날 학교에서 일기를 썼다. 낡은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그곳에 사내아이가 쓰러져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일기 아래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그녀는 당시 현장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쓰러져 있는 사내아이 옆에 약병이 놓여있는 그림을 그렸다. 그 일이 있은 지 3개월 후에는 3세 브라이언을 살해했다. 브라이언의 시인은 직사사였고 약한 입흔이 발견됐다. 아이에 의한 살인이 분명했다. 브라이언의 시체 주변에서는 부러진 가위가 발견됐고 허벅지에는 찢린 자국이 있었다. 또한 질러나간 생식기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배에는 면도날로 M이라는 서명이 있었다. 메리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브라이언의 장례식 때 그의 관을 보면서 웃고 있었다. 메리 벨은 이후 정신감정에서 사이코 패스 판정을 받았고 12년 동안 복역을 하다 1980년 가석방됐다. 이후 이름을 바꾸고 아이도 출산했으며 책도 냈다.

Who's That Girl?

**Perfect  
Pin-up  
Girl**



〈화성인 바이러스〉의 2대 V걸 **한규리**가  
큐티 섹시 핀업걸로 변신했다.  
이 화보를 찢어내서 벽에 붙여두고 싶어졌어?  
좋았어, 우리의 목표는 이미 달성했군!

BY 손안나 PHOTOGRAPH Zho

LOCATION 미농스튜디오(www.minonstudio.com)

구두 슈즈원

# Who's That Girl?



## She Was In...



그녀는 현재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2대 V걸로 활약 중이다.



MAXIM 2013년 3월호 '여자들이 말하는 남자의 스타일(P.95)'에서 '홍대 길거리녀'로 등장했다.

“  
 대부분 아는 동네 오빠에서  
 남자 친구가 됐다.  
 ”



인형 같은 외모가 편업걸 콘셉트에 정말 잘 어울린다. 현재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2대 V걸로 활약하고 있는데, 1대 V걸 한송이보다 본인이 더 나은 점이 있다면 뭔가? 물론 한송이 선배도 예쁘지만, 아무래도 내가 좀 더 귀여운 매력이 있지 않나? 나이도 더 어리고.. 노란 가발을 쓰고 V걸로 변신한 당신을 보고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 처음엔 신기하다며 방송도 꼬박꼬박

챙겨 봤다. 그런데 내가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이제는 재미없다며 다른 프로그램을 보더라고. 쳇.

가장 기억에 남는 화성인은 누구인가? 베개 여친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18세 일편단심 베개남'. 그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녹화장에 같이 오셨는데,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고는 당황해서 계속 한숨을 푹푹 쉬셨다. 진심으로 그 아이가 빨리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정신 좀 차려!

# Who's That Girl?



구두 슈즈원  
속옷 칼라짐

“  
나쁜 남자는 정말이지  
내 타입이 아니다.  
”



## 한규리

본명: 김미희

생년월일: 1991년 2월 15일

신체: 168cm, 46kg

경력: 2011년 미스인터콘티넨탈

대구 선발 대회 3위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인형처럼 쭉 뻗은 다리

주요 서식지

홍대 상상마당 인근

한규리와 친구가 되자

[me2day.net/hyej77](http://me2day.net/hyej77)



구두 슈즈원  
속옷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방송에서 "H컵과 트리플 A컵 중에서 어떤 게 나을 것 같으나"는 질문에 당신은 "저 정도면 적당하죠"라고 대답했다. 그게 대체 어느 정도인 건가?  
난 D컵이다.

D컵이라니... 그 정도로 가슴이 크면 일상생활 하는 데 불편하겠다. 어깨가 많이 아프긴 하다. 그래도 H컵이랑 트리플 A컵 중 하나를 고르라면 H컵을 선택할 거다.(웃음)

언제 본인이 가장 섹시해 보이나요?  
샤워하고 나와서 속옷만 입고 거울을 볼 때. 물론, 아무것도 안 걸쳤을 때도 좋지. 게다가 촉촉~한 상태잖아?

그렇다면 남자가 가장 섹시해 보일 때는 언제인가?

남자들이 맘 흘리며 운동할 때. 특히 뽀끈뽀끈 튀어나온 팔근육을 보면 섹시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무엇보다 자기 일에 열중하는 남자의 모습이 가장 섹시한 것 같다.

조인성이 이상형이라고 들었다. 그거 참 좌절스러운 소식이다.  
에이, 그건 이상형일 뿐이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얼굴을 떠나서 일단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가장 좋다. 흔히 말하는 '나쁜 남자'는 정말 내 타입이 아니다. 남자들이 밀당 하면 호감이 가다가도 정이 똑 떨어지더라.

남자 친구에게만 보여주는 필살 애교가 있다면?  
몸매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애교를 부리는 거다. 콧소리 내면서 이렇게. "오뎹~♥"

가장 황당했던 남자 친구를 꼽아보라.  
돈 때문에 헤어진 남자.(웃음)  
난 원래 데이트를 해도 더치페이를 하는 스타일인데 자주 나한테 밥값을 다 내라고 하더라고. 특하면 뭐 사달라고 조르고... 나보다 여덟 살이나 많았는데, 참...

강남에서 잘나가던 텐프로가 시골 다방으로 쫓겨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 <나가요 미스콜>에 나온다고 들었다. 실제로 본인은 도시녀와 시골녀 중 어디에 더 가깝나?  
다들 나보고 생긴 건 도시녀지만 하는 짓은 그냥 시골녀도 아닌 시골 '할매'라고 놀린다. 내 말과 행동이 좀 느린 편이긴 하지만 '할매'라니...!

영화에서 스쿠터를 그렇게 잘 탄다며? 여주인공 넷 중 내가 가장 잘 탄다.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스쿠터라 이번 촬영 때 처음으로 타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 적성에 딱 맞는 것 같다. 여름 내내 하도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 피부도 새까맣게 타버렸다.(웃음)

이참에 스쿠터 하나 정만하지?  
안 그래도 요새 핑크색 비노가 자주 눈에 밝힌다. 그거 타고 당장 아무 곳이나 뺑뺑 달리고 싶다!

당신과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팁을 달라.  
소개팅이나 즉석 만남처럼 목적이 있는 만남은 어쩐지 어색해서 부담스럽더라고. 보통은 아는 동네 오빠에서 남자 친구가 된 경우가 많다. 흥대 근처에 사니까 나와 만나고 싶으면 거기로 오면 된다. ☺

WORDS 김세영 HAIRMAKEUP 정혜민 VIDEO 김상수 LAYOUT 서윤정  
COOPERATION 슈즈원(02-518-4190) 칼라원(02-547-5707) 펠빈 플라인 언더웨어(02-540-4723)



속옷 펠빈 플라인 언더웨어

## Swings

암 유어  
시스터, 유노?



그가 말했다. "헤이, 브라더.  
나를 그냥 옆집 돼지라고 생각해줄래?" BY 손안나



2013년 8월 21일, 'KING SWINGS'라는 곡으로 광역 디스를 시전하며 한국 힙합 역사상 가장 핫한 디스전을 이끌어낸 스윙스. 물밀듯이 쏟아지는 각종 인터뷰를 자제하며 말을 아끼던 그가 MAXIM을 만나 '리얼 힙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한반도에 핵이 왜 필요해? 내가 있는데?"라고 말하는 이 남자. 정말... 뻗속까지 힙합이다.

**〈쇼미더머니 2〉 출연에 '컨트롤 디스전'까지... 당신  
요새 엄청나게 유명해졌다.**

확실히 인생이 반전됐다. 7년 동안 랩을 했는데 방송 한두 개로 따라잡히다니... 미안한데, 잠깐 욕 좀 해도 되나? "씨발, 나 여태까지 뭐했나!" 맨날 가사에서 "내가 존나 짱이야" 하고 외쳤는데 뭐든 혼자 할 수 없는 세상이란 걸 깨달았다. 씁쓸하더군.

**그렇게 "내가 존나 짱"이라고 외치기도 다니던  
스윙스도 버벌진트만큼은 줄곧 형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맞다. 그 형은 곧대스러운 면이 하나 없는 엄청난 대인배다. 내가 빗 때문에 고생할 때 엄청난 액수의 돈을 쥐주고 성우 자리도 알아봐줬다. 자기 밥그릇을 뺏길 수도 있는데 말이지. 여하튼 그 형은 엄청 시아가 넓은 사람이다.

**버벌진트 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형의 팬으로서 "우~ 베이비" 이런 거 말고 이번만큼은 좀 힙합다운 앨범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

**왕년에 디스로 한가락 하던 '모두 까기' 버벌진트는  
이번 디스전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안 그래도 얼마 전 형과 밤새워 이야기했다. 디스전이 끝나고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의 힙합 씬은 왕관이 데굴데굴 굴러다니고 그걸 많은 사람이 잡으려고 하는 형국이다. 형은 내게 그 왕관을 잡으라고 하더라.

**그럼 당신은 후배들에게 어떤 선배인가?**

누군가는 나를 굉장히 나쁜다고 생각할 거고,

누군가는 나를 따뜻한 형으로 볼 거다. 내 노래를 들려줘도 별로면 별로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후배가 더 믿음이 간다. 똥고 빠는 타입은 정말 싫다.

**'펀치 라인' 하면 보통 당신과 타블로를 떠올린다.**

타블로는 시적이고 세심한 표현을 많이 하고, 내 가사는 현실적이고 좀 더 유치하다... 한마디로 서민 감성이지, 나는.

**\*힙합에서 듣는 사람에게 충격을 줄 정도로 신선한 구절  
혹은 동음이의어로 만든 중의적 표현.**

**썸디 디스크 '황정민'에서 "대한민국 힙합에 제일  
많이 공헌한 탑 5"는 "테디, 이현도, 서태지,  
버벌진트, 그리고 스윙스"라고 말했다.**

**뭘 기여했는가?**

말했듯이 펀치 라인. 그전에는 가사 쓰는 방법이 다채롭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많이 하는 말장난이나 중의적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고 점점 그게 대중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타이거 JK와 다르게 넌 미래가 없지." 뭐 이런 거다. You Know?



이 마이크도 나쁘진 않네.  
하하!



모두가 간장해 내가 나올 때면  
 그래 총대를 매 봐 나는 Canon  
 내게 찍히지 마 Paparazzi's Camera  
 넌 패인이 돼 도망가는 Britney  
 그럼 뭐해 내 Flow flows from Seoul to Sidney  
 내 랩만 들어줘 만들지 마 빌미  
 만 명이 보는 앞에서 네 디스크곡을 잃지

나는 이미 전설  
 내 기술은 날 때부터 착했어  
 모두가 사랑하지 증명했지 상선설  
 반면에 너의 랩은 히틀러 나찌  
 그들 시체에서 진동하며 나는 악취가 나지  
 나는 해병대 너는 방위  
 나는 장인 너는 사위  
 나는 Sex 너는 자위  
 나는 보 너는 바위  
 아니 너는 보 나는 가위  
 너는 감옥 나는 합의  
 즉 내가 더 낫다는 뜻  
 이 왕께서 볼 때 너는 아주 갈잡은 것  
 질투가 나지 보면 내 맛깔나는 멋  
 너도 인간이니 나를 보면 뺨가는 법

그래 계속 건들여 봐 난 니 차에 합석  
 사시미 허를 깨내면 넌 투막이 날 걸  
 대부분 자인들이었으니 한 번만 봐주는 것  
 이렇게 경고했는데 다음 또 그러려면  
 그 땐 국룰도 없어 한 그릇의 짜장면

- 스웁스의 '500 Bombs' 중에서 -



이게 바로  
 힙합의 진리



# Music

## 그래도 '탐 5'라니 너무 자백 아닌가?

자백이라니. 자신감은 힙합에 반드시 필요한 정서다. 래퍼는 가사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You Know? 랩 할 때만큼은 극단적으로 "난 너희보다 우월해. 개 우월해!" 이렇게 얘기해야지. 래퍼들한테 '대한민국 탐'을 꼽아보라고 하면 다들 속으로는 자기라고 생각할걸? 하지만 정작 가사에는 아무도 그렇게 쓰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가식적인 거 아닌가? 난 자아도취에 빠진 개새끼가 아니다.

## 공연장에서는 왜 바지를 벗나? 설마 거기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건가?

에이. 웃자고 하는 거다. 장난치면서 길거리에서 바지도 벗고 그러지 않나.(웃음)

## 누...누가 장난으로 길거리에서 바지를 벗나?

그나저나 '황정민' 후반부에 "힙합은 존나 좀 폭력적이고 짜질한 사람들이 자기 상처 가리려고 하는 음악"이라고 했다.

정말 그렇다. 감정 기록\*\*이 심해서 어느 때는 한없이 나 자신이 병신같이 느껴진다. 길에서도 잘 울고... 자신감 충만한 스윙스는 내가 창조해낸 자아지. 나 문지훈의 전부는 아니다. 나비 날개에 그려진 무서운 호랑 무늬처럼 일부러 센 모습을 보여서 약한 면을 감추는 거다.

\*\*Swings라는 이름도 감정 기록을 뜻하는 'Mood Swings'에서 따왔다.

## 그나저나 원래 그렇게 잘 웃는 편인가?

여자 앞에선 항상 잘 웃는다.

'A Real Lady'에는 "섹시한 걸 과시하지 않는 네가 진짜 여자"라는 가사가 나온다. 스윙스가 생각하는 '진짜 여자'는?

남자 친구의 남성적인 면을 인정해주면서 그 남자를 컨트롤할 줄 아는 여우. 밖에선 숙녀, 둘이 있을 땐 많이 야한 여자.

## 외모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에 끌리는가?

허벅지와 발목이 예쁜 여자. 거기에 호피 무늬 속옷을 입으면... 유후~♪

진정해, 이 사람아. 이제 '컨트롤 디스엔' 얘기를 해보자. 어글리 먹은 만났나? '황정민'에서 "실제로 마주쳤을 때 조금이라도 존 티를 내면 오줌 갈길 거"라고 했잖아?

만났는데 아유... 너무 동생이더라. 먼저 장난 걸었더니 당황하던데? 그 친구가 원래는 참 안전하고 착하다. 사실, 디스라는 게 배를 문회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다. 만나면 다 같이 인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럼 씩씩하고도 인사하나?

쌈디 씨랑은...



## Swings a.k.a Moon Swings

본명: 문지훈  
혈액형: A형  
생년월일: 1986년 10월 14일  
별명: 편치 라인 킹, 언어유희왕  
소속: 브랜뉴뮤직, JUSTMUSIC ENT  
데뷔: 2008년 (Upgrade (EP))  
특이 사항: 전직 피자 가게 사장님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





넌 믹스테이프 1개?  
난 믹스테이프 5개

쌘디 '씨'라니... 둘 사이는 말 안 해도 잘 알겠다. 사실 '황정민' 음원 내는 날 새벽, 친구가 스튜디오까지 쫓아와서 말했다. 나보고 이거 내면 X 된다더군. 하지만 그간 쌓아둔 게 너무 많았다. 공개하고 나서? 대중의 반응은 좋았지만, 나한테 더이상 남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니까... 사람을 잃는 건 언제나 괴로운 일이지. 후회하는건 아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다.

지금껏 당신이 참여한 디스전만 총 네 번이고, 당신의 공격을 받은 뮤지션은 10명이 넘는다. 힙합 씬에 적이 많겠다.  
하하, 내가 제일 힙합이다.

이번 디스전이 서로를 향한 폭로전으로 변질했다는 비난도 많다.  
미국에는 배를 랩을 하는 래퍼가 따로 있다. 폭로 수위가 엄청 세고, 무지 웃기다. 중요한 것은 팬들이 그걸 '힙합'으로 이해해준다는 거다. 디스라는 게 아직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문화라지만... 이번 디스전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열광했잖아? 랩의 진보라고 생각한다.

데프콘은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서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디스 문화가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리있는 말이지만, 사실 미국도 비행기 타면 겨우

몇 시간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른 래퍼들이 디스를 꺼리는 건 똑같다. 어찌보면 디스 문화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나 다 비현실적인 것 같다.

힙합이 원래 패거리 문화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근데 당신의 디스는 크루 간의 싸움도 아니고 '독고다이'다.  
물려다니는 건 자신감 없는 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안 그래?

인터넷에서 당신을 욕하는 일부 힙필이(힙합 찌질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 보고 못 참아서 쪽지 날린 적도 있다. 그건 내가 생각해도 좀 찌질했어.(웃음)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지. 나는 음악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나.

그래도 다짜고짜 욕을 먹으면 먹살잡이라도 하고 싶을 텐데?  
나한테 있는 권리는 남한테도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이 그러고 노는 건 분노를 표출할 데가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난 음악으로 표출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뭐라고 욕하던가?  
뭐, 다양하지. 실제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요새 방송에 출연하고 여러모로 이슈가 되니까 "넌 성공을 위해 뭐든 하는 새끼구냐!" 라고 하더군.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난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다.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이걸 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다. 그뿐이다.

한국 힙합에서 당신은 몇 등쯤일까?  
몇 등? 난 항상 1등이러니까? 🏆

## 스윙스가 꼽은 최고의 스윙스 노래 Best 3

사랑 노래도 좋지만, 그래도 우린 욕 많이 들어간 노래가 좋더라. 욕해줘! 좀 더! 더!

**1** 듣고 있어?  
"내 노래 중 가장 대중적인 곡"  
올해 초 발표한 두 번째 믹스테이프 (#1) Vol.2)의 타이틀 곡으로 최근 이별을 경험한 솔로 부대러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 할 거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폭풍 공감 가사가 눈물, 콧물 속 빼놓는다.

**2** 황정민  
"내 노래 중 가장 솔직한 곡"  
영화 <신세계>의 황정민(정청) 대사 "드루와, 다 드루와, 이 씨발 놈들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쌘디를 "정신병 걸린 유대새끼", 어글리 덕을 "개 X 같은 말라겐이"로 묘사하며 잔인하게 디스한다.

**3** 500Bombs  
"내 노래 중 가장 만족스러운 곡"  
500마디의 가사로 채워진 무려 25분짜리 대곡이다. 스윙스가 처음 이 곡을 들려주자 버벌진트는 노래가 정말 좋이라며 이 곡을 녹음할 수 있는 스튜디오 비용을 쾌척했다고, 가사 곳곳에 숨어 있는 펀치 라인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 MISS MAXIM

## 2013 MISS MAXIM CONTEST 4강 진출자

이형진지 (조)

코스프레 의상은 처음이라며 쭈뼛대더니  
바니걸 의상을 입자마자 빨리 촬영하자며  
난리였다. 이렇게 섹시한 토끼라면 내 간을  
대신 용왕에게 바칠 수도 있어!

박주비 (유)

앞니를 살짝 드러내며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귀여운 토끼 그 자체였다.  
섹시하면서 귀엽기가 그렇게 어렵다던데,  
그 어려운 걸 어쩔 그렇게 잘 하니?

BY 김희성 PHOTOGRAPH Zho





MAXIM





남자친구에게 해줬던 코스프레 이벤트는?

양갈래 세리북!

해보고 싶은 코스프레는 어떤 것이 있나?

선덜 ... 리본 칭칭감고ㅋㅋ

고양이처럼 귀엽게 남심을 녹이는 필살 애교를 보여 달라!  
부님적 보비적 거리기

을 겨울, 내 남자가 입어줬으면 하는 스타일은?

후드 아님 어깨선이 잘보이는 니트

가장 좋아하는 폭탄주는?

뚜비뚜비해도 쓰먹이지만 요즘 개발한 "분자니" (분자주+버니니)

남자를 꼬실 때 어떤 술을 주로 마시나?

어떤 술든 상관 없다 ㅋㅋ

독자들에게 당신의 비밀 한 가지를 털어놓는다면?

저 사실 .... 청순한 여자예요 ...

-스!! 죄송해요ㅋㅋㅋ

“  
우리  
게임 한 판 할래요?  
”



구두 슈즈원

남자의 겨울 패션 중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워커 33 워시샌드카우얼 스타일에. 예뻐워커~♥

남자친구에게 부엌에서 해줬던 쇼킹한 이벤트가 있다면?

... 많아요 해냈어요~♡

평소 즐겨시는 스타킹 취향이 있나?

검은색인데 속살이 다 비치는 시츄 같은~

좋아하는 폭탄주는?

소맥도 좋지만 양맥이 더 맛있다. 나눌거~

토끼 같은 귀여운 남자와 고양이 같이 섹시한 남자 중 어떤 남자에게 끌리나?

난 고양이 같이 섹시한 남자!  
귀염섹시가 최고~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소배고 &  
허리~양배이 합 라인~!

고양이처럼 귀엽게 남심을 녹이는 필살 애교 좀 보여달라!

이리에서 위는 살짝 뜯는 눈웃음  
그런 어리버리한 말투.  
나만애 배려~.



MISS MAXIM



이렇게  
섹시한 도둑  
본 적 있어?



“  
오늘은 누구  
마음을 훔쳐볼까?  
”



HAIR/MAKEUP: 정혜민 VIDEO: 김성우 김세형 COOPERATION: 슈도(02-3443-1703)

그녀들의  
남심 훔치는  
비밀.avi



B-Boys Be Ambitious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비보이 쇼티 포스, 베르, 킬

# RED BULL BC ONE ASIA PACIFIC 2013

 알고 있는 히라가나는 すし(스시)밖에 없는 에디터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레드불 비씨 원 아시아 태평양 결선'에 초청받았다. 한국 대표로 출전한 3인의 비보이와 동행한 에디터의 3일간의 취재 보고서. <다큐 3일> 돈네...

BY 손안나



비보이 킬은 와일드 카드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부산 예선 1위 비보이 쇼티 포스



서울 예선 1위 비보이 베로



심사를 맡은 한국의 비보이 디피가 베로와 장난치고 있다.

## D-2

“엔트리가 미쳤어.” 후쿠오카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난 비보이 베로(VERO)가 던진 첫 마디였다.

‘레드불 비씨 원 아시아 태평양 파이널’ 무대를 위해 날고 기는 비보이가 모두 이곳 일본 후쿠오카로 모여들었다. 한국 대표 3인 중 한 명으로 출전한 그는 세계 랭킹 1위 진조크루의 멤버이자, 비씨 원 서울 예선을 1등으로 통과한 유력 우승후보다. 경기는 이를 후다. 내가 도착하기 직전, 무대에서 맞붙을 선수들의 최종 엔트리가 공개됐다. 베로의 말은 정말이었다. 그의 대진운은 형편없었다. 8강에 오르면 이곳 후쿠오카에서 나고 자란 일본 선수 이세이(ISSEY)와 붙게 되고, 4강에 가게 된다면 한국 선수와의 내전을 피할 수 없다.

일반적인 향취가 느껴지는 후쿠오카의 명소에서 한국 선수들의 공식 사진 촬영이 있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골목. 라멘집 앞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한 세 명의 비보이를 만났다. “춤은 몇 년이나 춘 거야?” 부산 예선에서 우승한 쇼티 포스(SHORTY FORCE)에게 슬쩍 물었다.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13년 정도 됐지.” 한 가지 일을 10년 넘게 계속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지금은 MAXIM 에디터가 된 나의 중학교 시절 꿈은 중군 기자였다. 어떤 날은 유치원



선생님이었고, 또 어떤 날은 요리사였다. 그만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관심사가 바뀌던 중학생... 하지만 나와 동갑내기인 쇼티 포스는 이미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몇 시간이나 연습했어?” 촬영을 끝낸 베로에게 물었다. “글쎄. 온종일 연습실에서 살아... 눈 뜨면 연습실이고 밥 먹어도 연습실이고 그렇지 뭐.” 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이들이 참가하는 ‘레드불 비씨 원’은 영국의 ‘UK 비보이 챔피언십’과 독일의 ‘배틀 오브 더 이어’, 미국의 ‘프리스타일 세션’과 함께 세계 4대 비보이 대회 중 하나로 꼽힌다. 다른 대회가 크루간의 대결인 데 비해 개인별 녹다운 배틀로 붙는 방식은 비씨 원이 유일하다. 선수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장. 이 대회 월드파이널에서 우승한다면, 그 비보이가 ‘우주 최강’이라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전 세계 비보이들이 이 대회에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다.

“킬(KILL)은 파워 무브에 강해. 아직 어려서 그런지 힘이 무지하게 좋디니까?” 부산에서 쇼티 포스에게 패한 준우승자 킬은 와일드카드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컨디션은 어때? 다친 데는 없고?” 내가 물었다. “사실, 두 달 전에 어깨 연골이 찢어졌어. 그래도 주사 맞으면서 재활하고 열심히 준비했지. 부모님한테 아직 얘기 안 했어. 우승하고 말할 거야.” ‘우승’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킬의 눈빛이 반짝였다. 사실 한국인의 신체조건은 비보잉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보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외국의 비보이들이 그저 춤을 즐기는 차원에서 끝낸다면, 이들은 이 문화에 인생을 걸고 뛰어든다. 절대적인 연습량도 훨씬 많다. 배틀에서 꼭 이기고자 하는 강한 승부 근성도 한몫한다.

# B-Boys Be Ambitious

## D-1

대회가 열리는 구시다 신사는 일제강점기, 우리의 슬픈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곳이다. 이곳에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쓰인 칼이 보관되어 있다. 후쿠오카의 유명한 도검 장인이 오로지 사람을 बे기 위해 만들었다는 검 '히젠토'가 잠들어 있는 역사관 바로 옆방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한국과 일본 선수들을 비롯해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날고 가는 비보이들이 모두 이 자리에 모였다. 베로가 손가락으로 한 무리의 비보이들을 가리켰다. "저 아저씨를 보며? 저게 내 미래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전설이 되고 싶어" 베로가 말한 그 아저씨들은 미국의 포원(POE ONE)과 와이낫(YNOT), 브라질의 펠레지뉴(PELEZINHO), 한국의 디퍼(DIFFER) 등 이었다. 그들은 심사위원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레전드 비보이들이다.

준비한 필살기술에 대해서는 선수들 모두 말을 아꼈다. 인터뷰장은 시종일관 잔잔이 오가는 즐거운 분위기였지만, 이들의 웃는 얼굴 뒤에 팽팽한 긴장감이 엿보였다. 그중에 유독 몸집이 작은 비보이가 눈에 띄었다. 필리핀에서 왔다는 앨런(ALLEN ANAS)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 열두 살의 어린 나이지만 이래 배도 필리핀 지역 결선 챔피언이다. 앨런이 손에 꼭 쥐고 있는 종이뭉치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진이다. 한국 선수들의 사인은 이미 받아 뒀다. 앨런에게

비씨 원은 꿈의 무대임과 동시에 꿈의 스타들을 볼 수 있는 만남의 장이다. 아마 이 소년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돌려 보며 이들의 기술을 익혔을 것이다.

한국의 비보이는 줄곧 전 세계 크고 작은 비보이 대회를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2007년 8월, <뉴욕타임스>는 "한국 비보이들이 새로운 브레이크 댄스 물결의 선두 주자"라고 보도했다. "한국 문화가 보수적이고 엄격하며, 교육 시스템이 숨 막힐 정도여서 힙합과 비보이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탈출구가 되고 있다"는 그들의 분석에 별로 동의하진 않지만, 확실한 건 어느 국가, 어느 선수에게든 한국의 비보이는 '위협'이자 '동경'의 대상이다.

## D-DAY

정해진 음악은 없다. 비보이는 디제이가 즉석에서 트는 음악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무대에서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 나올지, 어떤 비트가 이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정해진 심사기준도 없다. 5명의 심사위원은 각자의 소신껏 더 잘한 비보이의 손을 들어줄 뿐이다. 여러모로 '날림'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비보잉 댄스를 체조나 댄스포츠처럼 '기술성 3.7, 예술성 2.5' 등으로 점수화하는 건 코미디다. 비보이 배틀은 스킬의 난이도보다 음악에 대한 이해와 댄스 레벨로 승패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자유'와 '즉흥성'의 힙합에서 출발한 브레이크 댄스 아닌가.



이 무대는 봐야해!



라멘집 앞에서 진행된 사진 촬영. 점프만 수십 번 해야 했다.



촬영 도중, 길바닥에 앉아서 쉬는 선수들.



후쿠오카 구시다 신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관객 천 여명이 몰렸다.



## Red Bull BC One by numbers

**9,387**

지난 10년 간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이  
연습 중 닳아 없앤 신발 켤레

**190** 대회에 참가한 최장신 비보이의 키(cm)

**130** 대회에 참가한  
최단신 비보이의 키(cm)

**38** 대회에 참가한  
최연장 비보이의 나이

**11** 대회에 참가한 최연소 비보이의 나이

그런 이 문화를 규격화하고 계량화하는 건 비보잉을  
취미만큼도 모르는 끈대들이나 하는 짓이지.

열기는 뜨거웠다. 10월 12일 토요일, 특설 무대가  
설치된 '구시다' 신사엔 대회 두 시간 전부터 천여  
명의 관객이 몰렸다. 쇼티 포스는 베트남의 슬로워즈  
(SLOWZ), 태국의 첸노(CHENO)를 4:1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베로 역시 호주의 세떼(SETTE)  
와 이세이를 제치고 4강에 합류했다. 1차전에서  
특유의 파워 무브로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환호를  
받은 킨은 준결승에서 일본의 노리(NORI)에게 패해  
도중 하차해야만 했다. 이렇게 되니 4강은 한국 선수  
베로 vs. 쇼티 포스, 일본 선수 노리 vs. 다이스케  
(TAISUKE)의 대결이었다.

접전 끝에 결승 무대에 오른 선수는 베로와  
노리였다. 문득, 어제 베로가 한 말이 떠올랐다.  
그는 내게 "노리는 기본기와 파워 무브가 좋은

선수"라며 "결승전에서 만나게 된다면 캐릭터와  
에너지로 승부하겠다."고 했었다. "한·일전은  
언제나 흥미진진하죠." 한국인으로 보이는 옆자리  
남자가 말을 건넸다. 사연 많은 일본도가 잠자고  
있는 신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보이가 맞붙는다...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어쩐지 두  
손에 힘이 팍 들어간다. 예상대로, 노리는 기본기와  
파워 무브로 승부수를 띄웠다. 노련하게 응수하던  
베로는 아쉽게도 3라운드에서 순간적으로 페이스를  
잃었고, 준비한 '결정적 기술'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게 배틀이 끝났다.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동, 서유럽, 동유럽에 이어 드디어 아시아 태평양  
챔피언이 나온 것이다. 그 주인공은 노리였다.  
그는 오는 11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레드불 비씨  
원 월드파이널'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뒤, 무대 위에서 한국 선수들을  
다시 만났다. 완벽한 3분을 위해, 지난 몇 달간 모든

걸 걸었던 그들의 표정에 진한 아쉬움이 스쳤다.  
위로를 건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던 차,  
베로가 갑자기 통역관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심사위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관중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던 걸까?  
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하지만  
심사위원 포연과 맞닥뜨린 그가 내뱉은 말은 전혀  
뜻밖이었다. "존경합니다. 어렸을 때 춤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즈음부터 당신은 내 우상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난 뭘 상상한 걸까?  
그들은 춤을 즐겼고 무대를 즐겼다. 그걸로 된 거다.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죽을 만큼 다하진 않았나 봐,  
아야! 아쉽다!!" 신사를 빠져 나오며 킨이 말했다.  
"넌 왜 춤을 추는 거야?" 내가 물었다. "중학교  
1학년 때였나? <하니>라는 영화를 봤어. 거기서 어떤  
비보이가 '나이키'를 선보이면서 모자를 딱 쓰는데  
그 장면이 완전히 쫓겨.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난 춤추면 더 힘이나." 그랬던가. 내가 <하니>에서  
기억하는 건 제시카 일바의 섹시한 몸매 뿐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댄서가 캐스퍼 스마트라는  
유명한 비보이더라고. 누군가도 나를 보고 그런 꿈을  
키우지 않을까? 뭐, 그럼 더 좋고." 킨은 그렇게  
말하고 조금 앞서 걸어갔다. 그간 쌓인 피로 때문일까,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던 그들의 발걸음이 조금 지쳐  
보였다. 하지만 춤을 말하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걸 봤다. 

From MAXIM Australia 

# Music To Our Eyes

호주의 인기 미녀 DJ 하바나 브라운이 호주 MAXIM  
발간 2주년을 기념하여 아찔한 화보를 선물했다.



BY SANTI PINTADO  
PHOTOGRAPH WAYNE DANIELS

From MAXIM Australia 



**MAXIM과의 첫 만남은 어땠나?**

생각보다 편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벗고 있어도 떨거나 부끄러워하는 타입은 아니다.

**MAXIM에서 촬영 섭외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

타이밍이 좋았다. 예전의 나는 선머슴이었다. 그 때 같았으면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란제리 화보를 촬영하는 건 꿈도 못 꿨겠지? 지금은 많이 여성스러워졌고, 자신감도 생겼다. 솔직히 이런 촬영을 전부터 해보고 싶었다.

**그랬군! 우리 역시 당신과의 만남을 기다려 왔다.**

**촬영을 마친 소감은 어떤가?**

지쳤다. 좋은 모델은 못 되나 보다. 볼 때는 쉬워 보였는데, 몇 시간 동안 포즈를 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진짜 피곤하다.

**먼저 호주조사부터 하겠다. 어디 출신인지 말해 달라.**

부모님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휴양지 모리셔스 연안의 로드리게스 섬 출신이다. 인구가 4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다. 두 분은 40년 전에 호주로 건너오셨다.

**‘엔젤리크 미뉴어(Angelique Meunier)’라는**

**예쁜 본명이 따로 있다. 가명 ‘하버나 브라운’은 어떻게 지은 이름인가?**

하버나 브라운이라는 고양이 종이 있다. 가명을 지으려고 하니 너무 흔한 이름은 싫더라. 좀 세 보이는 이름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고양이를 떠올리게 됐다. 고양이는 강하고 독립적이잖아? 게다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걸 어떻게 얻어내는지 아는 영리한 동물이다. 그래서 고양이 종 이름을 찾다가 ‘하버나 브라운’을 선택하게 됐다.

**본명이 더 미국적이고 좋은데?**

그런가? 근데 그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 게다가 너무 청순하고 예뻐서 무대 위의 나와는 전혀 안 어울린다. 사실 무대 밖에서의 나는 엔젤리크라는 청순한 이름과 더 잘 어울린다. 하버나 브라운은 강하고 단호한 성격이고, 평소의 엔젤리크는 우유부단한 면이 있다.

**요즘은 당신처럼 DJ가 되려는 미인들이 많다. 솔직히 신경 쓰이지 않나?**

경쟁심 같은 건 없다. 오히려 여성 DJ가 많아져서 좋은데? 그녀들 모두 자신만의 느낌과 특징이 있다. 지난 수년간 놀라울 정도로 DJ 씬이 변했다. 더 상업적으로 바뀌었잖아. 어쨌거나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여성 DJ라서가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당신의 노래 ‘Big Banana’는 인기도 끌었지만**

**그 이름 때문에 발표 당시 적잖이 화제였다.** 재미있는 노래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노래가



좀 자극적인가 보다. 작업할 때도 정말 재미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노래를 발매하면 욕 먹을 거라고 말했다. ‘Big Banana’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그 노래가 무척 자랑스럽다. 호주에서는 플래티넘 디스크를 받았고, 미국 빌보드 댄스 차트에서는 1등을 차지했으니까!

**트위터로 섬뜩한 메시지를 받은 적은 없나?**

아직까지 그렇게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적은 없다. 솔직히 ‘Big Banana’를 발표했을 때, 남자들이 트위터로 자기 성기 사진을 보낼 줄 알았다. 근데 아직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은 아니고(웃음). 진짜로 보낸다면 놀래 자빠질 거다.

**생일이 밸런타인 데이라지! 선물을 두 배로 줘야 하나?**

당연하지! 밸런타인 데이 때 생일 파티를 하는 게 좋다. 그날은 사랑으로 넘쳐나는 날이라 생일을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흥분 상태다.

**평소에 당신에게 걸썩대는 남자들도 많겠지?**

일할 땐 그런 일이 거의 없다. 물론 밤거리를 거닐 때는 가끔 말을 거는 남자들이 있긴 하다. 어떤 남자들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더니 갑자기 재빠르게 내 입술에 키스를 하더라. “이 뽀뽀한 XX 들이!”

**이런 미친 놈이 있나! 그럼 당신을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옆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건방지고, 시끄럽고, 오바하는 사람이 싫다. 난 자신감 있는 남자가 좋다. 자신감과 건방진 건 다르잖아?

**마지막으로, 남자가 여자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큰 바나나’를 좋아한다는 거? 농담이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의 바나나가 클 필요는 없다. 그저 그걸 어떻게 놀려야 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From MAXIM Australia 



## Havana Brown

하바나 브라운

**본명:** 엔젤리크 미뉴어

**고향:** 호주 멜버른

**생일:** 1991년 5월 26일

**애마:** 벤츠 E350(컨버터블)

**속옷, 피자마, 휴리닝 중**

**잘 때 입는 것:**

티셔츠를 입고 자는 편이지만,

이 중에 골라야 한다면 속옷.

**DJ가 안 됐다면?:**

유기견 보호소 직원

**좋아하는 셀러브리티:**

닥터 드레

**트위터:** @djhavanabrown





“

당신의 바나나가 클 필요는 없다.  
그저 그걸 어떻게 놀려야 할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

Fight

UFC

# 너희가 UFC를 아느냐

 11월 12일은 UFC 탄생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UFC 20년사를 정리해본다. 이제 당신도 어디 가서 격투기 좀 안다고 방귀 뀌 수 있을 거다.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레전드 선수  
레전드 경기



##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브라질 주짓수의 원류인 그레이시 가문은 주짓수가 세계 최강의 무술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가문의 총수인 엘리오 그레이시를 비롯한 그의 아들들은 브라질에서 다른 유파와 수백 번의 무규칙 격투 시합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그레이시 일족은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고 모든 도전을 물리쳤다. 복싱과 킥복싱, 무에타이, 가라테 등의 타격계나 레슬링, 유도, 삼보 등을 수련한 그레플러들의 도전과 이에 대한 그레이시들의 응전은 비디오로 녹화되었고, <그레이시 액션 비디오(Gracie Jiu-Jitsu in Action)>라는 제목으로 출시됐다.

엘리오의 장남 호리온 그레이시는 1980년대 말 미국으로 건너갔다. 주짓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일종의 선교 활동이었다. 미국에서 그는 “최강의 무술은 주짓수이며 이것이 의심스러우면 누구든 도전해도 좋다”는 입장을 선언했다. 수많은 무술가가 호리온의 도장을 방문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각종 골절과 인대 손상, 그리고 엉망이 된 얼굴이었다. 호리온의 도장을 찾아간 인물 중에는 아트 데이비라는 비즈니스맨도 있었다. 그는 호리온에게 도전하지도, 제자가 되기를 청하지도 않았다. 아트 데이비가 원하는 것은 호리온의 주짓수 선교 활동을 TV 이벤트로 기획하는 일이었다. 의기투합한 둘은 SEG라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1993년 11월 12일, 미국 내 유명

무술가 7인과 호리온 그레이시의 동생이자 그레이시 가문의 대표 선수 호이스 그레이시가 참가하는 8인 토너먼트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의 막이 올랐다.

이 대회에는 규칙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었다. 무대는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8각의 철장이었다. 두 명이 들어가고 그중 한 명은 무조건 항복하거나 잠드는 이 잔인한 스포츠는 대중에게 엄청난 자극과 영감을 주었다. 이것은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천하제일 무도회’의 실사판이었다. ‘천하제일 무도회’에는 그나마 장외로 나가면 패한다든지, 상대를 죽이면 실격이라는 등의 규칙이 있었지만, UFC의 무대는 철망으로 둘러싸인 형태였고 상대의 사망에

대한 페널티도 없었다. 선수들은 자신이 경기 중에 사망해도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경기에 출전했다. 다만 눈 찌르기와 깨물기, 낭심 가격, 활취기, 손가락을 입에 넣어 찢기 등 길거리 기술을 사용하면 경기가 끝난 후 소정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승리는 정당하게 인정했다. 호이스 그레이시는 다리를 물린 적이 있고 한국계 파이터 조손은 키스 해크니라는 선수에게 연속적으로 낭심을 가격당한 뒤 패했다. 그럼에도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 UFC는 인간 투게다?

출범 당시 UFC의 소유권은 호리온 그레이시와 아트 데이비의 WOW 프로덕션 그리고 SEG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초창기 UFC는 TV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 시간 제한과 라운드 구분이 없었기에 방송사에서는 UFC에 최소한 경기 시간의 상한선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호리온 그레이시는 요구를 거절했다. UFC의 순수한 실전성이 훼손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분쟁 끝에 호리온은 UFC에서 손을 뗐고, SEG 단독 체제가 시작됐다.

1990년대 후반, UFC는 언더그라운드에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주류 사회는 UFC의 폭력성과 무절제한 진행 방식을 부담스러워했다. 당시 상원 의원이던 존 매케인(차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고 오바마에게 판정패했다)은 UFC를 '인간 투게'로 비하하며 정치적 압력을 가해 전미 48개 주에서 UFC를 금지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UFC는 5분 라운드제와 각종 금지 규칙을 차례로 도입해 현재의 통합 룰을 완성해나갔다. 또 1997년부터는 무체급 방식에서 벗어나 체급을 구분해 경기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SEG는 매케인과 주류 사회의 맹공에서 살아남기 위해 규칙과 라운드제를 도입하고 체급을 분화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이 과정에서 출혈이 심각했다. 2000년 SEG는 도산 위기에 처했다. 당시 UFC 최고의 슈퍼스타 티토 오티즈의 복싱 및 체력 트레이너이던 데이나 화이트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중 자신과 친분이 있던 퍼피타 형제에게 UFC의 인수를 권유했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상속자인 퍼피타 형제는 화이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01년 UFC는 불과 200만 달러에 퍼피타 형제에게 매각되었다.

UFC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전혀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시기 데이나 화이트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었는데, 그때 프랭크 퍼피타는 화이트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브러더,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나는 네 자체를 사랑해.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네 뜻대로 일을 처리하면 좋겠어." 화이트는 이 말을 인생 최고의 조언으로 꼽는다.

### 백 사장, 데이나 화이트의 야망

데이나 화이트는 1969년생이다. 아마추어 복서로 활동했지만, 본인 말로는 실력이 그저 그래서 트레이너로 전향했다고 한다. 1980년대 말경 그는 보스턴 남부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보스턴을 지배하던 '화이트 빌저'라는 갱 조직과 트러블이 생겼다. 그들은 화이트에게 상납을 요구했고 그들과 싸우기도, 돈을 내기도 싫은 화이트는 그날 밤 곧장 라스베이거스로 도망쳤다. 라스베이거스에 정착한 화이트는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이자 슈퍼스타이던 티토 오티즈의 트레이너진에 합류했다. 그리고 앞서 밝힌 대로 퍼피타 형제를 움직여 UFC의 인수에 앞장섰으며 그 공로로 UFC의 CEO 자리를 차지했다. 취임 초기 화이트의 행로는 순탄치 않았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기존 UFC 스타들을 통솔하는 것이었다. 일개 트레이너이던 인물이 갑자기 기구의 총책임자가 되었으니 알력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터. 특히 티토 오티즈는 공공연하게 화이트의 권위를 무시하고 빼먹하게 굴었다. "You were my bitch(넌 내 풀따꾸어여!)"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으니 말이다.

화이트는 오티즈의 대항마로 젊고 배고픈 신인 척 리델을 발굴했다. 강력한 타격으로 막강한 KO 파워를 자랑하던 그는 굉장한 잠재력을 지닌 선수였다. 티토 오티즈라는 공동의 적을 가진 화이트와 리델은 연합

전선을 형성했다. 그러나 오티즈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리델의 도전을 거부했다. 화이트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헤비급에서 막 타이틀을 빼앗긴 랜디 커투어를 데려와 리델과 도전자 결정전을 붙였다. 그렇지만 리델은 커투어의 예술적 레슬링에 말려들어 TKO패했다. 이후 화이트는 리델을 직접 수행해 당시 UFC를 넘어 세계 MMA의 중심으로 부상한 프라이드 2003 미들급(-93kg, 기존 라이트헤비급) 토너먼트에 출전시켰다. 화이트 본인이 프라이드에 속이고 들어가 리델-퀀트 잭슨 1차전의 해설을 맡는 등 그의 자세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었다. 그렇지만 리델은 잭슨에게도 KO패하고 만다. 이 시기에 화이트-리델 연합은 어지간히도 안 풀렸다.

### UFC 체급표

헤비급(120kg)	라이트급(-70kg)
라이트헤비급(93kg)*	페더급(-65kg)
미들급(-84kg)**	밴텀급(-61kg)
웰터급(-77kg)	플라이급(-56kg)

\*재정 당시는 미들급이라고 불렸으나, -84kg가 미들급으로 신설되면서 라이트헤비급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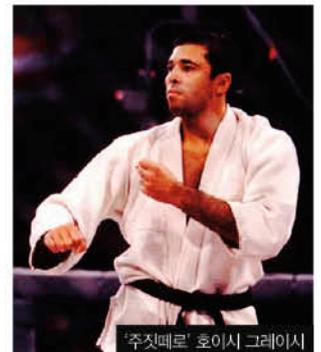
영화 <엑스펜더블 2>에서 배우로 활약한 랜디 커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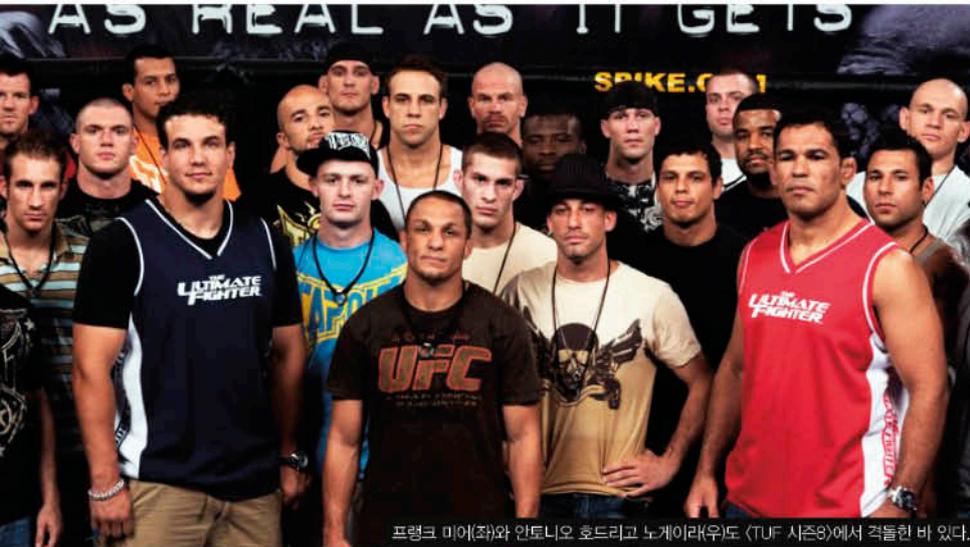
'악동' 티토 오티즈



셀카 찍기를 좋아하는 데이나 화이트 UFC 사장



'주짓테로' 호이스 그레이시



프랭크 미어(좌)와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케이(우)도 (TUF 시즌8)에서 격돌한 바 있다.

당시 화이트는 대머리가 아니었다. 어쩌면 이때의 스트레스가 그의 탈모를 촉진한 게 아닐까?

2004년 4월, 결국 티토 오티즈와 척 리델이 만났고 리델이 오티즈를 KO로 때려잡았다. 화이트는 평생에 가장 통쾌한 경기로 리델-오티즈전을 꼽는다. 그는 경기가 끝난 후 리델에게서 받은 글러브와 경기복을 자신의 현관에 장식했다.

### The Ultimate Fighter(TUF) 시즌 1

2001년 출범한 주파(Zuffa) 체제의 UFC는 2005년까지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한 밑 빠진 독이었다. 전 세계 격투 팬들은 프라이드에 열광하고 있었다. 당시 프라이드는 표도르와 노케이라, 반델레이 실바, 켄턴 잭슨 등의 스타 군단을 필두로 도쿄 돐에서 6만5,000석을 채우며 승승장구했다.

화이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베틱으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했다. 당시 UFC에서 그나마 상품 가치가 높은 편이던 파이터는 커투어와 리델이었다. 리델은 커투어를 상대로 치른 1차전에서 패한 후 오티즈와 버는 화이트를 연속 KO로 잠재우고 다시 타이틀 전선의 선두로 복귀했다. 커투어-리델 2차전의 명분이 확고해진 2004년 후반, 화이트는 두 선수의 라이벌 구도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기획을 들고 나왔다. 커투어와 리델이 팀을 나눠 젊은 선수들을 지도하고 양 팀의 선수가 서바이벌 대결을 벌이는 리얼리티 쇼 (TUF)가 시작된 것이다. 엄청난 자금 출혈이 예상되고, 결과는 보장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지만 퍼티타 형제는 화이트를 신뢰했고, (TUF)는 케이블 네트워크 스파이크 TV를 통해 시청자들을 찾았다.

TUF는 첫 방송부터 반응이 상당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시청률

상승과 함께 UFC의 인지도 역시 빠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2005년 4월 9일, TUF의 결승전에서 포레스트 그리핀과 스테판 보너는 역사적인 대결전을 벌였다. 우승자에게만 10만 달러 단위의 UFC 계약이 주어지지만, 화이트는 이례적으로 승자인 그리핀과 패자인 보너, 두 선수 모두와 계약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성공한 프로젝트 TUF는 주파 체제인 UFC에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TUF의 결승전이 끝나고 1주일 후, UFC 52에서는 TUF 양 팀 코치 간의 대결전이 벌어졌다. 커투어-리델 2차전, 라이트헤비급 벨트가 걸려 있었다. 리델은 커투어를 경기 시작 2분 6초 만에 KO로 분쇄하고 대망의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둘렀다. 이것으로 화이트와 리델의 황금기가 도래했다. TUF는 첫 시즌의 성공에 힘입어 UFC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고, 지금은 18번째 시즌을 방영하고 있다. TUF는 브라질판으로도 제작했으며 현재 UFC는 중국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TUF 코리아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 열왕의 시대

2007년 프라이드가 부도를 맞았다. 야쿠자 연루설이 터지면서 방송 주관사인 후지 TV가 프라이드와 관계를 단절했고 화려하던 격투 제국 프라이드는 흔적도 없이 소멸했다. UFC는 발 빠르게 프라이드의 전해를 인수했다. 표도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1급 파이터는 UFC의 품에 안겼다. 이로써 세계의 MMA 무대는 UFC 1급 체제로 전환되었다. UFC의 경쟁력은 순식간에 몇 단계 레벨업되었다. 기존 UFC 파이터와 프라이드에서 건너온 선수들이 혈투의 전장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각 체급의 진정한 제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 The Good vs. The Bad in UFC



### → 좋은 놈 - 척 리델

척 리델은 경력의 중반부에 화이트의 은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선수 생활을 강행했다. 결과는 참혹했고 결국 2010년 12월 은퇴를 선택했다. 리델이 은퇴하자마자 화이트는 그를 UFC의 부사장급으로 영입했다. 리델은 셀 수 없이 많은 드라마와 영화, 쇼 프로에 출연했다. 그는 랜디 커투어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UFC 파이터다. 2008년 존 매케인의 대선 캠프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렇다. 한때 UFC의 목덜미에 칼을 들이대던 바로 그 존 매케인이다. 리델은 원수를 은혜로 갚은 대인배다.



### → 나쁜 놈 - 조손(손형민)

한국계인 그의 본명은 손형민, 1970년생이다. MMA 전적은 0승 4패. 영화 (오스틴 파워)에 출연한 적이 있다. 사실 그는 MMA나 영화 출연보다 수차례의 끔찍한 범죄 행위로 악명 높다. 2008년 그는 기를 파손 혐의로 연행되었고 경찰은 그의 DNA를 채취했다. 이 DNA 검사에서 그가 1990년 발생한 집단 강간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다. 그는 동료와 함께 한 여성을 납치해 아를잡을 여성의 목숨에 집어넣는 등 변태 행위를 포함해 여러 차례 성폭행과 성고문을 자행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275년형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고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교도소 내에서 같은 성범죄자인 김방 동료를 살해해 현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플라이급, 밴텀급, 페더급**

제정된 지 얼마 안 된 페더급, 밴텀급, 플라이급에서는 각각 호세 알도와 도미니 크루즈, 드미트리우스 존슨이 초대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얼마 전, 정찬성과 방어전을 승리로 이끈 호세 알도의 지배력은 무시무시한 수준이며 체급 내에 위협적인 도전자를 찾기 힘든 실정이라 상위 체급으로의 정벌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상대는 라이트급 챔피언 앤서니 페티스가 유력하다.

**라이트급**

라이트급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BJ펜이라는 천재 피터의 독주였다. 하지만 천재적이며 다소 제멋대로인 펜은 자기 관리가 약점이었고 프랭키 에드가에게 두 번에 걸쳐 패하면서 물러났다. 에드가는 펜의 독재를 타파한 이후 3차 방어에 성공했고, 한국계 미국인 선수이자 MAXIM 한국판의 표지를 장식한 바 있는 벤 헨더슨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역시 3차 방어를 성공한 헨더슨은 지난 8월 31일 앤서니 페티스에게 패한 후 다시 도전자의 스탠스로 돌아갔으며 권투중재를 노리고 있다. 페티스의 1차 방어전 상태는 조시 톰슨으로 12월 4일 맞붙을 예정이다.

**웰터급**

웰터급은 UFC에서 선수층이 가장 넓으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 지옥의 체급으로 불린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체급의 정점 조르주 생피에르는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1,993일 동안 8차례 방어전에 성공했다. 현 챔피언 중 최장 집권 기간이자 최다 연속 방어 기록이다. 그는 캐나다의 슈퍼스타고 경기당 가장 많은 대전료와 PPV(Pay Per View, 유료 시청) 보너스를 손에 쥐는 인물이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된 적이 없지만 그의 경기당 수입은 최소 200만 달러에서 최대 5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생피에르는 11월 16일 핵 주먹 조니 헨드릭스와 9차 방어전을 벌인다.

**미들급**

2005년 6월, 챔피언 리치 프랭클린을 누르고 타이틀을 획득한 미들급 앤더슨 실바는 2013년 6월까지 2,458일 동안 10차례의 방어전을 성공시키며 UFC 역사상 최장 기간 철권통치를 펼쳤다. 앤더슨 실바의 독주를 저지한 인물은 크리스 와이드맨. 그는 오는 12월 28일 실바와 두 번째 결전을 앞두고 있다.

**라이트헤비급**

UFC 부흥의 쌍두마차 리벨과 커투어는 3차전까지 치렀다. 2:1로 리벨의 승리였다. 리벨은 한동안 라이트헤비급의 맹주로 활약하다가 프라이드에서 건너온 쿼텐 잭슨에게 대권을 물려주었다. 잭슨의 왕위는 포레스트 그리핀을 지나 라사드 에반스에게 전해졌고, 에반스는 로토 마치다에게 KO패하며

벨트를 풀었다. 그리고 마치다는 쇼군에게 벨트를 빼앗겼다. 자고 나면 챔피언이 바뀌던 피바다의 격전지 라이트헤비급은 존 존스의 등장과 함께 평정됐다. 2011년 3월, 대권을 장악한 존스는 6차 방어를 달성하며 이 체급의 최다 연속 방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그는 현재 모든 체급을 통틀어 가장 지배적인 선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무적의 아우라도 지난 9월 일렉산더 구스타프슨에게 상당히 훼손된 게 사실. 존스의 다음 경기는 2014년 3월로, 상대는 브라질산 하드 히터 글로버 테세이다.

**헤비급**

1997년 마크 콜먼에게서 시작한 헤비급의 왕위는 모리스 스미스를 거쳐 랜디 커투어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1997년 12월에 UFC 헤비급 벨트를 손에 넣은 커투어는 타이틀을 반납하고 일본으로 떠나버렸다. 이후 일본에서 돌아온 랜디 커투어는 당시 챔피언이던 케빈 랜들먼을 TKO로 누르고 두 번째로 UFC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다. 그렇게 또다시 몇 번의 챔피언이 바뀌고 나서, 왕좌에 오른 팀 실비아를 노장 랜디 커투어가 다시 꺾어버렸다. 커투어는 헤비급을 세 번째로 정복한 유일한 챔피언이 된 것이다. 그는 라이트헤비급 챔피언도 두 차례 지냈다. 1차 방어까지 성공시킨 후, 커투어는 부상을 이유로 한동안 전열을 이탈했다. 계약 문제와 화이트와 갈등 때문이었다는 설이 파다했다. UFC는 잠정 챔피언을 옹립하기로 한다. 팀 실비아와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가 대전했고, 이 경기에서 노게이라가 승리하며 잠정 챔피언이 되었다. 노게이라가 프랭크 미어와 함께 TUF 코치를 하고 있을 때 커투어가 복귀했다. 커투어에게 도전한 선수는 브록 레스너였다. 프로레슬링에서 인기 선수로 활약하던 레스너는 어마어마한 흥행 폭풍을

몰고 왔다. 레스너는 커투어를 잠재우고 UFC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다. 그의 1차 방어전이 열린 UFC 100은 160만 PPV 세일즈를 기록했다. UFC PPV 판매사상 최고 기록이다. 레스너를 분쇄하고 UFC 헤비급의 15대 챔피언이 된 인물은 케인 벨라스케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완성도 높은 헤비급 파이터다. 기술과 힘과 체력과 정신 모두 최상급으로 벨라스케즈의 게임에는 빈틈이 없다. 그렇지만 그의 앞에 헤비급 역사상 가장 위험한 타격 스페셜리스트 주니어 도스 산토스가 나타났다. 산토스는 일격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버릴 수 있는 궁극의 하드 펀처다. 벨라스케즈는 산토스를 앞에 두고 작은 실수를 범했고 1라운드 KO패하며 대전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2012년 12월 벌인 복수전에서 벨라스케즈는 산토스를 5라운드 내내 완벽하게 압도했고 왕좌로 복귀했다. 벨라스케즈와 산토스는 '지구 최강의 호모 사피엔스'라는 타이틀을 놓고 10월 20일 세 번째로 대전했다. 압승을 거두며 실력의 차이를 입증한 쪽은 케인 벨라스케즈였다. 

**UFC 역대 PPV 판매량 TOP 6**  
- 흥행을 부르는 이름 '레스너'

- 1위 160만 / UFC 100 **브록 레스너**-프랭크 미어
- 2위 111만 / UFC 116 **브록 레스너**-세인 카윈
- 3위 110만 / UFC 158 조르주 생피에르-닉 디아즈
- 4위 105만 / UFC 66 척 리델-티토 오티즈
- 공동 4위 105만 / UFC 121 **브록 레스너**-케인 벨라스케즈
- 6위 100만 / UFC 91 랜디 커투어-**브록 레스너**



지난 10월 20일 펼쳐진 벨라스케즈와 주니어로 도스 산토스의 3차전.



## 현장 취재! 육군항공 사격대회



공군에 탑건이 있다면 육군은 탑 헬리건이 있다! BY 군사 전문가 김대영



전투기 조종사의 경쟁과 우정, 사랑을 그린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탑건>.

'탑건(Top Gun)'이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전투기 조종사를 의미한다. 공군에만 있을 것 같은 탑건이 육군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투기가 없는 육군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 공격 헬기 조종사를 탑 헬리건(Top Heligun)이라 부른다.

지난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비승사격장에서 이러한 탑 헬리건을 뽑는 육군항공 사격대회가 열렸다.



이 날 대회에는 육군이 보유한 다양한 공격 헬기들이 총 집결하였다.



사격장에서는 조종사와 공격 헬기들이 모여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조종사들만이 탑 헬리컨으로 선정된다.

**특명! 최고의 공격 헬기 조종사를 선발하라!**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가 매년 실시하는 육군항공 사격대회, 198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4주년을 맞은 이 사격대회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최고의 공격 헬기 조종사를 뜻하는 탑 헬리컨을 매년 선발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사격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다. 탑 헬리컨을 뽑는데 핵심적인 개인사적 부문에서는 사전에 조종사의 근무 경력, 자질, 비행 기량, 전문 지식 등을 면밀히 심사해 우수한 조종사만 선발한다. 이를 통해 우리 육군의 공격 헬기 AH-1S 코브라와 500MD 헬기를 두루 운용하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조종사를 최종적으로 탑 헬리컨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 사격대회는 이전의 사격대회와 달리 실제 전투를 가정해, 공격 헬기가 적의 위협을 피하며 신속하게 사격하는 전술기동 방식을 적용했다. 그만큼 조종사의 뛰어난 기량을 요구하게 된 셈이다.

**육군항공 사격대회에 등장한 헬기들 #1**



**전차 잡는 공중의 독사 AH-1S 코브라**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맹독을 지닌 파충류 코브라. 하지만 우리 육군에서 '코브라'라는 이름은 적 전차를 잡는 공격 헬기로 더 유명하다. 특히 코브라 공격 헬기는 지형지물을 스치듯이 날아다니며, 코브라의 독니와도 같은 강력한 공격으로 적 전차의 승통을 한방에 끊어 놓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H-1S 공격 헬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기종은 이후 1991년까지 약 3년간 총 70여 대가 도입되었으며 이 가운데 20여 대는 야간에 투우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씨나이트(C-NITE) 조준장치를 새롭게 장착했다. 지난 2010년에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북한의 공기 부양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브라 공격 헬기 6대가 서해 5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육군은 운용 중인 코브라 공격 헬기의 생존성과 공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기체에 신형 지대공 미사일 생존 장비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는 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다.

# Military



아, 왜 째짜면은 없는가?

거 그냥 째뽕 드쇼.

육군항공 사격대회는 육군 헬기 조종사에게 수능시험과도 같은 행사다.



어이, 긴장해서 가슴이 벌컥벌컥 뛰냐?

AH-1S 코브라 공격 헬기에 장착된 20mm 3연장 벌컨포.

##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도 있다?

특히 우리 육군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 헬기인 AH-1S 코브라 공격 헬기는, 전차 잡는 미사일 토우와 전차와 장갑차 부대를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2.75인치 로켓, 그리고 20mm 3연장 벌컨포 등 헬기에 장착된 각종 무장을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적용하여 운용한다. 대회는 이러한 평가 방식을 적용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적을 격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완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탐 헬리콥터를 선발한다고 해서 단순히 개인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육군항공의 모든 공격 헬기 대대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된 부대가 참가하는 '부대 사격' 단체전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헬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리 비행' 즉, 호버링을 이용한 '제자리 사격'이 새로이 등장했다. 또 2대의 공격 헬기가 팀을 이루어 산 능선 뒤쪽에서 대기하다가 산을 넘어 표적을 향해 돌진하며 사격을 실시하는 방식도 추가되었다.



누가 기내에서 비틀 터냐?

후두두두두

20mm 3연장 벌컨포는 분당 최대 730발을 발사한다.

## 육군항공 사격대회에 등장한 헬기들 #2



### 전장의 읍저버 Bo-105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10여 대가 배치된 Bo-105 정찰헬기는, 유럽의 다국적기업인 유로콥터(Eurocopter)사에서 제작한 헬기이다. Bo-105 정찰헬기에는 캄캄한 야간에도 표적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NHSS(Night Hawk Sighting System)를 장착하고 있다. 이 장비는 낮에 최대 18km, 밤에는 5.3km 밖의 적을 찾아낼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이 장비 덕분에 Bo-105 정찰헬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AH-1S 코브라 공격 헬기와 팀을 이루어 임무를 수행한다. Bo-105 헬기가 적진에 투입되어 적을 찾아내는 '헌터' 역할을 한다면, '킬러'인 공격 헬기들이 이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또한 Bo-105 정찰헬기는 기본적으로 12.7mm 중기관총과 2.75인치 로켓을 장착해, 유사시에는 무장헬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격 전, AH-1S 코브라 공격 헬기에 정비 대원이 2.75인치 로켓을 장착하고 있다.



표적지를 꼼꼼히 확인중인 판정관들. 판정 결과가 모두 일치했을 때만 득점으로 인정된다.

### 엄격한 심사 기준

이번 사격대회에서는 헬기의 전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점수에 반영했다. 여기에 판정관 3명의 판정 결과가 모두 일치했을 때만 득점으로 인정하는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또 탑 헬리콥터 외에도 각 부대별로 지난 1년 동안 분야별 평가 기준을 달성한 최고의 대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신설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기술로 개발해 배치되고 있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도 참가했다. 수리온은 기관총 사격과 열추적 미사일을 따돌리는 데 사용되는 플래어를 발사해 청명한 가을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기도 했다. 대회 결과는 11월 중순에 발표되며, 최우수 부대 및 탑 헬리콥터는 각각 대통령 상장을 수여받게 된다.

### 천조국의 비애

이번 사격대회에는 주한 미 육군의 AH-64D 아파치 공격 헬기도 참가할 예정이었다. 우리 육군도 5년 후엔 AH-64E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기에, 미래 육군항공의 차기 공격 헬기를 선보인다는 명목의 특별 초대였다. 그러나 미 정부의 셋다운으로 인해 참가 전 날 미 본토에서 비행을 중지시켰고, 결국 사격대회에 불참하게 된다. 미 아파치 공격 헬기가 돈이 없어 참가하지 못하는 굴욕을 맛본 것이다. 사격대회 미디어데이 당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기자들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기도 했다. 엄청난 국방비와 경제력을 빚대어 흔히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이날은 그야말로 체면을 구기게 된 셈이다. 

## 육군항공 사격대회에 등장한 헬기들 #3



### 작고 기민한 500MD

마치 불방울과 비슷한 유선형 동체를 가진 500MD 헬기는, 미국의 헬기 제작사인 휴즈사에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을 통해 면허생산을 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최초의 항공기라는 수식어를 가진 500MD 헬기는 지난 1976년부터 약 250여 대가 도입되었다. 500MD 헬기는 무장을 달지 않으면 연력 및 정찰용으로만 사용되며, 무장을 장착하면 공격헬기로 변신한다. 기관총이나 2.75인치 로켓을 장착하면 적의 장갑차나 부대를 공격할 수 있고, 대전차 형으로 제작된 500MD 헬기는 모두 4기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고 적 전차를 잡는다. 1980년대 중반에는 북한이 이 헬기를 밀수입하면서, 결국 남북한이 모두 쓰는 헬기가 되었다. 특히 지난 7월 27일 열린 전승절북한의 정전 기념식 열병식에서 북한의 MD-500 헬기가 편대비행을 벌여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 Party

## MINI UNITED 2013

### MINI의, MINI에 의한, MINI를 위한 파티

MINI 유나이티드 코리아 2013에 모인 2,000명을 만났다.  
이 사람들... 자동차로 대한민국 지도를 만들 생각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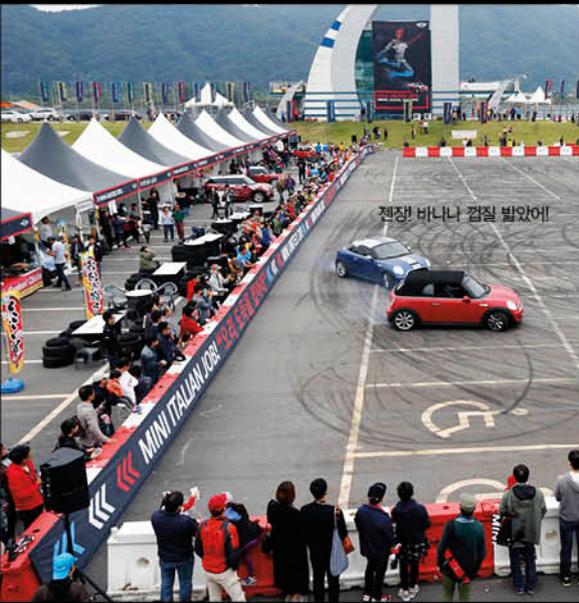
BY 김소윤

딱 데서는  
이렇게  
못 놀아



9월 28일, 한 가닥 하기로 소문난 미니들이 조선 팔도에서 춘천까지 달려와 동창회를 열었다. 지난 여름, 수영장에서 거나한 54번째 생일잔치를 열었던 미니가 이번엔 '우정, 도전, 축제(FRIENDS, CHALLENGE, FESTIVAL)'를 테마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름하여 미니 유나이티드 코리아 2013! 그동안 효도 한 번 못한 에디터는 부모형제에게 좋은 구경 시켜주고자 가족들을 춘천 송암 레포츠타운으로 집합시켰다. 오늘 막내가 쓴다고!





전쟁! 바나나 껍질 밟았어

“야, 레이싱걸은 어딴냐?” 이번 행사를 평범한 모터쇼로 착각한 에디터의 브라더들은 스마트폰에 레이싱걸을 위한 용량까지 따로 마련해 두었다. 이들이 큰 실랑감 내비친 것도 잠시, 그들은 이내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익사이팅한 이벤트들을 체험하느라 그 넓은 레포츠타운 곳곳을 발에 땀 나도록 누비기 시작했다.

명왕성까지 쏘주세요~!



밥이 깊었네?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아침부터 자동차 150대로 대한민국 지도를 만들더니, 사람을 묶어 자동차로 끌어당긴 후 새총처럼 쏘아 올리는가 하면, 빗줄로 미니를 얼마나 많이 고는지를 겨루기도 했다. 낮 노멀, 낮 노멀 그렇게나 외치더니, 그 말을 몸소 증명하듯 하루 중일 유별나고 독특한 이벤트가 넘쳐났다. 비실비실 내리던 비가 저녁부터 제법 거세졌는데도,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남아 '뮤직 페스티벌'을 즐겼다. 타이거 JK&윤미래, DJ KOO, 크라이넛 등 이름만 들어도 아드레날린이 솟음치는 쟁쟁한 뮤지션의 공연을 그깟 비파위가 막을 순 없지! 관객과 무대가 하나가 된 페스티벌은 안개 자욱한 춘천 분지를 범상치 않은 에너지로 가득 채웠다. 🎵

## 미니 뷰티 콘테스트

하이에나처럼 레이싱걸만 찾아 헤매던 에디터 일행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예쁜 미니 BEST 3



### 1 이세민(31), 경남 진해

미니를 좋아하는 이유:  
워튼 남들과는 다르게 하고 싶다. 미니는 그런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차다.  
튜닝 컨셉: 구찌 피아트500  
튜닝에 부은 돈: 약 1,000만 원  
스페셜 아이템: 오리 장식



### 2 전영민(24), 용인

미니를 좋아하는 이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사실 성능도 좋다. 미니가 '예쁘게', '잘' 달리는 모습이 좋다.  
튜닝 컨셉: 미니 중에는 흔치 않은 노란 컬러로 가장 잘 돋보일 수 있게 튜닝했다.  
튜닝에 부은 돈: 자동차 공학 전공생이라 직접 한다. 엔진 튜닝 포함 500~600만 원 정도 들었다.  
스페셜 아이템: 실내까지 재현한 미니 미니



### 3 김태식(42), 서울

미니를 좋아하는 이유:  
직업이 디자이너라서 꾸미는 걸 좋아한다. 미니는 튜닝에 옵션이 많고, 아무리 변화를 줘도 어색하지 않다.  
튜닝 컨셉: 폴 스미스  
튜닝에 부은 돈: 미니 한 대 가격은 될 듯?  
스페셜 아이템: 미니를 표현한 키드로봇

# Party DJ of the Month #6



## DJ CONAN

 디제잉이 너무 재밌어서, 밤새도록 휘기휘끼를 해도 어깨가 안 뭉친다는 천생 디제이 코난을 만났다. BY 손안나

### DJ CONAN

소속: 파티 크루  
DEADEND  
요즘 못한 장르: 뉴 디스코

\*뉴 디스코: 1970~1980  
년대를 풍미한 디스코의 평기한  
그룹을 기반으로, 요즘의 드림  
사운드와 베이스를 가미해 현대적  
구성으로 재탄생한 신생 장르



**→** 반갑다! 당신이 그 유명한 파티 크루 '데드엔드'의 수장이라지?  
한창 음악적으로 외롭던 시절에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제이들이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된 크루다. 지금 멤버들이 내 제안에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응해줬다.  
\*데드엔드: 디제이, 포토그래퍼, 그래픽 디자이너, 브이제이가 모여 만든 파티 크루. 스무드, 앤도우, 코난, 킹맥, 카이파파라치 등 각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멤버가 속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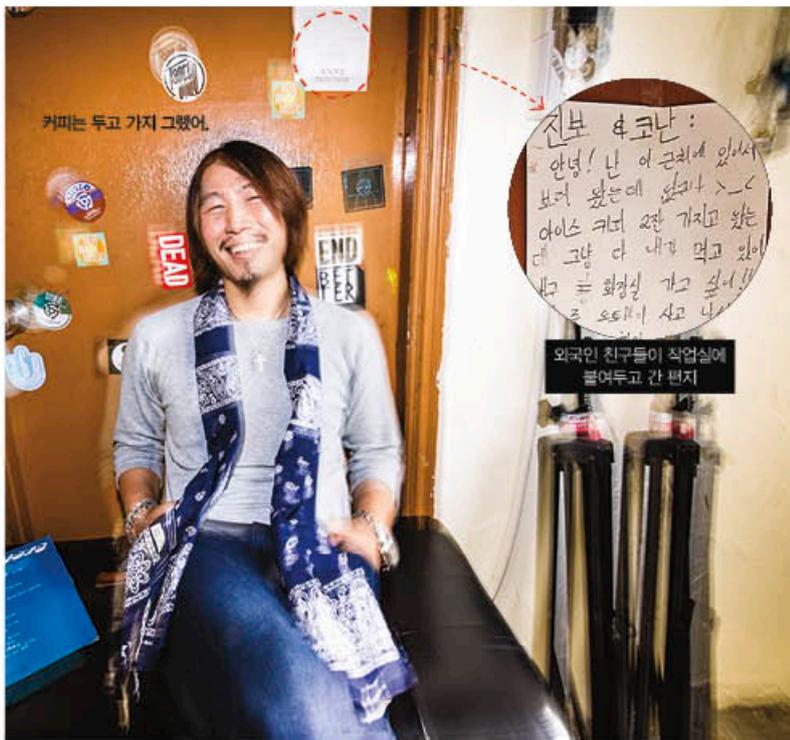
지난달 킹맥이 '데드엔드 공연이 짱'이라고 그랬다. 대체 뭐가 다른 건가?  
관객들 몰입도부터가 다르다. 거의 뭐 종교 단체 수준이제!

디제잉 외에 사업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먹고살 만한 수준인가?  
그렇다. 예전에 '유니온'이라는 라운지와 일본식 술집을 운영했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두 가게를 '유니온' 하나로 합쳤다. 패션 피플, 음악가, 미술가가 많이 찾는다. 점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분위기다. MAXIM 독자들도 한 번 놀러 와라.

취미가 라이딩이라고? 간지 좀 나는데?  
오토바이랑 차를 굉장히 좋아한다. 바이크는 듀카티 몬스터를 타고 있고, 차는 작년에 마음에 쏙 드는 벤츠 SUV를 한 대 뽑아 몰고 다닌다. 심심하면 서울 6번 국도로 라이딩하러 간다. 돌아오는 길에 맛집 들르는 재미가 쏠쏠하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디제이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라고 트위터에 썼던데, 음악은 어쩌다 하게 된 건가?  
놀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클럽 파티를 엄청 다녔다. 그러다 보니 디제이나 래퍼 친구를 많이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친구가 디제이를 배워보라며 1세대 힙합 디제이의 대표 주자 디제이 렉스를 소개해줬다. 신나서 열심히 배우다 보니 놀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

놀면서 돈을 번다니... 부럽군. 주력 장르는 뭔가?  
없다. 다 잘한다는 건 아니고.(웃음) 난 한 장르를 내 것으로 만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여러 장르의 음악에 내 색깔을 묻히고 싶다. 그래서 장르를 안 가리고 모두 플레이하지.



**진보 후코난:**  
안녕! 난 이 콘서트 있어서  
보러 왔는데 알라 > <  
어이스 커먼 관한 거치고 왔는  
데 그냥 다 내가 먹고 있어  
= 화정실 가고 싶어!  
= 스타이 신고 나

외국인 친구들이 작업실에  
붙여두고 간 편지

다행히 사람들은 내가 플레이하는 음악에 나만의  
평기한 색깔이 있다고 말한다.

**디제이로서 능력치를 키우기 위해 꾸준히 하는  
일이 있다면?**

꾸준히 논다. 그게 최고다. 다음 날 스케줄이  
빡빡하지 않으면, 플레이가 끝나고 그 클럽에서  
그냥 논다. 내가 놀 줄 알아야 남도 놀게 만들지!

**명동에서 맨발로 걸어 다닐 정도로 히피였다고  
들었다. 지금껏 해본 일 중 가장 미친 짓은?**  
고등학교 하굣길에 비가 오길래 팬티만 입고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갔다. 비가 너무 시원하고  
촉촉하게 느껴져서 그랬다. 내가 이상한 농민가?

**술도 좋아하나?**

그렇다. 디제이 부스에 올라가서도 마신다.  
예전에 클럽에서 다른 디제이랑 한 곡씩  
주고받는 플레이를 했는데, 술을 너무 마시는  
바람에 공연 중에 테이블 뒤로 넘어가서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귀찮지 않나?

**당신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잘 놀면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을 골고루  
만나게 된다. 요즘엔 '이태원 세계문화축제'  
의 디제이 색션을 기획하다 보니 용산구청  
사람들과 친해졌다.(웃음)

**마지막으로 요즘의 클럽 씬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

클럽 씬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클럽 문화가 들어온 지  
이제 10년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면 빠르게  
발전한 거지. 요즘에는 이태원을 중심으로 로컬  
디제이들이 뭉쳐 기획하는 파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씬이 형성되면 더 발전할  
것 같다. 🍻



알려면서  
노는 법



## 뉴 디스코란 바로 이런 것!

코난이 추천하는 뉴 디스코 3곡



### 1 Breakbot,

#### 'One Out Of Two (Feat. Irfane)

뉴 디스코 씬의 마이클 잭슨으로 불리는  
브레이크봇의 대표곡이다. 사운드가 과하지  
않고 멜로디가 좋아 듣기 쉬운 곡. 세상만사  
X 같을 때 들으면 약한 듯 기분이 좋아진다.



### 2 Daft Punk, 'Get Lucky'

일렉트로닉 뮤직계의 나폴레옹으로 불리는  
다프트펑크와 슈퍼 까뮈이 패럴 워리엄스가  
함께한 곡. 워낙 유명하지만 이 곡의 장르가  
뉴 디스코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1970  
년대와 현재를 기가 막히게 버무려놓았다.



### 3 Betoko,

#### 'Set My Soul On Fire'

위의 두 곡이 카페에 어울린다면, 이 곡은  
클럽에 더 어울린다. 하우스의 구성을  
도입해 몸을 들썩이게 만들고, 드럼의 톤도  
현대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깔끔하고  
강렬하다. 중간중간 앙갚음처럼 쉬인 남성  
보컬의 목소리가 곡을 더 흥미롭게 만든다.



## Who's Next?



**JINBO**

Coming in December

## 클럽 갈 때 뭐 입지? #1. 홍대 클럽 M2

밤이 어둑해질 때 더욱 뜨거워지는 그들! 밤 문화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홍대 클러버에게 한 수 배워 보자. BY 김상수 장혜민

기온은 점점 내려가지만 홍대 클럽 앞 열기는 점점 뜨거워진다. 갓 튀긴 튀김보다 뜨거운 피가 끓는 홍대 클러버들은 어떻게 놀까? 마감 중 편집부 사무실에서 편집장 눈을 피해 탈출을 감행한 에디터들이 그들을 만나고 왔다.

### GIRLS in the Club 클럽녀들에게 물었다.

1. 클럽 필살 아이템
2. 오늘 집에 몇 시에 들어갈 건가?
3. 클럽에서 호감이 가는 남자의 패션



클럽녀 사진 여기에 더 많아



유지원 / 25세 / 학생  
신발 ZARA

1. 밝은 표정
2. 새벽 2시
3. 스키니진에 셔츠



이재영 / 20 / 학생

1. 얼굴
2. 내일
3. 루즈핏 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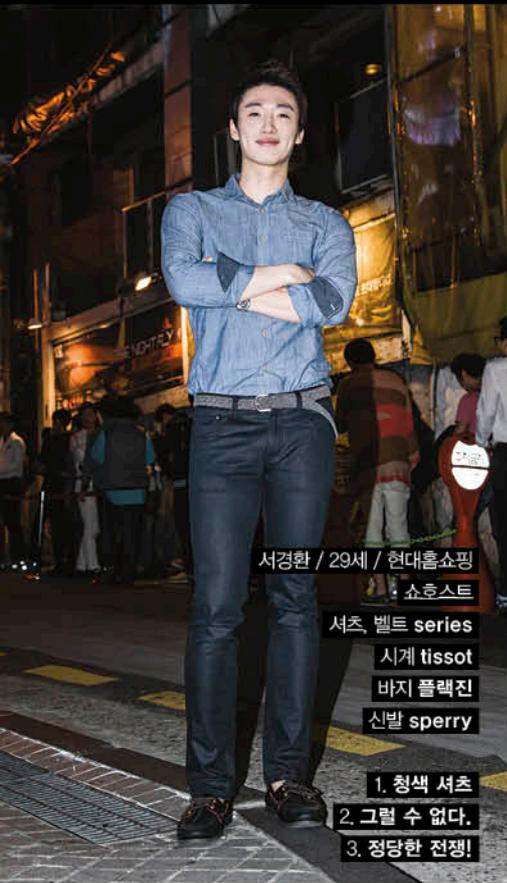
이주현 / 25세 / 병원 코디네이터

1. 목걸이
2. 새벽 4시
3. 올 블랙으로 입은 남자



도주경 / 25세 / 회사원

1. 니트, 춤
2. 새벽 4시
3. 화이트 셔츠를 입은 깔끔한 스타일



서경환 / 29세 / 현대홈쇼핑  
 쇼호스트  
 셔츠 벨트 series  
 시계 tissot  
 바지 블랙진  
 신발 sperry

1. 청색 셔츠
2. 그럴 수 없다.
3. 정당한 전쟁!



김현중 / 21세 / 학생  
 모자 8seconds  
 바지 에이프랄77  
 신발 레드윙

1. 롱 코트
2. 아니
3. 무조건 양보



황영훈 / 22세 / 학생  
 모자 조이리치  
 안경 ALO  
 재킷 셔츠 아파 옷  
 셔츠 코데즈컴바인  
 바지 빈티지  
 신발 오니츠카타이거

1. 자신감
2. 버린다.
3. 무조건 양보

**→ GUYS in the Club**  
 클럽남들에게 물었다.

1. 클럽 필수 아이템
2. 클럽에서 맘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 친구를 버리고 나갈 수 있나?
3. 친구랑 한 여자를 두고 경쟁하게 됐다면?



노국진 / 27세 / 프로젝트 매니저  
 셔츠 타이 맞춤  
 가방 루이비통

1. 장미꽃(오다 주웠다.)
2. 당연히 버린다.
3. 바로 친구를 처낸다.



문승균 / 27세 / 래퍼(triumph)  
 모자 mitchell&ness  
 티셔츠 10deep  
 바지 리바이스  
 신발 나이키 조던

1. 반투명테 안경
2. 당연한 걸 왜 묻나?
3. 능력제

PHOTOGRAPH ON!

# MAXIM BUYER'S EDGE

## 핀란드산 자작나무 수액,

### 노르딕 코이뷰(Nordic Koivu) 출시

청정한 자연으로 유명한 핀란드의 프리미엄 유기농 자작나무 수액 노르딕 코이뷰가 한국에 상륙한다. 자일라를 검의 원료로 유명한 자작나무의 수액은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천연 건강 음료다. 뇌 기능 및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좋고 노인성 치매와 퇴행성 뇌 신경계 질환 예방 효과까지 탁월하다. 또 소화 촉진을 도와 미용과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며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성분을 함유해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휘바, 휘바 마세! 23,000원, 하이트진로음료([www.hitejinrobeverage.com](http://www.hitejinrobeverage.com))



## 새 옷으로 갈아입은

### 임페리얼 17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위스키 임페리얼 17이 모던한 디자인의 새 옷을 입었다. 다이아몬드를 연상시키는 투명한 병은 새로워진 임페리얼 디자인의 핵심이다. 골드 색상의 병목과 브라운 색상 병의 대비는 현대적인 세련미를 극대화했다. 또 그라데이션 디자인으로 부드럽게 숙성된 임페리얼 17의 맛을 표현했다. 정교한 구조의 캡은 위조 방지 기능까지 갖춰졌으며 개봉 후에는 노란색의 밴드가 캡 상단에 노출되어 누구나 쉽게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역시 보기 좋은 맥(?)이 먹기도 좋지! 40,000원 대(450ml), 임페리얼 ([www.facebook.com/Imperialkorea](http://www.facebook.com/Imperial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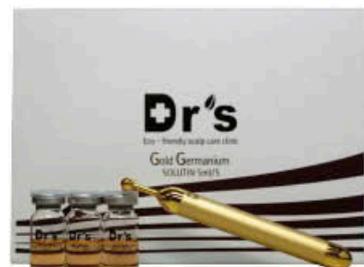


## 한방에 논스톱으로! 남자를 위한 쇼핑몰 HAPPY7

꿀 같은 휴일, 배가 고프는데 죽어도 나가기 싫은가? 둘러막기 식으로 근근이 버텨온 몇 벌 안 되는 가을옷 때문에 내일이 고민되는가? 그렇다면 HAPPY7에 접속하라! HAPPY7은 국내 최초 의류부터 간식 등의 먹거리까지 한자리에 모은 신개념 쇼핑몰. 앉은 자리에서 재킷 고르고 과자도 고르고 생수도 주문할 수 있다. 집밖으로 안 나오는 당신에게 여친이 불만을 토로하면 TORY BURCH 여성백을 주문해서 슬그머니 배송해 보자. 한류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HAPPY7([www.happy7.co.kr](http://www.happy7.co.kr)), 고객센터(070-4800-0778)



아이폰 5C에 딱 맞는 아이커버 아이딘 포르테 키스 해링 케이스 출시  
아이커버 판매량 1위에 등극한 세계적 팝 아티스트 키스 해링 시리즈가 아이폰 5C 출시에 맞춰서 아이딘 포르테 키스 해링 케이스로 찾아온다. 키스 해링의 감각적인 디자인에 교통카드 수납 기능을 갖춘 아이딘 케이스의 장점은 살리고, 실리온 소재를 더해 외부 충격 방지 기능까지 잡았다. 또 카드 수납 공간을 2장으로 늘리고 반투명 무광 2종으로 출시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10월 중순부터 아이커버 스토어에서 예약 판매 중이다. 어서 대기표를 뽑자!  
아이커버 스토어([www.icover.co.kr](http://www.icover.co.kr)), 고객센터 (070-8250-2070)



## 난 집에서 두피 관리 한다! 홈케어 GG 솔루션

가을이 되어 머리카락이 쏙쏙 빠진다면 집중! 탈모 관리센터 (쥬닥터스가 집에서 간편하게 두피와 모발의 성장을 도울 GG 솔루션을 선보였다. 두피와 모발 성장을 돕는 솔루션 앰플과 두피 노화 방지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GG 마스터기로 구성되어 있다. 삼푸로 두피를 깨끗하게 만든 후 솔루션 앰플을 두피에 바르고, 촉촉하게 젖은 두피에 GG 마스터기로 진동 자극을 주면 된다. 한 달, 한 달 소중히 여기자!  
500,000원(솔루션 앰플 5ml/5개입, GG 마스터기), (쥬닥터스(1599-5875, [www.doctors.pe.kr](http://www.doctors.pe.kr)))



### 월드짐 강남점이 준비한 특별한 혜택!

날씨는 추워졌지만 월드짐의 마음은 따뜻하고 훈훈하다. 월드짐 강남점이 11월 한 달 동안 커플들을 위한 월드짐 데이트 코스 이벤트를 준비했다. 건강 체크와 식단 조절 그리고 사우나 이용이 가능한 코스 체험은 물론, 월드짐 회원권을 30%나 할인해주고 소정의 선물도 증정하는 커플 이벤트를 제공한다. 체험 후기를 월드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작성하면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솔로는? 월드짐 강남점에서 직접 찾아보자! 월드짐 강남점(02-2052-0096, [www.asiaworldgym.com](http://www.asiaworldgym.com))



### UFC 웰터급 챔피언 조르주 생 피에르 방어전!

11월 17일 죽음의 체급인 UFC 웰터급의 지배자 조르주 생 피에르가 이혼 번째 방어전에 도전한다. 상대는 놀라운 펀치 파괴력과 강한 멧집을 보유한 전 WEC 웰터급 챔피언 출신의 조니 헨드릭스! 11연승 행진을 하며 8차 방어 성공을 한 조르주 생 피에르가 12연승과 9차 방어에 성공할지, 조니 헨드릭스가 UFC 웰터급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지 기대된다. UFC 167은 11월 17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액션전문채널 수퍼액션을 통해 HD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격투기 팬들 채널 고정! 수퍼액션(080-080-0780)

### 탄력 넘치는 피부! 엠도씨 안티 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

남성 전문 화장품 엠도씨가 주름 개선 기능 화장품 안티 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출시했다. 천연 효모 발효수를 80% 이상 함유한 고통축 에센스로 칙칙하고 쭈글쭈글한 얼굴을 밝고 탄탄한 피부로 만들어준다. 효모에 함유된 비타민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하게 유지한다. 끈적임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흡수되며 번들거림이 없어 게으른 남자들도 손쉽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다. 피부가 미남이면 그래도 중간은 가는 것 알지? 지금 바로 엠도씨 쇼핑몰로 고고생! 35,000원, 엠도씨 쇼핑몰([www.mdockorea.com](http://www.mdockorea.com))



### 남자들의 피부 진정 도우미, DTRT의 SO FINE 스킨 케어!

쉽게 건조해지는 가을이다. 거울에 비친 얼굴의 상태가 예만하고 푸석하다면 남성 전용 스킨케어 브랜드 DTRT의 SO FINE를 사용해보자. 건조한 날씨에 자극받은 피부를 산소 워터로 진정시키고, 소나무 수액 성분을 포함해 트러블을 완화하는 항염 작용을 한다. 또 수분이 풍부한 백년초 열매 추출물이 함유되어 보습 효과도 뛰어나다. 변성 알코올을 무함유 토너라 예민한 피부 소유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저녁 얼굴에 톡톡 두드려보자. 이제 나 빼고 다 오징어야~! 25,000원(140ml), DTRT(1544-7077, [www.dtrtmen.com](http://www.dtrtmen.com))



### 어른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명랑완구, 빅티즈 토이즈(Big Teaze Toys)

어른들을 위한 명랑 완구 전문 브랜드 부르르가 완벽한 은폐와 엄폐가 가능한 섹스 토이를 소개한다. 한 온라인 메신저의 심볼로 유명한 오리 캐릭터와 애벌레, 물고기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녀석들의 정체를 꼭꼭 숨겼다. 이제 그녀와의 특별한 밤에 귀여운 빅티즈 토이로 부르르를 떨어보자. 낮에는 귀여운 요소 속녀였다가 밤에는 요부로 변신하는 요물이다. 귀엽지만 발칙한 빅티즈 토이즈는 부르르 닷컴에서 만날 수 있다. 이 녀석! 유약하지만 발칙한 반전 캐릭터다!

36,800원~49,800원, 부르르닷컴(1661-7725, [www.bururu.com](http://www.bururu.com))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대가 가까워진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러!

###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홈페이지  
전역 인증  
게시판



간헐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세 가지

#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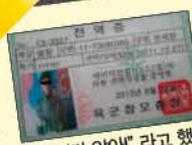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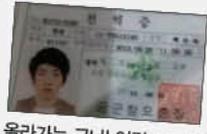
**셋.**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1명에게 멋진  
'ARBUS'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3년 11월 20일까지)

# 전역자랑깸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급 평생 멤버십!



**천세헌** 평생 30%  
내가 집에 갈 때가 다 되니까 너희는 "전역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라고 했었는데. ㅋㅋ 나도 사실 믿기지 않았어. 집에 도착하니가 그제야 실감 나더라. 부대에서 나만큼 사고치는 놈도 거의 없을 텐데 나도 무사히 전역했잖아? 아마 너희도 곧 할 수 있을 거야. GP도 올라가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무사히 전역했으면 좋겠고 밖에서 꼭 봤으면 좋겠다.



**백승욱** 평생 30%  
임대하고 스물다섯 번째 MAXIM에 드디어 내 이야기가 올라가는 구내 이걸 보고 미소 짓고 있을 너희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제 너희를 흑인으로 만들었던 여름도 다 가고 곧 겨울이 오겠구나. 겨울이 오면 하늘에서는 아름답고 새하얀 것이 오겠지.. 형이 꿀 까먹는 동안 그것과 파이팅 남치게 사랑할 너희 모습을 생각만 해도 흐뭇하구나. 불철주야 땀이 차도록! '필승'이다.



**이민재** 평생 30%  
전역하기 전까지는 전역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는데 막상 전역하니가 사람스럽더라. 오래 봤던 너희도 못 보고... 이제 너희도 군 생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고생하고 아무 탈 없이 전역했으면 좋겠다.



**강민형** 평생 30%  
애들이, 전역 느낌 울려 달랬지? 첫 휴가 때 위병소 나서는 느낌보다 100배는 더 좋지만 끝 맛은 굉장히 쓰더라. 니들이 뭘 알겠나. ㅋㅋ 이번 겨울은 빨리 올 것 같다. 공공 언 손 열심히 비벼가면서 치약 하나로 미성질을 할 너희 생각에 내 마음이... 아프기는커녕 빨리 애인이라 놀러 갈래. 스키장 가기 딱 좋잖아! GP가서도 과월호 보다가 한눈팔지 말고 수고해 용사님들^^



**이성영** 평생 30%  
추석에 나오느라 너희 자고 있는데 불 켜서 미안했다. 또 추석 전날 차례 음식 만드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누가 뭐라고 해도 JSA에서 조리만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조금만 더 힘내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최전방에서 밥을 하도록!



**오준혁** 평생 30%  
잘 지내나? 막상 전역하니가 너희랑 쌓았던 추억이 눈앞에 아른거려다 남들보다 길었던 24개월 10일 동안 너희랑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부사교에서 다쳐서 돌아왔을 때 챙겨주던 1월 군번 맞추임! 너희 덕분에 동기가 없어도 힘들지 않게 군 생활 했어. 4월 군번 너희도 친구처럼 지냈었지? 내 생일 잘 챙겨주던 원성아, 생일상 고마웠어. 내가 없어도 울지 말고 잘 지내. 애들이. 먼저 나가서 잘 살고 있을게! 밖에 나오면 꼭 연락해라. 술 한 잔 사줄 여유는 되니까. 너희들 술 한 잔 사주는데 돈이 아깝겠냐? 시간이 아깝겠냐? 남은 군 생활 열심히 하고 전화 좀 해. ㅋㅋ 목소리 듣고 싶다 애들애 22사단 56연대 수색중대 파이팅이다!



**이정빈** 평생 30%  
안녕, 친구들! 드디어 나도 전역을 인증하는 날이 왔다. 다들 가기 싫어하고 욕만 하는 군대지만 군 생활은 명예로운 일이니 조금만 더 힘내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다치지 말고 모두 건강하게 전역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일뚝 박아라.



**허명관** 평생 30%  
이것들이, 땀이 치고 있었구나. 유격 간디며? 얼마 전에 과장님이 전화하셨다. 형은 밖에서 너무 행복하다. 여자도 같은 공간에서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너희는 그저 불행하겠지. 형이 MAXIM 과월호 싸 줄 테니 열심히 보거라. 군수와 기름쟁이, 창고쟁이, 탄들이, 총쟁이, 밥쟁이들애 사랑해! 면회 갈게. 맛스타 들고 기다려라.



**이정현** 평생 30%  
매일 함께 있던 너희가 없으니까 심심하고 허전하지만... 그래도 심심하고 허전한 게 낫다! ㅋㅋ 다 같이 모여서 회포 풀기 전에 MAXIM 보면서 위안 삼고, 빨리 나와.



**이석민** 평생 30%  
에휴.. 전역한 지도 딱 한 달이 지났다. 일주일 지나니까 내가 군대를 정말 갔다 왔는지도 의문이다라고 ㅋㅋ 전역할 때 우리 생활관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심 걱정했는데 잘 처리됐다는 말을 들어서 다행이다.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 실세했구나. 너희가 착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눈에 훤히 다. ㅋㅋ 병원 부대라서 환자 상대하고 응급 터지면 힘든데, 조금만 더 고생해라! 곧 다들 전역할 수 있을 테니! 나와서 연락해라. 술 한 잔 사줄게! ㅋㅋ



**이한섭** 평생 30%  
안녕하십니까? 나의 형, 동생, 친구들!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난 너희가 짬밥 먹는 만큼 치킨을 먹고 살고 있어. 너희가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치킨을! 부럽지? 부러우면 전역부터 해라. 사랑했던 후미 녀석들이. ㅋㅋ



**최인구** 평생 30%  
애들이, 항상 부대에서 MAXIM 보던 게 생각난다. 너희가 MAXIM 보고 있으면 항상 뱀처럼 보곤 했는데... 아무튼 부대에서 보던 MAXIM에 나도 이렇게 당당히 사진을 올린다. ㅋㅋ 부럽지? 부러우면 빨리 나와, 술 사줄 테니까. ㅋㅋ

위 12명을 더해 총 285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정기구독 평생 30% VIP가 되었다.

# Unpicked

## 이달의 몸쓸 사진

우리는 왜 이 사진을 쓰지 못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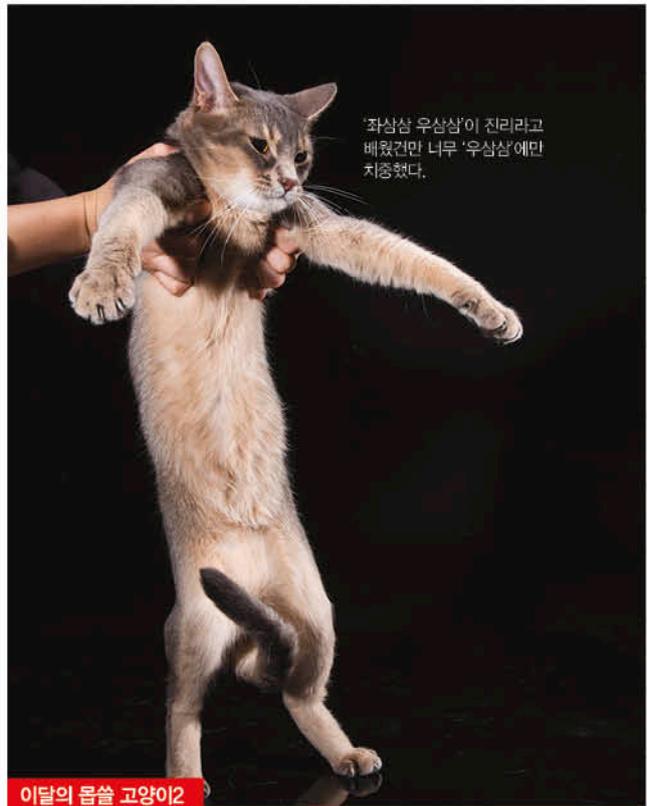


이달의 몸쓸 고양이1



MAXIM REPORT 인형 탈 알바(p.108)

못 쓴 이유 금연 구역에서 담배 껐다고 신고 당해 과태료 물까 봐.



이달의 몸쓸 고양이2



STUFF 마우스(p.82)

못 쓴 이유 고양이 꼬리가 웬지 아해서, 저거 꼬리니까 오해하지 말자.



이달의 도둑놈



STUFF 그거 왜 샀어?(p.90)

못 쓴 이유 김세형 에디터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려는 김상수 에디터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달의 숙면자



표지 모델 스피카 화보(p.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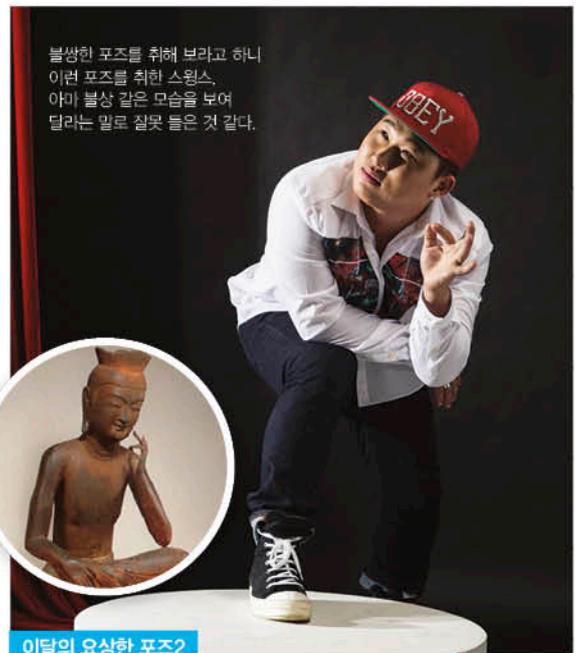
못 쓴 이유 자는 여자 도촬한 것 같아서. 하지만 예뻐서 너무 아깝다!



이달의 요상한 포즈1

**MOTOR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p.64)**

**못 쓴 이유** 포즈를 취하는 건지, 일으켜달라고 손을 뻗은 건지 아직도 그녀의 맘을 모르겠다. 저 손! 저 손을 내가 잡아줬어야 했는데!



이달의 요상한 포즈2

**MUSIC 스윙스 인터뷰(p.134)**

**못 쓴 이유** 포즈를 보고 있자니 반야심경을 달달 외워야 할 것 같아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이달의 자살 실패1

**PARTY CLUB DJ 릴레이 인터뷰 DJ 코난(p.166)**

**못 쓴 이유**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시선을 얼굴에 집중시키면 흥건히 젖은 거드랑이를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서.



하...한 데만 맞을 게요.

이달의 요상한 포즈3

**WHO'S THAT GIRL? V결 한규리 화보(p.126)**

**못 쓴 이유** 자유 포즈를 취해보라고 했더니 학창시절 때 맞던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달의 자살 실패2

**CM 24 HOURS TO LIVE 송호준(p.26)**

**못 쓴 이유** 표정이 정말 죽으려는 사람처럼 결연해 보여서.

# Fortune Telling

## 타로 카드로 보는 바람의 왕도!

플레이보이를 꿈꾸는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 카사노바 뺨치는 바람둥이의 길 역시 ‘나’ 자신을 아는 순간 열린다. 이번 달 당신은 화려한 플레이보이로 거듭날 수 있을까?

BY 타로마스터 정희도(www.tacaso.net)

6장의 카드 중 현재 당신의 심리 상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카드 한 점을 고르시오.



숨겨진 그 비밀의 조합



### 타로마스터 정희도

- 전 마이더스 학원 운영
- SBS 공채 10기 개그맨 활동
- YBM, 파코다 타로 취업 특강 강사
- 타카스(타로 카드 소울 메이트) 운영



### ◆ 타로 풀이 보기 ◆

#### CARD 1 황제형

카드 속 황제는 완고하고 권위적이며 소신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다. 이 유형은 보통 한 여자를 구속하며 본인도 바람을 피우지 않지만, 작정하면 청나라 황제처럼 당당하게 후궁을 들인다. 이 카드를 택한 당신에게 여자를 끔찍 못하게 하는 권자가 있다.  
**TIP :** 몰래 바람을 피워도 변함없이 잘해주는 여자 친구. 하지만 그녀가 과연 아무것도 모를까? 조만간 당신 주변에서 ‘여인 천하’의 피바람이 불지도 모르니 조심해서 움직이는 편이 좋을 거다.

#### CARD 4 절제형

천사의 한쪽 발은 ‘이상’을 뜻하는 땅에, 다른 한 발은 ‘감성’을 뜻하는 물에 담겨 있다. 물을 이 컵 저 컵에 옮겨 담으며 눈을 감고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존나 재고 있다. 당신, 너무 신중하다 못해 간만 보고 있진 않나?  
**TIP :** 바람을 피우자니 여친한테 걸릴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2% 부족한가? 다 잡고 분처한테 물뿜하길 바란다. 어차피 당신 어장 속 그 여자도 간만 몇 달째 보는 당신에게 이미 시름해졌을 거다.

#### CARD 2 마술사형

육봉 모양의 마법 지팡이만 봐도 이 친구가 얼마나 과짜에 재치 넘치는 남자인지 알겠지? 언변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한 마술사형 남자는 전형적인 바람둥이다. 말이 많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주변에 여자가 넘쳐나고, 딱히 그녀들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  
**TIP :** “인생은 부메랑,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알지? 이 카드를 고른 당신 주변의 여자도 알고 보면 매직 스틱을 두 개 이상 흔들어대는 마법사일지 모르니, 잘 알아보고 들이달 것!

#### CARD 5 바보형

원손에 하얀 장미를 쥔 소년이 어디론가 떠나려 한다.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 바보 놈은 눈을 감고 있다. 이 소년은 백장미처럼 순수하지만, 무모하고 바보 같다. 이 카드를 택한 당신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애처럼 일단 입에 넣고 보는 타입.  
**TIP :** 꼬리가 길든 안 길든 무모하면 잡히게 돼 있다. 무턱대고 일단 지르고 보는 당신은 아마 완전범죄란 게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걸렸다면 일단 씩씩 빌어라. 몇 번 해봤잖아?

#### CARD 3 순교자형

서커스 단원처럼 거꾸로 매달린 사내의 머리 뒤로 후광이 비친다. 자신의 가치관과 소신 때문에 고수형 당하는 상황이라 그렇다. 이걸 선택한 당신은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 순교자형은 한 여자에게 올인하는 해바라기형 연애를 주로 하기 때문이다.  
**TIP :** 근데 가랑이가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적극적인 게 가을 타는 것 같다고? 순교자형 남자가 바람을 피울 땐 옛 애인에 대한 미련 때문일 확률이 높다. 혹시 떠오르는 옛 여자가 있나?

#### CARD 6 저울형

재판관이 칼과 저울을 단호한 표정으로 들고 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그는 칼처럼 날카롭고 저울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다. 이 카드를 고른 당신은 철두철미해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고 오차범위를 줄여서 완전범죄에 도전한다.  
**TIP :** 아마 당신은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우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겠지. 요즘은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나? 근데 이것 하나만 기억해, 모든 문제는 확신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SUPER  
ACTION**



**UFC**<sup>®</sup> 167

웰터급 세계 챔피언전

**생 피에르 vs 헨드릭스**

11월 17일 (일) 오전 11시 30분  
수퍼액션 독점 생중계

**2013.11.1.**

**FRIDAY**

**PM 09:30 OPEN**

**@ CLUB EDEN**



할로윈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NO MINOR ALLOWANCE:**  
애들은 엄마젖이나 더 먹고 와!

**MORE INFORMATION:**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f : [editors.maxim](https://www.facebook.com/editors.maxim)  
[WWW.EDEN-CLUB.CO.KR](http://WWW.EDEN-CLUB.CO.KR)

**VIP RESERVATION**  
02-6447-0042  
010-9970-1869

**DRESS CODE**  
SEMI-HALLOWEEN COSTUMES RECOMMENDED (PRIZES FOR THE BEST COSTUME)

**LINE UP**  
ZIRO / AYA / E-YOU  
HYLA / JUNCOCO / FFAN  
BOOMERANG(DJs)  
DIZI / SONA(VJs)

MISS MAXIM in the PARTY

**the MAXIM HALLOWEEN Party**

**zippo® NIGHT**

# MAXIM

KOREA

## ICON

MAXIM KOREA EXCLUSIVE!

### 메타 월드 피스

(METTA WORLD PEACE)

관중 폭행, 선수 구타, 중계 카메라 파괴, 농평이에 음주 경기까지 '론 아테스트'는 악동보단 기인에 가까웠다. 오죽하면 사고 그만 치자며 '자비 세계 평화'로 개명했을까. 11월 NBA 개막을 앞둔 그가 과연 개과천선 했는지 MAXIM 한국판 독점으로 편집장이 그를 만나고 왔다.



### Maya Ford

덤으로 그의 여친 란제리 화보  
(자비로운 건 확실해)

### Ultimate Midnight Skills

- 만지기  
초면에 만리장성 쌓는 작업녀 터치법  
허준도 놀라! 그녀가 중독되는 마사지 비법
- 맥이기  
술술 넘어가다 확 자빠지는 작업주  
편의점 주전부리로 걸출한 안주 만들기
- 훌리기  
요즘 흥대에서 먹어주는 클럽룩 8  
프로그 알려주는 눈이 즐거운 대표 폭탄주

### Very Serious

진짜로 위성 쓰는 법  
진짜로 많이 먹는 법

NOVEMBER 2013



### Military

대한민국 육군 최고  
헬기 조종사는 누구?

아이유,  
병문안 스캔들  
그 후 1년

호주 최고의 미녀 DJ의  
남성지 첫 경험

### 하바나 브라운

세계 최초로  
개인 인공위성을 발사한 남자  
(2억 우주로 날린 기분이 어때?)

### 송호준

〈화성인 바이러스〉 2대 V결

### 한규리

가. 가슴이...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